

제주학연구센터 개소 3주년 기념 세미나

제주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표기법 해설

- 일 시 : 2014년 8월 12일(화) 10:00~18:00
- 장 소 :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
-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프로그램

개회식		사회 오승훈 (제주학연구센터)
10:00 ~ 10:20	등 록	
10:20 ~ 10:40	개 회 사	공영민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축 사	안창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1 부	제주어 표기법 해설	좌장 오창명 (언어와문자연구소)
10:40 ~ 11:10	발표 1. 제주어 표기법 해설(안)	문순덕(제주학연구센터)
11:10 ~ 11:30	질의 응답	
11:40 ~ 12:20	발표 2. 제주어와 제주방언, 이름의 정치언어학	조태린(대구대학교)
12:20 ~ 12:40	자유 토론	
12:40 ~ 14:00	점 심	
2 부	제주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	좌장 이기석 (제주대학교)
14:00 ~ 15:00	발표 1. 제주방언 총론	고동호(전북대학교)
	발표 2. 제주방언 음운론	정승철(서울대학교)
	발표 3. 제주방언 형태론 1	송상조(제주어보전육성위원)
	발표 4. 제주방언 형태론 2	고영진(일본 도시샤대학교)
15:00 ~ 15:30	휴 식 / 양정원 초청 공연	
15:30 ~ 16:20	발표 5. 제주방언 통사론	김지홍(경상대학교)
	발표 6. 제주방언 어휘론	오창명(언어와문자연구소)
	발표 7. 제주방언 화용론 / 제주방언 정책	문순덕(제주학연구센터)
16:20 ~ 16:30	휴 식	
3 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좌장 이기석 (제주대학교)
16:30 ~ 18:00	이기갑(목포대학교) 우창현(대구대학교) 김원보(제주대학교) 양창용(제주대학교) 오승훈(제주학연구센터)	
18:00	폐회 및 만찬	

목 차

☐ 개회사 · 공영민(제주발전연구원 원장)	6
☐ 축 사 · 안창남(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8

1부 · 제주어 표기법 해설

○ 제주어 표기법 해설(안)	문 순 덕 · 11
○ 제주어와 제주방언 이름의 정치언어학	조 태 린 · 37

2부 · 제주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

○ 제주방언 연구 총론	고 동 호 · 55
○ 제주방언의 음운론 연구사	정 승 철 · 73
○ 제주방언 형태론의 연구 현황과 과제	송 상 조 · 93
○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 연구에 대한 개괄적 검토	고 영 진 · 147
○ 제주 방언 통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김 지 홍 · 149
○ 제주방언의 어휘의미론	오 창 명 · 217
○ 제주방언 화용론 연구의 현황과 과제	문 순 덕 · 235
○ 제주방언 정책 연구 현황과 과제	문 순 덕 · 243

3부 · 지정토론

○ “제주방언의 음운론 연구”에 대한 토론	김 원 보 · 257
○ “제주방언 형태론에 대한 토론	우 창 현 · 259
○ ‘제주 방언 통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이 기 갑 · 260
○ ‘제주방언의 어휘의미론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오 승 훈 · 263
○ ‘제주방언 화용론 연구의 현황과 과제’토론문	양 창 용 · 266
○ “제주방언 정책 연구 현황과 과제” 토론문	김 원 보 · 268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공영민입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멀리 일본과 육지에서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응집하고 향후 제주발전의 토대로 삼기 위하여 제주발전연구원 부설로 <제주학연구센터>를 설치하였고, 제주학 연구센터는 제주학을 연구·지원하는 기관으로 2011년 8월에 개소하여, 올해로 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지난 3년간 지역학 연구자,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 제주도민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제주학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지역학 연구의 흐름을 공유하고, 전국에 있는 지역학 연구기관 간에 교류를 통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주어의 진흥을 위해 ‘책자 발간, 실태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제주어를 기록할 수 있는 ‘제주어 표기법’을 제정함으로써, 향후 제주어 기록화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특별히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된 제주어의 실태를 점검해 보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발표와 토론에 응해주신 여러 교수님께 다시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과 한국, 제주도의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아시아 학술 세미나나 다름없다고 보며, 그만큼 제주어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2부 주제들은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다루어 보지 못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외국인 학자가 1913년 제주어 연구를 시작한 이래 올해로 100년이 되므로, 제주어 연구의 근현대 100년을 점검해 보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혼용되고 있는 제주어의 명칭과 제주어의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어휘론 등이 발표되고 토론될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제주어 전반에 대한 좋은 대안들이 제시되길 바랍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전문가는 제주어 연구에, 도민들은 제주어 상용화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발표자든 청중이든 모두 한마음으로 제주어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제주어가 제대로 보존될 수 있을지 좋은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제주학연구센터가 제주학의 진흥을 위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무한한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12일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공 영 민

축 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창남 위원장입니다.

먼저 제주학연구센터가 제주학 연구기관으로 태동한 지 3주년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역학의 특수성을 역사의 보편성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시는 공영민 제주발전연구원장님, 문순덕 제주학연구센터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제주어에 대해 그 언어학적 가치를 드러내주고, 사라질 위기의 제주어 표기법을 정리하여 주신 여러 관계 전문가 선생님들께도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유네스코에서 소멸위기의 언어로 분류한 제주어는 경기지역 중심의 언어가 보편화되면서 세대 간 전승이 더욱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훈민정음’ 창제 당시 쓰이던 어휘와 표기들이 제주어에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만 점차 단순화·정열화되면서 그 쓰임새를 잃어버리고 그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주어 표기법이 완성되어 지난 6월 제도화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가치와 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도 제주어 보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축적하여, 그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보여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주학연구센터가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당당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안 창 남

제주어 표기법 해설

◎ 제주어 표기법 해설(안)

문 순 덕 (제주학연구센터장)

◎ 제주어와 제주방언, 이름의 정치언어학

조 태 린 (대구대학교 국제한국어교육과)

제주어 표기법 해설(안)

문 순 덕 (제주학연구센터장)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4-115호(2014. 07. 18.)

제1장 총 칙

『제주어 표기법』 전체를 포괄하는 규칙은 제1장 총칙이라 하여, 5개 항을 마련했다. 이것은 제주어 표기법에 대한 큰 열개를 나타낸 것이다.

제1항 목적

제주어 표기법(이하 ‘이 표기법’)의 목적은 한글 맞춤법의 취지를 따라 제주 사람들이 쓰는 말의 표기 방법을 정하는 데 있다.

『제주어 표기법』 제1장 제1항은 제주어 표기법 제정의 목적을 담은 것이다.

이 표기법을 제정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용어를 확정해야 했고, 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했다. 곧 ‘무엇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주 방언’으로 할 것인지, ‘제주도 방언’으로 할 것인지? 또는 ‘제죽말’이나 ‘제주말’로 할 것인지, ‘제주어’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것을 표기하는 방법을 ‘표기법’이라 할 것인지, ‘맞춤법’이라 할 것인지, ‘표기 지침’이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했다.

이 표기법의 초안을 마련하는 데 참여했던 연구자들 대부분은 ‘제주 방언’이나 ‘제주도 방언’이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동의했으나, 일부는 2007년 9월 27

일에 제정된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에서와 같이 ‘제주어’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제주 방언(또는 제주도 방언)’이라는 용어와 ‘제주어’라는 용어 사이에서 설왕설래하다가, 그 점점에 놓일 만한 용어인 ‘제줏말(또는 제주말)’을 쓰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여러 논의 끝에 ‘제줏말’을 쓰자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에 ‘제주어’로 명시되어 있는데다가, ‘제주어 보전 육성위원회’에 부의한 결과, 조례에 명시된 용어를 따르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그래서 결국 ‘제주어’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다.

다음에는 이 ‘제주어’를 쓰는 방법을 뭐라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 ‘맞춤법’이라는 용어는 한 언어를 표기하는 규칙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 국어의 방언인 ‘제주어’라는 표현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려 ‘제주 방언’ 또는 ‘제줏말’을 쓰자고 했으니, 이것을 쓰는 규정에 대한 용어도 ‘표기 지침’이라는 말이 적절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이 논의에 참여했던 연구자들 대부분은 ‘제줏말 표기 지침’이라 하자는데 합의를 했으나, ‘제주어 보전 육성위원회’에 부의한 결과,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의 용어와 같이 ‘제주어’를 쓰고, ‘표기법’이라는 용어를 쓰자고 해서 ‘제주어 표기법’이라고 결정했다.

‘제줏말’이든 ‘제주어’이든 용어를 정했으면 그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제주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 하고, ‘제주 사람’에 대한 엄격한 정의와 범위는 문제가 생겨날 때마다 그 정의와 범위를 더 명확히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제줏말도 국어의 하위 방언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는 『한글 맞춤법』(문교부 고시 제88-1호, 1988. 01. 19.)의 범위를 크게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 ‘한글 맞춤법의 취지를 따라’라는 문구를 넣기로 했다. 한글 맞춤법의 취지를 따른다는 것은 글자인 ‘한글’로,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뜻을 따른다는 뜻이다.

제2항 원리 및 방법

1. 이 표기법은 형태소의 본디 꼴(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와 바뀐 꼴(변이형)을 적는 경우를 구별한다.
2. 표기가 이미 굳어진 것은 그대로 허용한다.

제2항에서는 제춧말로 인정하여 선택한 말은 발음대로 충실히 적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발음대로 적었다고 하더라도 어법에 맞지 않고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특히 어법에 맞게 쓴다는 것은 독서의 능률과 이해의 편의와도 관련된 것으로, 현행 『한글 맞춤법』의 핵심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한글 맞춤법』과 같이 맞추어 쓰는 대상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형태는 본디 꼴(원형)을 밝혀 적도록 하고, 일부 형태는 바뀐 꼴(변이형)을 밝혀 적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원형이 밝혀지지 않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고 하고, 표기가 이미 굳어진 것은 그대로 쓰도록 했다.

이 표기법에서는 ‘원형(原形)’을 ‘본디 꼴’이라는 용어로 쓰고, ‘본디 꼴(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했다. ‘본디 꼴(원형)’은 달리 ‘기본형(basic form)’이라고도 부른다. ‘본디 꼴’은 형태가 하나라는 뜻에서 쓰고, 바뀐 꼴은 형태가 두 개 이상이라는 뜻에서 썼다.

일부 형태를 본디 꼴로 밝혀 적도록 하는 것은 ‘밥[飯]’이라는 명사가 뒤에 붙는 조사에 따라 소리가 변하더라도 본디 꼴로 밝혀 적도록 한다는 것이다. ‘밥+이, 밥+을, 밥+도, 밥+만’ 등과 같이 여러 조사가 붙어서 실현될 때, ‘밥+이’는 실제 소리가 [바비]로, ‘밥+을’은 실제 소리가 [바블>바불]로, ‘밥+도’는 실제 소리가 [밥또]로, ‘밥+만’은 실제 소리가 [밤만]으로 소리가 난다. 이들을 소리대로 적도록 하면 ‘밥[飯]’을 ‘밥’으로도 써야 하고, ‘밤’으로도 써야 하고, ‘바비’로도 써야 해서, 읽는 사람이 그 뜻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본디 꼴 ‘밥’ 하나로 밝혀 적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어간에 어미가 덧붙을 때도 가능하면 본디 꼴을 밝혀 적도록 했다. 가령 ‘먹-[食]’에 어미 ‘-영(-어서), -고정/구정(-고자)’이 붙었을 때 각각 다음과 같이 실현된다.

먹-[食]+-엥 → [머경]

먹-[食]+-고정/구정 → [머꼬정/먹꼬정]/[머꾸정/먹꾸정]

이상과 같이 실현되더라도 본디 꼴을 밝혀 적어서 ‘먹엥’과 ‘먹고정/먹구정’과 같이 적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형태를 다 본디 꼴을 밝혀 적는 것은 아니다. 불규칙용언의 경우는 어간의 본디 꼴만 밝혀 적도록 하면 현실 발음과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바뀐 꼴로 적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춥다[寒·冷]’에 대응하는 제춣말은 ‘얼다’로 실현된다. 일부 자음 어미를 만나면 [얼고], [얼지], [얼게] 등으로 실현되어서, ‘얼고, 얼지, 얼게’ 등으로 적는 데 문제가 없다. 또한 모음 어미 ‘-엥, -언’ 등을 만나면 [어렁], [어런] 등으로 실현되어서, ‘얼엥, 얼언’ 등으로 적는 데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얼-’이 ‘-니’(또는 ‘-으니’)를 만나면 [어니]로 실현되어서 ‘*얼니’로 쓰면 현실 발음과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바뀐 꼴 ‘어니’로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말하다’의 뜻을 가진 ‘굴-’도 모음을 첫소리로 가진 ‘-앙, -으라’ 등과 같은 어미를 만나면 실제 소리는 각각 [ㄱ랑], [ㄱ르라] 등으로 실현되지만, 각각 ‘굴앙, 굴으라’ 등으로 쓰게 하는 것이 뜻을 파악하는 데 훨씬 효율적이다. ‘말하다’에 대응하는 제춣말 ‘굴-’은 본디 꼴로 적어야 효율적이고, ‘굴-’은 바뀐 꼴로 적어야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굴-’은 ‘ㄱ’을 불규칙하게 활용하는 동사이기 때문이다.

한편 발음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본디 꼴을 밝혀 적지 않는 것들이 있다. 중세국어에서 ‘깃쁘다=기쁘다>깃부다[喜]’, ‘깃거흐다=기꺼흐다[歡·喜·欣]’에 대응하는 현대 표준어는 ‘기쁘다’와 ‘기뻐하다’로 실현되는데, 이들은 본디 꼴을 밝혀 적지 않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제춣말은 ‘지쁘다’와 ‘지꺼지다’, ‘지꺼흐다’가 있다. 이 ‘지쁘-’는 중세국어 ‘깃브-=기쁘-’에 대응하는 변음이고, ‘지꺼’는 중세국어 ‘깃거’에 대응하는 변음이다. 곧 ‘지쁘-’는 ‘깁-’이 구개음화한 변음 ‘깁-’에 접사 -브-가 붙은 것이고, ‘지꺼’는 ‘깁-’이 구개음화한 변음 ‘깁-’이 어미 ‘-어’와 결합한 것이다.

그러나 ‘지쁘-’와 ‘지꺼’는 일반적으로 파생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곧 이런 역사적인 정보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소리대로 바뀐 꼴을 적도록 한 것이다.

‘웃다[笑]’의 경우, ‘웃었저’, ‘웃어라’, ‘웃지 말라’ 등과 같이 자음 어미가 붙든 모음 어미가 붙든 본디 꼴 ‘웃-’으로 쓰는 데 문제가 없을 듯하다. 곧 ‘웃-’은 ‘ㅅ’ 탈

락을 하지 않는 규칙 용언이다.

그러나 표준어 ‘우습다’는 중세국어에서 ‘웃보다(웃-+-보-)’로 실현되었는데, 현대국어에서는 소리대로 적은 ‘우습다’만 표준어로 정해 쓰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제주말도 [우습다]로 실현되고 있어서 대부분 ‘우습다’로 쓰고 있다. 이를 ‘웃습다’와 같이 형태를 밝혀 적기는 어려울 듯하다.

현행 『한글 맞춤법』에서는 불규칙 활용을 받음 중심의 표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활용형에서나 본디 꼴(원형)이 유지되어 표기되는 용언은 규칙 용언이 되고, 활용형에 따라 바뀐 꼴을 표기에 그대로 반영하는 용언은 불규칙 용언이 된다. 그러나 ‘우습다’의 ‘웃-’은 예외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제주어 표기법」 제2항의 2 “표기가 이미 굳어진 것은 그대로 허용한다.”는 규정을 적용해서 써야 할 수밖에 없다.

한편 요즘 학계에서는 생성음운론을 널리 받아들여 불규칙 용언의 경우, 기저형을 둘 이상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불규칙 활용은 학교문법과 같이 전통적인 관점을 취할 때만 인정될 수 있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관습적으로 또는 관용적으로 이미 굳어진 것도 그대로 허용해서 적도록 했다. 표준어 ‘샘[泉]’에 대응하는 제주말은 [semi/세미]로 실현되기 때문에 ‘세미’로 적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semi/세미]를 [saemi/새미]로 인식하여 ‘새미’로 쓰는 경우도 있다. 소리대로 적도록 하는 규정에 따르면 ‘세미’로 적어야 하지만, 굳어진 것인 양 ‘새미’로 쓰면 그것도 인정해서 쓰도록 했다.

제주말에서 이런 것은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에’와 ‘애’의 말소리를 제대로 구분해서 발음한다든가, 제대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적다. 그래서 쓰는 사람에 따라서 ‘새미’로 써 버리기도 하고 ‘세미’로 써 버리기도 한다.

표준어 ‘호미’에 대응하는 제주말은 ‘굴갱이, 굴개, 굴개기’ 등으로 실현되는데, ‘에’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ㅈ’로 써서 ‘굴갱이, 굴개, 굴개기’ 등으로 써 왔다면 그것도 인정해서 쓴다는 뜻이다.

표준어 ‘할아버지(할아버지의 낮춤말)’에 대응하는 제주말 ‘하르방’은 분석하지 않고 하나의 꼴로 인식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굳어진 표기로 보고 그대로 쓰게 한 것도 같은 이치이다.

제3항 범위

이 표기법에서는 통합성과 포괄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제주어를 적는다.

제3항 범위 규정은 제춧말 표기에서 통합성과 포괄성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통합성’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 사람의 논의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써 온 제춧말 표기 방법을 통합하여 하나로 기능하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고, ‘포괄성’이라는 것은 여러 범위에 걸쳐 있거나 한계를 벗어나 있는 것을 아울러서 반영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통합성’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이 표기법을 적용하는 대상이 특정한 지역 또는 특정한 계층에 치우치지 않고 모두 아우른다는 뜻이다. 곧 사회적인 변이체와 지역적인 변이체를 모두 인정해서 쓴다는 것이다.

표준어 ‘매미(매미과의 곤충)’에 대응하는 제춧말은 지역에 따라 ‘재열, 재, 자리, 켈, 잘’ 등으로 실현된다. 그렇다면 이들 모두를 제춧말로 인정해서 쓴다는 것이다.

표준어 ‘호미(김을 매거나 감자나 고구마 따위를 썰 때 쓰는 쇠로 만든 농기구)’에 대응하는 제춧말은 ‘굴쟁이, 굴게, 굴게기, 굴각지’ 등 지역에 따라,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실현되고 있는데, 이들 모두를 제춧말로 인정해서 쓴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국어의 표준어와 같이, 대표 제춧말을 따로 정하거나 설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표준어 ‘낫(곡식, 나무, 풀 따위를 베는 데 쓰는 농기구)’에 대응하는 제춧말이 지역에 따라 ‘호미’ 또는 ‘낫’, ‘장낫’ 등으로 실현된다면 이 모두를 인정해서 쓴다는 것이다. 곧 제춧말이 지역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달라졌으면, 그 달라진 것들을 모두 인정하여 적는다는 뜻이다.

이런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더 있을 수 있다.(이하 예문에서, 쌍점 왼쪽은 표준어, 오른쪽은 제춧말이다.)

쥐[鼠] : 중이, 쟁이

게[蟹] : 쟁이, 갱이

문어(文魚) : 물꾸럭, 문게

모자반[海藻] : 몐, 몐망

청미래덩굴(백합과의 낙엽 활엽 덩굴성 관목) : 멩게낭, 벨레기낭, 멜레기낭

쫄레(쫄레나무) : 독고리낭, 똥꼬리낭, 동고리낭, 질리

또한 제줏말의 고유어와 한자어만을 표기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차용어 또는 외래어도 표기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을 담은 것이 이 항목이다.

처음에는 「표준어 규정」과 같이 고유어와 한자어만을 대상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규정만을 넣었다가, ‘가라몰·가레몰, 녹데’ 등과 같은 차용어를 고려하여 넓은 의미의 규정을 넣기로 한 것이다. 몇 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몽고어 차용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라말(가라마) : 가레·가레몰	<몽> qara]+몰
절따말(절따마) : 적다·적데·적다몰·적데몰	<몽> je’erde]+몰
뱃대끈 : 오랑·오랑	<몽> oiang(肚帶)
깁거리 : 고들개	<몽> qudurqa
깁거리끈 : 고들개친	<몽> qudurqa+친
깁거리막대 : 고들갯낭	<몽> qudurqa+낭

만주어 차용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사돈(查頓) : 사돈	<만> sadun
쿠리매(옛말: 쿠리매) : 두루막·두루마기·후리매	<만> 쿠리매

일본어 차용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밀감(蜜柑) : 미깡	<일> 蜜柑[ミカン]
양말(洋襪)/일본식 버선 : 대비	<일> 足袋[たび]

일본어식 영어 차용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깡통 : ← 영. can+통(筒)
도라무깡 : ← 영. drum+통(桶)
공그리·공구리 : ← 일. konkurīto ←영. concrete

‘포괄성’이라는 말은 특정한 어형(語形)만 옳다고 하지 말자는 뜻을 담고 있다. 어느 것은 옳고, 어느 것은 그르다고 하지 말자는 것이다.

가령 “어무니, 어디 감수과?(어머니, 어디 가세요?)”라고 물었을 때, “봣디 값저.(발에 간다. 발에 가고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가정하자.

이 문장에서 ‘어무니’는 ‘어머니’라고 실현된다면 ‘어머니’로 쓸 수도 있다. 또 ‘감수과’는 ‘감수광’ 또는 ‘감숫과’, ‘감숫광’이라고도 발화한다면 그렇게 쓰는 것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봣디’의 경우도 ‘봣되’로 실현된다고 하면 그렇게 쓰는 것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값저’의 경우, [감찌]로 실현되는데, ‘감저’로 쓰는 경우도 있고, ‘값저’로 쓰는 경우도 있고, ‘감찌’로 쓰는 경우도 있다. 어간과 어미를 구분해서 본디 꼴을 쓴다고 했기 때문에 ‘감찌’로 쓰는 것은 적절하게 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니까 [감찌]로 실현되는 것을 ‘감저’로 쓰게 할 것인가, ‘값저’로 쓰게 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는다. 이 표기법에는 ‘값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니 ‘감저’로 쓴다면 그것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곧 이 표기법에서 지향하는 것은 가능하면 배제하지 말자는 것이다.

제4항 자모

이 표기법에서는 제주어의 음소와 아래의 자모들이 일치하도록 하여 제주어를 적는다.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ㅜ	ㅟ	ㅛ	ㅝ	ㅟ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다만, ‘ㅇ’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의 초성 글자로도 쓰고, ‘ㅛ, ㅣ’는 한자 형태소를 적을 때만 쓴다.

이 표기법은 단어의 표기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 구성 요소인 ‘자모’와 그것들의 연결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리’와 ‘형태’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자모(字母)’는 한 개의 음절을 자음과 모음으로 갈라서 적을 수 있는 낱말의 글자로서, 자음 자모와 모음 자모, 쌍자모와 복자모 따위가 있다. 이 ‘자모’와 비슷한 말로 ‘낱자’나 ‘모자(母字)’ 등도 쓰인다. 그래서 ‘낱자’라는 용어를 쓰기로 합의했으나, 『한글 맞춤법』과 학교 교육에서 많이 쓰는 ‘자모’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게 되었다.

한글 자모는 다음과 같이 자음 자모(자음) 14개와 모음 자모(모음) 10개를 아울러서 24개를 쓰고 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어의 발음을 모두 적으려면 이들 24개 자모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자음 5자와, 모음 11자를 더 인정해서 쓰고 있다.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제주말을 제대로 적으려면 위와 같이 『한글 맞춤법』에서 정한 40개 자모만으로 적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물(말, 馬)’과 ‘몸(모자반, 海藻)’ 등과 같은 말을 적으려면 ‘·(ㅇ)’를 추가해야 하고, ‘옴(옴, 側/脇)’, ‘옴구리·옴갱이(옴구리, 脇)’, ‘옴갈리(옴구리, 脇)’ 등과 같은 말을 적으려면 ‘ㄴ(옴)’도 추가해야 한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에서는 40개의 자모만 사용하지만, 제주말에서는 ‘·(ㅇ)’와 ‘ㄴ(옴)’ 2개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42개의 자모를 쓰는 것으로 정했다.¹⁾

ㄱ	ㅊ	ㄴ	ㄷ	ㅌ	ㄹ	ㅁ	ㅂ	ㅅ
ㅈ	ㅊ	ㅇ	ㅈ	ㅊ	ㅊ	ㅊ	ㅊ	ㅊ

1) 처음에는 각각의 자모 뒤에 음가를 괄호 안에 넣었는데, 최종 논의에서 빼버렸다. 이때 ‘ㄴ’는 음가 /ㄴ/ 또는 /a/를 배당하고, ‘·(ㅇ)’는 음가 /o/를 배당하고, ‘ㄴ(ㅇ)’는 음가 /jo/를 배당했다.

ㅎ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ㅐ	ㅒ	ㅖ	ㅜ	ㅓ	ㅛ	ㅜ	ㅠ	ㅚ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

이와 같은 자모의 순서는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 순서를 고려하여 배열하였다. 자모의 이름은 표준어와 같기 때문에 일일이 붙일 필요가 없었다.

자모의 이름에서 표준어에 없는 ‘·(으)’와 ‘ㄴ(을)’가 문제가 된다. 표준어에서는 이들이 현실 발음에서 실현되지 않는 옛 글자이기 때문에 편의상 ‘아래아’와, ‘겹아래아’(또는 ‘이중아래아’, 또는 ‘쌍아래아’) 등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제춧말에서는 이들 발음이 분명하게 발음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ㄴ’을 ‘오’라고 하듯이 ‘·’를 ‘으’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ㄴ’을 ‘을’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다.

한편 ‘ㅇ[ŋ]’은 받침에만 나타나는데, 발음이 없는 것은 ‘아부지, 아방’, ‘어무니, 어멍’ 등과 같이 발음이 없는 초성 글자로도 쓰게도 하고, ‘니, 니’ 등은 한자어 형태소를 적을 때만 쓰도록 했다.

‘니, 니’를, 한자어 형태소를 적을 때만 쓰도록 한 것은, 제춧말 고유어인 경우 ‘궤기(고기, 肉·魚), 쉼(소·쇠, 牛), 왜·웨(외·오이, 瓜), 물왜·물웨(실제 발음은 [물웨])로 실현된다.’ 등과 같이 표준어에서 ‘니’로 실현되는 것이 제춧말에서는 대부분 ‘궤’나 ‘궤’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전에 ‘뵤디’와 ‘즈궤디’와 같이 적던 것이 실제 발음에서 ‘니’로 실현되지 않고 ‘ㅣ’로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 고유어에서는 ‘니’로 적을 말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부에서 굳어진 표기로서 ‘디’를 쓰는 경우에는 인정해서 적도록 했다.

한자어의 경우는 『한글 맞춤법』과 같이 표준어의 표기 방식을 따르도록 했다.

제2장 본디 꼴을 적는 것

제11항 어간과 어미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여 소리가 바뀌지 않거나, 소리가 바뀌더라도 꼭 바뀔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다.

낙다[釣]:	낙안	낙으민	낙으곡	낙나	낙는
넘다[越]:	넘언	넘으민	넘곡	넘나	넘는
막다[障]:	막안	막으민	막곡	막나	막는
묻다[埋]:	묻언	묻으민	묻곡	묻나	묻는
살다[生]:	살안	살민	살곡		사는
안다[抱]:	안안	안으민	안곡	안나	안는
잇다[連]:	잇언	잇으민	잇곡	잇나	잇는
잡다[把]:	잡안	잡으민	잡곡	잡나	잡는
좃다[從]:	좃안	좃으민/좃이민	좃으곡/좃이곡	좃나	좃는
좃다[索]:	좃안	좃으민/좃이민	좃곡	좃나	좃는

제11항과 제16항은 용언의 어간과 어간에 붙는 어미를 서로 구분하여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1항은 하나의 본디 꼴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류이고, 제16항은 본디 꼴뿐만 아니라 또한 뒤에 이어지는 어미에 따라 바뀐 꼴도 같이 나타나는 부류이다. 먼저 하나의 본디 꼴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제11항의 부류를 설명하기로 한다.

사람의 말은 입말과 글말로 나뉜다. 입말의 단위는 발화로 부르고, 글말의 단위는 문장으로 부른다. 발화는 흔히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잘 알 수 있는 것들은 빼어 버리고 말을 하게 된다. 이런 일을 가리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서로 잘 알 수 있는 정보를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으므로 ‘생략’한다고 말한다. 단, 이러한 생략 요소는 반드시 쉽게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주어져 있다. 글말은 전형적으로 글쓴이와 읽는 사람이 시간과 공간상 서로 떨어져 있으므로, 입말처럼 생략이 잦지 않다.

따라서 글 쓰는 일과 관련된 소재 또는 상황을 모두 글(문장) 속에 분명히 포함시켜 놓아야 의사소통에서 혼동을 줄일 수 있다.

발화가 되든, 문장이 되든 간에, 사람의 말덩이는 늘 쉽게 안으로 잘려 나갈 수 있다(말덩이는 내적 구조를 지님). 입말의 경우에는 특히 상대방에게 주의를 끌기 위하여 이름 따위를 부르는 요소(부름말, 독립언)와, 이 요소에 이어지는 말덩이가 있다. “철수야, 학교 감이냐?”(철수야, 학교 가고 있니?, 철수야, 학교 감이니?)에서 쉽표 앞에 있는 말이 바로 듣는 사람을 불러 주의를 끄는 요소이며, 쉽표 뒤에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려는 말덩이가 이어져 있다. 이 말덩이가 언제나 다시 나뉘는 데, 입말과 글말에서 그 방식이 공통적이다. 이는 회랍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구분 방식인데, 주어와 술어이다. 집합론을 받아들인 현대 논리학(양화사를 지닌 ‘술어 논리’)에서도 비록 표기법을 달리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런 만큼 ‘주어’와 ‘술어’의 구분은 인간 사고에 보편적임을 암시하고 있다. “학교 감이냐?”에서는²⁾ 부름말과 같은 사람(철수)이 주어이므로, ‘철수’가 생략되어 있거나(철수 학교 감이냐?) 또는 ‘너’에 해당하는 소리 없는 대명사가 들어 있다(너 학교 감이냐?)고 말할 수 있다. 술어는 다시 동사의 특성에 따라 다시 더 분석될 수 있다. 앞의 예에서 ‘가다’ 동사는 자동사가 아니라, ‘다니다’라는 타동사로 뜻이 넓혀지거나(다의어) 또는 뜻이 바뀌어서(동음이의어) 목표나 장소를 더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주어이든 술어이든 어느 것이든 간에 자유롭게 꾸밈말을 더 엮어 놓을 수 있다. 주어를 꾸미는 말을 관형어로 부르고, 술어를 꾸미는 말을 부사어로 부른다. 꾸미는 말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고 언제나 말하는 사람이 일부러 더 집어넣은 요소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에서 표현의 의도나 가치를 더욱 잘 드러내어 준다.

주어는 보통 ‘체언’으로 나타나고, 술어는 ‘용언’으로 나타난다. 우리말에서 용언은 동사 및 형용사로 나뉜다. 영어에서는 계사 be가 독자적으로 나타나지만, 우리말에서는 형용사 속에 접미사로 녹아 있고, 명사의 경우에 잠정적으로 서술격 조사로 부르고 있다(이를 언어들 사이에 ‘범주 규정’의 차이로 부름). 동사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상태가 바뀌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를 흔히 ‘사건’이라고 부른다. 형용사는 대상 또는 사물의 일시적인 상태나 내재적인 속성을 가리키는데, ‘상태’라는

2) 물론 같은 대우 등급의 변이체로서 “학교 감시냐?” 또는 “학교 감이니?” 또는 “학교 가멘?”도 같이 쓰일 수 있다.

말로 부른다.

그런데 우리말의 동사 및 형용사 어간은 반드시 뒤에 어미가 붙어 나와야만 스스로 독립할 수 있다. 가령, ‘먹-’(to eat, 食)이라는 동사 어간과, ‘검-’(to be black, 黑)이라는 형용사 어간은 홀로 독립될 수 없고, 반드시 어미들이 붙어 나와야 한다. ‘먹으라’(먹으라, 먹으렴), ‘검은게’(검다, 검구나)와 같이 종결 어미가 붙든지, 또는 ‘먹꼭’(먹고서)처럼 연결 어미가 붙든지, ‘검은’(검은)과 같이 관형형 어미가 붙는다. 우리말에서 일반적으로 어미는 문장이나 발화를 종결하는 데에 쓰이는 어미를 기본으로 삼는데, 이를 종결 어미 계통이라고 부른다. 이 이외에도 문장이나 발화를 더 늘려 이어 주는 데 쓰이는 연결 어미가 있고, 품사를 바꾸어 주는 전성 어미가 있다. 후자는 특히 용언을 뒤따르는 명사에 이어 주는 관형형 어미가 제11항에 관련된다. 문장이나 발화를 종결해 주는 어미는 크게 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 앞에 나오는 선어말 어미가 있다. 단, 시제 또는 상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앗-’ 등)는 제16항에서 다루기로 한다.

만일 어간에 받침소리(종성)가 있을 경우에, 이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이어진다면, 이 어간의 받침소리는 그대로 뒤에 붙은 어미의 초성처럼 소리가 난다. 따라서 본디 어간 음절에 변동이 생겨나는 것이다. 제11항은 어간의 받침소리가 바로 뒤의 어미의 초성으로 소리가 나더라도 본디 어간의 음절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표기해 놓도록 규정하였다. ‘잡-’(to hold, 把)이라는 동사 어간은 명령을 나타내는 어미 ‘-으라’가 붙어서 [자브라]로 소리가 나고, ‘붉-’(to be reddish, 赤)이라는 형용사 어간은 감탄을 나타내는 어미 ‘-은게’가 붙어서 [불근게]로 소리가 난다. 여기서 어간 받침소리들이 모두 어미의 초성처럼 바뀌었다. 제11항은 총칙 제2항에 규정된 원리에 따라 소리대로 표기하지 않고, 본디 꼴을 그대로 적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잡으라, 붉은게’로 써야 하고, ‘*자브라, *불근게’로³⁾ 표기하지 않는다.

왜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쓰는 것일까? 그 까닭은 표기법이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들어 있는 형태를 표기하는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이다. 한글을 비롯하여 인간이 만들어낸 소리글자들은 모두 동일한 원칙을 따르고 있다. 가령, 영어에서 ‘sign’(신호 보내다, 신호)이란 낱말은 [싸

3) 이 글에서 낱말 형태 앞에 붙여 놓은 별표 ‘*’는 잘못된 표기, 잘못된 형태, 잘못된 문장을 가리키기 위한 약속으로 쓰기로 한다.

인]으로 소리가 난다. 그렇지만 ‘g’라는 글자가 군더더기처럼 들어 있다. 왜 그럴까? 이는 [씨그너취]로 소리가 나는 ‘signature’(서명, 이름)란 낱말과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도 또한 머릿속에 동일한 형태가 들어 있다고 간주하고서, 입술에서 나는 소리와 관계 없이 본디 형태를 표기에 그대로 밝혀서 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영어에서 [투]라는 소리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들을 나타낸다. ‘to’(부정사, 동사의 원형을 표시함), ‘two’(둘), ‘too’(또한) 등이다. 비록 입술에서 똑같이 소리가 나더라도, 서로 달리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일도 또한 표기법이 소리대로 쓰기보다는 형태를 구별해 주기 위한 기능을 담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11항에서 어간에 어미가 붙어 나온 사례들은 세 가지 부류로서, 연결 어미와 종결 어미와 관형형 어미를 제시하고 있다. 연결 어미는 다시 대등하게 절을 이어주는 병렬 접속(또는 등위 접속), 절 사이에 시간이 달라지거나 사건이 서로 이어져 있음을 보여 주는 종속 접속, 두 절 사이의 관계가 매우 멀거나 영향을 주지 못함을 보여 주는 수의적 접속이 있다. 병렬 접속과 종속 접속은 두 절의 순서를 서로 바꿀 때에 전체적인 의미에 변화가 생겨나는지 여부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 개념상의 구분일 뿐이다. 결코 고유하게 연결 어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종속 접속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순차 접속이 있고, 조건과 결과를 이어 주는 조건 접속이 있다. 종속 접속과 수의적 접속 사이에서도 두 절 사이의 관계가 가깝거나 긴밀한지 여부도 또한 기계적이거나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며, 고유한 연결 어미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을망정, -을지라도’ 따위가 자주 쓰이나, 이 어미들이 또한 종속 접속에서도 쓰임). 오직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주관적 판단과 믿음에 기댈 따름이다.

제11항의 사례에서 병렬 접속(등위 접속)은 ‘-으곡, -곡’(-고)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방언에서 ‘-으멍, -멍’(-면서)도 두 절 사이에 병렬(등위)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다. 종속 접속에서 순차 접속(또는 계기 접속)이 ‘-안, -언’으로 제시되어 있고, 조건 접속이 ‘-으민, -민, -이민’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방언에서 순차 접속은 상 또는 시제의 대립의미를 보여 주어서 ‘-안 : -양’으로 구분되어 나온다. 그렇지만 현재 이 방언의 문법 형태소들에 대한 연구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반영해 놓지 못하였다. 또한 ‘-안’이라는 연결 어미는, 모음조화 원칙에 따라 쓰이는 자동적 변이 형태 ‘-언’뿐만 아니라, 수의적으로 더 늘어난 형태로서

‘-아네, -어네’도 쓰인다. 이와 대립되는 ‘-앙’은 더 늘어난 형태로서 ‘-아그네, -앙그네, -아그네에’⁴⁾가 쓰인다. 늘어난 형태로서(또는 늘어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본디의 형태일 수 있음) 상 또는 시제의 대립을 드러내면 ‘-아네 : -아그네’에서 보듯이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다. 이 접속어미들은 또한 뒤에 오는 후행절의 시상 형태소들의 실현을 허용하거나 저지하는 데에도 간여하는데, 흔히 이를 호응 관계로 부른다. 이 표기법에서는 예시를 간략하게 보이려는 목적 때문에, 이런 변이 형태들을 충분히 다 들어 놓지는 못하였다.

한글맞춤법도 1930년대에 처음 만들어질 때 당시 언어학이 거의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낱말만을 위주로 하여 표기 지침을 만들었을 뿐이며, 더 넓은 영역의 통사 및 화용 현상들을 제대로 포착하거나 반영해 주지 못하였던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는 아무런 비판도 없이 2014년 현재까지 그대로 묵수되고 있을 뿐이다. 1960년대에서부터 전 세계를 풍미한 변형 생성문법에서는 언어의 기본 단위가 ‘낱말’이 아니라 ‘문장’이라고 본다. 낱말을 기본 단위로 본 한글맞춤법의 모순은 극명하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띄어쓰기에 대하여 서로 합치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표준 국어 대사전』 등의 사전들에서도 ‘비일관적’인 결정들이 허다하게 나타난다. 과문하지만, 아직 아무도 표기의 대상을 문장으로부터 시작하여 더 작은 단위로 분석하고 줄여 나가면서 ‘어절’ 단위를 합의해야 한다고 제안한 경우는 없다. 또한 허다한 해설서들을 보더라도, 한글맞춤법의 기본 단위가 언어학의 발전에 맞추어 낱말에서 문장(또는 발화)으로 바뀌어야 한다(문장을 분절하여 어절로 줄여 나가야 한다)는 비판도 전혀 없다. 한글맞춤법에서 예외적으로 붙여 쓰도록 한 ‘조사’는 어절 단위 속에 포함되며, 일단 어절 개념에 합의를 한다면 더 이상 예외적으로 조사만을 붙여 쓰도록 할 필요도 없게 된다. 직관적으

4) 단, ‘-앙그네’는 ‘-아그네’에서 역행동화가 일어난 모습이다. 여기서 다시 동화 주체 ‘ㄱ’와 이에 이어진 음절이 탈락된 결과 ‘-앙’이 나올 듯하다. ‘-아그네’는 ‘-아그네’에 다시 ‘-그네’가 덧붙여(중가 형태: ‘-아그네+그네’) 역행동화가 일어난 뒤에 동화 주체는 탈락된 모습일 수 있다. 이 방언에서는 특히 ‘-안’과 ‘-앙’으로 대립되는 연결 어미가 시제 또는 상(완료/완결/종결 여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뒤에 이어지는 후행절과의 호응에서 시제 또는 상에 대한 제약이 관찰된다. 상 또는 시상에 대한 정의의 방식은 연구자마다 정의 방식이 차이가 있다. 현평효(1985)에서는 완료, 문숙영(1998)에서는 완결, 우창현(1998)에서는 종결이란 용어를 썼다. 이들 용어에 대하여 고영진(2008)에서 비판적으로 검토가 이뤄져 있어 도움이 크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제13항의 해설에 있는 각주 22)와 31)을 참고하기 바란다. 여기서는 ‘완료’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완료된 사건을 가리키는 ‘-안’의 경우가 후행절의 시제나 상에 대한 제약에서 유효적이다. 반면에 완료되지 않은 사건을 가리키는 ‘-앙’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유효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이 연결 어미를 다룬 송상조(2011) 『제주말에서 때가림소 ‘-오, -니’와 씨끝들의 호응』(한국문화사)를 읽어 보기 바란다.

로 어절이 낱말에 조사나 어미들을 덧붙여 놓은 단위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방언의 표기법도 한글맞춤법의 한계를 크게 뛰어넘는 틀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처음으로 여러 사람들이 한데 모여 진지하게 하나의 안을 확정하면서, 한글맞춤법의 틀을 본디 꼴과 바뀐 꼴로 재구성하고, 예외적으로 굳어진 표기를 인정한 것은 현재의 한글맞춤법보다는 더 정연하고 명시적인 표기법으로서, 뒤에 한글맞춤법의 개정 및 다른 방언들의 표기 지침을 마련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1항의 예시에서 종결 어미는 ‘-나’는 내림 억양으로 쓰이면 서술 단정의 뜻을 지니고, 올림 억양으로 쓰이면 의문의 뜻을 지닌다. 서울말에서는 오직 의문의 형태만으로 쓰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관형형 어미는 ‘-는’인데, 상(aspect, 相) 대립을 보이는 기본 형태 ‘-은 : -을’에서 발화시 현재를 가리키는 ‘-느-’(또한 현재 경험이라는 양태의 의미도 들어 있음)가 융합되어 있는 복합 형태이다(‘-느+은’ = ‘-는’). 이는 바로 앞의 종결 어미 ‘-나’에서도 똑같이 찾아지는데, 이 종결 어미가 반말투 종결 어미 ‘-아’에 발화시 현재를 가리키는 ‘-느-’(또한 현재 경험이라는 양태의 의미도 들어 있음)가 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11항에서 제시된 사례들 중에, ‘냠안’(냠아서), ‘냠으민’(냠으면)을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대로 써서 ‘*나깐, *나끄민’으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⁵⁾ 우리 머릿속에 오

5) 종전에 어간을 ‘나끄’로 잘못 파악하여 ‘*나끄다’로 썼던 적이 있었다. 이른바 어간의 ‘개방 음절’에 대한 주장이다. 그렇지만 이 해설의 여러 곳에서 이런 어간의 개방 음절에 대한 주장이 잘못임이 지적될 것인데, ‘-으’로 시작되는 어미 형태들의 계열체 및 낱말 만들기 방식 등에서도 그런 주장의 반례들이 다수 제시될 것이다. 이는 이 표기법을 종전의 표기들과 구분해 주는 중요한 특징들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 해설에서 철저히 학술적으로 입증해야 할 책무가 있다. 어미들의 계열체(‘으’ 소리를 지닌 ‘자연부류’로 묶임)는 제16항의 해설에서 여러 측면으로 다뤄지므로, 여기서는 단지 낱말 만들기(또는 조어법으로도 불림)에서만 결정적인 반대 사례들을 들어 보이기로 한다.

동사 ‘말다, 흘다’(각각 ‘말다, 흘다’)에서 반드시 어간이 ‘말-’과 ‘흘-’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모두 발음이 [마트다, 호트다]로 나오지만, 표기에서 어간은 1음절 ‘말-, 흘-’이고, 어미는 ‘-으다’이다. 이 어간에 접미사가 붙어 ‘말+기+다’로 되고, 이 어간에 다른 어간이 붙어 ‘흘+뿌리다’처럼 새로운 낱말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다. 만일 ‘으’를 지닌 개방 음절 ‘마트-, 호트-’가 어간이었더라면, 웅당 ‘마트+기+다’와 ‘*호트+뿌리다’라는 낱말이 나왔어야 하고, [*마트기다], [*호트기다]로 발음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낱말은 이 방언에서 결코 찾아지지 않는다.

형용사 ‘높다, 깊다/깊으다’(각각 ‘높다, 깊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뒤의 낱말은 특히 구개 음화가 일어난 모습도 바뀐 꼴의 어간이 되어, 언제나 ‘*높-, *깊-/깊-’이며, 여기에 어미 ‘-으다’가 붙어 있는 모습이다. 이 어간을 대상으로 하여 접미사가 붙어 ‘*높+직하다, *깊+숙하다/깊+숙하다’라는 낱말로 파생되어 나올 뿐이다. 이 방언에서 개방 음절의 어간 ‘*노프-, *지프-’에 접미사가 붙어 ‘*노프+직하다, *지프+숙하다’로 파생되어 [*노프직하다]나 [*지프숙하다]나 [*지프숙하다]라는 낱말은 결코 찾아지지 않는다.

서로 다른 자음을 겹받침으로 지닌 어간들도 이미 폐쇄 음절 구조를 뒷받침해 준다. ‘*넓다, *얕다’는

비록 [넙따, 압따]로 발음되지만, 연결 어미 ‘-으난/-으나네’(-으니까)를 붙여 활용하면 [넙브난/넙브나네], [알브난/알브나네]로 나오므로 겹받침 ‘ㄷ’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넙다, 압다’가 결코 개방 음절 형식 [*넙브다, *압브다]로 발음되는 일도 없고, 연결 어미 ‘-으난/-으나네’가 붙을 때 [*넙브난/넙브나네], [*압브난/압브나네]로 발음되는 일도 없다. ‘꺾다, 읽다, 엮다’ 등의 겹받침도 똑같이 활용한다. 이들은 [꺾따, 익따, 엮따]로 발음되고, 연결 어미 ‘-으난/-으나네’와 연결되면, [꺾그난/꺾그나네], [읽그난/읽그나네], [엮그난/엮그나네]로 발음된다. 개방 음절의 형태인 [*꺾그다], [*읽그다], [*엮그다]로 발음되는 일도 없고, [*그그난/그그나네]나 [*이그난/이그나네]나 [*어그난/어그나네]로 발음되는 일도 없다. 모두 겹받침을 지닌 1음절 어간으로 적어야 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한때 왜곡되게 이 방언의 모습을 일부러 별나게 만들어 놓기 위하여 표면 음성형만을 쓴다거나 또는 과벽스럽고 이례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놓아야 할 것처럼 착각했던 적이 있다. 그렇지만 차분히 이 방언 현상을 관찰한다면, 한국어의 기본 질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며, 이질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의 근원도 쉽게 밝혀낼 수 있다. 원리와 매개변인 접근 방식을 응용하여, 형태소들의 규칙 적용 방식의 차이로 명확히 이 방언의 특성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차이가 이 방언 또는 제주말의 특성을 만들어준다.

이 표기법 논의에서 본디 꼴을 정해 놓는 데에 자주 거론되었던 음운 현상이 있다. 구개음화된 꼴, ‘이’ 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난 꼴, 자음접변이 일어난 꼴 등이다. 이들이 자동적 음운 규칙의 적용 결과로만 치부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었다. 만일 자동적 음운 규칙의 적용이라면, 표기법에서는 음운 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낱말 모습을 적어 주어야 한다. 이 원칙이 한글맞춤법에 ‘어법에 맞도록’ 하는 ‘형태-음소주의’이다. 그렇지만 이런 직관을 간단히 이 방언에 적용하기가 만만치 않다. 필자(김지홍) 개인의 판단에 아마도 구개음화된 꼴은 본디 꼴로 인정될 수 있겠지만(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서울말의 형태로 관념하므로 두 낱말 어형이 동시에 사회언어학상의 변별성을 유지하면서 공존함), 자음접변의 모습은 본디 꼴로 인정될 수 없다(오직 한 어형만이 있음).

그런데 ‘이’ 모음 역행동화의 경우에는 동화 이전의 모습과 동화 이후의 모습들이 낱말에 따라서 일부 표기에 반영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뉘어야 할 듯하다. 낱말에 따라서 반드시 ① ‘이’ 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있고, ② 수의적으로 두 모습이 관찰되는 것이 있으며, ③ ‘이’ 모음 역행동화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①의 경우는 ‘꼴쟁이’(꼬리, ‘꼬리+양이’), ‘콧베기’(콧등, ‘코+ㅂ+박이’), ‘콧제기’(눈썹, ‘콧+작+아기’), ‘아쟁이’(양금, ‘앗[압다]의 바뀐 꼴+양이’), ‘가쟁이’(가지, ‘갓+양이’)와 같이 이미 ‘이’ 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난 접미사 형태가 붙은 것들이다. ‘이’ 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난 이후의 형태가 본디 꼴로 상정되는 것이다. 이런 낱말들에 논의는 김홍식(1979) “제주도 방언 「가쟁이」 어고(語攷: 낱말들에 대한 고찰)”, 『논문집』 (제주대학교) 제11 집(51~67쪽)을 보기 바란다. 이 방언에서는 /애/와 /에/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모두 /에/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는 달리 /애/를 쓰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서울말 표기에 이끌리어 쓰거나, 아니면 어원적인 내용을 고려하면서 /아/를 보존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경우도 있다.

②의 경우는 ‘웁기다’가 또한 수의적으로 세 가지 음운 현상(‘이’ 모음 역행동화, 받침 ㄹ 탈락, 자음접변)이 일어나면 [웁기다]로 발음된다. 이 경우 ‘이’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났지만 아직 자음 탈락과 자음접변이 일어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을 듯하며, ‘웁기다’ 또는 ‘웁기다’로 적을 수 있다. ‘쫓기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난 모습을 ‘쫓기다’ 또는 ‘쫓기다’로 적을 수 있다. 단, 이 표기법에서는 제주말에 단모음으로 ‘외’가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중모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웨’로 적기로 규정했기 때문에, 필자(김지홍)가 보기에든 매우 괴상스런 모습의 ‘웁기다’나 ‘쫓기다’로 적는 쪽으로 가야 한다(필자는 여전히 개인적으로 이 표기법의 결정과는 달리 ‘외’라는 글자를 쓰되, 다만 이 글자의 발음을 중모음이라고만 설명하는 방안이 더 간단하고 합리적이라고 본다). 아마 이 방언에서는 원래의 형태와 ‘이’ 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난 형태를 포함하여, ‘웁기다, 웁기다’와 ‘쫓기다, 쫓기다’라는 표기가 모두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어떤 낱말은 수의적인 교체를 보이지만, 일부 다른 낱말은 사회언어학적 차이(특히 언어 상황의 격식성 및 공식성 여부에 대한 차이)를 수반하는 듯이 판단된다. 보다 정밀한 조사가 앞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③의 경우는 ‘느랏하다’(힘이 빠져 있거나 느려하거나 나른한 모습)에서 부사를 만들면 ‘느랏+이’가

직 하나의 어간 ‘냐-’만이 있는 것이지, 따로 ‘*나ㄱ-’나 또는 ‘*나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러 이 방언의 표기를 다루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순수히 소리대로만 써서 ‘나깁’으로 표기하면, 마치 이 방언 표기가 되는 것처럼 주장한 경우도 있다. 잘못이다. 왜 그럴까? 소리대로만 써서 ‘냐나’(냐는다)를 표기하면 [냐나]로 되며, “냐거든”(냐으면, 냥거든)을 표기하면 [냐껴든]으로 표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동사의 어간이 ‘냐-, 냥-, 나ㄴ-, 냥’과 같이 적어도 4개 이상인 셈이며,⁶⁾ 결국 아무런 음운 규칙을 세울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언어는 체계이다. 체계는 음운 · 형태 · 통사 · 화용 영역에서 모두 찾아지며, 경제적인 언어 사용을 위해 규칙들로 포착된다. 특히 음운 규칙이 자동적으로(무의식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음운 규칙이 적용된 모습(표면형)을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운 규칙이 적용되기 이전의 기본 형태(기저형)를 표기해 주어야 한다. 비록 입 밖으로 나온 소리로서 [냐, 나ㄴ, 냥]을 듣더라도, 이들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똑같이 하나의 낱말 형태 ‘냐-’이라고 인식하며, 이 형태의 의미를 인출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전두엽(pre-frontal lobe)에 있는 작업기억(working memory)에⁷⁾ 고정된 어간 형태에 따라서 관련된 의미를 인출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이를 위하여 음운 규칙을 써서 여러 가지 다른 소리들을 도출해 냄으로써 장기기억에 저장하고 인

되는데, 이는 [느라시]로만 말해질 뿐이다. 결코 [*느래시]로 말해지지 않는다. ‘울엇이’(하염없이, 하는 일 없이, ‘울+없+이’)에서도 [울러시]로 말해질 뿐이다. 결코 ‘이’ 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난 모습 [*올래시]로는 말해지지 않는다. 우리말에서 ‘위(爲)하다’는 토박이 낱말 형태가 찾아지지 않지만, 이 방언에서만은 유일하게 활용 모습에 심한 제약이 있는 ‘올다’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말하다’ 뜻의 ‘ㄱ. ㄷ다’와 함께 불완전 활용을 하는 동사임), 오직 ‘올영’[위하여] 또는 ‘올언’[위하여]으로만 활용될 뿐이다.

이 방언을 대상으로 하여 이런 음운 현상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글들을 읽어 보기 바란다(간행 연도 순서임). 홍성해(1987) “제주 지역어의 자음 음운현상에 관한 연구”, 제주대 교대원 석사, 고동호(1991) “제주 방언의 구개음화와 이중모음의 변화”, 『언어학』 제13 호, 오승훈(1993) “제주도 지역어의 구개음화 연구”, 제주대 교대원 석사, 고동호(1995) “제주 방언의 올라우트 연구”, 『언어학』 제17 호, 김광웅(2001) 『제주 지역어의 음운론』 (제주대 출판부).

- 6) 이 방언에서 ‘냐으다’와 똑같이 행동하는 ㄱ(쌍기역) 받침 동사들은 다음과 같다(단, 숫자는 동음이의어를 나타내고, 빗금은 둘 이상의 수의적인 교체 어형을 뜻함). ‘꺾으다’(꺾다), ‘뒹으다’(뒹다), ‘뒹으다₂’(뒹다), ‘뒹으다’(뒹다), ‘뒹으다/뒹으다’(뒹다), ‘뒹으다’(뒹다), ‘뒹으다/뒹으다’(부풀다), ‘썩으다/썩으다’(썩다), ‘썩으다’(썩다), ‘썩으다’(썩다), ‘썩으다’(썩다) 따위가 있다.

- 7) 배들리(Baddeley 1986) 『작업기억 (Working Memory)』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와 배들리(2007) 『작업기억 · 사고 · 행위 (Working Memory, Thought and Action)』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 따르면, 감각한 모습으로 설계된 작업기억에는 언어처리를 위한 음운 순환회로(phonological loop)와 감각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공간 시지각 그림판(sketchy pad)이 주어진 입력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중앙연산 처리기에 의해 처리해 나가게 된다. 소리 단서는 무의식적 사고 과정을 의식적으로 표상하는 데에 중요하다. 최근 제킨도프(Jackendoff 2012) 『사고와 의미에 대한 안내서 (A User's Guide to Thought and Meaning)』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는 ‘무의식적’인 사고 과정이 강조되어 있고, 음운 표상이 실마리가 되어서 의식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출해내는 과정의 단일함과 경제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처럼 다수의 어간을 남발하여 표기하는 일부 방식은 언어학의 기본 전제를 부인하는 처리 방식이다. 이 방언에서도 꼭 복수 어간을⁸⁾ 설정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바뀐 꼴(변이형태)로서 제16항에서 다루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모두 하나의 어간만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 있고, 그 형태를 표기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 두뇌 영상 촬영 기법을 이용한 연구에 따르면, 언어 처리는 전-전두엽에 있는 ‘작업기억’을 매개로 하여 일어나지만, 기본 꼴의 처리는 제2의 두뇌(8가지 하위부서로 이뤄진 테두리 뇌 또는 변연계)에서 혈류가 증가하고, 대립적으로 바뀐 꼴의 처리는 제3의 두뇌(신피질)에서 혈류가 증가한다고 보고된다.⁹⁾

이 방언의 연구에서 잘못된 주장으로서 이 방언도 마치 일본어처럼 개방 음절을 갖고 있고,¹⁰⁾ 고대 한국어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덧붙이기도 한다. 이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사들 중에 ‘으’ 모음을 갖는 사례들을 동원하기 일췌이다. 2013년에 이 표기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주장이다. 얼핏, 제11항에서 제시된 사례를 보면, 조건(conditional, ‘-으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뉘으면, 념으면, 묻으면, 안으면, 잡으면’이 일관되게 ‘-으면’(-으면)으로 표기되어 있고, 병렬(coordinating, ‘-고’)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중 일부에서 ‘뉘으곡’(뉘고), ‘쫘으곡’(쫘고)이 제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를 제외하고서, 나머지 사례들의 대부분은 ‘으’ 모음이 들어 있지 않음을 이내 알아차릴 수 있다. ‘뉘나, 뉘는’이 결코 [*나끄나], [*나끄는]으로 소리 나지도 않고, ‘뉘곡, 뉘나, 뉘는’이 결코 [*너므

8) 이미 중세 국어를 다루면서 ‘쌍형 어간’이란 이름으로도 둘 이상의 어간이 있음을 가리켜 왔다. 이 방언에서는 어간이 둘 뿐만 아니라 서넛까지도 나올 수 있다. 여기서는 이를 가리키기 위하여 ‘복수 어간’이라는 말을 쓰기로 한다.

9) 제3의 뇌(신피질)와 제2의 뇌(테두리 뇌, 변연계) 사이의 유기적인 관련에 대해서는 특히 핑커(Pinker 1999, 김한영 2009 뒤침) 『단어와 규칙』(사이언스 북스) 588쪽, 603쪽, 610쪽, 635쪽, 665쪽 등을 보기 바란다. 더마지우(Damasio, 김린 1999 뒤침) 『데카르트의 오류: 감정, 이성, 그리고 인간의 뇌』(중앙문화사)에서는 욕망과 감정을 떠맡는 제2의 뇌에서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이 일어남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 입증하고 있다.

10) 비록 이 표기법과 결론이 서로 다르더라도, 이 방언의 개방 음절 가정에 대한 가장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주장은 아마 거의 다음 논문이 유일한 듯하다. 김홍식(1977) “어간말 모음 탈락에 대하여: 특히 제주도 방언과 관련해서”, 『논문집』(제주대학교) 제8집(29~47쪽). 이 방언의 음운 연구사에서 반드시 거론되어야 할 업적이다. 알타이어 및 중세 국어로부터 찾아낸 풍부한 사례들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당시 학문의 수준으로서는 대단한 업적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필자는 이 논문으로부터 많이 배울 수 있었음을 밝히 고마움을 적어 둔다. 개방 음절을 반영한 표기를 현평호(1985: 290, 416쪽)에서는 표준어의 1음절 어간이 이 방언에서 2음절로 실현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15~16세기나 17~18세기의 중세국어 어간 형태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았다.

곡], [*너므나], [*너므는]으로 소리 나지도 않는다. 그렇더라도 일부 주장처럼 만일 ‘*나끄-’가 본디 꼴(원형)이라고 한다면, 왜 이런 환경에서는 ‘냐-(낙-), 녀-’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자의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런 설명은 언어가 체계라는 기본 전제를 무시하는 일이다. 따라서 그런 개방 음절의 주장은 이 방언의 극히 일부 사례만을 갖고서 과대 포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으’의 정체를 제대로 과학하지 못한 한갓 잘못된 이론에서 나온 것이다.

‘으’는 광복 이전의 초기 연구 단계에서는 ‘조음소’나 ‘매개모음’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주장되었다. 만일 받침소리로 끝나는 음절이 있을 때, 다음에 자음이 오거나 이어지면 ‘으’가 중간에 끼어들어 소리 연결을 ‘자음+모음’을 만들어 매끄럽게 해 준다는 주장이다. 만일 그렇다면, 언제나 두 자음 사이에 ‘으’가 나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주장은 한국어 자료에 대한 초보적 관찰에서부터 잘못임을 알 수 있다. 두 가지 반례를 들기로 한다. ‘먹다’(to eat, 食)에 종결 어미 ‘-지’와 연결 어미 ‘-고’를 붙여 활용하면, 어떤 방언에서도 언제나 [먹찌], [먹꼬]로 소리가 난다. 자음끼리 이어져 있지만 결코 ‘으’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대신 받침소리가 뒤에 이어지는 자음을 된소리로 만들어 놓을 뿐이다. 따라서 조음소나 매개모음이란 개념 자체가 잘못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문을 종결 어미 ‘-나’는 [명나]로 소리가 나서, 역행동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지만, 선택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으나’가 붙게 되면, [머그나 마나](먹든 말든)처럼 소리가 난다. 종결 어미는 ‘으’가 없이 쓰이고, 연결 어미는 ‘으’가 들어가 있다. 이는 두 자음 사이에 끼어드는 모음(조음소, 매개모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순임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으’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서 각각 의문을 나타내거나 또는 선택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어학에서는 ‘으’는 어간이 아니라, 오히려 어미에 붙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 점을 제주 방언에서 관찰하면, 일부 어미는 ‘으’가 들어 있고, 일부는 ‘으’가 들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제11항의 사례에서 보듯이 조건(서울말 ‘-으면’)을 나타내는 종속 접속 어미는 일관되게 ‘-으민’으로 쓰이며, 일부 어간의 받침소리에 동화되어 ‘-이민’으로도 나올 수 있다. 즉, ‘쫓다’(to follow, 從)와 ‘찾다’(to find, 索)에서 잇몸소리로 된 받침 때문에 동화되어 전설모음 ‘이’로 바뀐 것이다. 그렇지만 나열(서울말 ‘-고’)을 나타내는 병렬 접속(또는 등위 접속) 어미는

표면상 ‘-으곡’과 ‘-곡’으로 표기되어 있다. 전자는 ‘낙으곡, 좇으곡’으로 제시되어 있고, 후자는 ‘넙곡, 막곡, 문곡, 살곡, 안곡, 잇곡, 잡곡, 좇곡’으로 제시되어 있다. 아직 세밀하게 이 방언의 받침소리들에 대한 위계가 설정되거나 제안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오직 다음처럼 추정 또는 가정을 할 수밖에 없다. 만일 ‘-으곡’이란 어미에서 쌍기역 받침 ‘ㄱ’이나 거센소리 받침 ‘ㅈ’가 하나의 부류로 묶일 수만 있다면, 이들과 ‘-으곡’이 연결되고, 나머지 받침에서는 모두 ‘으’가 탈락된다고 말할 수 있을 듯하다. 연구가 이뤄지지 않는 현재로서는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며, 앞으로 받침소리들의 나오는 환경들이 자세히 연구되어 입증될 필요가 있다.

제3장 바뀐 꼴을 적는 것

제15항 체언과 조사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여 꼭 바뀔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체언이나 조사의 소리가 바뀌는 것은 바뀌는 대로 적되,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는다.

안[內] :	안네	안네도	안네만
질[路] :	질레	질레도	질레만
바깳[外]:	바깳디	바깳디도	바깳디만

다만, 다른 소리가 덧나기도 하고 덧나지 않기도 하는 것은 덧나지 않은 꼴로 적는다.

내[川]에	시(市)에	질레에
-------	-------	-----

[붙임] 서술격 조사 ‘이-’ 앞에서 /ㅈ, ㅍ/ 등으로 나타나는 체언의 종성은 다른 조사 앞에서도 ‘ㅈ, ㅍ’ 등으로 적는다.

낮이라도	낮이	낮을	낮도	낮만
앞이라도	앞이	앞을	앞도	앞만

제10항과 제15항은 ‘체언과 조사’를 적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제10항은 소리가 다르게 나더라도 체언과 조사는 본디 꼴을 살려서 적는 방법에 해당되는데, 제15항은 이와 다르게 조사의 형태가 다르게 실현되는 경우 그대로 적는다는 규정이다. 이는 「제주어 표기법」 제2항 원리 및 방법에서 규정한 ‘형태소의 바뀐 꼴을 인정하여 적는다.’를 적용한 사례이다.

제죽말 제10항은 「한글 맞춤법」 제14항과 같이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여 원래 형태와 다르게 소리가 나더라도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기준과 같다. 표준어와 동일하게 제10항을 설정하면 제15항과 같은 유형을 표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죽말의 특성을 보여주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먼저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여 꼭 바뀔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체언이나 조사의 소리가 바뀌는 것은 바뀌는 대로 적되,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는다.”는 규정을 좀더 설명해 보겠다.

표준어를 기준으로 하면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여 소리가 바뀌더라도 본디 꼴을 적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집이[지비], 소곶에[소고베]’에서 보듯이 [지비]와 [소고베]처럼 소리가 나더라도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15항에서 체언 ‘안[內]’과 질[路]에 처격조사 ‘에’가 결합하면 ‘안에, 질에’로 적어야 하는데 만약 이렇게 표기할 경우 [아네], [지레]로 소리가 나야 한다. 그런데 제죽말에서는 언제나 [안네], [질레]로 소리가 난다. 따라서 소리가 바뀔 만한 이유가 없으나 격조사의 형태가 바뀐 경우에는 그대로 적되 이때에도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는다는 뜻이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은 ‘네’와 ‘레’를 처격조사로 볼 수 있는가이다. 굳이 근거를 든다면 ‘안’과 결합하는 ‘에’에 ‘ㄴ’이 첨가되어서 ‘네’로 굳어졌다고 본다. 이와 마찬가지로 ‘질’과 결합하는 ‘에’에 ‘ㄹ’이 첨가되어서 ‘레’가 격조사처럼 쓰였다고 본다.

이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중세국어(15~16세기)로는 ‘안호로(안으로), 안해(안에)’ 등이 쓰였고, ‘안호’이 명사 어근이어서 격조사가 결합되면 ‘안해>안애(ㅎ탈락)>안네’로 변천과정을 겪었다고 본다.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 ‘안네’에 보조사 ‘도, 만’ 등이 결합할 경우에도 소리나는

대로 ‘안네도, 안네만’과 같이 적으면 된다. 이 경우 간혹 화자에 따라 [아네도], [아네만]으로 발음할 수도 있으므로 [안네도]와 [아네도], [안네만]과 [아네만]으로 소리가 나더라도 ‘안네’로 바뀐 꼴을 인정하고,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는 뜻이다.

제웃말 화자에 따라서는 명사구 ‘안네’를 명사 ‘안네’로 오해할 수도 있다.<보기 (1) 참조>.

(1) 그 집이 간 보난 안네만 불 썩 싯곡, 마당인 콤콤해라.

(그 집에 가서 보니 안네만 불이 켜 있고, 마당은 캄캄하더라.)

다음에는 ‘질레’를 통해 15항의 규정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체언 ‘질’에 조사 ‘에’가 결합하면 ‘질에’[지레]로 소리가 나야 하지만 제웃말에서는 [질레]로 소리가 나므로 바뀐 꼴인 ‘질레’로 적되,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어야 함을 규정하였다. 명사 ‘질’에 보조사 ‘도, 만’을 결합하면 ‘질도, 질만’이 된다.

표준어 ‘길’은 중세국어 ‘길ㅎ’에서 변하였고, 제웃말은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길’이 ‘질’로 변하였다. 따라서 ‘질’을 본디 꼴로 보면 여기에 처격조사가 결합되어도 [지레]로 연철되지 않고 [질레]로 분철된다고 본다. 다만 15항에 제시된 것은 소리가 바뀐 경우 그것을 인정하여 적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합성어 ‘한질’[大路]에 조사 ‘에’가 결합하면 ‘한질에’[한지레]로 소리가 나고, ‘웃한질에’[우탄지레]에서도 [지레]로 소리가 난다. 이때 ‘질’ 단독형에 처격조사 ‘에’가 결합되면 체언과 조사를 구분하여 적는 본디 꼴(‘질에’)에 해당된다. 15항에서는 ‘질’이 단일어로 쓰일 때에 처격조사 ‘에’가 결합되어도 언제나 [질레]로 소리가 나므로 이렇게 적어야 함을 규정하였다.

(2) 가. 영정 들른 상젠 가난 질로 돌아와사 혼다.

(영정 든 상주는 갔던 길로 돌아와야 한다.)

나. 사름덜이 질레서 말 굴암서라.(사람들이 길에서 말 하고 있더라.)

다. 어둡은디 질레에 강 놀지 말라.(어두운데 길에 가서 놀지 말라.)

보기 (2)에서 ‘질레’는 명사구지만 명사 ‘질레’도 있다. 이 경우 ‘질레’와 ‘에’가 결합하여 ‘질레에’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명사구 ‘질레’와 명사 ‘질레’에 대한 변별력

이 약해서 ‘질레에’를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으로 인지하고, ‘질레’를 단독형으로 인지하여 ‘질’과 혼동할 수 있다. ‘질’이 본디 풀이고 여기에 조사 ‘에’가 결합된 ‘질레’가 쓰이다가 명사로 굳어졌다고 본다. 이는 중세국어 ‘나+이(주격조사)’ 형태가 ‘내’로 굳어지고 여기에 주격조사 ‘가’가 결합하여 ‘내가’가 쓰이는 것과 유사하다.

명사 바깓[外]은 언제나 처격조사로 ‘디’만 선택된다. ‘바깓+디’는 [바깃띠]로 소리가 나더라도 체언과 조사는 구별하여 적는다는 원칙에 따라 ‘바깃디’가 된 것이다.

제줏말 처격조사에는 ‘에/이/의, 에서/이서/의서, 디, 디서’ 등이 쓰인다. 이와 같이 여러 형태의 조사 중에 유독 ‘디’ 형을 취하는 명사들이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명사로 ‘긔디(가에), 밧디(밭에), 솟디(솔에), 머리밧디(머리말에), 즈긔디(곁에)’ 등이 있다. ‘우티’(위에)는 ‘우ㅎ+디’로 분석되므로 여기에도 조사 ‘디’가 결합되었다. ‘뒤티’(뒤에)는 ‘뒤ㅎ+디’로 분석된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제줏말 조사 ‘디’는 선행 체언이 자음 ‘ㄱ, ㅎ’으로 끝날 때 성립된다.

다시 말하자면 제줏말 ‘디’는 처격조사로 쓰이는데 원래 ‘디’는 선행 명사구의 받침이 /ㄷ/계이거나 통시적으로 원래 어말에 /ㅎ/을 지녔던 명사구에만 연결되는 제약 조건을 가지면서(강정희, “제주방언의 처격 ‘-디’에 관한 일고찰”, 1980) 처격의 기능을 갖고 있다. <보기 (3) 참조>.

(3) 가. 난 긔디 탕기질 못했저.(나는 가에 다니지를 못하고 있다.)

나. 가인 밧디 잣저.(그 아인 밧에 잣다.)

다. 그 사름덜은 뒤티서 브래단(그 사람들은 뒤에서 보다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바뀐 꼴로 적음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조항을 설정한 것은 예외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즉 ‘시(市)에’는 [시에], [시예]로 소리가 나더라도 [시예]로 적기로 규정하였다.

사례로 든 ‘내[川]에’는 [내에]와 [내예]로 소리가 난다. ‘질레에’도 [질레에]와 [질레예]로 소리가 나는데 이들은 바뀌기 전 풀인 ‘내에’와 ‘질레에’로 적는다. 여기서 조사 ‘에’가 ‘예’로 소리나는 것은 선행 체언이 ‘이’ 모음으로 끝날 때 반모음이 첨가된 형태이다. ‘질레’로 적는 규정을 좀더 보면 ‘한질레에’[한질레예]와 웃한질레에 [우탄질레예]에서와 같이 본디 풀인 ‘질레’가 명사로 쓰이고 여기에 처격조사 ‘에’가 결합되어 ‘질레에’로 적는다는 뜻이다.

다음은 [붙임] 규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제15항은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여 소리가 변할 경우 바뀐 대로 적는다는 규정인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가 있어서 붙임을 설정하였다.

이 항의 규정대로라면 ‘낮이’는 [나지]로 소리나고, ‘앞이’는 [아피]로 소리나므로 소리대로 적을 수 있음을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낮이’와 같이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기 때문에 다른 조사가 결합된 ‘낮도’가 [난또]로 소리나더라도 본디 꼴로 적는다는 의미이다.

만약 이런 원칙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한 단어를 여러 개의 형태로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로 든 ‘낮이’ 외에 ‘[나즐], [난만]’으로 적는다면 명사 ‘낮’은 ‘[낮], [나], [난]’ 등으로 실현되므로 기본형을 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붙임에서는 기본형을 정하여 적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어와 제주방언, 이름의 정치언어학

조 태 린 (대구대학교 국제한국어교육과)

1. 머리말

제주도 토박이들이 사용하는 말을 가리키는 명칭은 다양하다. ‘제주방언’, ‘제주도방언’, ‘제주사투리’, ‘탐라어’ 등이 그 예들인데, 그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제주방언’일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주방언’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제주어’라는 용어가 조금씩 사용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후자가 전자에 못지않게 또는 전자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용어 사용의 변화 양상을 살피고 그러한 변화의 이유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언어와 방언의 개념과 구별 기준에 대한 기존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언어와 방언의 관계를 순수언어학적 관점을 넘어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주어와 제주방언이라는 두 용어가 사용되는 양상을 살피고 제주방언을 대신하여 사용되는 제주어의 개념과 사용 이유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어와 제주방언의 관계가 언어와 방언의 관계를 통해 살펴볼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밝혀 보고자 한다.

2. 언어와 방언

인간이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말¹⁾이

1) 이 글에서는 ‘말’이라는 용어를 ‘언어’라는 용어와 구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말이 영어의 ‘code’처럼 그 지위나 기능을 고려하지 않는 가치중립적인 개념을 가리키는 용어라면, 언어는 특정한 지위나 기능

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들이 있으며, 형식언어학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말들이 나름의 형식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등하다. 하지만 사회언어학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말들이 지닌 지위와 기능은 동등하지 않은데, 그 대표적인 모습이 어떤 말은 ‘언어’라고 불리고, 어떤 말은 ‘방언’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언어’는 “생각, 느낌 따위를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에 쓰는 음성, 문자 따위의 수단 또는 그 음성이나 문자 따위의 사회 관습적인 체계”로, ‘방언’은 “한 언어에서, 사용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로 정의된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는 주요 영어 사전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표 1> 세계 주요 영어 사전에서의 ‘언어’와 ‘방언’의 정의

	언어(language)	방언(dialect)
Cambridge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 Thesaurus	소리, 단어, 문법으로 구성되는 의사소통의 체계, 또는 하나의 특정한 국가 또는 업종에 속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체계	언어의 한 형태로, 한 나라의 특정 부분에서 단어나 문법이 다르게 말해진다.
Merriam-Webster Dictionary	서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나 기호의 체계, 또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고 이해되는 인간 언어의 체계 중 하나	언어의 한 형태로, 고유의 단어, 문법, 발음 등이 있는 특정 지역에서 말해진다.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특정 국가나 지역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체계로, 문어 또는 구어로 실현된다	언어의 한 형태로, 단어나 문법의 측면에서 같은 언어의 다른 형태들과 약간의 차이가 나는 한 지역에서만 말해진다.

언어와 방언에 대한 위와 같은 사전적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체계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언어는 ‘그 구성

과 관련한 가치가 부여된 개념을 가리키는 용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요소나 규칙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변종들 간의 차이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일괄 체계'로 인식되는 반면에, 방언은 '한 언어의 다양한 변종들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언어와 방언을 구별 짓는 중요한 기준으로 발음, 어휘, 문법 등 언어 내적 형식 및 구조의 유사성이 고려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언어 내적 형식 및 구조의 유사성이 적은 말들은 서로 다른 독립된 언어가 되고(한국어 - 영어 - 중국어), 그 유사성이 큰 말들은 그 중 하나가 언어가 되고, 나머지는 그 언어의 방언이 된다는 것이다(한국어의 방언으로서의 중부방언, 동남방언, 서남방언 등).

하지만 언어 내적 형식 및 구조의 유사성은 서로 다른 독립된 언어임을 입증하거나 언어와 방언을 구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현실에서는 언어 내적 유사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언어라고 주장되거나 간주되는 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언어학자들이 언어와 방언을 구별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고자 시도했지만, 이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조태린 2004).

그 대표적인 예로 소쉬르는 문학 작품의 존재 여부, 상호 이해 가능성, 사용되는 지역의 규모 등을 언어와 방언(사투리)²⁾의 구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Saussure 1916/1967: 278). 하지만 그것들 역시 언어와 방언을 구별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었다. 문학작품을 쓰는 데 활발히 사용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투리로 취급되는 말(프랑스어의 사투리로서의 피카르디말)이 있다. 또한 서로간의 이해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서로 다른 독립된 언어라고 주장되는 말들(스웨덴어와 노르웨이어)이 있는 한편, 서로간의 이해가 거의 불가능함에도 한 언어의 사투리로 간주되는 말들(한국어의 방언으로서의 제주도말)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용되는 지역의 규모라는 기준 역시 언어 또는 방언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낸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언어의 방언으로 취급되는 말이 사용되는 범위가 하나의 독립된 언어로 간주되는 말의 사용 범위보다 큰 경우가 적지 않기 때

2) 프랑스에서는 한 언어에 종속된 변종들을 다시 문어로서 사용된 전통이 있는 'dialecte'와 그 전통이 없는 'patois'로 구별하는데, 편의상 전자를 '방언', 후자를 '사투리'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문어의 전통을 갖는 종속적 변종들이 존재한 적이 없으므로, 이러한 구별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단지 한국어에서는 방언이 학술적이고 점잖은 느낌을 가지면서 한 언어의 변종이 지닌 언어체계 전반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는 반면, 사투리는 일상적이고 약간은 속어적 느낌을 가지면서 방언의 일부로서 특유의 언어 요소(어휘, 표현 등)만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된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방언과 사투리를 개념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없다면 방언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문이다.

소쉬르 이후에도 많은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이 언어들 간의 구별 및 언어와 방언 간의 구별 기준으로써 상호 이해 가능성과 구조적 유사성을 제시하고 적용하고자 했지만, 그러한 시도는 언제나 불충분하거나 모순적인 결과를 낳을 뿐이었다. 사실 언어학자들의 대부분은 말의 내적 체계와 관련된 문제들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의 형성 과정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언어와 방언의 2분법을 포기하고 ‘언어(outer-language), 준언어(inner-language), 방언’의 3분법을 상정하려는 시도도 있으나 이 역시 언어 내적 기준만으로는 그 한계가 분명했다(정승철 2013: 10).

이와 관련하여, 사회언어학자 하우젠은 두 용어가 사용되어 온 역사적 과정을 살피면서, 언어와 방언의 구별이 상호 이해도의 기준이나 그 밖의 순수한 언어구조적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그것들이 사회적으로 사용되어온 모습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 그에 따르면, 방언은 근본적으로 한 언어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언어 내적, 구조적 한계를 가진 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주류 사회로부터 축출된 말”이거나, “성공하지 못한 말”일 뿐인 것이다(Haugen 1966/1972: 97-100). 더 나아가 사회언어학자 칼베는 언어와 방언의 구별에는 순수한 언어학적 기준보다 정치·사회적 기준이 더 중요하게 적용되며 현실에서도 지나치게 많은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언어와 방언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역사적 지칭만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지배어’와 ‘피지배어’라는 용어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Calvet 1974: 54).

이 글에서는 언어와 방언의 관계에 대한 사회언어학의 비판적 관점과 분석을 수용하되, 용어 사용의 역사성과 보편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언어와 방언이라는 용어 자체는 계속 사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언어는 ‘일정한 정치·사회적 권위에 의해 역사적으로 규범화되고 표준화되면서 주변의 유사한 말들을 포괄하고 대표하는 지위를 획득한 말’인 반면에, 방언은 ‘그 지위와 기능이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제한되면서 한 언어에 종속된 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해야 할 용어는 방언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지

역어(regional language)’다. 유럽에서는 지역어가 두 가지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먼저 하나는 앞선 논의에서 정의한 ‘방언’과 사실상 같은 개념을 가리킨다. 즉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발음, 어휘, 문법으로 특징지어지는 한 언어의 변종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 국가 내의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내적 구조 및 형식의 측면에서 주류 언어와 완전히 다른 언어라고 할 수 있는 말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는 카탈로니아어, 코르시카어, 알사스어, 브르타뉴어, 바스크어 등의 다양한 지역어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언어적 차이가 매우 커서 프랑스 내에서도 프랑스어의 방언이라 불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한국에서는 후자에 해당하는 말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자처럼 방언의 유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학술적으로는 방언은 단순한 지역 구분이 아니라 언어적 특징에 기반한 방언권이 상정되었을 때 사용(동북 방언, 영동 방언 등)하는 반면, 지역어는 어떤 방언권에 속하는지와 상관없이 특정 지역에서 사용되는 한국어를 가리킬 때 사용(강화 지역어, 연변 지역어 등)하는 방식으로 구별하기도 한다(정승철 2013: 12-13).

3. 제주어와 제주방언

위에서는 언어와 방언의 개념과 구분 기준에 관한 기존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언어를 ‘일정한 정치·사회적 권위에 의해 역사적으로 규범화되고 표준화되면서 주변의 유사한 말들을 포괄하고 대표하는 지위를 획득한 말’로, 방언을 ‘그 지위와 기능이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제한되면서 한 언어에 종속된 말’로 정의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주도 토박이들이 사용하는 말을 가리키는 용어로 ‘제주방언’을 대신하여 ‘제주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어와 제주방언의 이러한 사용 양상을 앞서 살펴본 언어와 방언의 관계를 통해 살펴볼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제주어와 제주방언이라는 두 용어의 사용 양상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새롭게 사용되기 시작한 제주어라는 용어의 개념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과 사용 이유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같은 말을 가리키는 두 개의 명칭, 즉 제주어와 제주방언의 사용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1. 제주어와 제주방언의 사용 양상

제주도 토박이들이 사용하는 말(이하 ‘제주도말’이라 하고, 이를 제주어와 제주방언을 모두 아우르는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을 가리키는 명칭 또는 용어로서 ‘제주어’가 ‘제주방언’에 비해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크게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강영봉(2007: 11)에 따르면, “‘제주어’라는 명칭은 1947년 발간된 석주명의 《제주도방언집》에서 비롯되지만, 1995년 《제주어사전》 이후 어느 정도 정착되는 느낌”이라고 한다. 이에 이 절에서는 1995년 이후 국내 학술자료의 제목을 통해 제주어와 제주방언의 사용 양상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제주어와 제주방언의 사용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술자료만이 아니라 신문이나 방송 등의 언론 자료나 인터넷 블로그 등의 다양한 일상 자료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학술 자료에 한정하여 조사하기로 한다.

국내 학술자료의 제목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해 검색했다. 이 서비스는 학술자료의 유형을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단행본, 기타 자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기타 자료 중 녹음이나 영상 자료를 제외한 연구 보고서만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단행본, 연구 보고서 등의 네 가지 유형을 나누어 조사했다. 그리고 각 유형은 다시 제주도말의 음운론, 형태론, 문법론, 어휘론 등 형식언어학 관련 자료(A)와 제주도말의 유지, 보전, 부흥, 교육 등과 관련된 언어정책론 관련 자료(B)로 나누어 정리했다. 이는 제주어와 제주방언의 사용이 두 개의 하위 유형 간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표 2> 최근 20년간 국내 학술 자료의 제목을 통해 본 제주방언과 제주어의 사용 양상

	제주방언3)									제주어									
	학위 논문		학술지		단행본		연구 보고서		소계	학위 논문		학술지		단행본		연구 보고서		소계	
	A	B	A	B	A	B	A	B		A	B	A	B	A	B				
1995	1		7		3				11					1				1	
1996			1						1										
1997			10						10										
1998	5		10						15										
1999	1		6	1	1				9			1						1	
2000	1		9						10			1						1	
2001			10						10			1						1	
2002			6	1					7			1					1	2	
2003	1		4	2	2				9			1						1	
2004	1		5	1					7			1		1				2	
2005			8		3				11										
2006	1		6		2				9										
2007			6	1	1		2		10					2				2	
2008	1		8	1					10				1	1				2	
2009			4						4					3				3	
2010	1			1	2				4		1		1	2				4	
2011	3		2	1	1				7				2	5				7	
2012	2		5	1					8			3	1	1			1	6	
2013			5						5			4	2	3			2	11	
2014														1				1	
소계	18	0	112	10	15	0	2	0	157	0	1	13	7	20	0	0	4	45	
합계	18		122		15		2			1		20		20		4			

(A: 형식언어학 관련, B: 언어정책론 관련)

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20년간 국내 학술 자료의 제목들에서는 제주방언이 157회 사용되고, 제주어가 45회 사용되어, 전자가 후자보다 3배 이상 압도적으

3) 이 조사 결과에서는 ‘제주도 방언’을 ‘제주방언’의 변이형 정도로 취급하여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제주방언’으로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로 많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이러한 양상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2010년을 전후로 제주어와 제주방언의 사용 횟수가 엇비슷해지더니 2013년에는 제주어가 제주방언보다 2배 이상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학술 자료의 네 가지 유형을 다시 형식언어학 관련 자료(A)와 언어정책론 관련 자료(B)로 나눈 것은 전자에서는 제주방언이 더 많이 사용되고 후자에서는 제주어가 더 많이 사용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가설은 부분적으로만 맞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조사 대상이 된 19편의 학위논문 중에는 제주도말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정책론 관련 논문은 단 1편 뿐이고 나머지 18편은 모두 형식언어학 관련 논문이었는데, 그 중 제주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언어정책론 관련 논문 1편 뿐이고, 나머지 18편은 모두 제주방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조사 대상이 된 142편의 학술지 논문 중에서 형식언어학 관련 논문은 총 125편이었는데, 그 중 제주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약 10%인 13편밖에 안 되었고, 나머지 112편은 제주방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2010년 이후 최근에 나온 언어정책론 관련 학술지 논문에서는 제주방언을 사용하는 논문(3편)에 비해 제주어를 사용하는 논문(6편)이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총 6편의 연구 보고서 중에서 형식언어학 관련 보고서 2편은 모두 제주방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언어정책론 관련 보고서 4편은 모두 제주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상은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예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된 총 35편의 단행본은 가설과 잘 들어맞지 않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 단행본들은 35편 모두 형식언어학 관련 서적들인데, 제주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15편인 반면에 제주어를 사용하는 것이 20편으로 더 많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제주방언을 사용하는 단행본이 3편뿐인 반면에 제주어를 사용하는 단행본은 12편으로 4배나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제주어가 형식언어학 관련 학술 자료에서도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2012년 이후의 형식언어학 관련 학술지 논문 중에서 제주방언을 사용한 것이 10편이고 제주어를 사용한 것이 7편으로 큰 차이가 없는 모습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3.2. 제주어의 개념과 사용 이유

제주어와 제주방언의 사용 양상에 대한 위와 같은 조사 결과는 예전에 비해 제주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그럼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제주방언과는 다른 제주어의 개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주방언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을 대신하여 제주어라는 용어가 새롭게 쓰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 개념과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주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각종 문헌 자료들을 검토해 보았다.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국내 학술 자료 외에도 조례나 기본계획 등과 같은 법이나 정책 관련 자료들도 함께 검토하고자 했다.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용어인 제주방언을 사용하지 않고 제주어를 사용한다면 그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와 사용 이유를 밝힐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토해 본 결과는 예상과 달랐는데, 제주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문헌들 중에서 제주어의 개념이나 사용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 매우 적었고 제주어의 개념을 밝히고 있더라도 그 개념이 제주방언의 개념과 잘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7년에 처음 제정되어 제주어라는 용어에 일종의 공식적 지위를 부여한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의 제2조에서는 제주어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 중에서 도민의 문화 정체성과 관련 있고,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데 쓰는 전래적인 언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정의에서는 제주방언에는 담을 수 없는 특별한 개념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술 논문들에서는 이 조례의 정의에 의거하여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제주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2013년에 완성된 《제주어 표기법》에서 제주어를 “제주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언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물론 제주방언 대신 제주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는 문헌이 없지는 않다. 강영봉(2007: 10)은 방언이란 개념의 역사적 용법에 비추어 볼 때 “어느 개념으로 사용되든 주변성과 지역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제주 지역에서, 제주 사람들에 의해 쓰여지는 언어를 ‘제주방언’, ‘제주도방언’이라는 이름 대신 ‘제주어’라고 명명”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기서 제주어라고 명명하는 것이 제주도말을 한국어의 한 변종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의 독립된 언어의 수준으로

보는 것임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더 나아가 차윤정(2011: 26)은 제주어라는 용어의 사용을 언어와 방언 또는 언어와 지역어 간에 내재된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적극적 실천으로 간주한다. “대상에 대한 존재 가치의 부여는 명명에서 시작”하는데, “방언이란 용어가 아무리 학문적으로 가치 중립적인 용어라 하더라도, 이미 언어 사용자들의 의식 속에는 표준어와 대립된 개념으로 인식되어 사투리와 다름없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주도말을 “제주어로 명명하려는 시도는, 불평등이 내재된 명명을 전화하려는 시도”이자 제주도말 사용자들의 “언어에 대한 주체적인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김은희는 제주방언을 제주어로 바꿔 부르는 것을 “방언의 마이너스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방언을 ‘지역어’로 바꿔 말하는 움직임”(김은희 2010a: 128)이라고 보면서 “제주방언을 ‘제주어’로 부르는 것은 독립된 언어로 인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김은희 2010b: 18)임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입장은 제주어를 표준어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의 지역어로 인정하고 모어의 자격을 부여하여 그 사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문순덕(2013: 42)의 주장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주어를 지역어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견해들에서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제주어라는 용어의 사용에서 주저함이나 동요의 모습이 나타나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흥미롭다. 김은희(2010a: 128)에서는 “‘제주어’라는 명칭은 조례로 규정되는 등 언어정책의 대상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앞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정착되어 갈 것으로 보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언어학적 특징에 고려하여 제주방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하지만, 김은희(2010b: 18)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명칭으로 두 언어의 균형을 고려하여 ‘오키나와어’, ‘제주어’를 사용한다. 언어학적으로 정의가 규정된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의 초점을 언어부흥운동을 통한 지역의 정체성 찾기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주어라는 용어가 언어학적인 논의에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제주도말 정책에 관한 문순덕의 글들(2008, 2010, 2012, 2013)에서 제주어와 제주방언의 사용이 동요하는 것이나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나오는 제주도말 정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양창용 외 2013)에서 제주어와 제주방언이 병기되는 것, 제주학

연구센터의 2013년 세미나에서는 제주어를 사용(“제주어의 새로운 인식과 보전 방안”)하다가 이번 2014년 세미나에서는 제주방언을 사용(“제주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표기법 해설”⁴⁾)하는 것 등의 예들은 한 개인이나 하나의 기관에서조차도 제주어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제주방언을 사용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동요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언어와 방언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제주어와 제주방언이라는 두 용어의 사용 양상을 국내 학술 자료의 제목을 통해 살펴보고, 제주어라는 용어를 사용한 문헌 자료들을 검토하여 제주방언을 대신하여 사용되는 제주어의 개념과 사용 이유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 결과, 2010년을 전후로 제주어라는 용어의 사용이 현저하게 증가했음을 확인했고, 이러한 변화는 방언이라는 용어에 내재된 부정적이고 열등한 이미지를 극복하고 하나의 언어 또는 지역어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주어라는 용어의 사용이 아직까지는 주저되거나 동요하는 모습도 확인되었는데, 특히 학술 연구의 분야에서 그러했다. 이러한 상황과 시점에서 이 글은 제주어와 제주방언이라는 두 용어의 사용 문제를 좀 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논의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제주어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한 조심스럽거나 다소 부정적인 학계의 태도와는 달리 제주도말을 보전하고 발전시키려는 행정기관이나 교육기관, 그리고 민간단체들은 제주방언 대신에 제주어를 사용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고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정한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작성한 <제2차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작성한 <2011학년도 제주어교육 기본계획> 또는 <2012학년도 제주어보전교육 기본계획>, 초중고교생용 제주어 교육자료 발간, 일부 중고교에서의 제주어 수업

4)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세미나 제목에 공식 명칭인 ‘제주어 표기법’ 대신에 ‘표기법’이라고 줄여서 적은 것이다. 이는 제주어라는 용어의 사용을 피하려는 의도 또는 무의식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등은 행정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제주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며, 제주도말의 보전과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가장 대표적인 민간단체의 이름이 ‘제주어보전회’다.

제주어와 제주방언이라는 두 용어의 이상과 같은 병존 양상은 사용 분야에 따라 선택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고착될 가능성도 있다. 국어학을 중심으로 하는 학문 분야에서는 제주방언을 사용하고 그 외의 분야에서는 제주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의 대상에 대해 두 개의 용어가 사용되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두 용어가 개념상으로는 근본적인 차이를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두 용어의 병존은 사용의 과정에서 끊임없는 동요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동요를 멈출 수 있는 것은 두 용어의 개념에 대한 학문적 논의보다는 제주도말을 공동체의 정체성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사용 주체의 노력과 달성 정도에 달려 있어 보인다.

또한 제주어의 사용은 한국 내의 다른 방언과의 관계 문제도 발생시킨다. 제주 방언 대신 사용되는 제주어라는 용어는 이제 크게 낯설지 않지만, 전라방언, 경상 방언, 중부방언, 동남방언 등을 대신하여 사용되는 전라어, 경상어, 중부어, 동남어 등의 용어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제주어는 한국어와 기타 다른 방언 사이에서 일종의 중간자적 지위를 자임하려는 것일까? 제주어를 한국어와 같은 수준의 독립적인 언어로 자리매김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지역 방언보다는 우위에 있는 말로 인식하는 경향은 제주어라는 용어의 사용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10월 제주학연구센터에서 개최한 ‘제주어의 새로운 인식과 보전 방안’ 세미나에서 격려사를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발언 중에는 “제주어는 일개 방언이 아님을 여러분께서는 더욱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단지 제주도말이 다른 방언에 비해 더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만으로 다른 방언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어의 사용은 제주도말의 특수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의 다양한 방언 관계 속에서 어떤 지위 혹은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영봉(2007), 우리 시대 제주어의 가치, <“올바른 제주어 보존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강창일 국회의원, 7-29.
- 강영봉(2012), 제주어 표기법 마련과 관련한 몇 문제, <‘제주어 표기법,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 자료집>,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32-38.
- 강영봉(2013), 제주 사회 통합과 제주어, <탐라문화> 4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39-65.
- 강정희(2011), 제주방언 연구의 생태 언어학적 가치, <제주도연구> 36, 제주학회, 53-83.
- 강정희(2012), 소멸위기의 제주방언 보전을 위한 방언 활성화 방안, <영주어문> 23, 영주어문학회, 185-205.
- 고재환(2012), ‘제주어 표기법’의 제정 절차, <‘제주어 표기법,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 자료집>,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1-31.
- 김세중(2011),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을 위한 제주어 육성 정책의 진단과 향후 과제, <제주도연구> 36, 제주학회, 35-52.
- 김순자(2011), 제주어의 보전과 활용 방안, <제주도연구> 36, 제주학회, 1-33.
- 김은희(2010a), 지방자치단체의 언어정책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동북아문화 연구> 22, 동북아시아문화학회, 123-138.
- 김은희(2010b), 지역어 부흥운동의 일한 비교 연구: 오키나와와 제주의 경우, <일본 학보> 83, 한국일본학회, 13-24.
- 문성숙 외(2002),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어 서비스 강화에 따른 국어와 제주방언 보존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문순덕(2008), 제주어의 문화정책 방안, <제주발전연구> 12, 제주발전연구원, 291-309.
- 문순덕(2010), 제주방언의 보전 전략, <영주어문> 19, 187-207.
- 문순덕(2012), <제주어, 유네스코 절멸위기의 진단 이후 극복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문순덕(2013), 제주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 방법, <‘제주어의 새로운 인식과 보전 방안’ 세미나 자료집>,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38-51.
- 박경훈(2013), 소멸위기의 제주어, 왜 국가 어젠다가 되어야 하는가, <‘제주어의

- 새로운 인식과 보전 방안' 세미나 자료집>,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2-37.
- 송상조(2012), 제주어 표기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효과, <'제주어 표기법,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 자료집>,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4-20.
- 양창용(2013), 타 언어 사례를 통해 본 제주어 활성화 방안, <'제주어의 새로운 인식과 보전 방안' 세미나 자료집>,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7-21.
- 양창용·양세정(2013), <소멸위기 언어 보존 사례 분석을 통한 제주어(제주방언) 보전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오창명(2005),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제주 토착어의 적극적 활용, <영주어문> 10, 영주어문학회, 5-28.
- 정승철(2008), 방언 표기법의 이상과 현실 - 제주방언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15, 영주어문학회, 33-51.
- 정예영(2008), 프랑스의 지방어 보호와 육성 정책, <프랑스학연구> 46, 프랑스학회, 401-420.
- 제주발전연구원(2013), <제주어 표기법>,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2007/2011),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제정 2007.9.27 조례 제 280호, 일부개정 2011.4.6. 조례 제719호)>,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2012), <제2차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1), <2011학년도 제주어교육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2), <2012학년도 제주어보전교육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조태린(2004), 계급언어, 지역언어로서의 표준어, <당대비평> 26, 생각의 나무, 74-87.
- 조태린(2006), '국어'라는 용어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학> 48, 국어학회, 363-394.
- 조태린(2007), 표준어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한말연구> 20, 한말연구학회, 215-241.
- 정승철(2013),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 서울: 태학사.
- 차윤정(2009), 지역어의 위상 정립을 위한 시론 - 1930년대 표준어 제정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25, 우리말학회, 387-412.

차윤정(2011), 언어권리와 로컬의 주체형성: 제주로컬어 부흥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40,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3-30.

차윤정 · 장세룡(2012), 언어에 대한 시선과 로컬어 육성 전략 - 제주어와 브르타뉴어를 중심으로, <로컬리티 인문학> 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45-180.

하응천(2004), 제주 방언의 위기 극복 방안, <언어학연구> 9(1), 한국언어연구학회, 87-94.

Calvet, L.-J.(1974), *Linguistique et colonialisme : Petit traité de glottophagie*, Paris: Payot.

Haugen, E.(1966/1972), Dialect, language, nation, in J.B. Pride and J. Holmes (eds.)(1972), *Sociolinguistics: Selected Readings*, Harmondsworth: Penguin.

Saussure, F. de(1916/1967),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Payot.

제주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

- ◎ 제주방언 연구 총론
고 동 호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 제주방언의 음운론 연구사
정 승 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 제주방언 형태론의 연구 현황과 과제
송 상 조 (제주어보전육성위원)
- ◎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 연구에 대한 개괄적 검토
고 영 진 (일본 도시샤대학교)
- ◎ 제주 방언 통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김 지 홍 (경상대학교 국어교육과)
- ◎ 제주방언의 어휘의미론
오 창 명 (언어와문자연구소 소장)
- ◎ 제주방언 화용론 연구의 현황과 과제
문 순 덕 (제주학연구센터장)
- ◎ 제주방언 정책 연구, 현황과 과제
문 순 덕 (제주학연구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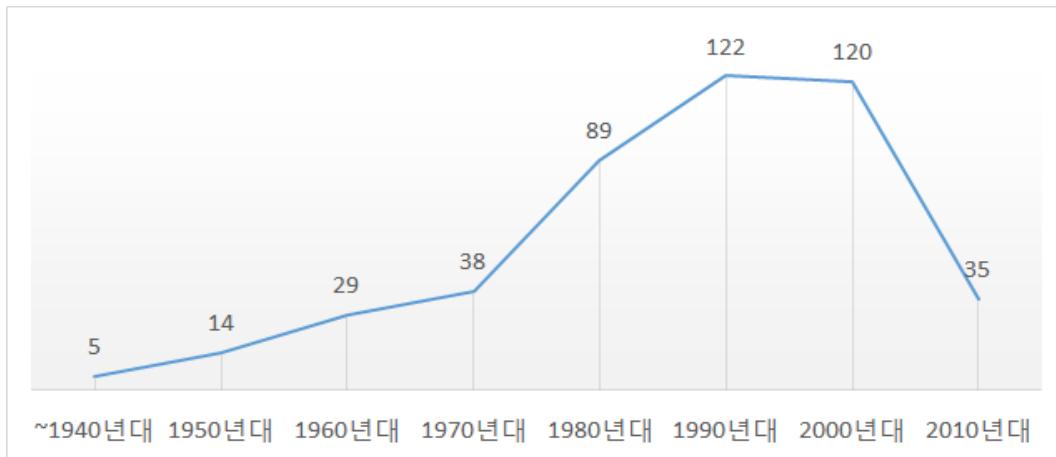
제주방언 연구 총론

고 동 호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 들머리

현대적 의미에서 최초의 제주 방언(이하 ‘이 방언’이라고 줄여 부름) 연구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의 “濟州島方言”(朝鮮及滿洲, 1913)이 출판된 지 이제 만 100년이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 방언에 대한 기록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본격적인 연구라고 할 수 없는 단편적인 기록에 불과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496개의 연구 논저가 출판되었다. 물론 이 수는 분석 대상의 범위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대체적인 경향을 보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목록을 대상으로 이 방언에 대한 연구 성과와 흐름을 개괄하기로 한다.

이 글에서는 연구가 이루어진 연대를 기준으로 삼고, 음성/음운, 문법, 어휘, 의미/화용, 기타의 분야로 나누어서 기술함으로써 현재까지 이루어진 이 방언에 대한 연구 동향을 개괄하고자 한다. 이처럼 연대를 제1차적인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주제에 따른 기술은 각 분야별 연구사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기대고 있는 이론에 따른 기술은 이 글에서 다루기에는 논의의 수준이 너무 깊어지기 때문이다. 5개 분야 중에서 어휘는 단어의 의미 혹은 의미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를 뜻하고, 의미/화용은 구(句) 이상의 단위의 의미/화용에 대한 기술을 뜻하며, 기타는 음성/음운~의미/화용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분야임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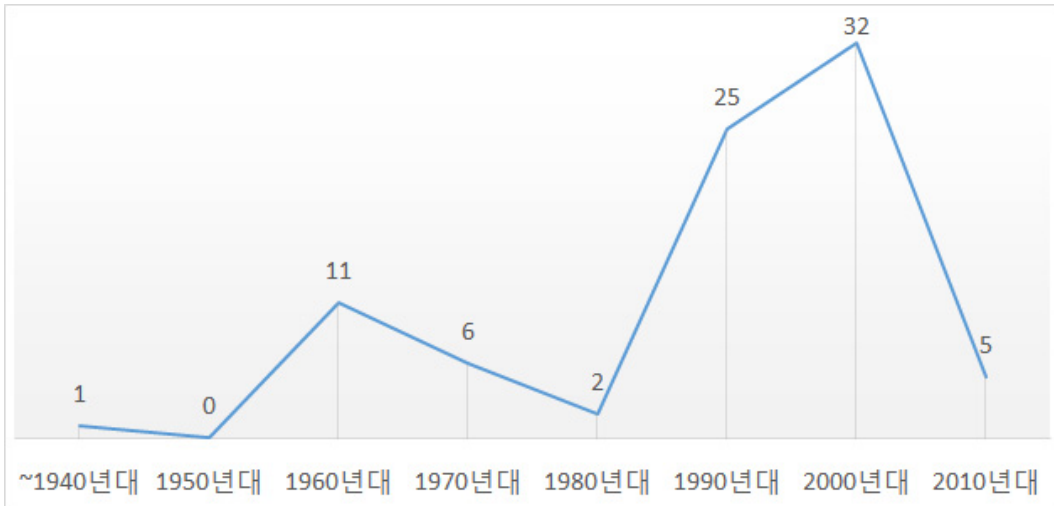
<그림 1> 1940~2010년대의 제주 방언에 대한 학술 논저 수

학술적인 글과 일반적인 성격의 글을 구별하는 경계가 모호하기는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 방언의 개괄, 특징, 연구사, 정책 등에 관한 글을 일반적인 성격의 글로 간주하여 학술적인 글과 구별하였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성격의 글은 하위 분야로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눈 결과, 지난 100년 동안에 이루어진 학술 연구 논저는 458편이었는데, 위의 <그림 1>은 이 수를 1940년대까지와, 그 이후를 10년 단위로 나누어 나타낸 것이다. 그 수를 보면 1950년대까지만 해도 그리 많지 않았던 이 방언 연구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늘어나기 시작하여, 1980년~2010년대에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졌고, 2010년대에 주춤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 따라서 이 글에서도 기술 대상으로 삼는 기간을 위와 같이 나누고 각각 발아기, 성장기, 융성기, 조정기로 부르기로 한다.

이와 함께 일반적인 성격의 글 82편의 연대별 발표 수도 정리해 두기로 한다. 아래의 <그림 2>가 시대별 일반적인 성격의 논저 수인데, 위의 학술적인 글의 증감 추세와 대개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발아기에는 1편으로 미미했다가 성장기에 17편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여, 융성기에는 59편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조정기에는 5편으로 주춤해 있다.²⁾

1) 현평효(1987)에 따르면, 1986년까지 이루어진 이 방언에 대한 연구 논저가 172편이었으므로, 약 23년 남짓한 기간 동안 학술 연구 논저만 고려해도 그 수가 280편 넘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10년대는 이 글의 집필 시점인 2014년 7월 현재 검색 결과로 나타나는 것까지를 대상으로 삼았다.

2) 1980년대는 학술 논저와 일반 논저의 증감 추세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하에서는 학술 연구 논저만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그림 2> 1940~2010년대의 제주 방언에 대한 일반 논저 수

이 방언 연구 성과에 대한 개괄은 이미 몇 차례 이루어진 바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현평효(1987), 강정희(1992), 오창명(2000)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음성/음운, 어휘, 문법 등의 분야로 나누어 연구 성과, 과제 등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글은 이 방언의 연구사 100년을 총괄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불가피하게 선행 연구와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한다.

2. 발아기(1940~1950년대)

오구라 신페이 이전에도 일본에서 한국어를 연구한 사람이 있기는 했지만, 현대적 의미에서의 한국어 연구를 시작한 사람은 오구라 신페이였다. 이 방언을 포함한 한국어의 방언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오구라는 1903년에 동경제국대학 언어학과에 입학하여 1906년에 졸업하고, 1907년부터 1910년까지는 대학원에서 일본어 음운사를 연구했다. 오구라가 한국어를 연구하게 된 동기는 “한국어의 구조와 계통을 밝히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오구라가 대학 및 대학원에 다녔던 시기의 언어학 학풍과 일본의 세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상황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구라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 1911년부터 조선총독부에서 근무하다가 1924년부터 1926년까지 유럽 및 미국에서 유학한 후 1926년부터 1932년까지는 경성제국대학 교수, 1933년부터 1943년까지는 동경대학 언어학과 교수를 지냈다. 오구라는 1912년에 한반도에서 첫 번째 방언조사를 제주도에서 실시하였고, 1930년에도 제주도에 방언 조사를 실시하였다. 오구라의 이 방언에 대한 논문은 먼저 1913년에 발표되었는데, 1931년에 이를 대폭 개정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후자는 서론, 총설, 음운, 어법, 어휘, 제주도의 외국어학, 결론의 7개 절로 구성되어 있다. 이 논문의 핵심은 음운~어휘인데, 다소 장황하지만 이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음운

- (1) ‘·아’: ‘오’[o]와 ‘어’[ɔ]의 중간에 위치한 원순모음
- (2) ‘ㅓ’: [ə]
- (3) 이중모음 ‘ㅓ’, ‘ㅓ’, ‘ㅓ’, ‘ㅓ, ㅓ, ㅓ’: ‘ㅓ’는 [e]로 실현되고, ‘ㅓ’는 [we]로 일반적으로 실현된다.
- (4) ‘ㅓ, ㅓ’
- (5) ‘ㅓ, ㅓ, ㅓ, ㅓ’: j가 탈락되어 [ㅓ, ㅓ, ㅓ, ㅓ]로 발음된다.
- (6) ‘ㅓ, ㅓ, ㅓ, ㅓ, ㅓ’ 및 ‘ㅓ, ㅓ, ㅓ, ㅓ, ㅓ’: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각각 [ㅓ, ㅓ, ㅓ, ㅓ, ㅓ] 및 [ㅓ, ㅓ, ㅓ, ㅓ, ㅓ]로 발음된다.
- (7) 어두의 ‘ㅓ’
- (8) 어두의 ‘ㅓ, ㅓ, ㅓ’: [ㅓ, ㅓ, ㅓ]로 발음된다.
- (9) ‘ㅓ, ㅓ, ㅓ’: [ㅓ, ㅓ, ㅓ]로 발음된다.
- (10) ‘ㅓ, ㅓ, ㅓ’: [ㅓ, ㅓ, ㅓ]로 발음된다.
- (11) ‘반치음’: [ㅓ]으로 발음된다.
- (12) 어중의 ‘ㅓ’
- (13) 일부 경음 및 평음의 대응
- (14) 음절의 축약과 신장
- (15) 억양: 일반적으로 저조로 실현된다.

2) 어법

- (1) ㅅ변칙용언의 부재
- (2) ㅂ변칙용언의 존재
- (3) 어미의 용법: -수과, -수다, -수니과, -시니, -신가, -수젠, -서, -되/-되야, -저, -주/-주기, -ㅁ이니, -ㅁ이파/-ㅁ이우짱, -ㅁ가, -ㄴ가, -우까/-우파, -가, -우다, -ㄹ쿠과/-쿠과, -ㄹ쿠다/-쿠다, -ㄹ쿠젠/-ㄹ쿠젠/-ㄹ쿠젠, -ㄹ켄가, -ㄹ키여/--키여, -키엔, -되엔/-되, -단, -랜, -센/-생, -젠, -앙/영/-영/-연/-왕, -매, -건되, -건, -명/-도람서, -나네, -ㅂ서, -ㅂ서사, -심
- (4) 조사의 용법: -래, -사,

3) 어휘: 17개의 특이한 어휘에 대한 용법 설명

오구라(1931)는 주제와 방법론이라는 점에서 해방 이후 이 방언에 관한 연구 논저에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꽤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본다. 예컨대 음운은 다른 방언과 비교하면서 주로 통시적인 관점을 취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어법이나 어휘는 전혀 그렇지 않다.³⁾

이 시기에 이루어진 연구로 후대의 학자들에게 위의 오구라(1931)보다 더 많은 영향을 준 것이 이송녕의 ‘제주도방언의 형태론적 연구’(1957)이다. 이송녕(1957)의 영향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방언이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립된 기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이 방언을 기술했던 오구라(1931)와는 달리 공시적이고 구조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방언을 기술했다는 점이다. 이 방언에 대한 연구자들은 물론 한국어의 다른 방언에 대한 연구자들까지도 이송녕(1957)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의 구성을 간단히 보이면 다음과 같다.

I. 서론: 음운론적 개관

II. 조어론적 고찰

3) 정밀한 분석과 비판적 고찰 등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의 과제로 미룬다.

Ⅲ. 명사의 격변화

Ⅳ. 대명사와 수사

V~Ⅸ. 동사

X. 형용사

XI. 부사와 감탄사

즉 음운론적인 개관을 한 후에 단어 형성법을 다루고, 이어 가변어인 체언과 용언, 불변어인 부사와 감탄사의 순서로 이 방언의 형태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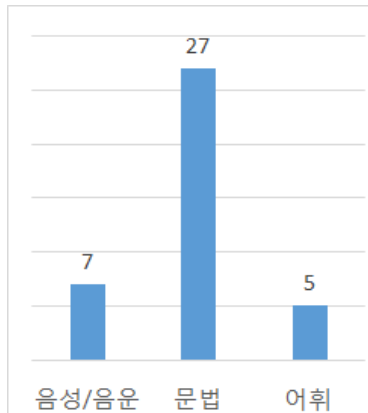
그 밖에 이 시기에 이루어진 연구 중에서 독특한 것으로 석주명(1947), 김영돈(1956, 1957a, b), 김완진(1957)을 들 수 있다. 석주명(1947)은 최초의 이 방언 어휘 집이고, 김영돈의 논문은 이승녕(1957)과 비슷한 시기에 공시적인 관점에서 이 방언의 문법 중의 일부를 다루었으며, 김완진(1957)은 지금까지도 별로 이루어진 바 없는 이 방언의 차용 현상을 다루었다.

이 시기는 다음에 다룰 성장기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해방 이전까지는 각 방언에 관심이 미칠 만큼 한국어 연구의 시각이 넓지 못했으며, 해방 이후에도 사회적인 혼란과 6·25전쟁의 여파로 이 방언을 연구할 학문적 기반이 충실하게 조성되지 않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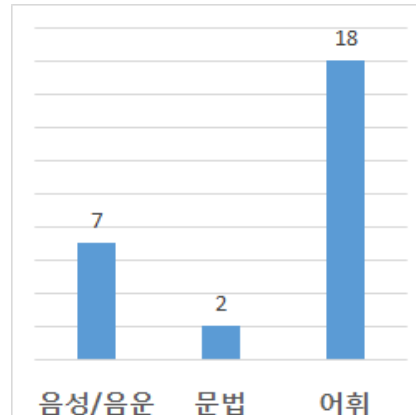
3. 성장기(1960~1970년대)

1950년대까지만 해도 그리 활발하지 않았던 이 방언에 대한 연구 논저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67편으로 1950년대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이 67편은 공시적인 관점의 연구가 39편, 통시적인 관점이 27편, 기타가 1편이다⁴⁾. 이 39편과 27편을 분야별로 제시하면 아래의 <그림 3>, <그림 4>와 같다.

4) 박용후(1960)은 논문을 모아서 단행본으로 펴낸 것이어서 공시적/통시적 방법이 섞여 있고, 분야도 음운, 문법, 어휘 등 다양하다.



<그림 3> 1960~1970년대의 제주 방언의 공시적 연구 논저의 분야별 편수



<그림 4> 1960~1970년대의 제주 방언의 통시적 연구 논저의 분야별 편수

3.1 공시론

<그림 3>을 보면, 우선 공시적인 관점에서 이 방언의 문법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법을 다룬 27편을 좀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파생 접사를 다룬 것이 4편, 어미를 다룬 것이 15편, 조사를 다룬 것이 5편, 문법 전반을 다룬 것이 3편으로, 발아기에 비해 연구 분야가 세분화되어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구조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이 방언의 문법을 분석했지만, 성낙수(1975)는 변형생성문법 이론에 입각하여 어미를 다루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선어말어미를 독특하게 보조동사라고 부르고 있다. 이 시기의 공시 문법 분야의 논저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현평효(1976)이다. 이것은 같은 제목의 이 방언에 대한 최초의 박사 학위 논문을 단행본으로 펴낸 것인데, 동작상, 높임법, 서법을 본문의 독립된 장으로 포함하고 있다.

공시적 음성/음운에 관한 논저는 8편인데, 주로 모음에 관한 것이다. 1960년대 전반기까지는 이 방언과 중부 방언의 음운 대응 관계라든가 ‘·’와 ‘ㅁ’의 음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1960년대 후반기에 와서는 모음 체계라는 개념이 이 방언 음운론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는 현평효(1963)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던 이 방언의 /·/에 대해 혀가 뒤로 쭉 물러나고 연구개가 쳐들어지고, 혀의 높이는 ‘고’보다 훨씬

썩 낮고 ‘ㅈ’보다 약간 높으며, 개구도는 ‘ㅈ’보다 조금 올려서 좁아진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이 설명은 혀의 높이와 개구도를 별도로 설명한 것이 어색하고, 원순성에 대한 기술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보이지만, 토박이 화자로서 /·/의 조음 방법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시적 어휘론에 속하는 연구 논저가 많지 않아서 5편에 불과하지만, 주목할 만한 연구 논저가 나왔다.⁵⁾ 우선 박용후(1960)는 자료편과 고찰편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1988년에 분권되고 개정판으로 나왔다. 개정판을 기준으로 보면 자료편은 11,000개 이상의 표제어를 수록하고 있으며, 천문, 지리, 방위 등 38개의 부류로 분류되고 각 부류 안에서는 한글의 자모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고찰편은 서론, 문법, 음운현상, 다른 방언과의 대조, 방언 자체의 역사적 고찰, 지명, 탐라라는 명칭, 향가와와의 관계 등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편은 국내 학자로서는 최초의 이 방언의 어휘를 수록한 것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고, 고찰편은 이승녕(1957) 이후 이 방언의 토박이 화자에 의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서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둘째로 현평호(1962) 역시 상당히 이른 시기에 발표되어 이 방언의 기본적인 어휘 자료로 이용되어 왔다. 박용후(1960)과는 달리 전편에서는 로마자로 제시된 방언형을 표제어로 삼고 그에 대응되는 대역 표준어구를 제시했고, 후편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글로 표준어구를 제시하고 그에 대응되는 방언형을 제시하되 적절한 표준어구가 없는 방언형은 그대로 표제어로 삼아 뜻풀이를 제공했다. 전편과 후편 모두 지역별 변이형이 나타나는 지역 이름도 표시하였다. 표제어는 대략 13,8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이운금(1965)는 다른 자료집과는 달리 회화 자료집이라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이 책에서는 회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14개로 나누고, 각 상황별로 25개 내외의 회화 자료를 제시했으며, 간단한 어법도 소개했다.

3.2 통시론

통시적인 관점에서의 연구 논저는 어휘 분야가 18편, 음성/음운론 분야가 7편,

5) 이 방언의 단어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어휘’의 개념은 연구자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강근보(1975)는 제목이 “濟州島方言語彙攷”여서 어휘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조사 ‘마씀’을 다루고 있다.

문법 분야가 2편, 발표되었다. 우선 논저의 수로 보면 공시적인 연구와 통시적인 연구의 순서가 정반대라는 것이 흥미롭다. 즉 공시적인 관점의 연구 업적은 문법>음성/음운>어휘의 순서인데 비해 통시적인 관점은 어휘>음성/음운>문법의 순서이다. 이것은 이 방언의 특이성이 문법과 어휘에서 관찰되었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문법은 공시적인 기술을 위주로 삼는 구조주의 이론을 따르고 어휘는 문헌에 기록된 형태와 비교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휘 분야의 연구 논저는 주로 문헌에 기록된 ‘耽羅’ 및 그 이표기에 대한 음운 및 의미를 재구하거나 이 방언의 현대어형을 문헌형 또는 타 지역의 방언형을 비교하여 단어의 역사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연구로 현평효(1969), 박용후(1968)을 들 수 있는데, 간단하게 당시의 연구의 방법론을 검토하기로 한다.

현평효(1969)에서는 ‘남, 낭, 나모, 나무’ 등의 이형태가 이 방언에 존재하고, 다른 방언에서는 ‘낭기, 낭구, 낭이’ 등으로 나타나는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변화 과정을 추정하였다.

*나>*나+ㄱ(명사화 접미사)>*남+*ㄱ(접요사)+(조사)⁶⁾

그러나 위의 과정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먼저 원형(urform)으로 잡고 있는 ‘*나’의 정체가 밝혀져야 한다. 즉 ㄱ이 명사화 접미사라면 ‘*나’가 용언인지 체언인지 밝혀야 하고, 용언이라면 그 뜻이 무엇인지 체언이라면 일반적으로 용언의 어간에 통합되는 ㄱ이 체언에 통합되었는지가 밝혀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ㄱ’이 접요사라면 한국어에 접요사가 첨가되는 현상이 있었는지, 그것이 왜 ‘ㄱ’인지 밝혀져야 한다. 물론 이것은 현대적인 시각에서 검토한 결과이지만 이 방언의 단어의 역사에 접근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⁷⁾

한편 박용후(1968)에서는 ‘耽羅’의 ‘섬모라(島山)’에서 온 것으로 보고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⁸⁾

6) ‘나무’와 함께 ‘나물’에 대응되는 단어들의 역사도 다루고 있는데, 전자만 검토하기로 한다.

7) 이기문(1962)은 위와는 달리, ㄱ과 ㄱ이 후대에 첨가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요소로 보고 있다. 즉 ‘*나목’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와 결합하면 *·가 탈락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와 같은 현상이 ‘ㄴᄇ(紛), ㅎᄇ(一日), 아숙(弟)’에도 일어난다고 하였다.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와 결합하는 경우의 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으나 *·가 탈락하고 *·>ㄱ의 변화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 현평효(1972)는 耽은 ‘*담’으로 읽고, 羅는 어두에 사용된 다른 예들처럼 ‘*나’라고 읽었다. 그리고 후자

- 1) 耽은 涉의 와음이고, 涉은 羅 앞에서 ‘섬’으로 발음된다.
- 2) 羅는 앞의 ‘모’가 탈락한 것이고, ‘*모라’는 ‘*모리>*모이>*뫼(山)’의 변화를 거쳤다.

그러나 이러한 해독이 정당화되려면 耽은 涉의 와음이라는 증거, 중국의 사서에 자음동화가 반영된 결과가 표기된 이유, ‘*모라>*모리>*모이’의 변화 과정에 대한 증거가 더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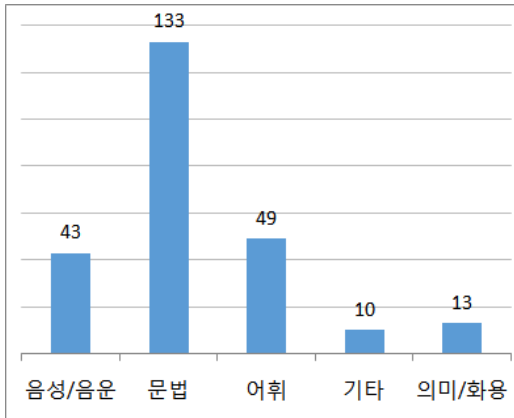
통시적 음성/음운 분야에서는 이기문(1977)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젊은이문법학파가 제기한 작업 가설인 소리 변화의 예외 불허용성을 이 방언의 역사에 적용하였다. 즉 이 논문은 중세 한국어의 ‘여덥’과 그것이 제주 방언형 ‘으덥’에 대응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15세기 이전에 중부 방언의 어두에서 ‘*으>여’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밝혔다. 중부 방언의 ‘여덥’은 모음조화를 지키지 않는 것인데, 15세기 이전에는 모음조화가 더 엄격하게 지켜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중세 한국어의 ‘견디-’에 이 방언의 ‘즌디-’가 대응되는 것은, 중세 한국어 어형은 이 ‘*으>여’의 변화를 겪은 반면에, 제주 방언형은 ‘*즌 디->즌디-’의 변화 즉 어두자음의 구개음화와 제2음절의 ‘*·>ㅡ’ 변화가 일어난 결과로 보았다.

4. 융성기(1980~200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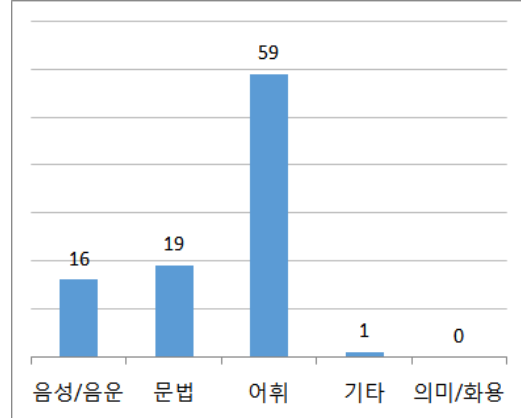
이 방언에 대한 연구 논저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수가 늘어났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1970년대까지의 성장기에 이 방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연구 인력이 증가하기 시작한 결과로 보인다. 공식적 관점의 연구는 248편, 통시적 관점의 연구는 95편이 발표되었는데, 이를 분야별로 세분해 보면 아래의 <그림 5>, <그림 6>과 같다.⁹⁾

는 만주어에서 ‘땅’을 의미하는 na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

9) 두 분야 이상에 걸친 논저들은 각 분야마다 모두 계산했으므로, 분야별 논저의 합은 전체적인 논저 수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림 5> 1980~2000년대의 제주 방언의
공시적 연구 논저의 분야별 편수



<그림 6> 1980~2000년대의 제주 방언의
통시적 연구 논저의 분야별 편수

<그림 5>를 <그림 4>와 비교해 보면, 어휘의 증가 비율이 음성/음운 및 문법 분야보다 더 높고, 기타 및 의미/화용 분야의 논저가 새로 생겼으며, <그림 6>을 <그림 4>와 비교해 보면, 문법의 증가 비율이 다른 분야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이전 시기에 이 방언의 음성/음운이나 문법에 대한 특징은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보고 덜 연구되었거나 새로운 영역의 특징을 밝히고자 했고, 성장기와 이 시기에 많은 주목을 받은 문법을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밝히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4.1 공시론

우선 문법 분야에서는 인용문이라든가 접속문, 보문의 구조, 부정문, 보조용언처럼 어휘 형태소와도 관련이 있는 통사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분야의 선구적인 연구를 들면, 인용문과 접속문은 성낙수(1980) 및 성낙수(1982), 보문의 구조는 김지홍(1983), 부정문은 강정희(1992), 보조용언은 문순덕(2000)을 들 수 있다. 또 하나는 문순덕(2002)처럼, 종래의 문법 이론에서 벗어나 담화라는 시각에서 보조사나 감탄사를 연구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러한 주제가 연구되기 시작함으로써 이 방언의 문법 연구의 주제가 다양해지고, 그 후에 다른 시각과 이론에 바탕을 둔 연구가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어미나 조사 등의 문법 형태소의 용법을 밝히고자 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많이 연구된 주제로는 시상법, 높임법, 평서/의문 등의 서법이 있다.

어휘 분야에서는 특정 분야의 어휘 체계를 기술하려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진 분야로는 동물명, 식물명, 어패명, 음식명, 기명(器皿), 직업어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보다는, 여전히 지명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도 꽤 많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이 방언의 어휘 연구는 개별 어휘 항목에 대한 기술도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보다는 일정한 이론의 바탕 위에서 일관되게 연구 대상을 설명해 가는 것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의 어휘 분야 연구 논저로 특히 언급하고 싶은 것은 제주도(1995) 및 제주특별자치도(2009), 송상조(2007) 등이다. 앞의 둘은 현평효(1962)의 수정 증보판이며, 송상조(2007)은 현평효(1962)에 이어 개인의 힘으로 수집하고 정리한 이 방언 사전이다.

음성/음운 연구 분야도 문법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연구 주제가 다양해졌고, 연구의 수준도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한곤(1980), 정승철(1988, 1999)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김한곤(1980)은 최초로 제주 방언의 /·/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정승철(1999)은 이 방언의 악센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뒤에 이루어지는 이 방언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음성학적 연구들은 직간접적으로 이 연구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승철(1988)은 기본적으로 생성음운론적인 시각에서 이 방언의 모음 체계와 모음과 관련된 음운 현상을 기술함으로써¹⁰⁾ 이 방언의 모음론을 정밀화했다. 그외에 이 시기에 다루어진 음운현상으로는 움라우트, 경음화, 구개음화, 중화, 고모음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음운 현상들을 다루면서 이 방언에서 실현되는 표면형으로 기저형을 설정하지 않고 중부방언형을 고려하여 기저형을 설정한 연구도 간혹 있었다. 예를 들어 김광웅(1986)에서는 “설정적 자질 [+coronal]을 가진 파열음이나 파찰음을 말음으로 가지고 있는 명사들은 ... 모음으로 시작되는 곡용 어미와 연결될 때 ... /s/로 교체되는 현상을 강렬히 나타내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바시~밭디(田)’는 ‘-디’를 ‘밭’과 결합하는 형태론적 이형태로 간주하고 기저형을 /밭/으로 설정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

이 시기에 나머지 분야에서도 연구 주제가 넓어졌다. 우선 의미/화용 분야에서

10) 이 논문의 제5장에서는 모음체계를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는 고재환(1981)의 속담에 대한 연구, 강영봉(1990)의 관용어에 대한 연구, 양용준(2003)의 화행과 함축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특히 화용론 분야는, 후속 연구가 없기는 했지만, 미개척 분야라는 점에서 앞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 외에 성낙수(1991), 강윤희(1993), 강영봉(2008), 고순여(2008) 등이 새로운 영역의 연구를 개척했다. 성낙수(1991)은 제주도 안에서의 방언 분화를 다루었고, 강윤희(1993)은 두 방언을 사용하는 양상을 인류학적으로 연구했으며, 강영봉(2008)은 ‘제주어 표기법’의 경과와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이 방언 표기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고순여(2008)은 이 방언의 구술 내용을 그대로 텍스트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식의 방언 자료를 구축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였다.

4.2 통시론

어휘에 대한 연구는 59편으로 95편의 통시적 연구 논저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 중에서도 지명 연구가 27편이었다. 이 중에서 오창명(2007)이 다루고 있는 대상의 양과 천착의 깊이, 신중한 결론에서 주목된다¹¹⁾ 이 연구는 문헌이나 지도에 기록된 3,000개 정도의 지명에 대해 음가와 의미, 언어학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 시기에는 이 방언에 몽골어 차용어가 있다는 사실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이기문(1985)에서는 ‘녹대’와 ‘가달’이 몽골어에서 들어온 차용어라는 것을 정밀하게 논증하였다.

문법에 대한 연구 경향으로 주목할 것은 강정희(1982)에서 문법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 논저에서 시작된 이 방언의 문법화에 대한 논의는 그 뒤로도 이어져서 이 시기만 해도 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 외에 문법사라는 시각에서 다루어진 주제로는 품사 범주의 변화, 형태의 변화, 파생 접사 재구 등이 있다.

음성/음운 분야도 이전 시기보다 훨씬 다양한 주제의 논저들이 발표되었다. 기

11) 필자의 고향에 ‘바군봉’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대부분 ‘바군’은 ‘破軍’의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군이’ 또는 ‘바굼지’의 불완전한 차자 표기이기 때문에 여몽연합군의 삼별초 정벌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의 생김새와 관계가 있다(83쪽)고 보았다. 또한 필자의 고향 마을은 ‘개물’인데, 이 ‘개’는 뚜껑과는 관련이 없고 ‘야생의, ...’ 또는 ‘헛된’의 뜻을 가진 접두사로 추측하였다. 필자가 어렸을 때 이 ‘개물’은 거의 물이 나오지 않는 샘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추측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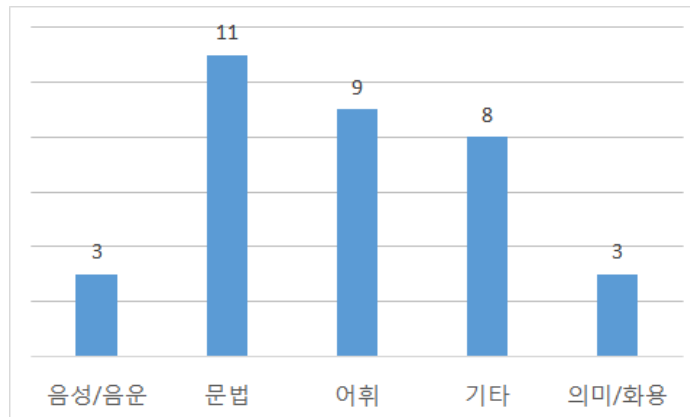
본적으로 이 분야의 논저들은 문헌형과 이 방언 어형을 비교하여 문헌형에서 현대 어형으로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중부 방언의 문헌형과 현대 제주 방언형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정승철(1994)이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생성 문법의 언어 변화 이론을 따라 이 방언에서 일어난 자음과 모음의 변화를 음운론적·비음운론적 요소들을 모두 포괄하는 음소의 분포와 관련지어 정밀하게 설명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 주제에는 모음조화, 구개음화, 움라우트 등이 있다. 한편 김원보, 변길자, 고미숙(2007)은 20대, 50대, 70대의 세대별 이중모음의 음가와 이중모음 체계를 기술했는데, 이 결과를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로 간주할 수 있다.

5. 조정기(2010년대)

2010년대에 접어든지 3년 반 정도 흘렀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은 2000년대의 30%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34편이다.¹²⁾ 따라서 현재는 이 방언 연구의 조정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연구 논저가 주춤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2000년대 이후 시작된 연구 인력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비단 이 방언 연구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 시기 연구의 가장 특징은 통시적 관점의 연구가 1편뿐이라는 것이다.¹³⁾ 지금까지의 연구 경향과 대비해 보면, 이 사실 역시 2010년대가 조정기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12) 아직 파악하지 못한 논저가 있을 수도 있고, 남은 10년 동안에 지금까지보다 훨씬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잠정적인 결론이다.

13) 이 방언의 단음절 명사의 악센트 유형과 중세 한국어 성조와의 관련성을 논한 강석환(2011)이 유일하다.



<그림 7> 2010년대의 제주 방언의 공시적 연구 논저의 분야별 편수

공시적인 연구 논저 34편을 분야별로 나누면 위의 <그림 7>과 같다. 이것을 앞의 <그림 5>와 대비해 보면, 음성/음운 분야와 문법 분야는 거의 10분의 1 이상 줄어들었지만, 어휘와 의미/화용 분야는 줄어든 정도가 4~5분의 1 정도이고 기타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외견상 전통적으로 이 방언을 포함한 한국어 연구에서 강세를 보여왔던 분야인 음성/음운 및 문법 분야에서 벗어나 기타와 의미/화용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하고자 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새로운 연구 동향이 문법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문법적 사실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방법에 대한 논문이 3편이 나와 있고, 유형론적인 대조 연구 방법을 도입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특이한 것으로는 현평효, 강영봉(2011)의 문법 형태소 사전이 있다. 그 외에 전통적으로 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온 높임법, 시상법, 의문문 역시 논문의 주제로 다루어졌다. 음성/음운 분야 역시 발화와 인지, 폐쇄음의 VOT 방언 대조 등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방법 적용이 시도되었다.

어휘 분야의 연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지명에 대한 연구가 1편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아마 어휘 분야의 이론 문제, 한문 해독력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외 친족어, 도서지역어, 특정할 수 없는 분야 등의 어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의미/화용 분야의 논문 3편은 모두 담화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문법 형태소에

대한 연구였다. 기타 분야에서는 전 시기에 이어서 구술 자료가 3편 출간되었고, 언어지리학적 연구도 2편 발표되었다. 나머지는 방언의 역할, 방언 접촉 등에 대한 논문과 자료 주해이다.

6. 결 론

지금까지 지난 100여 년 동안 이루어진 이 방언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훑어보았다. 이 방언에 대한 연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전 시기에 비해 분야와 접근 방법론이 다양해졌다. 물론 문제가 있는 연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후속 연구들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문제를 극복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연구가 최근 3~4년 동안 약간 주춤해져 있는데 이것은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 새로운 연구 이론의 도입, 자료의 정밀한 분석 등을 통해서 극복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석한. 2010. 제주 한국어의 반복 부사어 변이형 형성에서의 발화와 인지요소 연구. 영주어문 20.
- 강영봉. 1990. 제주도방언 관용어 범위. 심전 김홍식 선생 회갑기념논총.
- 강영봉. 2008. '제주어 표기법'에 대하여. 영주어문 15.
- 강윤희. 1993. 제주사회에서의 두 방언 사용 현상. 서울대학교대학원 인류학 석사학위논문.
- 강정희. 1982. 제주방언의 문법화 과정에 대하여. 국어학 11.
- 강정희. 1992a. 제주방언 연구 개관. 南北韓의 方言研究.
- 강정희. 1992b. 제주방언의 부정응답 표현에 대하여. 국어연구 100년사.
- 고순여. 2008. 나, 육십육년 물질허명 이제도록 살안. 세림원색인쇄.
- 고재환. 1981. 제주도 속담의 특성.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웅. 1986. 제주지역어의 중화현상에 대한 연구. 제주대 논문집 22
- 김영돈. 1956. 제주도방언의 어미활용 1. 한글 119.
- 김영돈. 1957a. 제주도방언의 어미활용 2. 한글 121.
- 김영돈. 1957b. 제주도방언의 어미활용 3. 한글 122.
- 김완진. 1957. 제주도방언의 일본어사 차용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8. 국어국문학회.
- 김원보, 변길자, 고미숙. 2007. 제주방언화자의 세대별(20대, 50대, 70대) 이중모음의 음향분석과 이중모음체계. 음성과학 14(4).
- 김지홍. 1983. 제주방언의 동사구 보문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한곤. 1980. 제주방언 모음체계의 음향분석. 연암 현평효 박사 회갑기념논총.
- 문순덕. 2000. 제주방언의 보조용언 연구. 탐라문화 21.
- 문순덕. 2002. 제주 방언 보조조사의 담화 기능. 영주어문 4
- 박용후. 1960. 제주방언연구. 동원사.
- 석주명. 1947. 제주도방언집. 서귀포문화원.
- 성낙수. 1975. 제주도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국어국문학 68·/69.
- 성낙수. 1982. 제주도방언의 접속사 연구: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중심으로 한글. 176

- 성낙수. 1991. 제주도방언지도시안(i). 청람어문교육 2.
- 송상조. 2007. 제주말 큰사전. 한국문화사.
- 양용준. 2003. 제주방언에서 화행과 함축의 특성. 언어과학연구 25.
- 오구라[小倉進平]. 1931. 濟州島方言. 청구학총 5.
- 오창명. 2000. 제주도 방언 연구 동향과 과제. 耽羅文化 21.
- 오창명. 2007. 제주도 오름 이름의 종합적 연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 이기문. 1962. 중세 국어의 특수 어간 교체에 대하여. 진단학보 23.
- 이기문. 1985. ‘祿大’와 ‘加達’에 대하여. 국어학 14
- 이승녕. 1957. 제주도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동방학지 3
- 이운금. 1965. 제주도 사투리. 박문출판사.
- 정승철. 1988. 제주도방언의 모음체계와 그에 관련된 음운현상. 국어연구. 84
- 정승철. 1994.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승철. 1999. 제주방언의 음조와 음조군. 진단학보 88
- 제주도. 1995. 제주어사전. 제주도.
- 제주특별자치도. 2009.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한국방언자료집. IX. 제주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현평효. 1963. 제주도방언 · 음 소고. 무애 양주동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 현평효. 1976. 제주도방언의 정동사어미 연구. 아세아문화사.
- 현평효. 1987. 제주도방언연구의 현황과 과제. 濟州島研究 4.
- 현평효 · 강영봉. 2011. 제주어 조사·어미 사전. 제주도.

제주방언의 음운론 연구사

- ‘ㅇ’ 관련 업적을 중심으로

정 승 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 머리말

제주방언 음운론에 관한 연구 130여 편 중에 ‘ㅇ’ 관련 업적(제주방언의 ‘ㅇ’에 대해 어느 정도 이상의 비중을 둔 연구 업적)은 50편 정도로, 전체의 1/3을 넘어 차지한다.¹⁾ 이들을 한데 모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ㅇ’에 대한 연구 경향에서 1990년대까지는 미시언어학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거시언어학적 연구(특히 사회언어학적 방법에 의한 연구) 등 좀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이 시도되었음을 보게 된다.

2. 미시언어학적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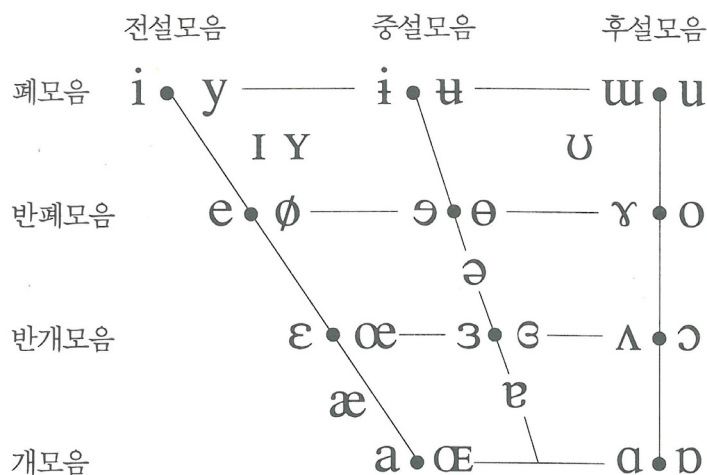
미시언어학은 ‘음성·음운론, 형태·통사(의미)론, 어휘론’ 등 언어 내적 요소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둔 언어학의 하위 영역이다. 이 영역은 각종 음성에 대한 관찰에서부터 해당 언어의 음운/문법 체계와 현상에 대한 공시·통시적 기술 및 설명에 이르기까지 언어 그 자체 구조에 대한 해명을 목표로 하는 연구들을 모두 포괄한다. 다만, 이 발표는 제주방언의 음운론 특히 ‘ㅇ’를 중심으로 한 연구의 역

1) 이처럼 양적인 면만으로도 제주방언 연구에서 ‘ㅇ’가 얼마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는지 알 수 있다. 한편 이 발표문에서 기존 논문을 인용할 때에는 해당 제목을 원문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술의 편의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목을 한글 표기로 바꾸어 제시하기로 한다.

사를 서술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미시언어학적 연구 중, ‘음성학’과 ‘음운론’ 두 영역에서 ‘ㅇ’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서술하기로 한다.

2.1 ‘ㅇ’에 대한 음성학적 관찰

본격적인 서술에 앞서 이해의 편의를 위해 우선, 모음에 관한 국제음성기호를 표로 제시한다.



<표 1> 국제음성기호의 모음묘배주체 2011:38)²⁾

(1) 문헌어와의 대비 속에서의 ‘ㅇ’

제주방언의 ‘ㅇ’에 대한 본격적인 관찰은 小倉進平(1882~1944)의 <濟州島方言>(1913)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각지 방언에서 ‘ㅇ’가 ‘야’로 변하기도 하고(‘폴>팔’ 등) ‘오’로 변하기도 하였으므로(‘폴>폴’ 등) ‘ㅇ’의 “原音”은 ‘야’와 ‘오’의 “中間音”이며³⁾ 제주방언의 ‘ㅇ’도 이와 같은 “口形”으로 발음되는 소리라 하였다(24면). 문헌어 ‘ㅇ’의 변화에 유추하여 제주방언의 ‘ㅇ’를 문헌어와 동일한 소

2) 이 표는 최근에 발표된 국제음성기호다. 다만, ‘ㅇ’의 음가에 관한 河野六郎의 견해(76면의 주석 9번에서 후술)를 이해하기 위해 중설의 반개모음 [ɜ]가 이전 시기에는 ‘기본 모음’이 아니라 ‘부가 기호’로 되어 있었다는 점을 부연해 둔다.

3) 이진호·飯田綾織 공편 및 역주(2009:262)에, ‘ㅇ’에 관한 小倉進平의 견해와 근거 그리고 해당 견해의 문제점 등이 언급되어 있다.

리(즉 ‘아’와 ‘오’의 중간적인 소리)로 이해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南部朝鮮の方言》(1924)에 와서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인다. 문헌어와 제주방언의 ‘ㄹ’을 동일하게 인식하지 않고 별개의 소리로 다루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문헌어의 ‘ㄹ’은 ‘오’와 ‘아’의 중간음, 이와 달리 제주방언의 ‘ㄹ’은 ‘오’와 ‘어’의 중간음이라 하였다.⁴⁾

더 나아가 <濟州島方言>(1931)에 이르면 제주방언 ‘ㄹ’의 음가를 《南部朝鮮の方言》과 동일하게 이해하되, 이전과는 달리 국제음성기호에 의지하여 ‘오[o]’와 ‘어[e]’의 중간음⁵⁾으로 기술하였다. 말하자면 보편적 음성학 지식(가령, 국제적으로 표준화한 음성 표기규약)에 기대어, 제주방언의 ‘ㄹ’에 대한 진술을 시도했던 것이다. 아울러 그는, 육지 방언에서 ‘ㄹ’이 ‘오’로 변하기도 하고(‘물>몰’ 등) ‘어’로 변하기도 한 것(‘툭>턱’ 등)은 ‘ㄹ’이 가진 중간음적인 특질 때문이라 하였다.

小倉進平의 이와 같은 생각은 그의 제자 河野六郎(1912~1998)에게서도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 《朝鮮方言學試攷》(1945)에 따르면 그는 제주방언의 ‘ㄹ’을 ‘오[o]’와 ‘어[e]’의 중간음⁶⁾으로 보았다. 이를테면 小倉進平과 마찬가지로 河野六郎도 제주방언과 문헌어의 ‘ㄹ’을 별개의 소리로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다만 河野六郎은, 제주방언과 문헌어의 ‘ㄹ’을 직접 비교하여 양자의 차이를 서술했다는 점에서 小倉進平과 달랐다. 즉 그는 ‘ㄹ’의 “원음으로 [ʌ]를 비정”하고 이 소리를 내되 혀를 ‘오’의 높이만큼 조금 올리면 제주방언의 ‘ㄹ[ɔ]’음이 된다고 한 것이다(이진호 역주 2012:65). 《朝鮮方言學試攷》에서는 제주방언의 ‘ㄹ[ɔ]’와 문헌어의 ‘ㄹ[ʌ]’⁷⁾ 그리고 이들과 인접해 있는 소리들을 비교하면서 ‘ㄹ’의 음가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을 직접 드러내 보이면 다음과 같다.

[ʌ]는 후설모음이지만 혀의 모양이 [a]의 상태와 같다.⁸⁾ [ʌ]가 [ɔ]로 변하기

4) 순전히 연도상으로, 제주방언의 ‘ㄹ’을 ‘오’와 ‘어’의 중간음으로 보는 견해는 1924년 2월의 <朝鮮語の歴史的研究上より見たる濟州島方言の價値>(《조선》 106)에서 처음 등장한다. 《南部朝鮮の方言》은 이보다 한 달 늦은 1924년 3월에 간행되었다.

5) 《朝鮮語方言の研究》(1944)에서 小倉進平은 이를 [e]로 표기하였다.

6) 河野六郎은 이를 [ɔ]로 표기하였다. 그는 제주방언 ‘ㄹ’의 음가를 小倉進平과 동일하게 보았지만, 음성기호마저 스승을 그대로 따른 것은 아니었다.

7) 小倉進平은 문헌어의 ‘ㄹ’을 [e]로 적었다. 그는 로마자 표기기와 음성기호를 구분하였는데 [e]는 ‘ㄹ’의 로마자 기호로, [o]는 제주방언 ‘ㄹ’의 음성기호로 사용하였다(이진호·飯田綾織 공편 및 역주 2009:509). 이로써 보면 小倉進平은 문헌어의 ‘ㄹ’에 대해 음성기호를 부여하지 않은 셈이다.

8) 이들은 후설모음에 대한 진술이므로 여기서의 [a]는 [a]입에 틀림없다. [a]는 전설의 저모음(=개모음), 그리고 [a]는 후설의 저모음을 나타내는 음성기호다.

위해서는 단지 혀를 [o]의 상태로 바꾸기만 하면 되며, 거기에 원순성을 더해 주면 [o]가 된다. 혀를 좀 더 아래로 내리면 [a]가 되고 앞으로 움직이면 [a]에 가까워진다. 또한 위쪽으로 올리면 [u]에 근접한다.(이진호 역주 2012:65)

위의 문면만을 참조할 때, [ɰ]는 현재의 국제음성기호(IPA)로 [ɤ] 정도의 음이 된다.⁹⁾ [ɤ]는, 후설의 반폐모음(Close-mid) [o]에 대응하는 비원순 짝이다. 반면에 후설의 반개모음(Open-mid) [ɔ]에 대응하는 비원순 짝은 [ʌ]다(제1면의 <표 1> ‘국제음성기호의 모음도’ 참조).

결국 河野六郎은 문헌어의 ‘ㄹ’과 제주방언의 ‘ㄹ’을 혀의 높이에 의해 구별되는 모음 그리고 각각 [ɔ]와 [o]에 상응하는 비원순모음으로 해석한 셈이다.¹⁰⁾ 이처럼 河野六郎이 小倉進平에 비해 훨씬 더 체계적 인식을 보인 것은 분명하지만 두 사람 모두, 제주방언의 ‘ㄹ’을 비원순모음으로 보았다는 점 그리고 제주방언을 문헌어와의 관련 속에서 이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하겠다.

한국 사람으로서 제주방언 ‘ㄹ’의 음가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이는 이극로(1893~1978)다. 유럽에서 음성학을 부전공한¹¹⁾ 그는, 河野六郎의 《朝鮮方言學試攷》보다 앞서 발표된 <‘ㄹ’의 음가에 대하여>(1937)에서 “내가 여러 제주 사람의 口音을 조사하여 본 결과” ‘ㄹ’의 음가는 음성기호로 “萬國音聲記號 ɔ音에 상당한 것”(2면)이라 하였다.

1941년에 나온 그의 논문 <‘ㄹ’의 음가를 밝힘>은 해례본 《훈민정음》의 발견(1940년) 이후에 ‘ㄹ’의 음가를 다시 논의한, 두 면짜리의 짧은 글이다. 이에서는 《훈민정음》의 제자해 규정을 통해 주로 문헌어의 ‘ㄹ’을 다루면서 제주방언의 ‘ㄹ’이 “訓民正音 制定 當時 音”(4면)인 것을 의심치 않는다 부연하였다. 문헌어와 제주방언의 ‘ㄹ’을 동일한 음(즉, 원순 후설 반개모음의 [ɔ])으로 파악했던 것이다. 제주방언의 ‘ㄹ’을 원순모음, 또 혀의 높이가 좀더 낮은 모음으로 보았다는 점에서도 이극로는 小倉進平이나 河野六郎과 다르다.

9) 河野六郎이 IPA의 기본모음을 알고 있었으리라 전제하면 [ɰ]에 대한 IPA 대응음은, 기본모음의 하나인 [ɤ]가 아니라 부가 기호(Additional mid central vowel)로서의 중설의 비원순 반개모음 [ɜ]일 수도 있다. “적당한 기호가 없”어 ‘ㄹ’을 [ɰ]로 적었다는 《朝鮮方言學試攷》(1945)의 진술(이진호 역주 2012:17)을 감안할 때 그럴 개연성도 무시하기는 어렵다.

10) 이는 ‘ㄹ’의 음운사에서 매우 중요한 진술이다. 중세국어의 ‘ㄹ’에서 제주방언의 ‘ㄹ’로 발달하는 동안, ‘혀의 높이’가 상승했다는 것 다시 말해 고모음화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1) 이극로는 독일 베를린 대학 철학부에서 정치경제학을 전공하여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편 방중현(1905~1952)은 1937년에 제주도를 직접 답사한 후, 그 채집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방언에 관한 논문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다. 특히 ‘ㅇ’에 관한 한 <·’와 ‘△’에 대하여>(1940)에 그의 견해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에서는, 그 음가를 특별히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제주방언의 ‘ㅇ’을 ‘야’도 아니고 ‘어’도 아니고 ‘오’도 아닌 음으로 보았다. 나아가 문헌어에서 ‘ㅇ’를 가진 단어가 제주방언에서 “모두” ‘ㅇ’로 나타난다면서도 “訓民正音 制定 當時의 原音인 그대로로서 오늘날까지 傳해 온 것인지는 자못 疑問”(1면)스럽다고 하였다.

광복 후, <제주도방언집>(1947)을 낸 석주명(1908~1950)도 제주방언 ‘ㅇ’의 음가에 대해 짧은 소견을 제시했다. 해당 책의 일러두기쯤에서 제주방언의 ‘ㅇ’은 ‘아, 어, 오’도 아닌 “거진 ‘녀’의 발음”(9면)이라 한 것이다. 이때의 ‘녀’를 ‘오’와 ‘어’의 중간음 정도를 가리켰다 한다면 석주명은 小倉進平과 유사한 견해를 가졌다고 하겠다. 하지만 그는 小倉進平이 가정한 제주방언의 단모음 ‘익’에¹²⁾ 대해서는 “구별하기에 곤란”(176면)하다며 小倉進平의 견해를 부정하였다.

더 나아가 석주명은 같은 책에서 제주방언의 ‘ㅇ’가 “옛날의 ‘ㅇ’음 그대로”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보류하고¹³⁾ 있으면서도, 문헌어의 ‘ㅇ’는 “역시” 제주방언의 ‘ㅇ’와 가까울 것이라 추정하였다(176면). 이로써 보면 그는 문헌어와 제주방언의 ‘ㅇ’음을 거의 동일한 소리로 인식한 것이 된다.

박용후(1909~1993) 또한, 문헌어의 ‘ㅇ’와 제주방언의 ‘ㅇ’를 동일한 소리로 파악하였다. 그는 <제주방언연구>(1960:422-3)에서 ‘ㅇ’를 ‘아’와 ‘오’의 중간음이며 “원순”의 “후설모음”이라 하면서 “조선조 초기의 음가”와 다름없다고 한 것이다. 한자 제목을 단 1988년의 개정판 <濟州方言研究>(고찰편)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ɐ]로¹⁴⁾ 적었다. 같은 책 74면에서 제주방언의 ‘ㅇ’는 “우리 겨레의 독특한 음운”으로 모음에 관한 국제음성기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ɐ]라 진술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이승녕(1908~1994)은 1956년 1월초에 제주도를 직접 답사하여 자료를 채집하고 쓴 <제주도방언의 형태론적 연구>(1957)에서¹⁵⁾ 제주방언의 ‘ㅇ’가,

12) 小倉進平은 <濟州島方言>(1931)에서 ‘아’와 ‘ㅇ’가 구별되듯, 단모음 ‘애’와 ‘익’ 사이에도 명백한 구별이 있다고 하였다. 당시의 제주방언에 단모음 ‘익’의 존재를 상정한 것이다.

13) 아마도 이는 “畏友”(130면) 방중현의 영향이었을 듯싶다.

14) ‘ㅇ’를 후설모음이라 했으므로 여기서의 [ɐ]는 [ɨ]로 적어야 한다. [ɐ]는 전설의 원순 저모음(=개모음), 그리고 [ɨ]는 후설의 원순 저모음을 나타내는 음성기호다.

15) 이는 1978년에 동일한 제목의 단행본(탐출판사)으로 출판되었다. 여기서의 인용 면수는 1978년도판의 것이다.

선행하는 자음에 따라 [ɔ] 또는 이보다 원순성이 강한 [ɔ̹]로 실현된다(4~5면)고 하였다.¹⁶⁾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저서 《국어 음운론 연구 제1집 ‘ㆍ’음고》(1954)에서 제주방언의 ‘ㅇ’가 “과연 古代音 그대로인가, 變異한 音인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었으므로 그는 문헌어와 제주방언의 ‘ㅇ’를 동일하게 인식했던 것 같지는 않다.¹⁷⁾

(2) 독립된 제주방언 체계 속에서의 ‘ㅇ’

현평효(1920~2004)의 <제주도방언 ‘ㆍ’음 소고>(1963)는 제주방언의 ‘ㅇ’를 문헌어와 비교하여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업적들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이 논문에서 현평효는 제주방언의 ‘ㅇ’를 15세기의 音이 “殘在”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그러한 ‘ㅇ’의 조음 상태를 토박이 화자의 처지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그 결과, 문헌어의 ‘ㅇ’와 음가상 거의 동일한 제주방언의 ‘ㅇ’는 후설 저모음 ‘아’보다 “아주 뒤쪽” 그리고 “약간 높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음 즉 ‘아’의 “後高音 [ɯ̹]”임을 주창하였다.

하지만 이 논문은 문헌어와 관련지음 없이 제주방언의 ‘ㅇ’ 모음을 관찰하려는 모습의 일단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해당 논문에서, 자신이 엮은 제주방언 자료집 《제주도방언연구》(1962)에 실린 단어 중에 ‘ㅇ’를 가진 단어의 수를 보고하였는 바¹⁸⁾ 이는 제주방언의 공시대 속에서 ‘ㅇ’ 모음을 살피는 태도의 한 단면을 노정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현평효는 <제주도방언 ‘ㆍ’음 소고>에서, 국어사적 관심 아래 ‘ㅇ’를 관찰하되 제주방언의 모음체계에 대한 공시적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던 셈이다.

그 이후, 제주방언에 대한 연구의 역사에서 통시적 관심을 완전히 배제하게 된 것은 현평효의 <제주도방언의 단모음설정>(1964)에 이르러서의 일이었다. 이 논문에서 그는, 순전히 공시적으로 최소대립어(minimal pair)를 통한 제주방언의 단모음 분석을 시도하였다. ‘ㅇ’의 조음 상태를 바탕으로, 이와 비슷하여 한 음소의

16) 흥미롭게도, 1957년의 원 논문에서는 ‘ㅇ’의 음성기호로, [ɔ] 대신 河野六郎의 [ɯ̹]를 사용하고 있다.

17) 이충녕은 문헌어의 ‘ㅇ’를 “A音 또는 A音 近傍의 音”이라 했으므로 결국, 중세국어 ‘ㅇ’에서 제주방언 ‘ㅇ’로의 발달을 [A]에서 [ɔ]로 원순모음화한 것으로 이해한 셈이다.

18) 그는 총 13,785개 중에 ‘ㅇ’를 가진 단어가 2,901개로, 제주방언에서 7.63% 정도의 비율로 ‘ㅇ’를 가진 단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한편 김공철은 <제주방언의 어휘론적 연구>(1965)에서 ‘ㅇ’를 가진 단어의 비율이 12% 정도로, 출현 비율로는 모음 중에서 3~4위라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비율의 상당함으로 인해 제주방언이 “형태소 내부의 모음조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변이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의심스러운 짝(suspicious pair)’을 찾고 이들 사이의 최소대립어를 제시함으로써 제주방언의 단모음 아홉을 설정한 것이다. 특히 ‘ㅇ’와 관련하여 이의 “의심스런 짝”으로 ‘ㅏ’와 ‘ㅓ’를 든 바 ‘ㅇ, ㅏ, ㅓ’ 세 모음이 “비슷한 성질”을 가진 소리임을 인정하였음도 특기할 만하다.

이와 같이 문헌어와의 대비 없이 ‘ㅇ’의 음가를 관찰하려는 시도는, 그 이후 주로 실험 음성학적인 방면에서 이루어졌다. 이의 시초는 김한곤의 <제주방언 모음 체계의 음향분석>(1980)이라¹⁹⁾ 하겠는데 여기서는 각 모음들의 음향 분석(즉 포먼트 분석)을 통해 ‘ㅇ’의 음가가 [ɔ]임을 주장하였다. ‘ㅇ’에 관한 한, 현평효의 견해를 지지하는 실험 결과가 제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현우종은 ‘ㅇ’에 대한 실험 음성학적 관찰의 결과를 종합하여 ‘ㅇ’의 음가를 [ɔ]로 보았다. 그는 석사논문(건국대) <제주도 방언 ‘ㆍ’ 음가의 음성학적 연구>(1985)에서²⁰⁾ 카메라 입술 촬영과 X선 촬영(조음 음성학) 및 포먼트 분석(음향 음성학)을 통해 ‘ㅇ’가 [ɔ]에 “가까운 음가”를 가진 소리라 하였다. 결론적으로, 영어·불어·독어에 나타나는 [ɔ]도 그 음역이 모두 다르므로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제주방언의 모음 ‘ㅇ’에 대해 그 음가를 [ɔ]로 규정해도 “무방”하다는 말이었다.

현우종은 박사논문(건국대) <제주 방언 홀소리의 실험 음성학적 연구>(1992)에서 ‘ㅇ’를 비롯한 모든 모음으로 논의의 대상을 확대하고 그 연구 결과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보강하였으며 이로부터 ‘ㅇ’에 관해 이전과 동일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다만 ‘ㅇ’의 조음 특성과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는, 입술의 움직임의 면에서 제주방언의 ‘ㅇ’는 원순모음이지만 ‘ㅓ’나 ‘ㅗ’에 비해 “약간 퍼진 원순”이라는 사실을 새로이 지적하였다.

한편 현우종의 <제주도 방언의 ‘ㅇ’ 음가 고찰>(1987)은 ‘ㅇ’를 포함하는 이중모음 ‘ㅇㅓ’에 대한 실험 음성학적인 보고서다. 이에서는 스펙트로그램 분석을 통해 ‘ㅇ’가 활음 j와 핵모음 ‘ㅇ’로 구성된 제주방언만의 특징적인 이중모음임을 확인하였다. ‘ㅇ’의 음가에 있어서 특별히 다른 견해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19) 이 논문과 《언어》에 실린 <An Acoustic Study of the Cheju Dialect in Korean>(1980)은 거의 동일한 논문이지만 후자가 전자에 대한 단순한 번역은 아니다. 음성실험 자료를 공유하기는 하나 전자보다 후자에 제주방언 모음에 관한 더 자세한 서술이 나타난다.

20) 《탐라문화》에 실린 <제주도 방언의 ‘ㆍ’ 음가의 음성학적 연구>(1988)는 이 논문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이러한 ‘ㅇ’의 음성 분석 작업들에 대하여 김원보는 <제주방언에서 [·]음의 음향분석>(2005)에서 선행 연구의 문제점을 간단히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여 ‘ㅇ’에 대한 음향분석을 제시도했다고 하였다. 즉 현평효의 견해는 “조음적 청각 인상”(26면)에 너무 크게 의지해서 문제되며, 김한곤의 견해는 제보자의 수가 1명으로 “제한적”이어서²¹⁾ 그리고 현우종의 견해는 “연구자 자신이 녹음제보자”(28면)여서²²⁾ 문제된다 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70대 이상의 정규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토박이 제보자, 각 시군별로 남녀 각 1명씩 총 8명의 제보자를 녹음 대상으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혀의 높이’와 관련된 제1포먼트 값에 따라 ‘ㅇ’는 ‘아’보다는 고모음이지만 다른 모음보다는 저모음이며, ‘혀의 앞뒤 위치’와 관련된 제2포먼트 값에 따라 ‘ㅇ’는 ‘아, 어’보다는 “후설모음”이지만 ‘오’보다는 “전설모음”(32면)이라²³⁾ 하였다. 그리고는 현우종의 견해와 거의 마찬가지로, 제주방언의 ‘ㅇ’가 [ɐ]보다는 [ɔ]에 더 가깝다고 결론을 맺었다.²⁴⁾

이와 같은 김원보와 실험 결과를 공유하면서 김종훈은 <제주방언 단모음과 현대국어 단모음의 음향 분석 비교>(2006)에서 김원보의 견해(즉 제주방언의 ‘ㅇ’가 [ɔ]라는 판단)에 동조했다. 하지만 앞선 논의와 달리, 이 논문에서는 제주방언의 모음과 서울말의 모음을²⁵⁾ 음향적으로 대조하였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제주방언의 ‘ㅇ’에 대한 실험 음성학적인 결과는 크게 두 가지 견해 즉 [ɐ]로 보는 견해와 [ɔ]로 보는 견해로 나뉘는 셈이다.²⁶⁾ 이를 감안할 때, 김순택의 <A Study on /·/, a Sound of Cheju Dialect in Korean>(1988)에서 영어와 인상적으로 비교하여 제주방언의 ‘ㅇ’가 [ɔ]와 [ɐ]의 음역을 합친 음이라 한 주장도 일견 주목해 볼 만하다.

21) 비토박이 연구자와 토박이 제보자 사이에 “의사소통의 어려움”(28면)까지도 있었다고 하였다.

22) 현우종의 석사논문에서 제보자는 연구자 본인 1명이었지만 박사논문에서는 지역 및 연령을 고려한 9명(연구자 본인 포함)을 제보자로 하였다.

23) 이는 약간 중설 쪽에서 난다는 뜻인데 이로써 보면 제주방언의 ‘ㅇ’는, 앞서 주석 (9)에서 언급했던 ‘비원순의 중설 반개모음 [ɜ]’에 가까운 소리가 될 수도 있을 터이다.

24) 결국 “연구자 자신이 녹음제보자”인 것은, 이 음성 실험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은 셈이다.

25) 이 논문에서 서울말의 음성 분석 자료는, 서울 출신의 20대 대학생 20명을 제보자로 한 조성문의 <현대 국어의 모음 체계에 대한 음향음성학적인 연구>(《한국언어문화》 24, 2003)의 실험 결과를 따랐다. 결과적으로 20대의 서울말과 70대의 제주방언을 대조한 것인데 비교·대조를 위한 자료의 균질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26) 물론 小倉進平과 河野六郎은 [ɪ](또는 [ɜ])로, 이송녕은 선행 자음에 따라 [ɔ] 또는 [ɔ̃]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2.2 ‘으’에 대한 음운론적 성격 구명

(1) 제주방언의 ‘으’와 통시음운론

제주방언의 ‘으’가 경험한 통시론에 대한 개괄적 기술은, 이송녕의 《국어 음운론 연구 제1집 ‘·’음고》(1954)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 책 補修篇의 제1절 <제주도방언과 그 의의>에서²⁷⁾ 그는, 제주방언의 ‘으’가 후설의 원순모음으로 “제1음절”에서만 유지되며 “제2음절”에서는 대체로 ‘으>으’의 발달을 겪었다고 하였다. 또 제2절의 <‘으’음과 ‘익’음의 발달의 대응>에서 제주방언이 문헌어와 달리 ‘히>혜(太陽), 비>베(船, 腹, 梨)’ 등과 같이 ‘으>에’의 변화를 겪었음을 언급한 것도 제주방언 음운론 연구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훗날, 국어 음운사 연구에서 모음 ‘으’의 통시적 성격을 구명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김완진은 <제주도방언의 일본어사 차용에 대하여>(1957)에서 외래어에 나타나는 ‘으’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느지오(라디오), 느레비(나란히)’ 등 외래어에서 ‘으’가 출현하는 예를 통해 “어원적으로 ‘으’가 아닌 곳에서도 ‘으’가 발견”(118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문헌어의 ‘으’와 제주방언의 ‘으’가 다른 발달을 경험할 수도 있음을 언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기문의 <제주도 방언의 ‘으’에 관련된 몇 문제>(1977)는 문헌어에 드러나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제주방언을 통해 재구하려는 시도의 하나다. 이에서는 가령, 제주방언의 ‘즈를(겨를), 스다(서다), 좇(젓)’ 등을 통해 국어사에서 자음 뒤 ‘으’를 가진 단어(*그를, *스다, *좇 등)를 재구하고 이로부터 방언으로의 발달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경우, 문헌어(‘겨를, 서다, 젓’)와 제주방언(‘즈를, 스다, 좇’)의 상위는 각각 서로 다른 변화(즉 ‘으>여’의 대치와 ‘으>으’의 활음 탈락)를 겪은 데에 기인한 결과로 이해하였다.

아울러 ‘혜(太陽), 베(船, 腹, 梨)’ 등 제주방언에 나타나는 ‘익>에’의 변화 예로부터 국어사에서 단모음 ‘익’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문헌어에서 ‘익’을 가졌던 단어에 대해 ‘에’로의 발달을 보이는 육지 방언과 달리 제주방언은 ‘에’로의 발달을 보이는 바 이러한 상위가 ‘익’의 음운론적 지위차에서 비롯하였으리라는 말

27) 이를 위한 방언 채집으로서의 제주도 답사는 “1952年 여름”에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다. 이에 따르면 제주방언의 ‘이’는 단모음이었으므로 ‘이>에’의 변화를 보인 것이고, 육지 방언은 ‘이’가 이중모음이었으므로 핵모음 ‘으>아’에 편승하여 ‘이>애’의 변화를 보인 것이 된다.

한편 현대 제주방언에서 ‘으’를 가진 단어는 ‘오’를 가진 단어와 쌍형어를 이루고 있다. 이는 일부 연령층에서 ‘으>오’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인데, 그동안의 제주방언 연구의 역사에서 이와 같은 변화를 처음으로 언급한 논문이 바로, 현평효의 <제주도 방언의 음운>(1971)이다. 이 논문에서는 ‘독>독(닭), 물>물(馬)’ 등과 같이 당시의 “年少層”에서 일어난 ‘으>오’의 변화를 보고하였다.²⁸⁾

이러한 제주방언의 ‘으’에 대해 종합적이면서 상세한 기술은 정승철의 박사논문(서울대),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1994)에서 이루어졌다.²⁹⁾ ‘으’의 출현 환경을 어두 음절과 비어두 음절로 나누고 각각의 위치에서 ‘으’가 어찌 실현되는지를 파악한 후 해당 공시태를 초래한 통시적 변화의 ‘규칙’을 상정하여 그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 결과, 제주방언의 ‘으’는 다섯 단계에 걸친 변화를 경험했다고 하였다. 이를 간략히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②~⑤의 변화는 수의적).

- ① 비어두 음절에서 ‘으>으’의 변화 규칙 : 브름(<브름, 風), 사름(<사름, 人)
- ② 어두 음절에서 어간말 ‘으>아’의 변화 규칙 : 쫓다~싸다(싸다, 包), 크다~카다(타다, 燒)
- ③ 잔존해 있는 ‘으’가 ‘어’로 바뀌는 변화 규칙 : 아덜~아덜(子), 모즈~모저(帽子)
- ④ 잔존해 있는 ‘으’가 ‘오’로 바뀌는 변화 규칙 : 스나이~소나이(사내), 곧다~곧다(曰)
- ⑤ ‘으’를 가졌던 단어가 ‘아’를 가진 단어로 대체되는 변화 : 낄 짹~낄짹(낄짹), 허다~허다~하다(爲)

특히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단어가 일시에 그 변화를 겪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각 단계에서 발견되는 예외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가령, ‘아덜’은 ①의 변화에서, 그리고 ‘허다’는 ②의 변화에서

28) 물론 그러한 “年少層”에서는 표준어의 영향으로 ‘으’를 가진 단어가 ‘아’를 가진 단어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29) 이는 1995년에 동일한 제목의 단행본(태학사)으로 출판되었다. 여기서의 인용 면수는 1995년도 판의 것이다.

벗어나 있다가 훗날 ③의 ‘으>어’ 변화를 보이게 된 예, 또 ‘숙(<습)’은³⁰⁾ ①의 변화를 좀 일찍 겪어 어두 음절에서 ‘으>으’의 변화를 보이게 된 예로 이해했던 것이다.

아울러 현대 제주방언에 나타나는 ‘으>오’의 변화에 주목하고 이를 “모음체계상의 균형을 유지”(53면)하기 위해 일어난 현상으로 간주하였다. 즉 ‘으>오’의 변화보다 “최소한 10년 이전”(30면)에³¹⁾ 발생한 ‘애>에’의 변화로 모음체계가 이지러지는 불균형이 생긴 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으>오’의 “母音 上昇化”(28면)가 일어났다는 말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으	우	이	으	우	이	으	우
에	어	오	에	어	오	에	어	오
애	아	으	아	으		아		
<표 2>			<표 3>			<표 4>		

이 논문에서의 대략적인 언급을 고려할 때 <표 2>는 지금으로 환산하여 대체로 현재 70세 이상의 제주방언 화자의 모음체계, <표 3>은 50~60대의 모음체계, <표 4>는 50세 이하 방언 화자의 모음체계가 된다.³²⁾ 이와 같은 변화와 관련하여, 문헌어/제주방언에서 모두 ‘으’를 가진 단어 및 제주방언에서만 ‘으’를 가진 단어 등 언어재를 구분하여 ‘으’의 변화를 살피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2) 제주방언의 ‘으’와 공시음운론

현대 제주방언의 ‘으’가 보이는 공시태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의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들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30) 이 단어는 ‘살쟁이’를 가리키는데 제주방언에서는 더 흔히 ‘식’으로 나타난다.

31) 이러한 진술은, ‘연소층’의 ‘애>에’ 변화에 대한 50년대 후반의 보고(1957년에 나온 이승녕의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등)와 ‘으>오’ 변화에 대한 70년대 초의 보고(1971년에 나온 현평효의 <제주도 방언의 음운>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보고가 이루어진 시기만을 놓고 단순히 비교하면 두 변화 사이에는 약 15년 정도의 간격이 존재한다.

32)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바꾸어 말하면 대략 <표 2>는 40년생 이전, <표 3>은 40~50년대생, <표 4>는 60년대생 이후의 모음체계가 된다. 물론 이러한 세대 규정마저도 확고한 것은 아니다. 전통 제주방언에 대한 친숙도에 따라 개인마다 10여 년 정도 위아래로 넘나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방언의 ‘애>에’ 및 ‘으>오’ 변화에 대한 실태 보고의 대상은 모두 ‘연소층’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연소층을 ‘10세~15세’ 정도로 규정하고 현재의 연령을 환산하였다.

제시함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논의들과 서술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 ① 小倉進平의 <濟州島方言>(1913) : 제주방언에 ‘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고함.
- ② 이송녕의 <국어 음운론 연구 제1집 ‘·’음고>(1954) : 제주방언의 ‘으’가 어두 음절에서만 유지된다는 사실을 보고함. 아울러 ‘아들(子), 에비딸(父女)’과 같은 고유어나 ‘제스(祭祀), 츠츠(次次)’와 같은 한자어 등 비어두 음절에서 ‘으’를 유지하는 예가 일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고함.
- ③ 이송녕의 <제주도방언의 형태론적 연구>(1957) : 제주방언에 활음 y와 ‘으’가 결합된 이중모음 ‘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고함.
- ④ 이기문의 <제주도 방언의 ‘으’에 관련된 몇 문제>(1977) : 감탄사나 의성어 등을 제외할 때, 제주방언의 ‘으’가 원칙적으로 “語頭に 나타나지 않는”(184면) 소리라는 사실을³³⁾ 보고함.

이와 같이 ‘으’의 음운 목록상의 특징에 관해 서술한 업적 이외에, 제주방언의 ‘으’와 관련된 음운 현상에 대해 부분적으로라도 기술한 업적으로 두세 편 정도를 더 언급할 수 있다. ‘으’와 관련된 공시적 현상은 모음조화와 모음탈락이 거의 전 부라 하겠는데, 정승철의 석사논문(서울대)과 박사논문(서울대) 정도에서 이 현상에 대한 기술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³⁴⁾

우선 그 석사논문 <제주도방언의 모음체계와 그에 관련된 음운현상>(1988)에서는, ‘빨(洗)-안→빨안(빨아서), ㄹ물(旱)-안→ㄹ물안(가물어서)’ 등처럼 제주방언의 모음조화(일명, 어미 ‘-안/언’의 교체 현상)에서 ‘으’가 양성모음으로 기능함(즉 ‘-안’이 연결됨)을 언급하였다. 후자의 ‘ㄹ물다(旱)’에 ‘-언’이³⁵⁾ 아니라 ‘-안’이 연결되는 것은, 다음절 어간의 마지막 음절에 놓이는 ‘으’ 또는 ‘우’가, 어미 ‘-안/언’의 교체 현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無關母音”(31면)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제주방언의 모음조화에 대한 더 자세한 기술은 정승철의 박사논문 <제주도 방

33) 이의 예외가 ‘으지다(持)’인데 이는 ‘ㄹ지다’와의 “語源的인 관계”(184면)로 인해 어두에서 ‘으’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34) 제주방언 모음의 공시론에 관한 한, 김광웅의 박사논문(세종대) <제주도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1988.8)는 정승철의 석사논문(1988.2)의 서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35) ‘죽언(죽어서), 머물언(머물러서)’ 등에서 보듯, 원칙적으로 제주방언의 ‘우’는 음성모음으로 기능한다. 즉, 어미 ‘-안/언’의 교체 현상에서 어간의 모음이 ‘우’일 경우에는 보통 ‘-언’이 연결된다는 말이다.

언의 통시음운론>(1994)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제주방언의 모음조화(즉, ‘-안/언’의 교체) 현상을 살피되 단음절 어간과 다음절 어간, 폐음절 어간과 개음절 어간 및 정칙 어간과 변칙(=불규칙) 어간을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제주방언의 모음조화에는 “어간 모음의 음운론적 성격, 어간의 음절수, 어간 말음절의 구조”(127면)가 관여하며 그러한 모음조화에서 ‘ㅇ’는 기본적으로 양성모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행동한다고 결론하였다.³⁶⁾ 나아가 일부 어간의 경우에 ‘으(<ㅇ)’ 또는 ‘우(<으<ㅇ)’가 “無關母音”(120면)으로 기능하는 것은, 모음조화의 부류를 바꾸는 음운 변화(이 경우에는 ‘ㅇ>으’의 변화)가 관계하더라도 모음조화에 있어서 “이전 버릇을 유지”(122면)한 데 따른 결과라 하였다.

아울러 이 논문에서, ‘ㅇ’와 관련하여 동모음 탈락 현상(122면)을 언급하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동모음 탈락이란 ‘가(去)-안→간(가서)’ 등에서처럼 ‘아’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아’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었을 때 어간 또는 어미의 모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이다. 이때 탈락하는 모음이 어간의 것인지, 아니면 어미의 것인지가 불명확하여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 제주방언은, 어간 모음이 탈락했음을 지지하는 간접적 증거를 제공해 준다고 한 것이다. 다음 예를 보자.

츠(鹹)-안→찬(짜서)

차(鹹)-안→찬(짜서)

제주방언에서 어간 말모음으로 ‘ㅇ’를 가지는 경우에는 ‘ㅇ>아’의 변화 규칙을³⁷⁾ 주의적으로 겪어 ‘ㅇ’형과 ‘아’형이 “쌍형어”(122면)를 이룬다. 그러기에 해당하는 예 ‘츠다’와 ‘차다’는 ‘ㅇ>아’의 변화 규칙에 있어서 입력(‘츠다’)과 출력(‘차다’)이 된다.

그런데 위의 예에서 보듯, 이들 두 어간은 어미 ‘-안’과의 결합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여 준다. 특히 ‘츠다’는 ‘-안’과 결합할 때 ‘촌’이 아니라 ‘찬’으로 실현되는바 이 경우에는 어간 모음 ‘ㅇ’가 탈락한 것이 분명하다. 이를 감안할 때 ‘차다’는 ‘츠다’의 후계형이므로, 어미 ‘-안’과의 결합(즉, ‘찬’)에서 어간 모음 ‘아’가 탈락되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만일 ‘차(鹹)-안→찬’에서 어미 모음이 탈락했다고 하면,

36) 여기서의 면수 또한, 1995년에 간행된 단행본의 것이다.

37) 이는 2.2절의 (1)에서 전술한 ②번 규칙(어두 음절에서 어간말 ‘ㅇ>아’의 변화 규칙)을 가리킨다.

모음 탈락에서 ‘츠(鹹)-안’과 ‘차(鹹)-안’이 드러내는 상이성을 설명하기 위해 일련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진다.

3. 거시언어학적 연구

거시언어학은 언어의 사회적 기능이나 심리적·미적 기능 등 언어의 외적 측면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둔, 언어학의 하위 영역이다. 이 영역은 언어의 외적 요소와 내적 구조 사이의 상관성을 해명하는 데 목표를 두는 바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문체론, 화용론, 전산언어학 및 언어교육 등의 응용언어학 분야를 모두 포괄한다.

이 장에서는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제주방언에 관한 거시언어학적 연구 중, ‘ㅇ’ 관련 업적에 초점을 두고 해당 연구들에 대한 사적 고찰을 시도한다. 이들의 수가 그리 많지는 않으므로 따로 절을 나누지 아니하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모든 업적은 2000년대 이후에 출현한 사회언어학적 방법에 의한 것들이다.

먼저 조태홍·전선아·정승철 및 Ladefoged의 <The Vowel of Cheju>(2001)에서는 제주방언에 나타나는 ‘에/애’와 ‘오/으’의 ‘통합(merger)’ 현상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시골 출신의 제보자(66세~74세, 총 5명)와 도시 출신의 제보자(55세~68세, 총 3명)를 대상으로 음성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 현상을, ‘애>에’와 ‘으>오’로의 일방향성을 보이는 ‘전이에 의한 통합(merger by transfer)’ 현상으로 규정하였다.

아울러 제주방언에서는 ‘애>에’의 변화가 ‘으>오’의 변화보다 빨리 일어났으며 그러한 변화들이 제주의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여 시골 지역으로 퍼진 것으로 이해하였다. ‘으>오’의 변화를 방언 화자가 거주하는 지역적 공간의 사회적 성격과 관련지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다음으로 강정희의 <언어접촉과 언어변화 -오사카 거주 제주방언 화자 사회의 방언 보존에 대한 조사>(2002)는 제주방언 화자의 거주 공간을 국외(여기서는 일본)까지 확장하여 ‘으’의 변화 양상을 관찰·검토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1920년에서 1960년 사이에 일본으로 이주한 제주 출신의 재일동포 1세 방언 화자(오사카 거주) 총 33명을 대상으로 ‘으’의 보존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50년대를 기점으로 그 전에 이주한 화자와 그 이후에 이주한 화자 사이에 상당한 방언차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제주방언의 ‘ㅇ’가 50년대에 급격한 변화를 겪었음을, ‘이주’ 문제를 통해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제주방언의 ‘ㅇ’를 현장 시간(apparent time) 또는 실재 시간(real time)에 따라 검토한 논의들도 출현하였다. 이때의 ‘현장 시간’이란 특정 언어 공동체의 상이한 연령 집단이 사용하는 언어 변종을 직접 비교하여 언어 변화를 관찰하려 할 때 두 변종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 거리를 뜻하며, 이에 반해 ‘실재 시간’이란 특정 언어 공동체의 상이한 시기에 사용된 언어 변종을 비교하여 언어 변화를 관찰하려 할 때 두 변종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 거리를 뜻한다. 단적으로 말해, 전자는 같은 시기의 서로 다른 세대의 언어 자료를 비교할 때 그리고 후자는 물리적인 시간선상에서 과거와 현재의 언어 자료를 비교할 때 관여하는 시간 개념을 가리킨다.

김원보의 <제주방언화자의 세대별(20대, 50대, 70대) 단모음의 음향분석과 모음체계>(2006)는 제주방언의 현장 시간 속에서 모음체계의 변화를 살핀 것이다. 성별 및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면서 20대와 50대 및 70대 이후의 3세대 총 96명(각 세대별로 32명씩)을 제보자로 음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70대는 9모음체계(앞서 제83면의 <표 2>), 50대는 “대부분” 8모음체계(제83면의 <표 3>), 20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135면)하고 7모음체계(제83면 <표 4>)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고동호의 <제주방언 ‘·’의 세대별 변화 양상>(2008) 또한, 제주방언의 현장 시간 속에서 ‘ㅇ’의 변화를 살핀 것이다. 한 집안의 할아버지(70대), 아버지(50대), 아들(20대)의 3대 총 3명을 제보자로 하여 음성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로서 제시한 ‘ㅇ’의 세대별 실현 양상은 앞선 논의들과 대체로 일치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한 점은 특기해 둘 만하다. 첫째, 70대 및 50대에서 ‘ㅇ’가 중설화 경향을 보인다. 둘째, 50대에서 ‘ㅇ>오’의 변화가 진행 중이다. 셋째, 20대에서는 ‘ㅇ>오’의 변화가 종결되었으며 기원적으로 ‘ㅇ’를 가졌던 단어들이 ‘아’로 나타나는 것은, ‘오’가 ‘아’로 변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표준어로 대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권미소는 석사논문(제주대) <제주도방언의 실재시간 경과에 따른 언어변이 양상 연구>(2012)에서 ‘ㅇ’를 가진 단어들의 변화를, 실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찰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에서 펴낸 《제주설화집성》(1985)의 특정 설화 구술자를 제보자로, 2011년에 해당 설화를 다시 구술케 하여 이를 채록하고 두 설화 자료를 직접 비교함으로써 약 30년 동안 이루어진 언어재의 변화 양상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표준어형으로의 대체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신우봉·신지영의 <제주 방언 단모음에 대한 음향 음성학적 연구>(2012)는 제주방언 단모음의 실현 양상을 세대, 지역, 성별을 고려하여 살피고자 한 것이다(제보자는 총 40명). 특히 이 논문은, 제주방언에 대한 기존의 음성 실험들이 ‘단어 목록 읽기’ 방식을 택하였음을 문제로 지적하고 “목표 단어”(68면)에 대한 유도 질문 방식을 사용하여 좀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발음된 모음을 녹음하여 분석 자료로 삼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된다. 하지만 ‘ㅇ’의 경우, 지역이나 성별 요소와는 무관하며 오직 “세대”(87면) 요소만 그 실현 양상의 차이에 관여한다는 결론에 도달함으로써 기존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의 업적이라 할 수 있다.

4. 맺음말

첫째, ‘ㅇ’의 음성이 국제음성기호로 어떤 소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지나치게 많았다.

둘째, 일부 업적의 경우 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ㅇ’만을 따로 떼어내어 관찰하는 원자론적 연구 태도를 보였다.

셋째, ‘ㅇ’의 소멸 과정을 관찰하되 ‘연’(또는 10년) 단위가 아니라 ‘세대’(즉 2~30년) 단위로 조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다른 방언과 관련 지어 제주방언을 관찰하려는 연구가 적었다.

다섯째, 대체로 선행 업적에 대한 검토가 철저하지 못했다.

참고문헌

- 강정희(1992), 제주방언 연구 개관, 《남북한의 방언연구》, 경운출판사, 289-307.
- 강정희(2006), 1990년대의 방언·음운·문법 연구, 《제주도지》 6.
- 김성규·정승철(2013), 《(개정판) 소리와 발음》,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부.
- 방언연구회 편(2001), 《방언학 사전》, 태학사.
- 배주채(2011), 《(개정판) 국어음운론 개설》, 신구문화사.
- 이기문(1993), 제주방언과 국어사 연구, 《탐라문화》 13,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이병근(2005), 1910~20년대 일본인에 의한 한국어 연구의 과제와 방향 - 小倉進平의 방언연구를 중심으로, 《방언학》 2, 23-61.
- 이진호(2011), 河野六郎의 한국어 방언 연구에 대하여, 《방언학》 14, 227-252.
- 이진호 역주(2012), 《한국어 방언학 시론 - ‘ㄱ시개(鋏)’ 고찰》, 전남대 출판부.
- 이진호·飯田綾織 공편 및 역주(2009), 《小倉進平과 국어음운론》, 제이앤씨.
- 이진호·飯田綾織 역주(2009), 《『언어』의 구축 - 小倉進平의 식민지 조선》(安田敏朗 著), 제이앤씨.
- 임석규(2002), 음운탈락과 관련된 몇 문제, 《국어학》 40, 113-138.
- 정승철(2001), 한국 방언학사, 《방언학 사전》(방언연구회 편), 태학사, 384-391.
- 정승철(2004), 음운사 연구에서의 언어 변화 이론의 수용과 전개, 《국어학》 43, 407-428.
- 정승철(2005), 지역방언론 : 음운, 《방언학》 1, 173-191.
- 정승철(2010), 小倉進平의 생애와 학문, 《방언학》 11, 155-184.
- 정승철(2014), 한국 방언자료집 편찬의 역사, 2014한국방언학회 발표논문집.
- 현평효(1979), 제주도방언 연구에 대한 검토, 《방언》 1, 32-49.
- 현평효(1987), 제주도방언연구의 현황과제, 《제주도연구》 4.

논저 목록

- 小倉進平(1913), 濟州島方言, 《朝鮮及滿洲》 5, 20-25.
- 小倉進平(1923), 《國語及朝鮮語發音概說》, 近澤印刷所出版部. [재수록: 《小倉進平博士著作集》, 京都大學, 1975]
- 小倉進平(1924), 朝鮮語の歴史的的研究上より見たる濟州島方言の價值, 《朝鮮》 106, 조선총독부, 24-32.
- 小倉進平(1924), 《南部朝鮮の方言》, 朝鮮史學會. [재수록: 《小倉進平博士著作集》, 京都大學, 1975]
- 小倉進平(1931), <濟州島方言>, 《청구학총》 5. [재수록: 小倉進平(1944), 《朝鮮語方言の研究》, 岩波書店]
- 이극로(1937), ‘·’의 음가에 대하여, 《한글》 48, 1-2.
- 小倉進平(1940), The Outline of the Korean Dialects, *Memoirs of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Toyo Bungo* 12. [재수록: 《小倉進平博士著作集》, 京都大學, 1975]
- 방중현(1940), 고어연구와 방언, 《한글》 8-5, 1-3.
- 방중현(1940), ‘·’와 ‘△’에 대하여, 《한글》 8-6, 1-2.
- 이극로(1941), ‘·’의 음가를 밝힘, 《한글》 83, 4-5.
- 小倉進平(1944), 《朝鮮語方言の研究》, 동경, 암파서점. [영인본: 아세아문화사, 1973]
- 河野六郎(1945), 《朝鮮方言學試攷 - ‘鉸’語考》, 京城; 東都書籍. [재수록: 《河野六郎著作集》, 平凡社, 1979]
- 석주명(1947), 《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
- 이승녕(1954), 《국어 음운론 연구 제1집 ‘·’음고》, 을유문화사. [재수록: 《심악 이승녕 전집》, 한국학술정보, 2011]
- 이승녕(1957), 제주도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동방학지》 3, 39-193. [재수록: 《심악 이승녕 전집》, 한국학술정보, 2011]
- 김완진(1957), 제주도방언의 일본어사 차용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8, 112-131.
- 김영돈(1957), 제주도방언의 음운개관, 《제주문화》 1, 63-85.
- 서정범(1957), 제주도방언 點考, 《고봉》 1-2.

- 이승녕(1959), ‘ㆍ’음고 재론, 《학술원논문집》 1. [재수록: 《심악 이승녕 전집》, 한국학술정보, 2011]
- 강윤희(1959), 제주도 방언에 있어서의 공통어계 어휘의 음운체계와 그 환경에 대하여, 《논총》 1,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111-142.
- 강윤희(1960), 제주도 방언에 있어서의 공통어계 어휘의 음운 양상 : 특히 Morpho-phonemic patterns에 관하여, 《한글》 126, 한글학회, 80-94 .
- 박용후(1960), 《제주방언연구》, 동원사. [과학사, 1988]
- 현평효(1962), 《제주도방언연구》(자료편), 정연사. [태학사, 1985]
- 현평효(1963), 제주도방언 ‘ㆍ’음 소고, 《무애 양주동박사 화탄기념논문집》, 탐구당. [재수록: 현평효(1985), 《제주도방언연구》, 이우출판사]
- 현평효(1964), 제주도방언의 단모음 설정, 《한국언어문학》 2. [재수록: 현평효(1985), 《제주도방언연구》, 이우출판사]
- 김공철(1965), 제주방언의 어휘론적 연구(1) - 음운 조직과 어사 구성에 대해서, 《국어국문학》 28, 23-44.
- 서정범(1965), 제주도방언의 음운변화고, 《논문집》 4, 경희대, 11-38.
- 서정범(1967), 제주방언의 ‘ㅇ’ 표기법, 《문리학총》 4, 경희대, 58-78.
- ▶성낙수(1968), 濟州島方言에 나타난 音韻體系, 《방언》 2.
- 현평효(1971), 제주도 방언의 음운, 《교육제주》 17. [재수록: 현평효(1985), 《제주도방언연구》, 이우출판사]
- 강윤희(1974), 한국어방언에 있어서의 모음 음소배합 유형에 관한 연구 : 남부 한국 해안, 도서지역어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논문.
- ▶박지호(1976), 濟州島方言에서 본 ‘ㆍ’音 小考, 《論文集》 1, 제주실업전문대.
- 이기문(1977), 제주도 방언의 ‘ㅇ’에 관련된 몇 문제, 《국어국문학 논총》(이승녕 선생 고회기념), 탐출판사, 183-195.
- 김한곤(1980), 제주방언 모음체계의 음향분석, 《연암현평효박사 회갑기념논총》, 형설출판사, 289-297.
- 김한곤(1980), An Acoustic Study of the Cheju Dialect in Korean, 《언어》 5-1, 25-61.
- 현우종(1985), 제주도 방언 ‘ㆍ’ 음가의 음성학적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 현우종(1988), 제주도 방언의 ‘ㆍ’ 음가의 음성학적 연구, 《탐라문화》 7, 제주대

- 탐라문화연구소, 25-57.
- 현우중(1987), 제주도 방언의 ‘으’ 음가 고찰, 《건국어문학》 11·12합집(부암 김승곤 박사 회갑기념논총), 건국대, 465-478.
- Kim, Soon-Taek(1988), A Study on /·/, a Sound of Cheju Dialect in Korean, 《탐라문화》 7, 제주대, 11-23.
- 정승철(1988), 제주도방언의 모음체계와 그에 관련된 음운현상,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 김광웅(1988), 제주도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세종대 대학원 박사논문.
- 현우중(1992), 제주 방언 홀소리의 실험 음성학적 연구, 건국대 대학원 박사논문.
- 정승철(1994),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서울대 대학원 박사논문. [태학사, 1995]
- Taehong Cho, Sun-Ah Jun, Seung-chul Jung, and Peter Ladefoged(2001), The Vowel of Cheju, 《언어》26-4, 한국언어학회, 801-819.
- 강정희(2002), 언어접촉과 언어변화 - 오사카 거주 제주방언 화자 사회의 방언 보존에 대한 조사, 《국어학》 40, 139-170.
- 김원보(2005), 제주방언 모음의 음향분석, 《언어학연구》 10-2, 161-174.
- 김원보(2005), 제주방언에서 [·]음의 음향분석, 《언어과학연구》 33, 23-37.
- 김원보(2006), 제주방언화자의 세대별(20대, 50대, 70대) 단모음의 음향분석과 모음체계, 《언어과학연구》 39, 125-136.
- 고영림(2006), 현대 제주방언 단모음의 음향음식학적 특성 연구, 《한국언어문화》 30, 5-20.
- 김중훈(2006), 제주방언 단모음과 현대국어 단모음의 음향 분석 비교, 《언어연구》 21-3, 261-274.
- 고동호(2008), 제주방언 ‘·’의 세대별 변화 양상, 《한국언어문학》 65, 55-74.
- 조성문(2008), 산포이론에 의한 제주방언의 음운적 특성 분석, 《동북아 문화 연구》 14, 123-142.
- 권미소(2012), 제주도방언의 실재시간 경과에 따른 언어 변이 양상 연구, 제주대 대학원 석사논문.
- 신우봉 · 신지영(2012), 제주 방언 단모음에 대한 음향 음성학적 연구, 《한국어학》 56, 63-90.

* ‘▶’ 표시한 것은 아직 보지 못한 자료

제주방언 형태론의 연구 현황과 과제

송 상 조 (제주어보전육성위원)

1. 들어가기

여기서 다루는 범위는 형태론에서 ‘준굴곡법’에 해당하는 조어법과 합성법, 그리고 문장 구성에 쓰이는 조사까지인데 인용격조사와 관련이 있는 때가림소까지 포함시켰다. 고찰 방법은 연구사적인 입장이어서 논문 발표 순으로 살펴보면서 요점을 초록하려 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모든 자료를 섭렵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미리 양해를 구한다.

2. 제죽말의 형성

제죽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는 일은 고어나 다른 언어들과 비교하여 주로 다른 점을 찾아내는 데서 비롯된다. 여기서는 형태론의 한 범주인 조어법을 통해서 제죽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살핀다.

조어법에는 어근이 있고 접사가 있다. 이 접사는 어근에 붙어서 새로운 말 곧 파생어를 만드는데, 그 결과 본디 있던 어근과 파생어가 뜻으로든 문법적으로든 같은 말일 때도 있고, 문법적으로든 같은데, 뜻으로만 다를 때도 있고, 또 문법적으로나 뜻으로도 모두 달라질 때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어근에 붙는 접사들도 뜻을 더하거나,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누게 된다. 이들을 통해서 제죽말의 형성을 살펴본다. 여기서 다루는 접사가 경계가 불분명한 것도 있다. 다만 쌍형 어간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지만 뒤에 붙여두었다.

2.1. [-문법적] [-어휘적] 접사에 의한 어간 형성¹⁾

가. ‘ㅇ’ 첨가

제죽말에는 ‘ㅇ’이 첨가된 형태가 많다. 이에 대한 논의는 현용준²⁾이 처음인 것 같다. 이 논문에서는 제주도 방언의 명사에 ‘ㅇ’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고어의 ‘ㅎ’이나 ‘ㄱ’말음이 바뀌어 된 것으로 보면서, ‘바당, 지붕, 굴형, 고장, 낭, 궁기’ 따위로, ‘ㅎ→ㄱ→ㅇ’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또 어사 중간에 삽입된 ‘ㅇ’도 ‘입생기, 조갱기, 구쟁기’들은 ‘hiatus’를 막으려고 들어간 것으로 보았다.

또 ‘-수강=수광, -우깡=우광, -쿠강=쿠광³⁾’들에서 ‘ㅇ’의 삽입은 끝을 강조하기 위한 강세 작용과 성조 유려 작용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조사의 형성에도 ‘ㅇ’이 덧붙여 ‘을랑, 을란’을 목적 지정격으로, ‘책이영, 간댕’ 등의 ‘인, 잉’을 인용격으로, 그리고, 여동격으로는 ‘이영’, 비교격으로 ‘광’ 따위를 들었다.

이승녕⁴⁾은 제주방언의 형태론에 대해 큰 열개를 전반적으로 다룬 획기적인 업적으로 평가된다.

이 논문 ‘조어론적 고찰’에서는 ‘어간 형성을 고찰코자 하는데, 육지어와 대차 없다고 보나, 전반적 고찰을 피한다면 국어의 조어론이 될듯 여기 이를 피하여 오직 특기한 것만을 제시한다.’고 전제하고, 아래와 같은 것들을 들었다.⁵⁾

축소사들 가운데 육지어 ‘사기>새기’와 대립되는 ‘-saŋi>-seŋi>-seŋi’, ‘-치기>-체기’와 대립되는 ‘-칭이>-챙이’, ‘-터기>-테기’와 대립되는 ‘-팅이>-텅이’, ‘-머기>-메기’와 대립되는 ‘-멍이>-멩이’, ‘-저기>-제기’와 대립되는 ‘-정어>-쟁어’, ‘-아기’와 대립되는 ‘-앙어>-앵어’ 따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보기들로 ‘막대>막텅어, 굴개>굴쟁어, 두께>두쟁어, 게(蟹)>쟁어, 강어’ 따위나, ‘가마(叭)>가쟁어, 고니(猫)>고쟁어’ 따위를 구체적으로 들었다.

어간말음에 ‘-gi’ 또는 ‘-ŋgi, -angi’가 연결되어 새로운 어간 형성을 하는 예로

1) 어근에 어떤 요소가 붙었더라도 그 말에 문법적으로나 어휘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다만 그 어떤 요소가 접사인지는 음운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2) 현용준(1956), “제주방언에서의 ‘ㅇ’고” 「국문학보」 제1집, 제주대학 국어국문학과.

3) ‘-수광/수강, -우광/우깡, -쿠강/쿠광’들은 ‘-강/광’과 ‘-광/깡’들은 변별적으로 쓰였음을 보여준다.

4) 이승녕(1957/1985), 「제주도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5) 이 부분에서 ‘대차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 대차 없다는 말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그리고 특기할만한 것만 제시한다고 했는데 그 ‘대차 없음’과 ‘특기할만한 것’ 사이에 무엇이 있을 것 같다.

고어나 다른 언어에는 이 ‘-gi’를 연결하는 예는 ‘못기(菁), 옻기(狐).....’ 등 흔한 터인데 본도 방언에서는 ‘조개>조쟁기, 님>입쟁기’ 외에도 ‘구제기, 구쟁기, 끌레기(꾸러미)’ 따위를 들었다.

어간 말음이 ‘-ŋ’으로 된 것이 많은데 일견 덧붙인 듯한 것도 있고 교체를 통하여 ‘-ŋ’을 취한 것으로 ‘마늘>마농, 바늘>바농’ 따위를 들었다.

축소사에서는 공존형으로 ‘-생기 - 새기 - 생이 - 애기’로 ‘돌생기, 잎생기, 독세기, 돛세기, 뭉생이, 강생이, 송애기, 빙애기’ 따위. 특히 ‘강생이, 송애기, 돛세기’ 따위는 기이하게 느낀다고 했다. 이런 예는 흔한 편이다.

그리고 형용사 ‘퍼렁하다’ 따위, 부사, 감탄사에 ‘하영, 이영’ ‘-ŋ’ 접미되는 어휘화하는 현상도 들었다.

박용후⁶⁾에서도 “‘ㅇ’소리의 많음”에서도 제주 방언은 ‘ㅇ’소리가 많은 것도 특색의 하나로써 이것은 언어 전반에 걸쳐서 개입되어 있어서 일상 언어 생활에서 ‘ㅇ’소리 안 들리는 일이 없다. ‘ㅇ’의 개입으로 말이 간결하여져서 표현의 효과를 올리게 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로 보았다.

이름씨에는 31개나 보기말로 올라 있지만 그 가운데 ‘가쟁이>가지, 갱이>게, 중이>고이’ 따위만 뽑았다. 이렇게 이름씨에 ‘ㅇ’이 개입되는 것은 홀소리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 이름씨 끝에 개입되는 ㅎ이 탈락되어 ‘ㅇ’이 붙은 것, 이름씨 끝소리 ㄱ이 ‘ㅇ’으로 된 것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홀소리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는 ‘강생이<강아지<개아지, 송애기<송아지<소아기, 조쟁기<조개기’ 따위

이름씨끝에 개입되는 ‘ㅎ’이 탈락되고 ‘ㅇ’이 붙은 것으로는 ‘굴형<굴형에<굴허에<굴허해, 바당<바당을<바다울<바다홀’ 따위

이름씨 끝소리 ‘ㄱ’이 ‘ㅇ’으로 된 것으로는 ‘구멍, 고망<굶ㄱ(穴), 낭<남ㄱ(木)’ 따위

제주 방언은 끝소리가 ‘ㅇ’인 것에 접미소 ‘이’가 붙어 조음 작용을 하는 것이 예사이다. ‘공장>공쟁이, 준둥>준둥이’ 따위

그럼씨 끝이 ‘하다’로 된 것은 ‘ㅇ하다’로 된다. ‘가망하다<가맏다, 히영하다<히영다 따위 어지렁하다<어지럽다’ 따위를 들었다.

6) 박용후(1960/1988), 「제주방언 연구」 고찰편, 과학사.

현평효⁷⁾에서도 ‘아방, 오라방, 바당’에서와 같이 ‘ㅇ’이 접미된 것이 많고, 또 ‘ㄴ지쟁이, 박세기, 병탱이, 구쟁기’ 따위로 명사어간이나 또는 그 어간을 변형시켜 ‘-an̄i, -en̄i, -agi, -egi’ 등 축소사를 접미시켜 어간을 형성하는 경향이 너무 우세한 것으로 보았다.

또 김홍식⁸⁾에서는 제주 방언에서는 접미사 ‘-en̄i’가 어근 ‘갓-’에 붙어 만들어진 말로 보면서, ‘가쟁이, 이맹이, 꼴랭이, 굴쟁이, 올랭이, 맹탱이, 고냉이, 지냉이’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 보기의 대표적인 ‘가쟁이/kacdʒen̄i’를 ‘kac+en̄i’로 분석하고 어근을 ‘갓/kac’으로 보았다.

또, 접미사 ‘-en̄i’도 ‘-en̄’과 ‘-i’로 나뉘, 일차 파생과 2차 파생으로 나뉘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eng/en̄’의 본질은 ‘-ŋ’ 뿐으로 ‘R+ŋ’의 한 조어 방식으로 보았다. ‘기둥, 고랑, 마당, 벼랑’과 같은 말에서 어근과 접사 사이에 ‘-a, ə, ɔ’들은 환경에 따라서 삽입되는 것으로 조성모음이나 어형신장을 수행하여 어형을 보강하고 어의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보았다.

2차 접미사 ‘-i’도 중세 국어에서는 명사, 동사 어근에 붙어서 주로 명사를 파생하는데 ‘가쟁’에도 ‘i’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으로 보았다.

특히 ‘쟁이, 갱이/깁이, 중이/쨍이, 뽕이’들은 어근 ‘새, 게, 쥐, 뻔’들에 접미사 ‘-i’를 결합시켜 ‘새이, 게이’ 따위가 된 사이에 ‘o/ŋ’을 삽입하여 방언형을 만든 것으로, 접미사 ‘i’보다 앞선 15세기 고형태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대체적으로 남부 방언권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부분적으로나마 분열되기 이전의 고형태가 유지되고 있음이 특이하다고 했다.

또, 김홍식⁹⁾에서는 ‘나무’의 방언 ‘낭’이 어근 ‘나’에 접미사 ‘ŋ’이 앞의 현용준(1956)이나 이승녕(1957)에서는 언급이 없는 고대 토이기 어와 공통된 것으로 보았다. ‘바당, 대양, 마농, 바농’ 따위에 쓰이는 이 ‘ŋ’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고장, 어멍, 오몽, 지둥’ 따위에 붙은 접미사 ‘앙, 엉, 웅, 웅’에는 자음 어근에 접미사 ‘ŋ’이 붙는 것을 도우려고 조성모음 ‘아, 어, 오’들이 개입된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조성모음도 ‘아, 어, 오, 우’가 되는 점도 특이한 견해로 보인다.

또 어근과 어간에 접미사 ‘ŋ’이 붙는 조어 방식은 그 근원을 고대어로 소급할 수 있으며, 이것은 본도 방언에 언어의 저층이 아직도 보존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

7) 현평효(1982/1985), 「제주도 방언 연구」 논고편, 이우출판사.

8) 김홍식(1979), “제주도 방언 ‘가쟁이’ 어고” 논문집 제11. 제주대학.

9) 김홍식(1982), “제주 방언의 ‘낭’ 어고” 논문집 제14. 제주대학

하여 주는 것으로서 국어사적으로 매우 큰 의의를 갖는 것으로 보았다.¹⁰⁾

또 김홍식¹¹⁾에서는 ‘꽃(花)’에서 파생된 ‘고장’도 ‘꽃-’에 접미사 ‘-aŋ’이 첨가되어 2차적 어간을 형성한 것으로 보면서, /고장/은 선초 문헌어 /꽃/형으로 더 소급하여 올라갈 수 있는 고어층의 잔재로 추정하기도 했다.

강정희¹²⁾에서도 색채어인 ‘하얏다→햏햏다’ 따위를 들고 있다.

송상조¹³⁾에서는 ‘-엿’의 쓰임을 ‘이엿, 기엿, 저엿, 누계엿’에 쓰이는 것과, ‘먹엿 시멧, 먹어시멧’ 따위로, ‘책이멧’ 따위로, ‘하엿, 죽엿’ 따위로 다양하게 쓰이는 것으로 보았다.¹⁴⁾

김미진¹⁵⁾도 제주 방언의 ‘검엿햏다, 퍼엿햏다’가 빗갈형용사 ‘검어-, 퍼러-’에 명사화접미사 ‘-o’이 붙고 다시 ‘햏다’가 붙어서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나. ‘ㅣ’첨가

이승녕(1957)에서는 육지어나 고어의 어간말에 ‘-ㅣ’¹⁶⁾를 첨가해서 어간 형성을 하는 것은 특이하다면서 ‘가마(釜)→가매, 공차→공채, 조카→조캐’로, ‘공자, 맹자, 글자’들은 ‘공즈ㅣ, 맹즈ㅣ, 글즈ㅣ’의 과정을 거쳐 ‘공채, 맹채, 글채’가 된 것으로 보았고, 또 ‘쇼(牛)→쇠[swe:], 모(苗)→뫼[me:]’ 따위도 들었다.

어간말음이 이미 ‘-ŋ’인데 ‘-ㅣ’가 연결된 것으로는 ‘공장>공쟁이, 피장>피쟁이’를 들었고, 접미사 ‘-saŋi, -səŋi’류로 ‘곰생이(곰팡), 고랑챙이, 멧텅이(籠의 일종), 풀랭이, 테멧이, 강생이, 뭉생이’ 따위를 들면서, 본도 방언에서는 ‘-saŋi, -səŋi’류가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또 강근보¹⁷⁾에서는 주격으로는 표준어와 같은 ‘이/가’가 쓰이는데, ‘믄쉬, 웅매, 가매’에는 ‘ㅣ’¹⁸⁾가 후접하여 새 어간으로 바뀐 것으로 ‘내, 네’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

10) 김홍식(1982-1), 앞 논문집 제14. p.40. 제주대학

11) 김홍식(1976), “어간말 모음탈락에 대하여”, 논문집 제8, 제주대학 p.43.

12) 강정희(1988), 『제주방언 연구』, 한남대학교 출판부. 의 “II. 제주방언의 특징”

13) 송상조(1994), “형태소 ‘-엿’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제14호.

14) 송상조(1994), 앞 논문에서는 ‘먹으멧’으로 쓰이는 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먹으멧’도 쓰인다.(p.31)

15) 김미진(1991), “제주도 방언에서 빗갈 형용사와 ‘햏다’의 결합 양상” 『영주어문』 1.과 (1998) “제주도 방언의 ‘햏다’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ㅣ’가 음운론적인 건지, 형태론적인 건지는 밝히지 않았다.

17) 강근보(1977), 앞 논문.

18) 이 ‘ㅣ’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 ‘-우, -우’의 ‘ㅣ’화

이승녕(1957)에서는 육지어 ‘-오, -우’이던 것이 제주방언에서는 ‘-이’로 발달한 것으로 ‘고초 → 고치, 배추 → 배치, 구구 → 구기, 공부 → 공비, 시루 → 시리’ 따위를 들었다.

육지어 ‘-으’에 ‘ㅣ’가 연결되어 ‘-이’로 발달한 것으로는 ‘노르(獐) → 노리, 손즈 → 손지, 마고즈 → 마고지’ 따위를 들었다.¹⁹⁾

그 외의 경우에도 어간말음이 ‘-이’로 발달한 것이 많은 것으로 보았다.

에→이 둔게(厚)→두끼, 뜨게(重)→무기

애→이 달래(野蒜)→달리

아→이 밧갓(外)→배깃

우→이 구무(穴)→구미

박용후(1960)에서도 이와 같은 견해가 나온다.

강근보(1977)에서도 ‘유지, 손지’나 ‘베리, 시리’ 등은 어간말음의 변동으로 ‘ㅣ’모음화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배치, 고치, 마리’ 들도 같은 것이라고는 하나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²⁰⁾

라. ‘-웃’ 첨가

이승녕(1957)에서는 단음절 어간에 ‘-ut’ 또는 ‘-ut’들을 연결하여 어간 형성을 발전시킨 예가 있다. 이렇게 접미사가 달라진 것으로는 ‘조카벌→조캐버룻, 손자벌→손자버룻, 금→금웃, 손금웃’ 따위와 ‘곶 → 곶단, 곶 → 곶장’ 따위를 들었다.

마. ‘-으’ 첨가

이승녕(1957)에서는 국어의 어간말음이 육지어면 자음일 것을 본도방언에서는 일견 ‘으’와 더불어 어간말음이 모음형으로 된 것이 있는 것으로 보면서 ‘야프다, 다끈다, 바끈다, 노프다’ 따위를 들었다.

또, 김홍식²¹⁾은 계림유사에 나와 있는 ‘割子蓋’를 ‘ㄱ스개’로 해독하고 ‘ㄱ스+개’

19) 여기서는 ‘으ㅣ’과정에 대한 언급이 없다.

20) ‘웅마’가 ‘웅매’, ‘손자’가 ‘손지’로 되는 것이 주격 ‘ㅣ’가 붙어 된 것으로 보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이에 대해서는 이승녕(1957/1985)와 겹쳐지는 부분이 된다.

21) 김홍식의 앞 논문 p.23.에서는 ‘·’의 쓰임이라든지, 어간 형성, 또는 사적인 쓰임들을 종합적으로 다루

로 분석하여 ‘ㄹ스->ㄹ스-’였음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ㄹ스-’는 본도 방언에서 ‘剪, 切, 斷’의 뜻을 가진 어사로서 지금은 ‘ㄹ스-’형으로 실현되며 널리 사용되는 말이라고 했다.

‘질게 ㄹ스라, ㄹ스지 말라, ㄹ스난 좋다, ㄹ스멍 흐라, 이거 ㄹ사 보라, 머리를 ㄹ스라’의 ‘ㄹ스-’라는 어형은 전술한 바 ‘ㄹ스다’의 어간이며, ‘剪, 切, 斷’의 뜻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서 공시대로서 ‘ㄹ스-’이나 이조 초기 내지 고려시대에는 모음 조화에 의하여 당연히 ‘ㄹ스-’형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현평효(1982)에서도 용언 어간형성에서는 ‘나끄다, 바끄다, 더프다, 지프다’ 따위를 들었는데 김홍식²²⁾에서도 본도 방언에서는 어간말음에 ‘으’모음이 더 첨입된 모음형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특색이라면서 ‘각그다, 다끄다, 바끄다, 어프다, 보끄다, 무끄다’ 따위를 들었다.

바. 쌍형 어간

이승녕(1957)에서는 육지어에서 어간말 ‘-ㄹ’가 쌍형으로 ‘-를, -루’로 발달한 것으로는 ‘ㄹ(粉) → ㄹ루(<ㄹ), ㄹ를(<ㄹ), ㄹ(宗) → ㄹ루(<ㄹ), ㄹ를(<ㄹ를)’ 따위를 들었는데. 이들은 국어사적으로 귀중한 자료로 평가했다. 그리고 ‘시다, 이시다’의 쌍형어로 보았다.

쌍형 어간이 ‘굴다, 꼴다, 간다, 걸다’들이 쌍형의 존재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여기에는 ‘앗-’과 ‘얹-’도 포함된다. 그리고 ‘어둑다, 눅다, 더끄다’와 ‘어둑다, 눅다, 더프다’ 따위로 쌍형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현평효(1982)에서도 한 명사가 여러 차례 여러 어형들로 실현되는 것도 이 방언의 특이한 현상으로 보았다. 바로 ‘흐르·흐를·흐로·흐루, 즈르·즈를·저르·저를, 불히·빨히, 불이·빨이·뿌텡이·뿌리’ 따위를 들었다. 그리고 ‘드르다·들르다, 오르다·올르다’ 따위, ‘ㄹ트다·ㄹ뜨다, 어둑다·어둑다, 야프다·야트다’ 따위도 들었다.

강정희(1988)에서도 ‘어둑다, 어둑다’ 따위를 들었다.

있지만 파생 부분만 살피었다.

22) 김홍식(1975), 「銑」語에 대한 소고 -특히 제주도 방언과 관련해서-, 논문집 제7집, 제주대학 p.23.

2.2. [+문법적] 또는 [어휘적] 접사에 의한 어간 형성

이런 접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파생법인데 이들에 대한 논문도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박용후²³⁾에서는 주제별로 품사에 따른 어휘들을 수록하고, 고찰편에서는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특히 ‘접사’를 ‘씨가지’로 보아서 접미사 ‘-곶’은 ‘상곶, 니곶, 새곶’으로, ‘-거울’은 ‘새꺼울, 짝거울’, ‘-다리’는 ‘간세-, 게움-, 광질-, 꺾-, 명청-, 살런-, 심술-’, ‘-로이-’는 ‘수고로이, 괴로이’로, ‘-벌’은 ‘조케버룻, 손지버룻’로, ‘-쉬’가 ‘꺾쉬, 귀막쉬, 패락쉬’ 따위로 쓰이는 것을 들었고, 또 접두사 ‘젯-’이 색채어 어근에 붙어 ‘젯가망흐다, 젯노랑흐다’로, ‘-쟁이’가 명사 어근에 쓰여 파생어가 되는 것들의 보기를 들었다.

그리고 김홍식²⁴⁾에서는 접미사 ‘-개’가 국어사적으로 여러 세기에 걸쳐 알타이어계와 같이 쓰였던 것으로 보았다. 접미사 ‘-개’는 사람에게는 물론 사물에도 쓰이는 생산적 접미사로 신라시대 ‘南解, 脫解, 乞解’의 ‘解’와 같은 뜻으로 추정했다.²⁵⁾ 또, 만주어 /-ku/나 /-ga/와, 몽고어 /-ge, -gei, -ya/와, 그리고 일본어 ‘-kke, -ge, -ke/’들과도 같은 접미사로 상정하면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김홍식²⁶⁾에서는 제주 방언 특유의 인칭 접미사로 64개를 들고, 그 가운데 ‘-개, -바리, -다리, -방’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동계어인 일본어와의 관계도 살폈다. 특히 인칭접미사의 특성으로는 ‘사람을 지칭하면서 아울러 경멸, 비속함이나 반대로 친근성 내지 애칭적 의미를 부가하는 것으로 보았다.

접미사 ‘-바리’는 제주도 방언에서 ‘비바리, 냉바리’가 호기심 있는 말인데 나름의 해석을 내렸다. 이 ‘-바리’는 인칭이나 어명, 동물명에도 두루 쓰이는데, ‘비바리’는 ‘조금 성숙하나 아직 혼전의 처녀에 대해서 낮추어 일컫는 말’이니 ‘婢바리’로 상정했다. 그리고 ‘냉바리’에 대한 풀이는 따로 없으나 ‘既酷女’²⁷⁾로 쓰여 있다. 그리고 ‘-바리’의 어원은 말과 관련 있는 몽고계로 ‘억측하여 본다’고 하면서 일본

23) 박용후(1960), 「제주 방언의 연구」, 동원사. 비매품

24) 김홍식(1982-2), “접미사 -개에 대하여” 「북천 심여택선생 회갑기념논총」

25) 근거는 최학근(1959), 「한국 방언학 서론」을 빌었다.

26) 김홍식(1983), “제주도 방언의 접미사고” -인칭 접미사를 중심으로-, 제주대학, 탐라문화 2.

27) ‘既酷女’는 ‘既婚女’의 잘못이 아닌지 모르겠다.

어 ‘hi-bari(종다리), ju-bari(오즘), i-bari(오즘), joku-bari(옥심쟁이)’ 따위에 쓰인 ‘bari’와 같은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또, 접미사 ‘-다리’는 인칭에 붙어 성향, 습관을 나타내는데 주로 비칭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일본어 ‘hi-tori(한사람), hu-tari(이인), mi-tari(삼인), ta-kke-tori(산악인)’에 쓰인 ‘-tari, -tori’들과 같은 것으로 상정했다.

접미사 ‘-방’이 ‘심방’에도 쓰였는데 ‘신-방’이 변해서 ‘심방’이 된 것으로 ‘신난 사람’의 뜻으로 ‘억측’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일본어 ‘i-to-hag(아가씨), go-rjo-hag(아내에 대한 높임말)’로 ‘방’과 ‘항’이 대응되는 같은 음으로 보았다. 이러한 자료들은 공통어의 어원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정승철²⁸⁾에서는 몇 개의 어사를 가지고 접미사를 추출하여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는데, 제춧말 파생어 형성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다른 언어와 비교하여 설명했다.

‘쌀물, 부쉐, 부돌’이나 ‘자랑자랑’, ‘임탱이’ 따위를 보기로 들었다. 특히 ‘쌀물, 부돌, 부쉐’는 음운 변화에 대한 정밀한 관찰이 선행되어야 하는 복합어로 보았다. 그리고, ‘자랑자랑’과 ‘자장자장’에서는 접사 ‘랑’은 성분의미가 명령의 기능을 가진 것이고, ‘-장’은 청유의 성분의미를 가진 것으로도 보았다. 또 ‘임탱이’나 ‘부진탱이’의 접사 ‘-탱이’도 하나는 명사에, 하나는 동사에 붙어 같은 이름씨를 파생하지만 이 ‘-탱이’는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았다.

또 두 지역 이상에서 쓰이는 방언형을 비교해 보았을 때 동일한 음운 형식을 가진 접사가 방언에 따라 기능을 달리하는 경우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접사 ‘-옥, -악, -옥’들을 들었다. 특히, 남부지방의 ‘나락’과 제주의 ‘나룩’에 쓰인 접사 ‘-악’과 ‘-옥’의 다른 점은 남부지방에서는 이름씨 ‘날-’에 접사 ‘-악’이 붙었는데, 제주에서는 움직씨 ‘뭇-’에 ‘-악’이 쓰여, 이름씨를 파생하는 점은 같지만 접사 ‘-악’도 다른 것으로 보았다.

제주에서는 ‘날-’에는 ‘-옥’을 선택해서 ‘나룩’이 된 것으로 보았다. 제주에서는 접사 ‘-옥’이나 ‘-악’이 붙어 문법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 같은 명사를 파생하지만, ‘-악’은 문법적 변화를 일으켜 움직씨에서 이름씨를 파생하는 것으로 보아 남부지방의 것과는 다른 것으로 보았다.

제주도 방언에서 통시적으로 어기로부터 의미적이거나 문법적인 변화를 일으키

28) 정승철(1995), “제주도 방언의 파생접미사 몇 개의 재구형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30집

지 않으면서 체언 여기에 결합되는 접사 ‘이’와 그렇지 않은 접사 ‘-이’가 관련된 예들이 보인다고 했다.

그게 ‘직시’와 ‘직세’에 쓰인 접사 ‘-이’나 ‘-에’는 여기로부터 의미적이거나 문법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굽굽이, 버을이’에 쓰인 접사 ‘-이’는 분포와 기능에서 앞의 접사와는 다른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식계’에 쓰인 접사 ‘-이’도 ‘직시’에 쓰인 것과 동일한 접사일 가능성이 짙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접미사 ‘-이’는 ‘가마 → 가매, 웅마 → 웅매’로 어간 형성에 쓰이는 ‘ㅣ’와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바농, 마농, 사농’에 쓰인 접사 ‘-웅’과 ‘씨농허-, 서노롱허-’에 쓰인 ‘-웅’이 어기파생과 어근파생으로 ‘동일한 접사가 아닐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차갑다’와 ‘반갑다’에 쓰인 접사 ‘-겁’과 ‘-업’의 다른 점을 들었다.

강영봉(1986)²⁹⁾은 99개의 물고기 이름을 들고 거기에 쓰이는 접사들을 수치로 분석해 놓았는데, 접미사의 종류로는 ‘-i’ 접미사가 제일 많고, 다음에는 ‘-či~čči~chi’가 그 다음에는 ‘-ki’가, 그외는 ‘-tari~tori~təri’나 ‘-ak~ək’, ‘-ə’, ‘-pari’, ‘-cari’들이 쓰이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제주 방언에 나타나는 133개의 접두사 목록을 작성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려 했었다. 그 결과 표준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접두사가 89개나 된다고 했다. 나머지 44개가 독특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았다.³⁰⁾

송상조³¹⁾에서는 접미사의 특성이나 목록을 작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제주방언에 쓰이는 인칭 접미사 71개, 사물접미사 74개를 들었다. 그리고 송상조³²⁾에서는 어근에 접사가 결합해서 파생어를 만드는 방법에서는 표준어와 큰 차이가 없으나, 제주도 방언에서 접미파생법에 의해서 파생어가 형성되는 현상을 전반적으로 살펴려고 했다. 그 결과 접미사의 목록이 작성되었고, 제주도 방언 파생어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p61-62)

그 형태적 특징으로는 첫째 고어의 잔영이 많아서, 그런 뿌리에 그런 접미사가 붙어 파생어가 많았다. ‘눔 올, 눔 세, 눔 빠³³⁾’ 따위나, ‘드르갱이³⁴⁾, 아우생이’ 따위.

29) 강영봉(1986), ‘제주도 방언의 어명 연구’, 논문집 제23, 제주대학

30) 강영봉(1995), “제주도 방언의 접두사”, 국문학보 제13, 제주대락 국어국문학과.

31) 송상조(1989), “제주도 방언의 접미사 고찰” -인칭·사물접미사 목록-, 제언 제8집, 제주도문체연구회.

32) 송상조(1990), “제주도 방언의 접미 파생어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33) ‘눔 빠’에 쓰인 ‘-빠’ 접미사는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독특한 접미사다.

34) ‘드르갱이’의 뿌리 ‘드르-’도 제주 특유의 뿌리로 볼 수 있다.

‘끓-엿, 냉-가리, 간세-다리, 몰멩-다리, 출-레’ 따위

둘째는 접받침 뿌리가 거의 쓰이지 않는다. ‘얏-;앗-, 읽-;익-, 답-;담-, 뉘-;뉘-, 칙-;칙-’ 따위.

셋째는 불구뿌리가 많다. ‘댕-가리, 험-개미, 공-다리, 흑곰’ 따위.

넷째는 그림씨와 움직씨로 함께 쓰이는 낱말이 많다. ‘엷음엷음, 엷은엷근, 굵은 굵은, 굵음굵음’ 따위.

다섯째는 하나의 형태가 이름씨와 매김씨로 쓰이는 것들이 있었다. ‘새 것, 웨 것’으로 쓰일 때와 ‘새로, 웨로’ 따위.

여섯째는 표준어에서는 파생어로 처리하고 있는 형태가, 방언에서는 파생어로 다르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다. ‘답다. 궂인물, 웃다’ 따위.

일곱째는 음운교체로 인한 변이형태가 많았다. ‘가물가물, 거물거물, ㄱ물ㄱ물’ 따위와 ‘민닥ㅎ-, 몬닥ㅎ-, 문닥ㅎ-’ 따위.

여덟째는 뜻이 확장되어 다양하게 쓰이는 게 많다. ‘몽글다, 둥글다’ 따위.

아홉째는 표준어와 발전이 달라 사적으로 다르게 보아야 할 것들도 있다. ‘돛다 -돛돛ㅎ다, 족다 - 족족ㅎ다’ 따위와 ‘답답하다, 갑갑하다’도 ‘답다, 갑다’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예들도 보인다.

접미사의 특징으로는

첫째 방언적인 접미사가 많다. ‘산-테, 두루-붕이, 쉼-다리’ 따위

둘째는 피, 사동에서는 표준어의 그것보다 더 많다. ‘궂-애기-, 입-지-, 굳-후-, 트-이우-, 그르치우-’ 따위,

셋째 ‘덜-애다, 도-왜다’ 따위로 ‘수여접미사’가 쓰인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뜻으로 뒤에 주로 ‘주다’가 붙어서 ‘덜어주다, 도와주다’로 쓰이기 때문에 붙인 것이다. 그밖에 특수한 접미사로는 ‘도왜엿ㅎ-, 덜엿ㅎ-, 뉘엿ㅎ-’도 쓰인다. 그리고 ‘다들다, 언디다, 잡주다, 굶주다, 찹질다’ 따위가 더 있다.

넷째는 정도성 접미사가 많다. ‘굶다, 굶닥ㅎ다, 굶들락ㅎ다’ 따위

다섯째는 잉여성접미사가 많다. ‘ㄱ물ㄱ물ㅎ다<가물가물하다’, ‘굶굶ㅎ다<감감ㅎ다’ 따위.

여섯째는 변이형태가 다양한 편이다. ‘굶닥ㅎ다 -굶들락ㅎ다’ 따위.

일곱째는 강세접미사가 다양하다. ‘거두대기다, 누르뜨다, 깨수다’ 따위.

여덟째는 ‘사념, 노념’ 따위로 동족목적어 접미사의 형태로 쓰인다.

형태음소적 변동의 특징

첫째는 /ㄹ/탈락이 표준어와는 다르다. ‘ㄹ을내낭, 저슬내낭, 하늘념, 지우룻지우룻, 날날이, 둘둘이, 쓸장시’ 따위.

둘째는 /ㄷ/과 /ㄹ/ 쓰임이 표준어와는 다른 점이 있다. ‘틔세’가 ‘털세’로 ‘즈물다’가 ‘즈뭇’으로 나타난다.

셋째는 ‘ㄱ’이 덧난 통합이 많다. ‘중이, 송애기, 몽생이, 가쟁이, 올랭이’ 따위

넷째는 /ㅁ/탈락이 심한 편이다. ‘대왓, 보리왓, 술오리, 갈리’ 따위

다섯째는 사잇소리로 ㅅ과 ㅇ개입이 많은 편이다. ‘비차락, 지들커, 머릿박, 뒤침, 모물크루, 산툏’ 따위

여섯째는 ‘벌애, 고단, 버르쟁이’ 따위가 있다.

날말발 형성의 특징(p.66)

첫째는 날말발 형성 : ㄴ물, ㄴ뻤, ㄴ새

‘방’과 ‘망’에 따라 남성과 여성으로 갈린다. ‘할’을 접두사로 보았을 때는 ‘방, 망’을 접미사로 볼 수 없는 일도 나타난다.

둘째는 ‘을락’과 ‘을내기’와 ‘-음작’과 ‘-음재기’들은 움직씨에 붙었을 때는 ‘경기’나 ‘내기’의 뜻을 나타낸다. 또, 접두사 ‘다슴’이 가족의 일부 호칭에 붙어 ‘의붓-’의 뜻을 나타낸다. ‘다슴 아방, 어멍, 아기, 아덜.’ 따위

셋째는 실사와 의존형태소의 통합으로 다시 의존형태소를 파생한다. ‘더레, 굴아, 앞의, 신디’ 따위

그밖에 이 논문에서는 제V유형 접미사를 설정했다. ‘병땡이 - 엉땡이 : 등땡이’, ‘죽쉬 : 피쉬’, ‘병게 : 업게’, ‘얼챙이 : 돌챙이’ 따위에서 앞쪽의 뿌리 ‘병-, 엉-, 얼-’은 실질적인 뜻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뒤에 쓰인 ‘돌, 등, 께/피’들은 뜻을 알 수 있어 같은 꼴의 접미사이지만 이들을 나누어서 뒤엿것은 IV유형접미사로, 앞엿것은 제V유형 접미사로 다루었다.(p51)

그리고 주로 강세의 뜻을 나타내는 제IV유형 접미사들은(p.113)³⁵⁾ 표준어와 다

35) ‘-뜨/트-’ : 누르다 : 누루뜨다

‘-대기-’ : 거두다 : 거두대기다, ㄹ리다 : ㄹ리대기다, 달다 : 다대기다, 두루다 : 두루대기다, 벨르다 : 벨르대기다, 직다/찍다 : 직대기다, 흥이다 : 흥이대기다’ 따위

른 것들도 더러 있다.

그리고 표준어와 방언 파생어 사이에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답다’나 ‘긱다’는 제춧말에서는 실사로 쓰이는 것으로 보아 접미사로 처리하지 않았다.(p.129)

매김씨 파생으로 ‘죵건, 하간, 굶은³⁶⁾, 노라/놀라운, 느단, 곱은자,³⁷⁾ 말젯, 족흔, 새^ø, 외^ø 따위를 들었다. ‘새, 외’는 $\emptyset$ 변화 파생으로도 다룰 수 있다.

특수 접미사로서 ‘족곰, 답시리, 든직어니, 고양, 족영, 하영, 굴우이, 과짜, 물착, 흑곰’ 따위들을 들었다.

그리고 영변화 파생은 표준어에서보다는 많은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는 이름씨 파생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사 파생도 많은 편이다.

움직씨에서 이름씨파생으로는(또는 반대로 볼 수도 있음) ‘거피다 → 거피, 건지다 → 건지, 놀다 → 놀(피륙의), 되(升) → 되다, 발다 → 발(재다), 빗 → 빗다, 신다 → 신, 콸다 → 콸’ 따위로 이밖에도 많다.

움직씨나 그림씨에서 어찌씨의 파생으로는 ‘곶다 → 곶, 그르다 → 그르(잘못), 덜다 → 덜’ 따위가 있다.

그리고 송상조³⁸⁾에서는 사동 접미사로는 표준어에서 쓰이는 것과는 거의 같으나, 특이하게 제주 방언에서만 쓰이는 것으로는 접미사 ‘-지’가 있다. ‘-게 흐-’에 의한 하임으로 자리를 바꿀 때 기본형 임자말은 부림토 ‘을/를’이 적격으로 보았다. 그러나 입음법에서는 ‘-아 지-’가 많이 쓰이는 것으로 보기는 했으나, 입음이 아닐 때도 있어 혼란스럽게 되었다.

김미진(1998)은 ‘ㄴ슬헛다’ 따위가 ‘ㄴ슬을 헛다’(동사구) → ‘ㄴ슬을 헛다’와 ‘ㄴ슬헛다’(공존) → ‘ㄴ슬헛다’(파생)의 단계를 거친 파생어로 보았다. 그러나 ‘거칠거칠헛다, 미끈미끈헛다’는 ‘헛다’를 접사가 아닌 대동사로 보고 있어서 합성어로 보았다.

‘-수-’ : 깨다 : 깨수다, 뺏다/뺏다 : 빠수다 따위

‘-싸/썰-’ : 놀다 ; 놀썰다, 재다 : 재싸다

‘-쓰-’ : 베르다/벨르다 : 베르싸다, (‘-쓰-’는 위의 ‘-싸-’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임)

‘-아리-’ : 세다 : 세아리다,

‘-옴-’ : 걷다 : 거둬다,

‘-치-’ : 내다 : 내치다, 넘다 : 넘치다, 덮다 : 덮치다, 테우다 : 테우치다, 뿌리다 : 뿌리치다 따위

36) ‘굶-’은 실사로 보고 거기에 붙은 ‘-은/ㄴ-’을 접미사로 보았다.

37) ‘고분자’에서는 ‘곱은 자’로 보아 통사적 구성으로 다룰 수도 있으나 파생어로 보았다.

38) 송상조(1996), “제주 방언의 하임·입음법에 관한 고찰” 『국어학의 오솔길』 우전 김형주 선생 회갑 기념논총

2.3. 합성법

제주말에서의 합성법에 의한 어간 형성은 표준어와 별 차이가 없어서인지, 그에 대해 다룬 논문은 몇 편이 나와 있을 뿐이다.

가. ‘ㄴ’이 탈락하지 않음

이승녕(1957/1985)에서는 육지어에서는 합성어를 이룰 때 ‘ㄴ’이 탈락하는 일이 있으나 제주방언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딸님, 나흘날, 날 날이, 둘둘이’ 등 어간 그대로 나타난다.

또, 복합어 형성에 있어서 육지어에서는 이미 일방의 의미와 형태가 명확히 의식되지 않는데, 제주도에서는 이와 달라 그 어원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르헤(재작년), 그르그르헤=그끄를헤(재재작년)’ 따위를 들다.

나. ‘ㅎ’의 개입

이승녕(1957)에서는 주로 복합어 형성에서 후행어의 두음이 aspirata로 나타나는 것이 놀라운 터이다.라고 하면서 ‘치가침, 술침, 불미침, 물뽕, 언치낙, 산툫, 밀국쉬’ 따위를 들면서 여기에 대하여 현용준씨의 논문 “ㅎ삽요음에 대하여”가 있어 그 예를 차용했다고 밝히고 있다.(앞 논문 p.21)

현용준³⁹⁾에서 ‘ㅎ’이 개입되어 합성어를 이루고 있음을 밝힌 것은 이 논문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기에서 ‘ㅎ’이 개입되는 환경으로는 복합어 사이, 체언과 조사 사이라고 하면서 선행어 말음이 유성음이고 후행어 두음이 ‘ㄱ, ㄷ, ㄴ, ㅈ’일 때 쓰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때의 ‘ㅎ’은 선행어 말음도 아니고 후속어 두음도 아닌 삽요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시대의 ‘ㅎ’은 ‘ㅇ’과 ‘ㅎ’의 중간음인데, 후속음을 똑똑하게 발음하려는 언어 심리 작용에 의해서 ‘ㅎ’이 많이 쓰인 것으로 보았다. 그렇더라도 ‘ㅎ’이 삽요음이라고 해서 ‘ㅎ’조사설이나 ‘말음 체언’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았고, 이 문제는 어려운 것으로 남겨둔다고도 하였다.

39) 현용준(1957), “‘ㅎ’삽요음에 대하여 -제주 방언을 중심으로 하나의 시고-, 『제주문화 I』 예총제주지부 pp.86-103

박용후⁴⁰⁾에서도 두 뿌리 사이나 임자씨와 토씨 사이에 ‘ㅎ’이 개입되어 아랫말 첫소리가 거센소리로 되는 것이 있다고 하고, 첫째 복합어의 두 뿌리 사이에 오는 ‘ㅎ’는 울림소리로 끝나는 뿌리 아래에 첫소리가 안울림소리 ㄱ, ㄷ, ㅂ, ㅈ인 뿌리가 오는 특정한 말에 나타난다. 홀소리 아래 고팡>고방, 처가칩>처갓집, ㄴ아래는 산 툷>산뚫지, 손톡>손독, ㅇ아래 낭토막>나무 토막, ㄹ아래 먹을커>먹을 거, 물팽>물병 따위를 들었다.

두 말 사이에 개입되는 ‘ㅎ’은 울림소리 아래에 안울림소리가 올 적에만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안울림소리가 윗말의 영향을 받아 울림소리로 되는 것을 막아 안울림소리를 똑똑히 소리내려는 발음 심리에서 날숨을 세계 내어 보내기 위하여 목청을 닫고 숨을 모아서 내어 보냄으로 말미암아 마찰작용이 일어나는 현상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아래에 오는 말소리를 똑똑히 들어내어 되게 소리낼 필요가 없는 속어에는 ‘ㅎ’이 개입되지 아니한다.

송상조⁴¹⁾에서는 복합어를 이룰 때는 음이 연결될 때 선행 말음과 후행 첫소리 사이에는 어떤 변음의 요인이 개입되는데 그곳은 음의 장단, 휴지, 또는 ‘사잇소리’ 등의 유무에 따라 후행어 첫소리는 달라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제주 방언에서 선행 체언 말음이 유성음이고, 후행 체언 말음이 파열, 파찰 평음일 때 복합어를 이루면 후행어 첫소리는 개입된 음소에 따라 평음, 경음, 유기음으로 나게 되는데, 무성 평음으로 나는 일은 거의 없고, 음장이나 휴지의 개입으로 유성 평음이 되고, 경음으로 날 때는 소위 사잇소리의 개입이고, 유기음화 될 때는 ‘ㅎ’의 개입으로 보았다. 바로 그 ‘ㅎ’이 ‘사잇소리’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홍종립⁴²⁾에서는 앞선 연구들이 합성어에 개재되는 ‘ㅎ’만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통사적 구성에 나타나는 ‘ㅎ’음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면서 통사적 구성(명사+조사/동사)의 ‘ㅎ’말음 명사와 그 용례들을 들면서 고찰하였다. 그렇지만 합성어에서는 ‘ㅎ’의 개입으로 보든, ‘ㅎ’ 말음으로 보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 ‘웃넉칩, 엇치낙’은 ‘ㅎ’ 개입으로 보았을 때 안 되는 것으로 보았고, ‘사둔칩, 외가칩, 빵칩’은 ‘ㅎ’말음 명사가 아닌데 ‘칩’으로 쓰이는 것은 복사된 것으로 보았

40) 박용후(1960), 「제주 방언의 연구」 동원사.나 (1988) 「제주도 방언 연구」 (고찰편) 과학사,와 (자료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41) 송상조(1982), “‘ㅎ’ 개입에 관한 고찰”.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2) 홍종립(1998), “제주도 방언의 ‘ㅎ’말음 명사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19.

다. 그러나 결론의 마지막에는 이 방언의 ‘ㅎ’개재 합성어가 모두 ‘ㅎ’말음 명사에 기원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다. ‘물쇠기, 물툫, 짐패, 소곰쿵’의 ‘ㅎ’은 기원이 분명치 않다고 하면서 앞으로 규명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3. 조사

제춧말 조사는 형태가 표준어와 같은 것과 다른 것으로 나뉘어진다. 후자는 제주 자체의 발달형으로 귀한 것이다. 제춧말이 사라지면서 이 조사들도 표준어화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조사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공·통시를 떠나 논문 발표 시기를 따라 살펴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쪽을 택했다.

제춧말 조사를 초기에 전반적으로 다룬 것은 이승녕⁴³⁾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평에 따르면, 명사의 격으로 쓰이는 것들 가운데 일부는 ‘본도 자체로서 독특한 발달을 하였음은 물론이려니와 고대어의 나머지를 유지한 듯이 느껴지는 여러 암시를 얻게 된다.’면서 ‘본도 방언이 방언학적으로, 또는 언어지리학적으로 특이한 연구 대상이 됨은 물론이지만, 고대어의 암시가 육지어의 불분명한 발달을 해명함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 이후 강정희, 강영봉, 정운택, 문순덕, 허기추, 강인자 등의 학위논문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체계화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1. 격조사

격조사 체계에 대한 견해가 다양해서, 여기서는 그 견해들을 통합해서 주격, 목적격, 보격, 부사격, 호격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가. 주격 ‘이/가, 께서’에 대하여

가-① 주격 ‘이/가’

43) 이승녕(1957/1985), 앞 책.

제웃말에서 주격으로 ‘이/가’의 쓰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가 없다. 다만, 이송녕에서는 쌍형어 ‘ㄱ를, ㅎ를’에서는 주격이 ‘ㄱ르리, ㅎ르리’로, ‘ㄱ르, ㅎ루’에서는 ‘굴리, 홀리’나 ‘굴이, 홀이’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현평효(1982)에서도 ‘ㅎ르리: ㄱ르리’로 주격으로 ‘리’가 쓰이는 것으로 보았다.

가-② 주격 ‘이/가’의 생략

조사의 생략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논문에서 다루어졌다. 이송녕(1957)에서는 격의 형태와 변화는 육지어와 차이가 참으로 크다고 하면서, 주격, 속격, 대격에서의 생략 현상을 살폈다.

박용후⁴⁴⁾에서도 주격 ‘가/이’와 ‘께서’를 들고 생략되는 일이 예사로 보았다. 그런데 주격으로 ‘냥’과 ‘래’가 올라 있는 게 특이하다.

특히 강근보(1977)에서도 주격이 생략되어 쓰이는 일이 많다고 했다.⁴⁵⁾ 그러나 ‘ㅁ쉬, 웅매, 가매’에는 ‘i’⁴⁶⁾가 후접하여 새 어간으로 바뀐 것으로 ‘내, 네’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

강정희(1983)에서는 주격과 대격에서 생략의 항목을 설정해서 다루고 있다. 쓰이는 환경에 따라 생략이 자유로울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정운택에서는⁴⁷⁾ 선공자들이 ‘격어미의 생략’으로 다루던 것을 ‘부정격’으로 보아 ‘∅’로 표시하였다.⁴⁸⁾ 그리고 ‘가매가, 쇠가’에는 ‘복합격어미’로 쓰였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가마’가 ‘가매’로 된 것은 주격 ‘i’가 화석화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방언형으로 보는 게 나은 것으로 보려 했다. 그리고, ‘이서’가 주격어미로 쓰일 때는 ‘동작동사’여야 하는 제약도 밝혔다.

허기추(2004)에서도 주격의 생략을 다루었는데 무표지의 체언이 흔히 쓰이기 때문에 무표체언의 임자자리에 {이/가}가 첨가되면 어색해지거나 [+강조]의 의미를 띠는 것으로 보았다.

44) 박용후(1960/1988), 앞 책 (고찰편)

45) 꼭 인천대명사가 아니라도 주격 ‘이/가’가 줄여 쓰이는 일은 흔하다.

46) 이 ‘i’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47) 정운택(1983), 「제주도 방언의 격어미 연구」 제주대학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8) 정운택(1983), 앞 논문의 일람표를 보면 ‘주격: 이, 가, 이서, 예서, ∅, 대격: ㄱ, 을, 를, ∅, 속격: 이, 의, 네, ∅, 처격: 이, 예, {이/에}서, 디, 레, 드레, 조격: 로, 으로, 공동격: 영(이영), 과, 이왕, 호격: 아, 야, 마썸, 부정격 ∅’으로 되어 있다.

가-③ 주격 ‘라/레’에 대하여

이승녕(1957)이나 현평효(1982)에서는 주격으로 ‘라/래’의 쓰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나, 박용후나 강근보, 강정희들에서는 쓰이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박용후는 ‘느래 급장가’와 ‘저 쇠래 밧 잘 간다’ 따위에 쓰인 ‘래’가 주격으로 올라 있고, 또 ‘냥으로’가 주격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아 특이하다. 이 ‘냥으로’가 다른 연구자들에서는 거론된 일이 없다.

강근보에서는 ‘집이서 보냅디다’의 ‘이서’나, ‘아시래 이 집이 살암저’에서의 ‘래’가 ‘주격형’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주격형’이란 말을 어떤 뜻으로 썼는지가 궁금하다.

강정희(49)가 밝힌 주격 표시 접미사로는 ‘이/가’는 공통어와 동일하나 ‘라’가 주목된다고 하면서 ‘라’는 선행 명사에 대한 진술·단정·규정이라는 본래적인 뜻으로 인해서 ‘가’보다는 “서술성이 강한 전제 표시와 단정적 의미”(홍윤표 : 1975:18)를 지니게 된다고 하면서 ‘라’는 동작·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류뿐만 아니라 수량명사 뒤에도 첨가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상태성 동사가 아니라도 가능하다고 했다.⁵⁰⁾ 또 주격의 생략도 다루어서 ‘Ø’를 인정했다.

정운택(1984)에서는 ‘래’가 주격으로 쓰인 예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게 쓰였다면 국어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나타낸다고도 하였다. 그러면서 ‘래’가 표준어 ‘께서’의 존대의 기능을 함께 지닌다⁵¹⁾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되어야 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허기추(2004)에서는 임자자리토에 ‘이/가’만 실현되는 것으로 보았고, {이라/라}를 뺀 이유는 ‘기대한 것보다 많다’는 뜻을 가진 {이나/나}와 서로 교체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49) 강정희(1983), 앞 논문.

50) ‘-라’가 쓰이는 자리의 예문

- ① 요 알동네 피쟁이 각시라 애길 배어신게.(담 :33)
- ② 물에는 출내라 나고 필내라 나고 밥에는 밥내라 나고,(무가 :51)
- ③ ㉠ 접시 두 개라 웃구나.(담 :178)
- ㉡ 늑신네 서너이라 아잔 놀압신디,
- ④ ㉠ 누게라 되느냐? 새로 온 금상이 됩니다.(무가 : 839)
- ㉡ 흐로는 저녁때라 되언, (담:259)
- ⑤ ㉠ 물 막은 섬 중이라 갈 수라 싯느냐.(무가 :835)
- ㉡ 목존 어덜영이라 아니 보아 줄 수라 엇엇쭈다. (담: 57)

51) 강근보(1979), 앞 논문

가-④ 주격 ‘에서’나 ‘께서’에 대하여

이승녕(1957)에서도 ‘께서’는 외부의 영향으로 보았다. 그리고 ‘에서’에 대한 견해는 없다.

강정희(1983)에서는 높임의 ‘께서’는 쓰이지 않고⁵²⁾ 또, ‘에서/이서’는 유정물 명사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주격 범주에서 제외시켰다.

정운택(1984)에서는 ‘에서’는 동작동사일 때 쓰이는 것으로, ‘께서’는 재고되어야 하는 걸로 보았다.

문순덕⁵³⁾에서도 ‘서’나 ‘께서’는 주격으로는 쓰이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의서, 에서’의 ‘서’는 [+장소], [-유정], [+집단]의 의미자질을 가지며 주어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는 보았으나, 제주말에서는 주격조사가 생략되는 일이 있는데 ‘에서’는 생략되는 일이 없어서 주격의 기능은 하나, 주격 조사라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NP₁이/가 -NP₂에(이)서 -VP⁵⁴⁾ 형식에서 주어가 생략된 문장으로 본다면 NP₂구는 단지 주어의 기능을 할 뿐이지 ‘-이/가’처럼 언제나 주격 표시라 할 수는 없다고 했다.

허기주(2004)에서는 높임의 ‘께서’는 겹구조에는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⁵⁵⁾ 그리고 ‘의서, 에서’를 뺀 것은 “NP₁(이/가)NP₂(에/의)서 VP”구조에서 유정물 명사 NP₁이 생략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라, 라’를 뺀 것은 ‘기 대되는 것보다 많다.’는 뜻을 가진 ‘-이나/나’와 교체되기 때문으로 보았다.

나. 격조사의 중출 또는 보격조사에 대하여

제웃말 격조사의 중출은 강정희(1983)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격표지 접미사의 중출은 기저구조의 관형구성의 일부와 처격 명사구가 주어화 과정에 의해 유도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 ‘A는 B이 댜다.’ 구문은 기저의 타동사 구문에서 피동화를 거친 것과 표면구조에서 주격표지 접미사의 중출현상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뉜다. 상태

52) 이런 현상은 동해안의 대진, 괴시 방언이나, 전북의 완주 진안, 임실 방언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 는 것으로 보았다.

53) 문순덕(1987), “제주도 방언의 형태소 ‘서’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54) 강정희(1983), “제주방언의 명사류 접미사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p.17.

55) 방언의 높임법은 조사에 의해 나타내기보다 선어말어미나 첨사에 의해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현평효 (1977), “제주도 방언의 존대법” 참조.

변화의 인과관계를 보이는 두 개 이상의 명사들의 의미가 상호 가역적일 때는 어순상의 제약이 없다. 또한 수량사문의 주격표지 접미사의 중출과 ‘A이 B이다.’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A이 B이 뉘다.’ 구문의 주격표지 접미사의 중출현상은 본래적인 주격표지 접미사의 중출문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정운택(1984)에서도 주격 중출에 대해서는 이때의 동사구는 정태적인 특성을 지닌 ‘되다, 이다, 없다, 좋다’가 쓰여서, ‘이, 가’는 속격, 여격, 처격 또는 대격의 주제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하였다. 다만 처격 및 대격의 주제화에서는 동작동사가 올 때도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주격이 생략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문맥적 의미가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일치할 때는 부정격 ‘Ø’일 때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주격 어미가 쓰였을 때는 화자의 강한 의지가 나타나 동사구의 주체를 확실하게 하고 있으나, 부정격의 문장에서는 강조의 의미도 상실하게 되어 일반적인 통합 관계만 형성하여 주고 있다고 하였다.

허기주는 ‘이/가’의 중출은 NP¹의 ‘주제화의 기능’으로 보아 기움자리토로 보았다. 기움자리토는 [-완전성]의 풀이씨 특성에 의하여 할당되는 자리에 첨가되는 것으로서 그 형태는 {이/가}로 나타난다.

다. 대격 ‘을, 를’에 대하여

다-① ‘-을/를’의 쓰임

이승녕도 대격을 다루고 있지만 ‘낭을, ㄹ루를’에서는 그대로 쓰이는 것으로 보았다. 현평효에서도 차이가 없다.

강근보(1977)에서는 대격은 ‘을/를’이지만 줄어서 ‘ㄹ’로 나타나는 일이 흔하다면 쓰임에 따라서는 향격, 처격, 탈격 등으로 쓰여 용법과 기능에서 다양하게 쓰여, 또 ‘-ㄴ’으로 바뀌어 강조의 뜻으로도 쓰이는 것으로 보았다.

강정희(1988)에서는 대격표지 접미사 중에서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 첨가되는 ‘-ㄹ’, ‘-를’들의 빈도수는 ‘-ㄹ’이 우세한 것으로 보았다. ‘-ㄹ’과 ‘-를’의 사용상의 효과는 ‘-를’이 강조성이 큰 것으로 보았다.

이어서 자동사문, 이동성 동사류에 호응하는 ‘-ㄹ, 를/을’은 대격 - 목적어를 표시하는 접미사가 아니라, 선행 [+처소성] 명사를 강조하기 위한 ‘-ㄹ, 를/을’을 주

제화 접미사로 봄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았다. 대격표시 접미사가 자동사문의 이동성 동사류에 호응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이동성 동사류의 ‘대상’으로서 [+처소성] 명사가 타동사문의 대격 - 목적어 자리와 또한 그 의미 관계가 동일한 데에 기인한다.

‘-ㄹ, 를/을’ 주제화되어 동사류의 위치에서 멀어지는 명사류들의 강조성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았다.

정운택(1984)에서도 대격도 개음절, 폐음절을 가리어 ‘을, 를’을 쓰기도 하지만 개음절일 때는 ‘를’보다는 ‘ㄹ’이 빈번하게 쓰인다고도 했다.

허기추(2004)는 [+타동성]의 풀이씨 특성에 의하여 할당되는 자리에 첨가되는 것으로서, 그 형태는 표준어와 동일하게 ‘을/ㄹ’로 나타난다. ‘-를’은 선행체언을 강조할 때만 쓰이고 있어서 {-ㄹ}에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남움직씨의 도움을 받아 그 선행 체언을 부리는 관계로 보았다. 그리고 ‘을/ㄹ’이 제움직씨에 걸릴 때에는 [+강조]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다-② 대격 ‘을/를’의 생략

이승녕은 ‘서답 햅영’, ‘몸 곱지’ 따위에서 대격 생략이 된 것으로 보면서 육지어에서보다 세다고 하였다. 박용후에서는 ‘을/를’의 생략만 들었다. 강근보에서도 생략되어 쓰이는 일이 많은 것으로 보았다. 강정희에서도 대격 ‘-ㄹ/를/을’의 생략은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더 활발한데, NP-Vi 구성에서 목적어와 서술어가 이웃할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격 관계가 가장 구체적이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래서 생략형은 화자의 개관적 진술일 때로 보았다. 그것은 목적어에 대한 강조성이 정도는 어순과 생략여부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았다.

허기추도 {을/ㄹ}이 생략됨으로써 남움직씨까지 아울러 생략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했다. ‘가네덜이 벌초 가시냐?’에서 ‘벌초 가시냐’는 ‘벌초를 햅레 가시냐’의 줄임으로 본 것이다. 이런 까닭은 ‘말을 짧게 하려는 언중들의 언어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멥질 먹다’ 따위처럼 ‘을/ㄹ’의 줄임으로 해서 뜻풀이에서 ‘괴리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도 보았다.

다-③ 대격 ‘을/를’의 중출

강근보(1977)에서도 대격 ‘-을/를’이 쓰임에 따라서는 향격, 처격, 탈격 등으로

쓰여 용법과 기능에서 다양하게 쓰인다는 것은 중출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정희(1983)는 ‘이 아일 날 주어시민 → 이 아일 나신티 주어시민’이나 ‘늘 사름을 만들젠 → 늘 사름으로 맨들젠’ 따위에서 처격, 기구격의 대격화에 의한 점이 공통어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정운택도 대격의 중출현상도 빈번하지만 이때의 명사구는 [+유정]이고 동사구는 [+불사]의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그리고 ‘-를/을’을 대신해서 ‘ㄴ/은’이 실현되기도 하는데 이는 대격의 주제화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허기추는 ‘느 감절 혼 구덕을 슈앙 오라.’에서 ‘구덕을’을 ‘구덕만’으로 주제화시킨 결과로 보고 있다. 이런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고 특수한 현상으로 제주 방언에서는 중출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라. 속격 ‘네, 의’에 대하여

라-① 속격 ‘네, 의’의 쓰임

이승녕에서는 ‘-네’는 인칭대명사에 붙어서 ‘소유격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이 ‘네’가 복수의 ‘네’라고 하여 고어에 나타나는 것과 비교하였다.

‘각각 어머님네 피습고 누의님네 더브러(월인석보 26)

‘나그네느 | (各人們 노걸대언해 상18)

위의 ‘내’일 것인데, 이두에서는 ‘矣’자가 ‘내’로 되어 소유격 ‘의’의 독법과 이중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았다.

(또 처격 ‘에’도 광범하게 쓰이나 이와 아울러 ‘이’로도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 ‘이’는 일부 서울말에도 나타나는데 ‘의>이’의 발달로 보고 있다. 15세기 표기를 보면 처격은 본시 ‘으 |, 의’가 ‘애, 에’에 못지 않게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 강근보에서는⁵⁶⁾ 현대 국어의 속격의 표시는 ‘-의’가 전담하는데 제주도 방언

56) 강근보(1976), “속격 ‘-네’의 연구”, 논문집 제8집, 제주대학

에서는 ‘üi’와 ‘-ne’가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 ‘üi’와 ‘ne’는 동일한 형식으로 귀착되나 그 성분에 있어서는 차이를 나타낸다고 했다. 즉, ‘ne’에 선행하는 ‘N’류어와 속격 ‘üi’에 선행하는 ‘N’류어와는 성격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ne/üi’에 후행하는 ‘N’류어에서 이른바 인칭대명사가 제외되는 통사적 구성과는 대립적인 결합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았다. ‘-ne’는 2, 3인칭 대명사에 후행하고, 인명, 직명, 친족명은 인칭대명사로 대치가 가능하다고도 했다.

또 ‘-ne’가 속격인지 복수접미사인지가 발화에서 혼동하는 일이 있지만, ‘-ne’에 개방연접이면 복수접미사가, 폐쇄연접이면 속격이 되고, ‘-ne’의 선행음절에 개방연접이면 인칭대명사의 속격형으로, 현대어에서 상용되는 ‘네’ 또는 ‘내’와 등치관계의 의미와 성분이 된다고도 했다.⁵⁷⁾

또 강근보(1977)에서는 속격 기능은 ‘üi, ne, i, ㅅ/s’ 따위로 나타내는데, ‘üi’와 ‘i’를 갈라 놓고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ㅅ/ㅎ’은 속격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식게칩’이 되든 ‘식게쩍’이 되든 같이 속격이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통시적으로는 ‘-ne’는 복수접미사로 쓰일 때는 9세기 신라어에도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조선시대 문헌어에 나타는 ‘어머님내, 나그내느 |, 아바님넛기’ 등에 쓰인 이 ‘-내, -느 |’들이 방언 ‘-ne’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 또 이두문에서도 ‘矣徒, 矣徒等, 矣徒段’이 나타나는데 ‘矣徒’는 ‘야네’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 ‘矣徒等, 矣徒段’도 ‘야네들(덜)’과 동류의 성분으로 된 구성형식이며 그 문법적 의미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ne’는 11세기~14세기를 뛰어넘어 9세기 신라어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ne’는 집단의 소속원의 총칭인 뜻을 내포하는 것으로도 보아 지명에 나타나는 ‘一徒, 二徒’의 ‘徒’와도 같은 뜻으로 보고 있다.

또 7세기 중반기 일본어 기술로 한자 ‘等’은 ‘-ra’로 쓰여서, ‘-ne’와 ‘-들’의 관계와 유사하다고도 했다. 이어서 ‘-ne’가 통시적으로 속격으로 쓰인 보기로는 ‘矣, 衣, 叱’로써 표시한 것으로 보았다.

현평효(1982)에서는 ‘-네’는 2, 3인칭에나, 고유명사, 인명에서, 복수적인 의미보다는 소유격의 의미가 강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알타이어계의 /n-/계나 일본어 /no/가 소유격으로 쓰이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57) ‘느네 집이 가라’를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 ‘네’의 뜻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았다.

강정희(1983)에서는 ‘-에+ㅅ-’이나 ‘-ㅅ-’을 속격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관형구성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소유관계일 때는 ‘-ㅅ-’가 선별되고 ‘소재’일 때는 ‘-에+ㅅ-’이나 ‘-ㅅ-’이 선행 처소성의 명사 말음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 선별되어, ‘-ㅅ-’이 나타나는 ‘N₁ +N₂’의 관형구성은 관형접미사의 생략형의 아니며 ‘소재’ 관계의 관형 구성에서의 동일음운 환경에서 처격 삭제형과 비삭제형 사이에는 의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정운택(1984)에서도 속격으로 ‘의, 이, 네’가 있는데 ‘의’와 ‘이’는 ‘이’가 우세하게 쓰이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네’가 속격이 되려면 선행체언도 [+사람](1인칭 대명사 제외)이어야 하고, 후행체언도 [보유]의 의미자질을 갖는 것이라야 한다고 구체화시켜 놓았다. 또 속격 기능을 지닌 ‘ㅅ, ㅎ’은 후행하는 체언의 초성을 된소리, 또는 거센소리로 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허기추(2004)에서는 매김자리토씨로 {-에, -이, -ㅅ}을 들었는데 {-에}는 선행체언이 [+유정물]일 때, {-이}는 선행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면서 동시에 [+사람]일 때, {-ㅅ}은 선행체언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동시에 [+장소성]일 때로 보면서 이 셋을 형태론적 조건에 의한 변이형태로 보았다. 여기서 {-ㅅ}을 자리토로 본 것은 통사론적 현상으로 보아서 넣었는데 어찌말과 이름씨, 이름씨와 이름씨 사이에 쓰여 통사상 매김자리토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네}는 제1인칭에 쓰이지 않을 뿐 아니라, [+무리]의 뜻을 지니고 있어서 매김자리토에서는 제외시켰다.⁵⁸⁾ 이들의 기능적 의미는 선행 체언에 대해서는 [+한정]의 의미를, 후행어에 대해서는 [+매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라-② 속격 ‘네, 의’의 생략

이승녕에서는 ‘느밧, 느신, 나겓’ 따위가 속격의 생략으로 보면서, 주격이나 대격에서보다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강정희는 ‘아방 옷, 반장 말, 도새기 것’ 따위에서 ‘의’가 생략된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았다. 그것은 관계 서술어 삭제 단계에서 관형 접미사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관형접미사 자체에 의미기능이 없기 때문으로 보았다. ‘소유’ 관계는 결합되는 명사들의 분포와 의미 관계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관형접미사는 잉여

58) 보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7.c의 보기가 ‘체 알에’가 ‘체 알엿’의 잘못으로 보인다.

적 존재가 되어 도입되지 않거나 생략되는 것으로 보았다.

마. 부사격조사

마-① 공동격 ‘영, 광’ 따위에 대하여

이승녕(1957)에서는 공동격 ‘영’은 ‘도, 와, 왕, 광’과 아울러 쓰이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영+η’의 형성이어서 ‘영’의 ‘-η’은 부사형성으로, ‘랑’에 쓰이는 환경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⁵⁹⁾ 또 비교의 공동격 ‘와, 과’에 ‘왕, 광’도 자리에 따라 비교격으로 쓰이는 일도 있는 것으로 보았다.

박용후에서는 여동격으로 ‘영’과 ‘과’를 올렸다.

강근보(1977)에서는 조사 ‘ijæn/jæn’은 쓰이는 자리에 따라 다양한 문법적 뜻을 지닌 것으로 보았다. ‘나영 놀게’일 때는 ‘공동격’이고, ‘빚이영 보양 오라’일 때는 ‘첨가’, ‘누게영 ㄴ트냐’일 때는 ‘비교’, ‘책이영 산 쪼광’일 때는 ‘자격’으로 ‘로서’와 같은 뜻으로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표준어 ‘wa’와 일치하는 기능이라 할 수 있지만, 통사상 배열에서 격은 선행할 수 없으므로 배합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았다.

현평효(1982)에서는 공동격으로는 ‘영’과 ‘와/왕/광’들이 같이 쓰이고, 열거격으로 쓰일 때도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과/광/와’는 비교격으로 쓰이는 것으로도 보았다.

정운택(1984)에서는 공동격으로 ‘광, 왕, 영(이영)’ 등이 쓰이는데, ‘광, 왕’은 공통어의 ‘과, 와’에 특이한 형태소인 /η/이 연결된 것으로 보았다. ‘영’의 VP가 비교라든지, 차등의 의미를 지닌 서술어가 연결될 때 비교격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점은 ‘왕/광’에도 적용된다.

강인자(2004)는 ‘광’ 하나로 석사학위 논문을 썼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 있었다. ‘-광’이 격조사⁶⁰⁾의 기능으로는 대칭 용언과 같이 쓰일 때는 공동격으로, 또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 비교격으로, 또 [-유정명사]일 때는 ‘에서’에 대응되는 처소격으로도 쓰이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유정명사]일 때는 ‘에게’에 대응

59) ‘이영’에 쓰인 ‘-η’과 ‘랑’에 쓰인 ‘η’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 ‘-랑’에 쓰인 ‘η’은 ‘-라그네, -랑그네’ 따위의 변이형태가 있으나 ‘영’에는 그런 쓰임이 되지 않는다.

60) 격조사에는 주격, 관형격, 목적격, 보격, 부사격, 호격, 서술격 조사로 나뉜다. 여기 부사격에는 처소격, 여격, 방위격 구격 또는 조격, 공동격, 호격들이 포함된다.

되는 여격 기능을, 그리고 접속조사의 역할도 하고, 보조사 ‘도’와도 같은 뜻으로, 그리고 [+나열성]도 있는 것으로 보았다.

마-② 처격, 방위격 또는 여격의 조사 ‘레, 드레, 에’ 따위에 대하여

이 조사 ‘레, 에, 드레, 레, 레레’ 따위들은 제춧말 특유의 조사로서 여러 가지 점에서 가장 다루기 어렵고 복잡한 것이다. 우선 ‘디’와 ‘드레’는 변이형태인지도 궁금하고, 또 사적인 면도 밝히기가 쉽지 않고, 그 주변적인 후치사들 ‘안티, 안트레’들과도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를 밝히는 일도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

이승녕(1957)에서는 표준어와 다른 제주 특유의 방언 형태인 이 조사를 살펴서, 특히 처격의 ‘레’는 ‘마리레’와 ‘마리에’가 공존하는데, 다른 말에서는 어간말음이 모음이면 ‘레’가, 자음이면 ‘더레’가 쓰이고, 그리고 ‘이, 그, 저’에도 ‘레’가 쓰인다고 했다. 그리고 뒤에 오는 동사에 따라 방위격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레’에 의해서 고대어 재구에 큰 암시를 얻는다고 했다.

박용후에서도 처격을 설정하기는 했는데 ‘레’를 거기에 넣지 않고, 향방격에만 넣으면서 웃말에 따라 다른 꼴로 쓰이는 것으로 보면서 ‘테레/레/테레/레레’ 따위를 변이형태로 보았다. 그가 처격으로 놓은 것은 ‘서, 의서, 에, 의, 예’로 보면서 ‘나 모자’의 ‘의’를 처격으로 보면서 ‘의’가 생략되는 것으로 보았다.(이것은 속격으로 보아야 할 것을 잘못 올린 것 같다.)

강근보(61)에서는 이 ‘드레’가 쓰이는 환경을 여러 각도에서 살피고, ‘인칭대명사 + 드레’가 되면 여격의 직능인 ‘-ege/düre’와 같은 뜻으로, ‘사물대명사 + 드레’는 처격과 향격의 직능으로 ‘-e/düre’의 뜻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인칭대명사 + 드레’는 ‘나 + 드레, 나 + 르드레(ldüre)’, ‘나 + 신드레(sindüre)’, ‘나 + 르ᄃ라(lgpra)’, ‘나 + 안티(anthi)’, ‘나 + 안트레(anthüre)’들과 수의적으로 교체되고, 사물대명사나 명사에 쓰인 ‘드레’의 변이형태로는 ‘-르레, -레’ 따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⁶²⁾

그리고 수대명사에도 ‘드레/르레/레(düre/re/rüre)’가 쓰이면, 표준어 ‘에(e)’의 뜻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면서 이렇게 ‘드레’는 결합되는 말에 따라 여격적 기능, 처

61) 강근보(1977), ‘제주도 방언의 접미사 연구’ -특히 [düre]를 중심으로-, 논문집 제9집 제주대학

62) 이들은 쓰이는 환경에 따라 변이형태로 쓰인다고 했는데, ‘잇지’와 결합될 때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나안티 잇지.’와 “나안트레 잇지”가 같지는 않을 것 같다.

격적 기능으로 다르게 쓰이는 것으로 보았다.

또 처격은 ‘에, 이, 에서, 드레’가 있고 ‘에서, 이서, 서’와는 같은 뜻으로 쓰인다고 했다.

강정희⁶³⁾에서도 ‘-데레, -디(-이), -레’를 뽑아내고 문법적인 기능을 의미론적인 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디레’는 선행하는 모든 NP가 [+place], [-animate]이고, 이를 지배하는 VP가 모두 [-locomotive]이면, VP와 NP의 통합관계에서 광의의 처격의 기능을 하면서 VP의 동작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디레’에 선행하는 NP가 [-place], [+animate]이면 처격 기능에서 여격(dative)로 전이되기 때문에⁶⁴⁾ ‘-디레’는 선행하는 체언에 따라 처격 혹은 여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 ‘-디’는 선행 NP의 말자음이 /t/계이거나 통시적으로 말음에 /ㅎ/를 지녔던 NP에만 연결되는 제약 조건을 가지면서 처격의 기능을 하는데, ‘가다’ 따위의 동사일 때는 귀착점의, ‘술밧디, 낭우티, 팽풍뒤티’에 쓰이는 ‘놓다, 앓다’ 따위의 상태동사일 때는 귀착점의 의미보다는 고정된 공간적 처소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⁶⁵⁾

‘a. 어디 감수가, b. 밧디 감수다, c. 밧디 강 일햄십서.’의 a.에서는 목적 지점에 대한 의문에 ‘NP+-디 감수다’라는 문장에서 [locomotive]의 VP가 선택되고 있음은 표준어 ‘-에’의 경우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즈굴딧사름, 술딧물’에서는 복합어 형성시 나타나는 형태로서 중세국어 ‘-엿’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디(처격)+-ㅅ(속격)’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때의 ‘-디’는 후행 명사의 위치를 지정하는 장소로서의 위치를 나타낸다.

그러면서 이 ‘-디’가 중세 문헌어 ‘ㄷㅣ’가 문법화를 겪은 것으로 가정하며, 지금까지 이 방언의 ‘디레’의 ‘-디’는 처소, ‘-레’는 방향의 복합형태로 보았다.

또 처격표시 접미사로서 ‘-디, -드레, -이/예, -레, -디레’, 유정물 처격 구성에 관여하는 ‘-레’ 등이 변이형들이 존재하며, 유정물 처격 구성에는 ‘-안티, -신디, 아피’ 등과 같은 접미사가 있는데 유정물 처격 구성에 관여하는 이들 접미사들은 [-유정물 +처소성] 처격 구성에 관여하던 ‘-디’에 처소성 명사가 결합된 것으로서 의존형식의 기능을 한다.

63) 강정희(1980), “제주 방언의 처격 ‘디’에 관한 일 고찰”, 「방언 4」,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어학연구실.

64) ‘아이드레, 어멍드레’가 쓰이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신드레, 안트레’ 따위는 쓰인다.

65) 그러나 ‘아방디, 어멍디도’도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할망디 갓지’가 쓰일 때도 있다.

‘-디’는 고정된 공간적 위치, ‘-레’는 공간적 위치를 지향하는 방향성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디레’는 위의 두 형태소의 결합체로서 그 의미특질도 복합적으로 내재하며, [±유정물] 처격구성에 관여하는, 기능부담량이 많은 형태소로 보았다.

국어사적으로 이 ‘레’ 따위에 대한 고찰로는 이승녕(1957)에서는 ‘理, 利, 里’에 대응되고, ‘良:此良, 群良, 舌良, 手良’이나 ‘羅:秋察羅, 吾羅, 月羅里’, ‘呂:世呂, 世呂仲’, ‘留:筆留, 水留, 曉留, 主留, 舊留’에 쓰인 ‘理, 良, 羅, 呂, 留’의 격 또는 어미가 존재함을 조금도 의심할 게 없다고 하였다.

또 강정희에서는 만주어 ‘deri, -de’와 제주방언 ‘-디레, -디’의 문법 대응에서는 음운, 형태 및 문법 기능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de’와 ‘-디/디’는 부사형성 접미사로나, 시간성으로도 쓰여 하나의 기원어였으며, 여격 기능으로도 쓰이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디레’를 향가 ‘此矣’로 소급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만주어 ‘de’ 몽고어 ‘-da/de’와, -du/dü, -ta/te, -tu/tü, Trukic의 ‘-da/de, -ta/te’와의 음운 대응을 해봄으로써 이들과 ‘ㄷ’의 유사성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레’는 상태성 동사와 지속성 특질을 지니는 동사의 통합을 거부하며, 처소성보다 방향성이 강한 것으로 보면서 문헌어 ‘-라, 러, 리, 려’와 같으며, 향가 ‘此良’ 그리고 만주어 ‘ri’와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방언의 ‘디레’와 만주어 ‘deri’를 분석하고, ‘디레’의 ‘-디’는 처소, ‘-레’는 방향, 만주어 ‘-deri’는 ‘-de(처소)’ ‘-ri(방향)’의 복합형태로 보았다.

또 강정희⁶⁶⁾에서는 ‘디’가 ‘ㄷ’에 기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디’의 다양한 쓰임을 여러 편의 논문을 통해 여러 각도에서 집중적으로 살폈다. 첫째는 지시대명사 ‘이, 그, 저’와 결합해서는 ‘곳’의 어휘항목으로 ‘처소’의 의미로, 둘째는 ‘본디, 혼디’ 따위로 부사화소로,⁶⁷⁾ 셋째는 ‘그 사름 가진 디가 오래주. 밥 먹어본 디 오래우다.’ 따위로 ‘시간성 의존명사’로, 넷째는 인식공간의 의존명사로 ‘원도 신도 저은 디 웃나’ 따위로, 다섯째는 처격 표시로 ‘어멍 즈꼴디 앓아둬서’로, 여섯째는 여격으로 ‘어른안티/신디’와 ‘아궤’도 같이 쓰이고, 그리고 의문형어미로 ‘왓디, 먹언디’로도 쓰이는 것으로 보았고, 또 ‘신디’는 수여동사 ‘안네다’와 같이 쓰였을 때 ‘유정물 처격 표지’로 보았다.

66) 강정희(2005), 「제주방언 형태 변화 연구」 역락.

67) ‘흙치’가 ‘혼디’의 뜻으로 쓰이는지는 의문임.

‘-딛’도 ‘-디+ㅅ’으로 ‘처격’과 ‘속격’으로 보았는데 ‘-디’는 공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문헌어나 만주어, 몽고어들과 비교하고 있다.

강정희⁶⁸⁾에서는 ‘-디레’를 기본형태로 보고 ‘-드레, 데레, -티레, -트레, -르레’들은 선행하는 NP는 모두 [+place], [-animate]의 어휘특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 ‘-디레’를 지배하는 VP는 모두 [locomotive]를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 이로 보아 NP와 VP의 통합관계에 있어서 넓은 의미의 처격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고, 특히 처격에서도 ‘장소’보다는 VP의 ‘동작의 방향’이 강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선행하는 NP가 [+animate]인 경우에는 여격(dative)의 기능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선행하는 NP에 따라 격이 바뀌는 여·처격의 형태소로 보았다.

또 정운택(1984)에서는 처격어미로는 ‘에, 이, 이서, 디, 디서, 드레’가 있는데, ‘이, -에’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이서’에는 후치사 ‘서’가 연결된 형태로 공간적, 시간적 시발을 드러내며 체류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디’는 /t/계, /h/계 말음 뒤에 연결되는 음운론적 제약이 따르며, ‘디’ 대신에 후치사 ‘서’가 결합된 ‘디서’가 쓰여 ‘이서’와 같은 기능을 하기도 하며, 강조의 뜻으로도 쓰이는 것으로 보았다. ‘드레’는 여격, 향격, 처격 등 그 기능이 다양하나 처격의 기능을 지니기 위해서는 선행체언은 지시대명사여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한편 국어 방언사에 귀중한 자료의 하나라는 ‘레’는 불과 몇 개의 어휘에 연결되어 쓰이고 있으나, 현재 ‘에’와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허기추(2004)에서는 어찌자리토에는 {-에, -예, -의, -되}와 {드레/레}를 나눠 놓았다. 뜻은 앞엿것은 표준어 {-에}에, 뒤엿것은 {-으로/로}와 통하는 것으로 보았다. 앞엿것의 실현 환경은 {-에}는 선행체언의 말음에 관계없이, {예}는 선행 체언 말음이 ‘ㅣ’모음일 때, {의}는 [+시간성, +장소성] 선행 체언과 그 말음이 자음으로 끝날 때, 그리고 {되}는 [+장소성] 선행 체언과 그 말음이 ‘ㅅ’으로 대표될 때여서 이들은 형태음운론적으로 조건된 상보적분포의 변이형태로 보았다. 이들의 기능적 의미는 풀이씨가 나타내는 상태나 행위의 시간과 처소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같은 처소를 나타내는 {에}와 {에서}의 차이가 전자가 낙착점을, 후자가 출발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리고 이 둘 {에}와 {에서}가 같은 뜻으로 쓰일 때는 비이동 동작의 풀이씨 ‘살다, 놀다, 줄다, 남다’와 같이 쓰일 때는 ‘움직임이 되는 데’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또 {에}가 잡음씨 ‘-이다’와 걸리는 경우 NP2는 평

68) 강정희(2005), 앞 책 “처격 표시 ‘-디’의 국어사적 고찰”

가 대상이 기준 단위가 되는 걸로 보았다.⁶⁹⁾

그리고 뒤엣것 {드레/레}는 두 가지 {으로/로}나 {에/에게}와 같은 뜻으로, [방향]이나 [처소]를 나타내는데, 이동 동작의 제음직씨 ‘가다, 오다’ 따위에 걸리면 [방향]의 의미로, 처치관계의 남음직씨 ‘담다, 놓다’ 따위에 걸리면 [처소]의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보면서, 주 의미는 [방향]이고 부차적 의미는 [처소]로 보았는데, 그 근거는 {신디, 아피}의 뒤에 붙어서 {신디레, 아피레} 따위로 쓰이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공동격조사 {광, 이영, 호곡} 등을 부사격조사에서 제외시킨 것은 접속조사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인용격조사 ‘인’을 제외시킨 것은 접속어미로 처리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고의 어찌자리토 {ㄹ라}와 함께 다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인자(2004)에서는 처소격으로는 ‘-에’와 ‘에서’로 나타내는데 ‘제주광 서울은 너미 멀다’의 ‘-광’도 처소격으로 쓰인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때는 [-유정명사]에 쓰여야 하고, ‘-광’을 생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광’은 쓰임에 따라서는 ‘도구, 시발, 부가’의 뜻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았다.⁷⁰⁾

마-③ 조격 또는 기구격 조사 ‘로, 으로’에 대하여

이승녕은 ‘마리로’를 올려 조격을 ‘로’로 보았다.

강정희(1983)에서는 기구격의 ‘-으로’가 상태의 변화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과정성, 경과성’의 의미특질을 지닌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특성은 처격구성에서 이동성의 동사류와 결합할 때 ‘방향성’을 추가로 얻게 되어 지금까지 처격구성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이 접미사는 기구격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 같다고 했다.

정운택에서는 조격 어미는 ‘-으로/로’로서, 도구로 사용될 때는 [+구체물] [+보통]의 의미자질을, 방향을 나타낼 때는 [+구체물] [+장소]의 의미자질을 지녀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자격을 표시하는 경우는 선행

69) ‘뉘이 혼 ㄹ리에 ○○원이우다.’

70) 밥을 고추장에 머무럿저.

그 소광 그 좋아지냐?

돈광 돈을 더흔민

그것광 합쳐서 밧을 사켜.

개역을 물광 타먹엇저 - 개역광 물을 타먹엇저.는 위치에 따라서 하나는 도구가, 하나는 장소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NP는 [+사람]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허기추(2004)에서는 {-으로/로}는 표준어와 형태와 동일하고, 실현 환경도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기능적 의미는 선행체언과 풀이씨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재료, 도구, 수단, 자격, 원인, 경과 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마-④ 접속 접미사 ‘광, 명, 혹, 이나, 마는’ 따위에 대하여

박용후에서는 이음토씨로 ‘광, 이영’을 들고 있다.

강정희(1982)에서는 접속 접미사로 선행명사의 음운론적 환경과는 무관하게 ‘광’이 쓰이는 것으로 보았다. 이 ‘-광’은 구·문접속에 모두 분포되어 있는데, 종래 공동격의 ‘광’은 명사구나 문을 접속시켜 주는 통사기능을 하기 때문에 공동격, 비교격의 ‘격’ 범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문접속화 과정에서 비대칭 연결문의 ‘광’은 [+공간 나열성]의 명사류 연결접미사 ‘곡’에 의한 중간과정에서 유도고, 또 ‘광’은 폐쇄연결구조에 대한 언중의 선호도가 높은 반면에, ‘혹’은 개방연결구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

‘명’, ‘곡’ 등은 [+반복 나열성], [+동시 나열성]으로서 나열화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았고, 그 외 ‘이영’은 다시 ‘이고, 이명’과 같이 [+나열성]의 공통 특징을 가지며, [+규정성], [+서술성]이 ‘혹’보다 강한 것으로 보았다. ‘이나’의 기본 의미는 [+선택성]이며, 이 [+선택성]은 배타적 선택과 전체적 선택으로 나뉘되, ‘-광’으로 두 가지 가능성이 모호해지는 문장들도 흔히 발견된다.

문장 연결 접미사 ‘마는’은 대등, 비대 등 연결과정에 관여한다. ‘마는’ 연결문의 의미관계는 의미상의 대조와 기대의 어긋남으로 나눌 수 있다. 담화상 의미는 S₁이 화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정’ 부분으로서 S₂이 의미성을 유도한다.

강인자(2004)⁷¹⁾에서는 조사 ‘-광’은 ‘-과’에 ‘ㅇ’이 첨가된 것으로 화석화된 ‘광’은 격조사의 기능 외에도 접속사 기능, 보조사 기능, 나열화 기능 따위가 있어 다양하게 쓰이는 것으로 보았다.

또 ‘-광’이 접속조사의 기능으로는 ‘둘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가리키고, 공동격과 차이는 공동격에는 다른 보조사가 결합될 수 있고, 주어의 자리를 바꿀 수도 있지만, 어느 하나라도 생략하면 불완전한 문장이 되나, 접속 조사에는 보조사가 붙지 못하고, 주어의 자리를 바꿀 수 없고, 어느 하나를 생략해

71) “제주 방언 조사 ‘-광’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도 문장은 된다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보조사와, 나열화의 기능도 하는 것으로 보았다.⁷²⁾ 그밖에 ‘-광’은 후행 명사에도, 또 명사나 명사형의 뒤에도 쓰인다. 이때도 [+나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다른 형태의 조사 ‘-흥곡, -이영’ 따위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면서 ‘국어영 수학을 좋아-’와 ‘국어광 수학을 -’에서 둘 다 자연스러운 쓰임이고, 대등하게 쓰이고, 또, ‘-ㄱ’의 뒤에 쓰여서 [+나열성]이 있는 것으로도 보았다.

마-⑤ ‘ㄱ라’에 대하여

‘ㄱ라’도

마-⑥ 부사격의 생략

이승녕에서는 주제격, 처격, 공동격에서는 생략되는 일이 드문 것으로 보았다.

바. 호격조사 ‘아, 야, 마썸’ 따위에 대하여

박용후에서는 느낌토씨를 설정해서 ‘게, 춤, 출리곡, 광, 광산광’ 따위를 들었다.

정운택(1984)에서는 호격조사 ‘아/야’는 별 특징이 없으나, 체언말음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이야’가 발화되기도 하며 [+존대]의 의미자질을 가진 유정의 NP와 연결될 때 ‘마썸/마썸’이 호격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이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고 했다.

허기추(2004)에서는 {-아/야}는 선행체언 말음에 따라 갈리는 음운론적 변이형태로 선행체언(NP1)은 [+인간], [-존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사람대이름씨와는 공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또, 마침법의 배품꼴과 들음이 높임법의 앞선 씨끝(선어말어미) {-ㅁ-, -우-}와도 공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나머지 띄임, 시킴, 물음, 느낌꼴에는 공기하는 것으로 보았다.

{양}⁷³⁾은 표준어 {이여/여}에 해당하며, 선행체언이 [+존대]일 때 쓰여서 앞선 씨끝 {-ㅁ/우-}와 공기한다. 그런데 {아/야}와 같이 {양}도 배품꼴과는 공기하지 못

72) 강정희는 구집속으로 보았다.

73) {-양}은 주로 침사로 다루어지나, 호격조사로 다루는 것은 처음으로 보인다.

한다.

부름자리토는 부르는 등급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는데, [+높임]의 형태는 {양/예}로, [-높임]의 형태는 {아/야}로 보았다.

3.2. 보조사

제주방언의 보조사를 다룬 논문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박용후에서도 도움토씨엔 ‘ㄴ, 이라그네, 이랑, 부터, 깝지, 이사, 이라도, 이랑마랑, 알좌, 고라(ㄴ라)’ 따위를 들고 있다.

문순덕⁷⁴⁾에서는 ‘-라근에/라근, (이)랑(은/는), ㄴ치/ㄴ찌(같이,처럼), 처록/츄록/처름/ㄴ추록(처럼, 같이), 깝장/깝지까지), (알좌/아올라(마저, 조차), 냥(대로), 만이(만끔), 바깳/바깳(밖에), (이랑)마랑(커녕), 사(야)’들의 담화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보조사들은 쓰이는 체언과의 관계에서 뜻을 매겼는데, 보조사는 선행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구의 발화 내용을 제약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뜻풀이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ㄴ치’는 선행명사와 결합해서 비교 대상을 가리키는데, 화자는 동작주의 처지에 대한 판단을 나름대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ㄴ추록’은 ‘ㄴ치’와 ‘추록’의 혼효로 볼 수도 있는 것으로 보았다.(강정희, 1998) 비교의 의미를 지닌 보조사 ‘ㄴ치’와 ‘처록’의 담화 의미는 ‘선행어의 지정·확인’으로 보았다. 그리고 ‘깝장’의 담화 의미는 ‘도착(완료)의 성격이 강하지만 과정의 의미가 있는 것은 발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보았다.

‘아올라’는 ‘화자가 기대한 정보의 파기’로 본다. 그리고 ‘냥으로’는 의존명사로도 쓰이기도 하나, 보조사로 쓰였을 때는 ‘화자의 자유 의지, 허용’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만이’는 ‘만이(만끔)’의 ‘만’은 중세어 ①만끔 ②뿐/만, ③동안/만(명사)의 뜻인데 제주 방언에서는 ‘단정, 정도’의 뜻으로 쓰여서 ‘화자의 단정, 정도’로 보았다. ‘바깳’(밖에)의 담화 의미는 ‘화자의 한정’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랑마랑’(커녕)의 담화 의미는 ‘화자의 기대의 어긋남’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리고 ‘사(아/야)’의 담화 의미는 화자가 ‘행위자의 행동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았다.⁷⁵⁾

74) 문순덕(2003), 「제주 방언 문법 연구」, 도서출판 세림.

75) ‘-산디’가 ‘사+ㄴ디’인지는 불명확함.

따라서 보조사는 단순히 선행 명사에만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된 문장 전체에 관계된다. 담화 상황에서 초점은 보조사에 놓이며, 화자의 의사 표현에 따라서 보조사가 선택된다. 화자의 의향에 따라 선택되어 쓰이는 보조사가 담화상의 의미 차이를 갖고 있고, 이것이 보조사의 담화 기능이라 할 수 있다.⁷⁶⁾

허기추(2004)에서는 {-보단, -초록, -만이, -ㄴ치}도 어찌자리토로 보았는데, 견준의 방법에 따라, {-보단}은 ‘견준급의 견준’의 의미로, {-초록, 만이}는 ‘비슷한 견준’, {-ㄴ치}는 ‘같은 견준’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보단}은 견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그림씨거나, 남음직씨에 걸리고, 또, 임자씨에 붙어서는 다른 월조각과의 이음관계를 나타내는데, 안긴월을 안은월 속에 내포시킬 때 필요한 이음토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같은 견준’과 ‘비슷한 견준’의 {-초록, -만이}는 견준그림씨나 도움그림씨와 걸릴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가. 절대격 ‘(이)랑’에 대하여

이승녕(1957)은 또한 특수격으로 호칭하는 절대격의 ‘-랑’에 대해서는 연결법칙은 모음과 어간말 ‘ㄹ’의 뒤에는 ‘랑’, 자음의 뒤에는 ‘이랑’이 되는데, 본도인의 의식으로는 ‘Partikel(불변화사)’적인 의식으로 ‘.....만은’에 가까운 뜻과, 독특히 강의 화하는 조건법적 ‘은’이어서 육지어의 ‘은’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면서, 그래서 ‘배랑 먹지 말라’는 ‘배는 정말 먹지 말라’ 정도의 뜻으로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랑’을 강의화의 조건법적 절대격으로 보았다. 그리고 ‘랑’의 기원은 ‘-이라’에 부사형성 접미사 ‘-ᄃ’이 첨가된 것이라고 했다.⁷⁷⁾

박용후에서는 도움토씨로 ‘이랑, 이란’도 올라 있고 ‘이라근’도 올라 있다.

현평호(1982)에서도 절대격으로 이 방언에서도 ‘-은/는’이 쓰이는 점은 같은데, 그밖에 ‘-ㄹ랑~-ㄹ란’이 빈번하게 쓰이는 것으로 보았다. 이 ‘을란’은 단순한 ‘-은/는’의 뜻이 아니고, 조건법적인 뜻을 나타내는데, ‘-만’의 뜻으로도 쓰이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15, 6세기 ‘덕으란, 쫄란, 고즈란’ 따위와 같은 쓰임으로 보았다.

76) 보조사들의 나열 순서 따위를 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민, 이난, 이라도’ ‘이결랑/결랑’ 따위도 더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7) ‘랑, 이랑’에 쓰이는 ‘ᄃ’은 때소 ‘-ㅇ’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이 ‘랑’의 뒤에는 ‘으라, -지 말라, 으키어’ 따위가 쓰일 뿐 시상으로 때소 ‘-ㄴ’과 호응하는 씨끝들은 쓰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시킴’이나 ‘의도’의 씨끝만 쓰여야 한다.

강정희(1984)에서는 ‘-(이)랑’을 ‘이+라+ㅇ’으로 보고 ‘-ㅇ’을 [-완료, -확정]으로 보면서 이 ‘-ㅇ’이 ‘-ㅇ그네, -그네’들과 같은 뜻과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랑’은 본도 방언 활용어미 전 체계를 재분석,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특히, 문법범주 상의 동일 기능의 형태소들의 분포는 문법 체계상의 발달 과정을 살피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 것으로 보면서, 이 ‘랑’을 중요한 형태소로 보았다.

문순덕⁷⁸⁾에서도 보조사 ‘라그네’는 ‘(이)랑’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⁷⁹⁾ 중앙어 (은/는)과 대응하는 것으로 보면서 ‘동작주의 행동을 한정하-’는 담화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랑’은 부정문에 쓰여서 화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았다.⁸⁰⁾ ‘밥이랑 안 먹어도 좋주’에서 ‘밥이랑’이 초점화된 것으로 보았다.

3.3. 후치사

가-① ‘신디’와 ‘신드레’ 따위에 대하여

박용후(1960)에서는 여격으론 ‘신디, 안티’가 조사로 올라와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강근보(1972)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강근보에서는 제주방언에서만 독특하게 쓰이는 격조사⁸¹⁾들에 대해 그의 논문들을 통해서 밝혔다. 그 가운데는 ‘잇다’의 어간 교체형 ‘이시다, 시다’와 ‘잇다’와 ‘잇다’를 내놓으면서, 그 활용형이 문법화한 ‘서’를 살펴보았다.

‘집의 서’에 쓰인 ‘-sə’는 ‘집에 있으면서’의 어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혹교서, 육지서’의 ‘-sə’에는 ‘-에 있다’의 뜻이 있어, ‘-sə’는 ‘재격’과 ‘이격’으로 보았다. 거기 에다 다른 조사가 덧붙어서 ‘집의선’이나 ‘집의서랑’의 ‘-sə-n’은 ‘-sə +주제격 -n’ ‘-sə +rang’은 ‘-sə+주제격 -rang’으로 이들은 모두 주제격을 후속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78) 문순덕(2003), 앞 책.

79) ‘라그네’와 ‘랑’은 관련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변이형태로 쓰인 것이다. ‘랑’에 쓰인 ‘ㅇ’이 때가림소 ‘-ㅇ’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변이형태로 ‘-그네, ㅇ그네, 근, 그넵에, ㅇ에’ 따위가 있다. 그리고 이들은 뒤에 오는 씨끝을 제약한다. 부정문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시킴법이나 의도법에도 쓰인다. 이들은 언제나 때소 ‘-ㅇ’과 호응하는 씨끝들이다.

80) 꼭 부정문만이 아니라 긍정문에도 쓰이며, ‘영’과의 관계도 음운론적으로 밝혔으면 한다.

81) 여기서는 후치사로 다루고 있음.

또 ‘이시-’에서 문법화한 ‘si-n-dui’는 어간 ‘si-’의 관형사형 ‘si-n’에 장소의 불완전 명사 ‘dui’가 연결된 어형으로 그 어의는 ‘있는 곳’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dui’는 ‘de’로도 나타나는데, 이것이 명사나 대명사와 같이 쓰였을 때는 ‘한테, 에게’와 혼용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문헌어 ‘손드ㅣ’와 같은 뜻으로 ‘신디’가 쓰이는 것으로 보았다.⁸²⁾

또 강근보(1977)에서는 또 ‘신디, 안티’들은 3인칭이나 공통칭에서는 ‘드레’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인칭에 쓰이는 ‘드레’는 통사적 기능으로는 여격 형태의 ‘에게/더러’와 일치하고, 또 ‘더러’와는 형태가 유사하여 매우 암시적인 것으로 보았다.

또 ‘날ㄴ라 ㄴ르라’의 ‘kora’는 문법화해서 명사나 대명사에 붙어 여격의 구실을 하는 후치사 ‘-에게’의 방언형으로 바뀌어 쓰이는 것으로 보았다. 이 ‘-kora’에도 ‘-kōran’으로 주제격 ‘-n’이, ‘kōraraj’도 주제격 ‘raj’을 후속시키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도 ‘-sə-n’, ‘-sə +raj’과 같이 문법화로서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런 기본격⁸³⁾이 결합되는 것은 ‘kora/sindi/anthi/isə/ro’⁸⁴⁾도 선행하는 격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tùre’에 붙은 동일한 격형태가 후행하여 복합격을 만드는 것으로도 보았다.

그래서 ‘날드렌 ㄴ르라, 나안틴 ㄴ르라, 나신딘 ㄴ르라, 날ㄴ란 ㄴ르라’가 된다고도 했다.⁸⁵⁾

강영봉⁸⁶⁾에서도 제주 방언에 쓰이는 후치사들을 다루었다. 우리말 후치사들은 ‘부터, 드려, 셔(시어), 더불어, 조차, 남아, 마저’ 따위들이 있는데, 이들과는 다른, 방언적인 특성의 것으로는 용언적인 것으로 ‘아울라, ㄴ라, 아자, 신디, 만이’와 체언적인 것으로 ‘디, 안티, 아피’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각각의 특성에 따라 쓰임을 밝히면서 조사와 후치사가 다름을 밝혔다. 후치사는 일반적으로 격을 지배한다고 했는데, ‘아울라’가 대격을, ‘ㄴ라’가 여격을, ‘아자’가 처격을, ‘신디’가 주격을, ‘만이’가 주격을, ‘디’가 속격, ‘안티’가 속격, ‘아피’가 속격을 지배한다고 했다.

강정희(1982a)⁸⁷⁾에서는 중세국어 ‘의궁에, 에거귀, 의손드ㅣ’⁸⁸⁾류와 이에 대응되

82) 강근보(1972), 앞 논문 p.28.

83) ‘n, l, do, jəŋ, raj, sa’와 같이 보조사들을 가리키는 말로 썼다.

84) 다만, ‘isə/ro’일 때도 그렇게 되는지는 의문이다.

85) 다만, ‘디’와 ‘드레’, ‘신디’와 ‘신더레’의 차이는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86) 강영봉(1981), ‘제주도 방언의 후치사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7) 강정희(1982a), “제주 방언의 문법화 과정에 대하여” -중세 국어와 대응을 중심으로-, 「국어학」 11.

88) 이 표기들은 글자판에서 찾지를 못해서 임시로 옮겨 놓은 것이다.

는 제주방언의 ‘안티, 아피, 신디’류, 그리고 ‘ㄷ려’와 ‘ㄴ라’들이 문법화하는 과정을 살폈다.

‘안티, 아피, 신디’에서 공통으로 쓰인 ‘ㄷ’와 ‘ㅇ |’를 갈라내고 이들이 문헌어와 별 차이 없는 처격 형태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ㄷ+ㅇ |’에서 된 ‘ㄷ |’와 같은 ‘디’도 쓰이는 자리에 따라 시·공간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ㄷ려’와 ‘ㄴ라’도 ‘너ㄴ라 ㄴ람시냐’에서 『곶다』의 대상으로서 선행 [+유정물] 체언을 공간 안에 고정시켜 주는 요소로 ‘ㄴ라’를 연결시켜 주는 과정과 『곶다』라는 행위의 수용자는 [+유정물]의 대상이어야 하는 것도 ‘ㄷ려’와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술박이 좁박이다’와 같은 규정·지칭문을 ‘술박을 - 술박ㄴ라 좁박이엔 ㄴ람네다’에서는 ‘을’과 ‘ㄴ라’를 자유로이 교체해서 사용함도 밝히면서 ‘ㄷ려’가 반드시 [+유정물]이어야 하는데 ‘ㄴ라’는 그런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⁸⁹⁾ 그렇지만, 『곶다』의 대상은 구체적인 존재를 제한, 지적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규정지칭문의 내포될 때와 선행명사가 유정물이고 서술어가 [+말]의 자질을 가질 때 나타나는 ‘ㄴ라’가 보인다. 이 ‘ㄴ라’ ‘곶다’(言, 謂)의 어휘범주이던 것이 문법범주로 전이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ㄴ라’에 선행하는 ‘ㄷ’은 ‘ㄴ라’가 어휘범주일 때 지배하던 대격표시 접미사이다. ‘ㄷ’이 대격표시라는 결론에 의해서 ‘ㄴ라’ 앞에 선행하는 자음 뒤에 첨가되던 대격표시 접미사 ‘을’은 ‘ㄴ라’의 타동성의 흔적에 의해서 이미 생략과정을 밟아서 표면구조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실 까지도 알 수 있다. 현재는 ‘ㄴ라’가 주격의 대격화나, 유정물 처격구성에 관여하지만, 앞으로 어느 격에 속하게 될지는 의문이다. ‘ㄴ라’의 의미기능은 ‘대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강정희(2005)에서는 ‘ㄴ라’는 선행 [+유정물]체언에 연결되어 동사 ‘곶다’(니르다)와만 통합하며 인용문을 내포문으로 하는 보문에 나타나는 것 등이 ‘ㄷ려’의 용법과 유사하지만, 그러나 규정문에 확대 사용되는 것이 ‘ㄷ려’와 다르다. 그래서 통합관계에서 얻어진 의미는 ‘-ㅇ | 그에, ㅇ | 거기, ㅇ | 손ㄷ |’ 등과 ‘안티, 아피, 신디’ 등의 내부 형식 『장소의 체언+처격표시』에 의해서 선행 [+유정물] 체언을 대상의 ‘위치’라는 의미로 모아지게 되지만 ‘ㄷ려’⁹⁰⁾나 ‘ㄴ라’는 ‘선택 대상 그 자체’의 의미

89) “이것은 허벅이다 -이것을 허벅이엔 홉네다/이것ㄴ라 허벅이엔 홉네다.”

90) ‘ㄷ리다’를 불구동사로 보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것 같다. ‘ㄷ리고, ㄷ리쟁 허민’ 따위로도 얼마든지 쓰인다.

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허기주는 ‘ㄹ라’를 부사격 조사로 표준어 {-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선행체언이 ‘보고’ 또는 ‘화제’의 대상일 때 실현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ㄹ라’는 선행체언이 [+사람]일 때는 [보고]의 의미를, [-사람]일 때는 [화제]의 의미를 각각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문순덕⁹¹⁾에서는 형태소 ‘서’가 쓰이는 보기를 아래와 같이 들었다.⁹²⁾ 그러면서 주격 형태소 ‘서’나 ‘꺼서’에 쓰인 ‘꺼’는 여격으로 제주방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의서, 예서’의 ‘서’는 [+장소], [-유정], [+집단]의 의미자질을 가지며 주어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제주말에서는 주격조사가 생략되는 일이 있는데 ‘예서’는 생략되는 일이 없어서 ‘주격의 기능은 하나, 주격 조사라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NP₁이/가 -NP₂에(이)서 -VP⁹³⁾ 형식에서 주어가 생략된 문장으로 본다면 NP₂구는 단지 주어의 기능을 할 뿐이지 ‘-이/가’ 처럼 언제나 주격 표시라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문순덕⁹⁴⁾에서는 다시 ‘시다’에서 조사 ‘에서’에 쓰이는 ‘서’가 ‘이시-’에서 문법화해서 ‘에서’로 쓰이는 것으로 보았다. ‘에서’의 의미 자질로는 ‘처소, 소재, 출발, 단체’로 보았고, ‘에’와 ‘의, 이, 예’는 변이형태로 보았다. 그리고, ‘디서’에 쓰인 ‘서’도 같은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단체, 집단에 쓰인 ‘에서’나 ‘서’가 주격으로 쓰였을 때는 단체나 집단에 ‘처소+사람’을 함의하는 것으로 보았고, ‘에서’가 쓰였을 때는 ‘공간적 영역이 내포된 것으로 보면서 동작동사가 서술어로 쓰이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에’는 공간적 의미가 있고, ‘서’에는 미약하지만 ‘존재’의 의미가 있어서 그것이 결합되는

91) 문순덕(1987), “제주도 방언의 형태소 ‘서’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92) 형태소 ‘서’가 쓰이는 환경을 다음과 같이 들었다.

이승서 목숨을 바칠티야. : [+장소] ‘-에 있어’의 뜻. 동작이 행해지는 공간적인 배경을 나타냄

나는 육지에서 왔는데 굽어죽게 돼니까 : 주체의 이동으로 유래 또는 출발의 뜻도 가짐.

울도 담도 없는 집서 시집살일 흥는다 :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과 상태 지속의 의미를 지님.

그디서 좌정흥여 삼테다. ‘-디’는 장소, ‘서’는 구체적인 장소, 상태지속 완료

저 독은 어디서 우는 독이리까. 유래의 의미를 지님.

난 아무디서 온 사람인디 주체의 소재지로 유래의 의미

이디서도 놀당 가자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 즉, 상태지속,

벨 부모가 저디서 죽엄텐 해도 : 상태동사 죽다의 처소를 나타냄

93) 강정희(1983), “제주방언의 명사류 접미사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p.17.

94) 문순덕(2000), “제주 방언 ‘시다’의 문법화 현상”, 「영주어문」 2.와 (2003) 「제주 방언 문법 연구」 도서출판 세림.

명사구는 ‘상태대로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 ‘서’의 기원은 ‘시다’로 설정하고자 했다.

또 하나는 ‘에서’로 표시되는 출발점 성분이 주어 성분과 일치하면 주격 ‘가’로 바꿀 수 있으나, 일치하지 않으면 주격 조사 ‘가’로 바꾸지 못함도 지적했다.

그리고 ‘에’는 ‘행위의 도달점’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서술어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허기추에서도 후치사 ‘신디, 안티, 아퐁’은 [+유정물]에 쓰이는 처소성 어찌자리토로 보면서 이들은 서로 교체가 가능한 자유 변이의 관계에 놓이는 것으로 보았다. 이들의 기능적 의미는 풀이씨의 행위나 상태가 닿는 유정물의 위치를 표시한다.

또 {상에}가 처음으로 올라왔는데 [+인간]일 때만 쓰이는데 {에게}와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았다. 기능적 의미로는 풀이씨의 상태나 행위가 닿는 유정물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⁹⁵⁾

그리고 {ㄴ라}도 표준어 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서, 실현 환경은 ‘보고 또는 화제’의 대상일 때 실현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ㄴ라}는 말하고자 하는 대상일 때만 쓰인다고 했다. 기능적 의미도 [보고 또는 화제]가 된다. [보고]가 있는 데는 {ㄴ라}나 {신디}들이 모두 쓰이나, [보고]가 없는 데는 {ㄴ라}를 쓸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선행 체언이 [+사람]일 때는 [보고]가, [-사람]일 때는 [화제]로 보았다.

{드레/레}는 표준어의 방향의 어찌자리토 {으로/로}와 그 뜻이 통할 뿐 아니라 실현 환경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4. 때가림소와 인용격 조사

4.1. 때가림소⁹⁶⁾

형태소 ‘-ㅇ, -ㄴ’에 대한 고찰의 실마리는 고영진(1984)에 따르면 小倉進平에서

95) 이 {-상에}는 한자 ‘上에’에서 온 것으로 보아진다. 그리고 ‘너여에 삼춘이여’의 ‘너여에’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 ‘상에’가 조사로 올라온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아방 상에 애든 일 이시냐’의 속구조는 ‘[느(느)[아방상에 애든]VP]S’ 일 [이시냐]S0’이다.

96) ‘때가림소’란 이름은 필자가 붙인 것으로 뒤에 오는 씨끝의 시상과 호응한다는 뜻으로 붙인 것이다.

시작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는 일부분이지만 현용준인 것 같다. 이것이 제주말에서는 비중이 큰 문법소이기 때문에 연구가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가림소 ‘-ㅇ, -ㄴ’은 ‘-아/어, -다, -어다’에나, 인용보문자 ‘-에’에도, 그리고, 의도의 ‘-저’에도 붙는 제주말에만 쓰이는 특이한 형태소이다. 이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나와 있다.

현용준⁹⁷⁾에서는 ‘ㅇ’이 붙는 어미로는 ‘-영, -양’과 ‘-몽, -명’ 두 형이 있는데, 이 ‘-ㅇ’이 모두 시간적 나열을 나타내는데 ‘-명’은 동시 나열로,⁹⁸⁾ ‘-양, -영’은 순차 나열로 보았다.⁹⁹⁾ 그리고 ‘밥 먹영 왔저. = 밥 먹언 왔저. 밥 갈양 왔저. = 밥 갈안 왔저.’와 같이 혼용하여 같은 뜻으로 쓰이나, 완료 나열은 ‘-ㄴ’이 원형인데 ‘-ㅇ’으로 속음화한 것으로 보면서 미래 방법 나열형은 ‘-ㅇ’을 ‘-ㄴ’으로 바뀌면 그 뜻이 아래와 같이 달라져버린다고 했다.

ㄱ. 책 가정 가라./책 가지고 가라.

ㄴ. 책 가전 가()¹⁰⁰⁾라./책을 가지고 가더라.¹⁰¹⁾

또 인용문에 쓰인 ‘책이영, 간댕’ 등의 ‘-인, -잉’을 인용격 조사로 보고, 이 ‘-인, -잉’이 결합되어 인용격을 만드는 것으로 보았다.

이승녕에서는 ‘제주인에게는 동사에 aspect적 의식이 참으로 엄격하다.’고 하면서 서울말 같으면

ㄱ. 내일 비 올까?

ㄴ. 내일 비 온다.

서울 말에서는 ‘올까’에 ‘온다’가 대답이 되지만 제주말에서는 ‘비 올까’에 ‘비온

97) 현용준(1956), 앞 논문.

98) 노인들에게서는 ‘-명’으로 쓰이는 일이 있다고 하였다.

99) ‘-으명’과 ‘-영, -양’에 ‘-ㅇ’이 덧붙여 쓰인 것과 나열의 기능을 하는 것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이 있어서 후학들도 ‘-으명’과 ‘-영’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아 넘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으명’은 단순히 뒤의 풀이말과 이어 쓰기만 하면 되는데, ‘-어’는 대립되는 ‘-언’도 있어서 그것이 문법적 구실을 나눠 하고 있어 다르다. 어쩌면 ‘-으명’과 ‘-어’의 문법적 기능이 같을 것으로 추정하다가 보니까 ‘-ㅇ, -ㄴ’의 기능을 제대로 못 보았던 게 아닌가 한다.

100) 필자가 넣은 것임.

101) 위의 ㄱ., ㄴ.과 /이후의 풀이는 필자가 넣은 것임.

다’는 대답이 되지 않고, 반드시 ‘올 것이다’라야 맞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이것이 본도인의 언어 의식에서 육지어보다 서법적인 의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터인데 이것이 본시 서법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라고 하였다.

필자가 물음과 대답에서 표준어와 다른 점을 살피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승녕에 서의 ‘-ㅇ, -ㄴ’에 대한 추정이 거의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해안에 경탄하는 바이다.

- (a) 형태 ‘-ㄷ’의 후행 어사가 금후에 전개될 행동 또는 상태의 aspect적인 구실을 가진 어사임을 요한다.
- (b) 형태 ‘-ㄴ’은 후행 어사가 상태의 결정적인 것 또는 행동이 완료된 aspect적인 구실을 가진 어사임을 요한다.
- (c) 형태의 ‘-ㄷ’과 ‘-ㄴ’의 대립은 확고한 반대되는 aspect적 대립이어서 흡사히 ‘미래 대 과거’의 어사에 선행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¹⁰²⁾면서, 본도인의 ‘하다가, 먹다가’의 ‘-다가’의 관념에는 특이한 시제상의 호응에 2종이 있으니 하나는 미래적 행동의 ‘-당’과 하나는 과거적 행동의 ‘-단’이 후행 용언과 호응한다고 했다. 그리고 ‘-양’과 ‘-안’이 혼란스럽게 쓰이는 것도 있지만 방지되는 쓰임도 있어서 그 본래의 상태를 재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하였다.¹⁰³⁾

이상에서 보면, 때가림소 ‘-ㅇ, -ㄴ’은 제주말에서 가장 제주말답게 쓰이는 문법소로, 제주 사람들의 때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나타내는 것으로 ‘-an’과 ‘-an’은 그 의미, 기능이 서로 대립되어 있음을 고찰했다.

박용후에서는 ‘포에 책을 싸ㄴ전 가라/보자기에 책을 싸가지고 가더라’에서 ‘ㄴ전’은 지난 적에, ‘ㄴ정’은 올적에 씌이라고 하고 있다.¹⁰⁴⁾ 그리고 ‘인, 잉’을 인용격이라 하고, 이들은 제주방언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자리토씨로서 풀이씨끝 바꿈에 있어서의 ‘젠, 정(쟁)’의 ‘인, 잉’과 같이 ‘인’은 지난 적, ‘잉’은 올적을 나타내는데 쓰인다고 하면서 인용에서의 쓰이는 보기들을 많이 들었다.

강정희(1984)는 ‘-(이)랑’을 ‘이+라+ㅇ’으로 보고 ‘-ㅇ’을 [-완료, -확정]으로 보면

102) 이승녕(1985), 앞 책, p.84.

103) 이승녕(1985), 앞 책, pp.87-89.

104) 박용후(1960), 앞 책, p.356.

서 이 ‘-ㅇ’이 ‘-ㅇ그네, -그네’들과 같은 뜻으로 쓰인 것으로 보면서, “*먹엄그네> 먹영그네”로 보아 그 근거를 ‘임금[잉금], 섬기다[성기다], 안기다[앙기다]’ 따위로 바뀌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보았다.

그리고 강정희¹⁰⁵⁾는 시제와 상을 분명히 구분 짓기 위해서 제주 방언에 쓰이는 ‘-당’과 ‘-단’, ‘-영’과 ‘-언’의 상의 의미는 공통어의 그것과 동일하나 시제상으로는 특이한 대립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단’에 선행하는 동작의 시제가 후행하는 동작의 모습에 따라 성립되는 문장과 성립되지 않는 문장이 있어서 시제상의 대립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승녕은 aspect의 의미만 부여했는데, 강정희에서는 ‘상-시제’ (tense-aspect)의 2원적 구조로 보았다. 그러면서 ‘-ㅇ’과 ‘-ㄴ’은 후행동작과 호응한다고는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것과 호응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ㅇ, -ㄴ’의 혼용도 수용했다. 또, ‘제주 방언 접속문의 시제에 관한 일고’에서도 앞의 내용과 비슷하게 펼쳐졌다.

김지홍¹⁰⁶⁾에서는 ‘-안/아네/란’과 ‘-앙/아그네/앙근/영’을 시간적 계기 어미, ‘-단/다네’와 ‘-당/당그네/당근’을 전이어미로, 그리고 ‘-젠, -멘, -렌’ 따위들을 보고어미로, 그밖에 ‘-난/나네, -건/거드네, -민’을 논리적 계기어미, ‘-명/머그네’는 동시 반복어미, ‘-아/어’를 함의동사어미로 보아서 이들의 동사구 보문을 이끄는 것으로 보았다.¹⁰⁷⁾ 그리고 ‘동일 주어 제약’도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우향 흡입구조’라고 해서 ‘-앙 흥-, 안 흥-’ 따위를 일컫는 말로 보았다.¹⁰⁸⁾ 그리고, ‘-난’과 ‘-안’의 공통점은 ‘-ne’로 복원할 수 있다고 했다.¹⁰⁹⁾ 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송상조¹¹⁰⁾는 형태소 ‘-ㅇ, -ㄴ’이 붙는 자리를 이음씨끝에서는 이미 밝혀진 ‘-어,

105) 강정희(?/1988), 앞 책. “제주 방언의 시상 연구” -접속점미사 ‘-단/-당’, ‘-안(언)/-앙(영)’을 중심으로.

106) 김지홍(1982), “제주 방언의 동사구 보문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07) 그렇지만 때가립소 ‘-ㅇ, -ㄴ’과 관련된 것은 ‘-안’과 ‘-앙’, ‘-단’과 ‘-당’ 그리고 ‘-젠, -멘’ 따위들이고, ‘-난, -건, -민, -명’들은 이음씨끝일 뿐 때소와는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인용보문소에는 때소 ‘-ㅇ’이 들어간 ‘-겐, -렐’ 따위가 들어가 있지 않다. 인용보문소에는 ‘-ㄴ’만 있는 것으로 본 것은 강정희(앞 논문)와 같다.

108) 이때도 ‘흥-’의 뒤에 오는 씨끝과 때소가 호응해야 함은 물론이다.

109) 그렇지만, ‘-안’과 ‘-난’은 다른 것이다. 필자도 ‘-어 나앙, -어 나안’이 ‘가-’ 따위에 붙어서 ‘가아낭>가낭, 가아난>가난’의 ‘-어나’에 때소 ‘-ㅇ, -ㄴ’이 붙는 것으로 잘못 분석한 일이 있다. 여기서도 이 ‘-어나’가 준 ‘-나’에 때소 ‘-ㄴ’이 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때는 ‘-난’은 ‘-으난/난’으로 줄기에 바로 붙는 것이고 ‘-안’은 씨끝 ‘-어’에 다른 형태소 ‘-ㄴ’이 붙어서 ‘-ㅇ’과 대립되는 것이다.

110) 송상조(1992), “제주도 방언 ‘-ㅇ, -ㄴ’ 형태소에 관한 고찰, 「동아어문논집」 제2호, 동아어문학회.
----- (1993a), “형태소 ‘-ㅇ, -ㄴ’과 이음씨끝의 호응”, 「한피」 제6호, 제주도 중등국어교육연구회.
----- (1993b), “형태소 ‘-ㅇ, -ㄴ’과 안맺음씨끝의 호응”, 탐라문화 제1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1993d), “형태소 ‘-ㅇ, -ㄴ’의 그림씨에서 씨끝과의 호응현상” 「제주문화연구」 현지 김영돈박사 화갑 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다'에는 물론 새로 '-어다, -어나'나 '-쟁, -젠'에도 붙고¹¹¹⁾, 또 맺음씨끝(종결어미) '-라, -다, -저'들에는 붙어서 보문소로 쓰일 때의 '-오, -ㄴ'도 이음씨끝에 붙는 '-오, -ㄴ'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용 보문자는 '엔, 앵'이 아닌 '이에'로 보았다.¹¹²⁾ 또 형태소 '-오, -ㄴ'은 뒤에 오는 모든 씨끝과 호응하는 것으로 보고, 차례로 살펴 왔다. 그리고 '-오, -ㄴ'이 붙지 않은 '먹어 보-'는 매인풀이씨의 구성이나 '-오, -ㄴ'이 붙은 '먹엉 보는, 먹언 본'은 모두 복합문을 구성하는 점도 들었다. 중앙어에서는 매인풀이씨를 이루는 씨끝이 '-아, -게, -지, -고'로 보나, 제주말에서는 '-다'와 '-어다'도 매인풀이씨로 쓰이는 일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그가 최근에 낸 책 『제주말에서 때가림소 '-오, -ㄴ'과 씨끝들의 호응』에서는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수정 보완하면서 총체적으로 다루었다고 할 수가 있다. 이 책에서는 때가림소 '-오, -ㄴ'이 연결어미, 선어말어미, 종결어미와도 호응하고, 또 인용보문자에도 붙어서 그 뒤에 오는 연결어미, 선어말어미, 종결어미와 호응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살펴야 할 것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종립¹¹³⁾에서는 중앙어에서는 하나로 표현되는 'M'이 제주방언에서는 'ma'와 'mb'로 나누어지는데 그제 '-다가'가 '-당'과 '-단', '-고서'가 '-앙'과 '-안'으로, '-어다가'가 '-어당'과 '-어단'으로, '-려고'가 '-쟁'과 '-젠'으로, 그리고 인용어미는 '-인, -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서, 기능은 특히 복문의 종속절에 붙어 그것을 주절에 연결시키는 구실을 하는 것¹¹⁴⁾들로 보고 있다. 그리고 M의 고유 의미는 m이 담당하고, 그 실현적 요건만을 담당하는 요소가 '-n'과 '-ŋ'인데 이들은 통합 관계나 계열관계로 보아 각각 독립적인 형태소로 보이는데, 대립의 몇 개의 서로 다른 연결어미들에 두루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어느 특정 어미의 고유 요소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결국, 이들 '-n'과 '-ŋ'은 어떤 접사의 일종으로 볼 수밖에 없을 듯하다고 했다.(2001: 272)

111) 후에 '-어나'에 붙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 본 것이었다. 그것은 '-어 나아'에 붙은 것이어서 '-아'에 붙은 것과 같은 것이다.

112) 송상조(1993c p. 563)

113) 홍종립(2001) "제주 방언 연결 어미 '-n, -ŋ'에 대하여" 『국어학』 38.

114) '복문의 종속절'에 '-오, -ㄴ'이 붙는다는 것은 인용문에서만은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음씨 끝과 안맺음씨끝이나 마침법씨끝들과 호응하면서 쓰였을 때는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먹언 갓저/먹어서 갔다.'일 때는 주절과 종속절로 구분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서 제주 방언의 문법 연구 특히 어말어미와 관련된 분야에 접근하려는 연구자들 앞에 가로 놓이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들 ‘-n’과 ‘-ŋ’의 존재가 아닌가 하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이 방언의 연결어미나 종결어미 연구가 이것들에 대한 해결 없이 진행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고까지 했다. 그 정체가 불분명한 이것들이, 일부이긴 하지만 연결어미들에 나타나 그 나름의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또 종결어미의 연구에 있어서도 이것들이 인용어미로 나타남으로 해서 역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이 방언 연구자들이 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하면서 그 ‘-n’과 ‘-ŋ’의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¹¹⁵⁾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명령, 청유, 약속, 의도’ 등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들은 언제든 ‘-ŋ’과만 호응하고, 서술법이나 물음법에 쓰인 ‘-암시-, -아시-¹¹⁶⁾, -더-, -과-’들은 ‘-n’과 ‘-느-, -으크-’들은 ‘-ŋ’과 호응하면서 서로 대립적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계사나 그림씨에서도 동작동사의 경우와 평행적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¹¹⁷⁾

그리고, B방언의 ma와 mb의 대립은 A방언의 M은 모르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m의 실현 조건으로서의 a와 b 즉 /n/, /ŋ/의 대립 요인이 밝혀지면, A방언의 M에도 그 실현 조건의 존재가 아울러 드러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했다.¹¹⁸⁾

115) 필자도 이 ‘-n, ŋ’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필자보다 더 연상의 분으로 이 분야의 전공자로서 이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내놓아서 논의를 하고 있어서 정말 반가운 일이다. 필자는 이제까지 이 ‘-o, -l’에 대해서는 충실한 자료만을 내놓으려고 했지만 이 자료를 누가 믿어줄 지가 의심이 되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제시되는 자료는 모자란 필자의 눈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필자가 제시한 자료도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어서 무척 힘을 얻은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이다. 이에 대해서는 외람되지만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되었으면 한다.

116) 필자도 ‘-암시-, -아시-’가 때소 ‘-l’과 호응하는 것으로 본 적이 있으나,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책에서는 밝혔으나, 그 책의 그림표에서는 다시 표가 잘못되어 있다. 동작상 ‘-암시-, -아시-’와는 때소가 호응하지 않는 것으로 다시 수정한다.

117) 다만 송상조도 ‘-암시-, -아시-’와 ‘-o, -l’이 호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어서 이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ㄱ. 먹영 감시라 -가시라.

ㄴ. 먹영 감시민 -가시민

ㄷ. 먹영 감시키어 -가시키어.

에서는 ‘-암시-’나 ‘-아시-’와 호응할 ‘-n’이 없어도 비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암시-, -아시-’는 ‘-o, -l’과 호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점은 필자와 견해가 다르다. 이에 대한 설명은 송상조(2011)을 참고할 것.

118) 송상조(1993b:3)에서도 ‘이러한 현상, ‘-o, -l’의 씨끝들과 호응해서 쓰이는 현상이 밝혀지면 외람되게 국어에서 논란이 많은 시제나, 서법, 상의 범주를 파악하는데도 어느 정도 방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도 갖는다.’고 했다.

그러나 ‘-으난’이 ‘-으나네’로 쓰이는 점을 들고서 어원적으로 ‘-n’계 어미로 보는 것은 달리 더 연구가 되어야 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된다. 그리고, ‘오늘 비 오란에 일 못 혼다’ 따위도 마찬가지다. 이런 쓰임이 있기 때문에 ‘-ㅇ, -ㄴ’과 씨 끝들의 호응이 혼란스러운 것으로 보았다.¹¹⁹⁾ 이런 요소를 끌어들이므로 해서 ‘-ㅇ, -ㄴ’이 대립되어 쓰이는 문법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는 듯한 견해도 보인다.(290쪽)

그리고, ‘-n’의 시제를 ‘과거’, ‘-ㄱ’을 ‘미래’로 볼 수 없다는 점과, 접근 방법에서 시제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선행 연구들이 그 해결의 실마리를 ‘-n/-ㄱ’계 어미에 호응하는 후행절 어미들에서 찾으려고 한 그 태도는 옳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면서, 또 ‘이들 형태소들에 대한 의미 파악이 중앙어의 편견 없이 그 자체의 독자적인 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에는 필자도 적극 공감한다.

그리고 ‘-n’계가 ‘-더-, -과-’와 호응하는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객관 세계의 실현’으로, ‘-ㄱ’계가 ‘심적 활동의 표현’의 의미자질을 가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이승녕(1957:117-119)에서 본 ‘일반적이고 관념적인 행동의 표시’란 견해와 그 표현은 다르더라도 그 내용은 비슷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4.2. 인용격 조사

‘인, 잉’을 인용격 조사로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강정희와 고영진이라고 할 수가 있다. 강정희¹²⁰⁾에서는 인용인 경우는 대개는 이미 발화된 말을 전달하게 되므로 담화가 형성되려면 최소한의 전달자(reporter), 전달동사(reporting, communicative verb), 그리고 원화자의 발화(utterance of original speaker)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문장 구성상의 주어(화자) - 전달동사로 이루어지는 전달문과, 원화자의 발화체인 피인용문(quoted, reported sentence)으로 나뉘게 된다고 하면서 ‘-(이)라고’와 ‘-고’에 대응하는 인용보문자(quotative complementizer)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그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를 고찰했다.

119) 송상조(1993a:139-140)에서 ‘꽃이 고완 꺾으난’, ‘날이 더워 옷을 벗으민’, ‘난 밥 먹언 가키어’들은 모두 ‘-안’으로 쓰였지만 뜻으로는 원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종속적 구성이기 때문에 순차적 구성의 ‘-어서’와는 다른 것으로 보았다.

120) 강정희(1981) “제주 방언의 인용문 연구” -피인용문 문장어미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4.

제주 방언의 인용문은 모든 서법에서 이루어지는데, 서술문에서는 인용문 보문자 ‘(이)라고’나 ‘고’에 대응되는 어떤 형태도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를 ㉠형으로)과, 종결어미에 덧붙여서 ‘덴, 엔, 켜, 쏜, 멘, 넌’으로 바뀐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를 ㉡형으로)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밖에 물음법, 청유, 명령법에서도 서술법에서와 같은 현상으로 ㉠형과 ㉡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서 동사어휘 항목이 매우 제한되어 ‘곤다, 헛다’가 주로 쓰이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피인용 어미형들은 상위 전달동사의 시상(time-aspect)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보문자가 나타나지 않은 ㉠형에서는 전달자가 원화자의 발화체를 원형 그대로 기술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발화행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상위전달 동사의 시상에 제한을 받지 않은 것 같고, ㉡형에서는 상위전달 동사에는 모두 완료 시상형을 나타낸다고 했다.¹²¹⁾ 그 이유는 ㉡형의 원화자의 발화체를 원형 그대로 전달한다는 전제는 ㉠형과 같지마는 전달자의 심적 태도는 원화자의 발화체를 이미 존재하는 하나의 사실(fact)로 인식함과 동시에 전달시 ‘현재’에서 약간의 시간적인 거리(time interval)를 느끼고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간접인용문에서도 원화자의 발화 안에 있는 인칭, 청시, 장소들에 변화를 주는 것은 표준어와 동일하고 만일 전달자가 원화자와 원청자보다 하위자이거나 원화자가 원청자보다 하위자라고 파악된 때는 위의 사실은 그대로 수행하지만 피인용의 종결어미는 그대로 A항의 ㉡형과 동일하게 발화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포문의 문장 어미만 가지고는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을 가리키는 모호하다고 했다.

그래서 고찰한 바를 정리한 것이

1. 직접인용 방식에는 ㉠형과 ㉡형이 있고,
2. 직접인용의 ㉡형과 간접인용의 문장어미가 동일하다.
3. 피인용 문장어미 다음에는 인용보문자인 ‘-(이)라고, -고’가 없고 대신에 피인용 문장어미에 ‘-ㄴ’이 결합되고,
4. 이 ‘-ㄴ’이 결합되면서 피인용문종결어미의 일부들에 형태음소적 변동이 생긴다.
5. 간접인용형의 피인용문장어미 상에 일어나는 표현형식상의 변화는 통사론적

121) 바로 때가림소 ‘-ㄴ’만 쓰이는 것으로 보았던 것 같다. 그러면서 그 ‘-ㄴ’을 시간적 거리를 나타내주는 요소로 보았다.

현상이 아니고 화계(speech-level)에 따른 화용론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 ‘-ㄴ’의 결합은 상위 전달동사의 시상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상위 전달동사의 어휘항목의 분포상의 제한 현상에서 ‘ㄷ다’와 ‘ㄱ다’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3. ‘-ㄴ’이 결합된 피인용문의 종결어미들에서 ‘-ㄴ’의 독립된 인용보문자로 보아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결합된 형태 자체를 따로 인용 어미로 설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A형에서는 보문소가 ‘ø’형태소이고, B형에서는 ‘-ㄴ’으로 보았다. 그리고, ‘-ㄴ/-ㅇ’은 피인용문을 상위 전달문에 단순히 내포시켜주는 통사 기능뿐 아니라 상위 전달 동사의 시상에 의해서 ‘-ㄴ’ 또는 ‘-ㅇ’이 선택되어지는 것으로 보아 내포문의 발화시가 전달문의 발화시보다 앞서거나 그 이후임을 지시하는 이른바 시간성 인용보문자(timed quotative complementizer)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인용보문자의 문법적 기능으로는 상위문이 실현되는 담화시를 기준으로 해서 내포문의 발화시가 그 이전이라고 인식되면 ‘-ㄴ’을, 그 이후라고 인식되면 ‘-ㅇ’을 결합하는 것으로 보았다.¹²²⁾

고영진¹²³⁾은 인용 보문자에 대한 연구를 사적으로 살펴면서 그에 대해 최초로 언급한 것은 小倉進平(1944 :477, 482-84)으로 보고, ‘-kien, -dūien, -ren’ 등을 예로 들면서 ‘ki+ε+nūn, dūi+ε+nūn, ra+nūn’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en’의 처리에 있어서는 ‘ε’와 ‘nūn’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조동사(-kien에서) ‘ε’와 ‘nūn’이 합해서 만들어진 조사 ‘dūien’라 하는가 하면, ‘ren’에서는 ‘ra’라는 말과 ‘nūn’이라는 조사의 결합에 의해서 생긴 일종의 조사라고 하는 등 분석이나 처리 방법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어서 이승녕(1957/1978:96-99)인데, ‘ㄷ라+ | +ㅇ → ㄷ랭 → ㄷ랭, ㄷ다+ | +ㅇ → ㄷ댕 → ㄷ댕, ㄷ-기-엔 → ㄷ키엔, ㄷ쿠덴’ 등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으나, 인용토의 형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어라 말하지 않고, ‘ㄷ라+ | +ㅇ, ㄷ다+ | +

122) 이것은 전달자가 내포문의 시상을 정해서 상위문 동사의 시상과 일치시키는 문법소일 뿐으로 보문소가 아닌 것으로 필자는 본다.

123) 고영진(1984), “제주 방언 인용문 연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ㄴ' 등과 같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ㅣ+(ㄴ, ㅇ)'을 인용토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할 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박용후(1960:397-98)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그는 '인, 잉(ㄴ,ㅇ)고 (인용격)'이라는 소제목 아래 '인, 잉'은 제주방언에서 가장 널리 쓰히는 자리토씨로서 풀이씨끝바꿈에 있어서의 'ㄹ젠, ㄹ쟁'의 '인, 잉'과 같이 '인'은 지난적(과거)를, '잉'은 올적을 나타내는데 쓰인다'라고 하고 있다. ('고'는 표제에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

그리고 성낙수(1984:95-105)는 '마침법들이 간접 인용으로 바뀌어질 때, 이음씨 끝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살핀 후, 그 결합 형태에서 공통된 요소 '-ㄴ'을 제외하고 맺음씨끝과 끝음운과 결합 형태에서 변이된 모습을 비교한 다음, 간접 인용의 이음씨끝은 '-인'이며, 변이형태로 '-잉'이 있음을 주장했다.

제주 방언의 인용보문자의 형태에 대한 가장 본격적인 논의는 아마도 강정희(1984:153-177)에서 볼 수 있을 듯하다고 하면서 그 요약을 옮겼다. (1984:183)

1) 인용접미사의 기본형으로는 '-이+ø(Zero morpheme)'이 기저에 존재하며, 유도 과정에서 상위 전달동사의 시상(time aspect)에 따라서 '-ㄴ/-ㅇ'을 선택 삽입한다. 따라서 표준어 '-(이)라고, -고'에 대응하는 인용접미사는 '-이+ø', '-인/-잉'을 들 수 있다.¹²⁴⁾

그러나 고영진은 박용후나 강정희가 본 '-잉/인'을 다섯 가지 점에서 의견을 달리 하면서 피인용문을 명사구로 보고, 직접 인용 보문자를 '-엿'으로, 간접 인용 보문자는 '-엔'으로, '-(이)(렌, 령)'과 '-(이) (엔, 엿)'들을 변이형태로 보면서 '-ㅇ, -ㄴ'의 교체 조건은 문제로 남겨두었다.

송상조¹²⁵⁾는 형태소 '-ㅇ, -ㄴ'이 붙는 자리를 이음씨끝에서는 이미 밝혀진 '-어, -다'에는 물론 새로 '-어다, -어나'나 '-쟁, -젠'에도 붙고, 또 맺음씨끝(종결어미) '-라, -다, -저'들에는 붙어서 보문소로 쓰일 때의 '-ㅇ, -ㄴ'도 이음씨끝에 붙는 '-ㅇ, -ㄴ'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용 보문자는 '엔, 엿'이 아닌 '이에'로 보았다.

124) '-인/잉'의 기능에 대해서는 시간성(aspect)에 따라 달리 쓰인다는 이승녕, 박용후, 강정희들이 있고, 수의적 변이형태라는 김지홍, 성낙수들의 견해가 있고, 고영진은 단정은 내리지 않았으나 기능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25) 송상조(1993c) "형태소 '-ㅇ, -ㄴ'이 보문에서의 쓰임과 상위문 동사와의 호응" 「어문학 논총」 근재 양순필 박사 화갑기념 어문학논총 간행위원회.

정승철¹²⁶⁾에서는 제주도 방언의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은 그 인용어미의 형태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방언의 인용어미를 {엔}으로 보고, 이것은 기원적으로 {ㅎ-}에 연결어미 {안}이 결합된 것으로, {ㅎ연, 헨}으로 나타나는데 후자의 {헨}이 인용문에서 피인용문의 종결어미 ‘다, ㄴ다, 께, 으냐, 읍서, 게’ 등과 융합되어 ‘텐, ㄴ텐, 켜, 으넨, 읍센, 겐’ 등으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융합에 의해 어두의 ‘ㅎ’가 탈락된 것이라고 했다. 중앙어의 간접인용의 어미 ‘고’가 ‘ㅎ고’에 기원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제주도 방언의 인용어미 {엔}은 ‘헨(“해서”)’에 기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p.100).

그리고, 연결어미 {안}이 그 대응하는 형태로 {앙}을 가지듯이 인용어미 {엔}도 그 대응 형태로 {앵}을 갖는다고 했다.

그렇지만 연결어미 {안}과 {앙}은 기능상의 차이(이는 이 논문의 주제와는 무관하다)를 가지는 형태인 반면 인용어미 {엔}과 {앵}은 기능상 차이를 가지지 않는, 수의적으로 교체되는 이형태인 듯하다고 했다.

아울러 연결어미 {안}과 {앙}은 각각 ‘안, 아네’, ‘앙, 앙근, 앙그네, 앙그넵에, 아근, 아그네, 아그넵에, 앙은, 앙으네’ 등의 수의적 이형태를 갖지만, 인용어미 {엔}과 {앵}은 이러한 수의적 이형태를 갖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기원적으로 인용어미 {엔}과 연결어미 {안}의 관련성을 부인해주는 것은 아니라고까지 했다.(p.99)

5. 연결법씨끝/보조적 연결어미

연결법씨끝 ‘아, 게¹²⁷⁾, 지, 고’는 이어진 앞 뒤의 두 말이 따로 마디를 만들지 않고, 두 말이 어울려서 한 월성분(월조각)의 노릇을 해서 이은말이 되게 하는 씨끝이다. 이것도 형태론 범주에 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펴보자, 거의 통사론의 몫으로 보아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긴다. 제주 방언에는 표준어와 다르게 쓰이는 것들이 있다.

126) 정승철(1997), “제주도 방언 어미의 형태음소론”, 『애산학보』 20집.

127) 허웅(1995), 『20세기 우리말 형태소』 샘문화사.에서는 ‘-게’는 연결법씨끝으로 쓰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나, 제주말에서는 어찌법으로도 쓰이고 연결법으로도 쓰이는 것으로 보았음. 이는 글썽이가 때가림소와 호응하는 씨끝들을 가리는 가운데서 나타난 현상이다.

송상조¹²⁸⁾에서는 연결법씨끝으로 쓰이는 ‘-아, -게, 지’는 제주말 특유의 때가림소 ‘-ㅇ, -ㄴ’과 호응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제주말에는 표준어와는 달리 씨끝 ‘-고’가 연결법으로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것은 동작상 ‘-암시-’가 ‘-고 잇-’의 뜻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때가림소가 붙은 ‘-아, -다, -어다’도 제주말에서는 연결법씨끝으로 쓰인다. 그리고 어찌법씨끝으로 쓰이는 ‘-게’의 뒤에 ‘웨-(되-)’가 쓰일 때와 ‘-도록’에서도 뒤에 ‘ㅎ-’가 와서 ‘-도록 ㅎ-’로 쓰일 때, 그리고 ‘듯 ㅎ-’일 때나, ‘듯이 ㅎ-’ 따위일 때는 연결법으로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쟁 ㅎ-’, ‘-젠 ㅎ-’, ‘고정 ㅎ-’, ‘-고저라 ㅎ-’들도 연결법으로 쓰인 것이다.¹²⁹⁾

6. 맺는말

이제까지 형태론에 대한 연구 논문들을 살펴보았다. 제춧말이 방언이면서도 이만큼의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선학들의 애정과 관심의 결과이다. 이제 방언을 사라져버릴 언어로 내버리지 말고, 새로운 이론과 창의적인 사고로 접근할 수 있는 후학들이 많았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춧말을 국어사적 자료로서도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살아있는 언어로서 제춧말이 가진 특성을 재해석해서 언어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제춧말에 대한 연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앙어나 다른 언어의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다.

또, 제춧말이 튼튼하게 버티고 있어야 제주 사람들도 긍지를 가지고 제주의 문화를 창조하며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는 자료를 얻는데도 충분하지 못한 점도 있고, 또 선학들의 의론을 그대로 옮기려고 했으나 그나마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 두려움이 앞선다.

128) 송상조(2011), 「제주말에서 때가림소 ‘-ㅇ, -ㄴ’과 씨끝들의 호응」, 한국문화사.

129) ‘고프다’는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연결법씨끝으로 볼 수가 없다.

참고 문헌

- 강근보(1972), “제주도 방언 ‘잇다’ 활용고”, 『논문집』 제4집. 제주대학.
- (1976), “속격 ‘-네’의 연구”, 『논문집』 제8집. 제주대학.
- (1977), “제주도 방언의 접미사 연구” -특히 ‘드레’를 중심으로-, 『논문집』 제9집. 제주대학.
- (1978), “제주도 방언의 곡용에 대하여”, 『논문집』 제10집, 제주대학.
- 강영봉(1986), “제주도 방언의 어명 연구”, 『논문집』 제23집. 제주대학.
- (1995), “제주도 방언의 접두사”, 『국문학보』 제13집. 제주대학 국어국문학과.
- 강인자(2004), “제주 방언 조사 ‘광’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정희(1978/1988), “제주 방언의 시상 연구” -접속접미사 ‘-단/-당’, ‘-안(언)/-앙(영)’을 중심으로, 『제주방언연구』 한남대학교 출판부.
- (1980), “제주 방언의 처격 ‘디’에 관한 일 고찰”, 『방언』 4. 한국정신문화원 어학연구실.
- (1981), “제주 방언의 인용문 연구” -피인용문 문장어미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4. 이화여자대학교.
- (1982-1), “제주 방언의 문법화 과정에 대하여” -중세국어와 대응을 중심으로-, 『국어학』 11.
- (1983/1988), “제주방언의 명사류 접미사에 관한 연구” -격표시와 명사구 확장접미사의 통사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1984), “제주방언의 명사류 어미의 한 종류” ‘-(이)랑’에 대하여, 『한국어문학』 제13, 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1988), 『제주방언연구』, 한남대학교 출판부.
- (2005), 『제주방언 형태 변화 연구』, 도서출판 역락.
- 고영진(1984), “제주 방언의 인용문 연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미진(1991), “제주도 방언에서 빗갈형용사와 ‘흐다’의 결합 양상”, 『영주어문』 제1집.
- (1998), “제주도 방언의 ‘흐다’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홍(1982), “제주 방언의 동사구 보문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집(1980), 『연구논총』 창간호, 제주대학 교육대학원 학우회.
- 김홍식(1975), “『鋏』語에 대한 소고 -특히 제주도 방언과 관련해서-, 『논문집』 제7집, 제주대학.
- (1976), “어간말 모음 탈락에 대하여”, 『논문집』 제8집, 제주대학.
- (1979), “제주도 방언 ‘가쟁이’ 어고”, 『논문집』 제11집, 제주대학.
- (1980), “비바리 어고”, 『현평효 박사 회갑기념논총』.
- (1982), “제주도 방언의 ‘냥’ 어고”, 『논문집』 제14집, 제주대학.
- (1982), “접미사 -개에 대하여”, 『북천 심여택 선생 회갑기념논총』.
- (1983), “제주도 방언의 접미사고 -인칭접미사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주대학.
- 문순덕(1987), “제주도 방언의 형태소 ‘서’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2000), “제주 방언 ‘시다’의 문법화 현상”, 『영주어문』 2.
- (2003), 『제주방언 문법 연구』, 도서출판 세림.
- 박용후(1988), 『제주방언연구』(고찰편), 과학사.
- (1988), 『제주도 방언 연구』(자료편),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 송상조(1982), “‘ㅎ’개입에 관한 고찰 -제주 방언을 중심으로-”, 제주대학 교육대학원.
- (1989), “제주도 방언의 접미사 고찰” -인칭·사물접미사 목록-, 『제언』 제8집. 제주도문제연구회.
- (1990), “제주도 방언의 접미 파생어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 (1992), “제주도 방언 ‘-ㅇ, -ㄴ’의 형태소에 관한 고찰”, 『동아어문논집』 제2호, 동아어문학회.
- (1993-1), “형태소 ‘-ㅇ, -ㄴ’과 이음씨끝의 호응”, 『한뢰』 제6호, 제주도 중등 국어교육연구회.
- (1993-2), “형태소 ‘-ㅇ, -ㄴ’과 안맺음씨끝의 호응”, 『탐라문화』 제13호, 제주 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1993-3), “형태소 ‘-ㅇ, -ㄴ’이 보문에서의 쓰임과 상위문 동사와의 호응”, 『어문학논총』 근재 양순필박사 화갑기념 어문학논총 간행위원회편.

- (1993-4), “-ㅇ, -ㄴ’이 그림씨에서 씨끝과의 호응 현상”, 『제주문화연구』
현지 김영돈박사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편.
- (1994), “형태소 ‘-ㅇ, -ㄴ’이 씨끝 및 때어찌말과의 호응 현상”(발표), 『제주의
물과 환경』 제주도연구회.
- (1994-2), “형태소 ‘ㅇ’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제14호. 제주대학교.
- (1995), “형태소 ‘-ㅇ, -ㄴ’이 씨끝 및 때어찌말과의 호응 현상”, 『동아어문
논집』 제5호, 동아어문학회.
- (1996-1), “방언”, 『제주의 전통 문화』 제주도교육청.
- (1996-2), “제주 방언의 하임·입음법에 관한 고찰”, 『국어학의 오솔길』 우전
김형주 선생 회갑 기념논총 간행위원회.
- (2007), 『제주말 큰사전』, 한국문화사.
- (2008), “때가림소 ‘-ㅇ, -ㄴ’과 이음씨끝의 호응”, 제주어 확대 보급 세미나
(발표), (사)제주어보존회·kctv제주방송.
- (2009-1), “때가림소 ‘-ㅇ, -ㄴ’이 매김씨끝들과 호응 현상”, 제주방언연구회
세미나(발표).
- (2009-2), “때가림소 ‘-ㅇ, -ㄴ’의 쓰임에 대한 이해”, 한국언어문학회 제50차
정기학술대회 (발표).
- (2009-3), “때가림소 ‘-ㅇ, -ㄴ’의 쓰임과 씨끝 ‘-저’에 대한 이해”, 『탐라순력』
제4호, (사) 탐라문화보존회.
- (2011), 『제주말에서 때가림소 ‘-ㅇ, -ㄴ’과 씨끝들의 호응』, 한국문화사.
- 이승녕(1957/1985),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 정승철(1995), “제주도 방언의 파생접미사 몇 개의 재구형을 중심으로”, 『대동문화
연구』 제30집.
- (1997), “제주도 방언 어미의 형태음소론” -인용어미를 중심으로-, 『애산학보』
20.
- 정운택(1983), “제주도 방언의 격어미 연구”, 제주대학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기추(1998/2008), “제주도 방언의 자리토씨에 관한 연구” -표준어와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중심으로-, 『백록어문』 제24.
- 허웅(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 현용준(1956), “제주도 방언에서의 ‘ㅇ’고”, 『국문학보』 제1집. 제주대학 국어국문학과.

----- (1957), “ㅎ삽요음에 대하여” -제주방언을 중심으로 하나의 시고-, 『제주문화』
I, 예총제주지부.

현평효(1985), 『제주도 방언 연구』 논고편, 이우출판사.

홍종림(1998), “제주도 방언의 ‘ㅎ’말음 명사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제19집.
제주대학교.

----- (2001), “제주방언 연결어미의 ‘-n’, ‘-ŋ’에 대하여”, 『국어학』 제38호.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 연구에 대한 개괄적 검토

- 용언의 활용을 중심으로 -

고 영 진 (일본 도시샤대학교 글로벌지역문화학부 교수)

1. 들어가는 말

1. 1. 형태론의 두 영역

1. 2. 용어의 정리

1. 2. 1 종결어미(어말어미)

- 1) 중지법
- 2) 자격법
- 3) 접속법

1. 2. 2. 비종결어미(선어말어미)

1. 3. 이 글의 논의 대상

2. 제주도 방언의 ‘발견’ - 小倉進平

2. 1 小倉進平 이전의 제주도 방언과 관련한 언급

a. 金淨 濟州風土錄(1520)

土人語音細高如針刺 且多不可曉

b. 金尙憲 南槎錄(1601)

俚語以藪爲花 以岳爲吾老音 以爪爲蹄 以口爲勒 勒爲綠大 爲加達云

- c. 李元鎮 耽羅志(1653) 俚語難澁: 村民俚語難澁先高後低
……………州記語多殊音 以京爲西那 以藪爲高之
以岳爲兀音 謂爪爲蹄謂口爲勒 草羈謂之綠大鐵御謂
之加達其語音類如此<이상 현평효(1985:387-388)에 의함>

위의 발언들은 제주도 방언과 관련한 기록으로 오늘날도 여기저기서 인용되는 구절인데, 실은 이것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小倉進平인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小倉進平(1913a:25)에 동국여지승람의 ‘村民俚語難澁先高後低’가 인용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小倉進平(1931:27-28)에는 위의 (a-c)를 합한 구절이 인용되어 있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어쨌거나 위의 표현들은 적어도 小倉進平 이전에는 제주도 방언이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아니었음을 말해 주는 사실이라 볼 수 있다.

2. 2. 小倉進平에 의한 제주도 방언의 ‘발견’

小倉進平(1913a~c), 濟州島方言, 朝鮮及滿洲 68~70호, 朝鮮雜誌社.

小倉進平(1924), 朝鮮語の歴史的的研究上より見たる濟州島方言の価値, 朝鮮

小倉進平(1931), 濟州島方言, 靑丘學叢 제5호, 靑丘學會.

가장 먼저 발표된 小倉進平(1913a:21-22)에서 그는 “방언을 조사함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요건”으로 ‘①음운 조직, ②어휘의 비교, ③어법의 비교’를 들고 있다.

2. 3. 小倉進平의 영향

2. 3. 1. 체제

- 1) 오늘날도 방언 연구는 ‘①자료편, ②이론편’으로 나누는 경향을 볼 수 있다.
- 2) 연구의 내용 또한 ‘①음운, ②어휘, ③어법’의 분야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2. 3. 2. 연구 목적의 측면

- 1) 산간벽지에 옛날의 고어가 남아 있으며, 절해고도에서 지난날의 어형을 발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小倉進平 1913a:21).

- 2) 제주도 방언을 조사해 보고자 생각한 이유: 그 방언이 조선 본토의 언어에 대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국어(인용자 주-일본어)에 대하여,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또 어떠한 광명을 비출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함이다(小倉進平 1913a:21).

2. 3. 3. 그 밖

3. 규범문법적 총론의 등장 - 이송녕과 박용후

김지홍(1992:34)에 의하면, 방언의 연구 경향을 “전통문법에 의한 연구와 기술 문법에 의한 연구, 생성문법에 의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주도 방언 연구에서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이송녕(1957, 1978 재판)과 박용후(1960, 1988 재판)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3. 1. 이송녕(1957)

한 편의 논문이라고는 하지만, 게다가 미완성이라고 필자 스스로 말미에서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 당시에 이미 150쪽이 넘는 글이었으며, 실제로 1978년에는 탑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간행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어쨌거나 이 글은 당시로서는(어쩌면 현재까지도) 양과 질 모두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글로서, 현재까지도 제주도 방언 연구자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3. 1. 1. 조어론, 격변화, 활용 등을 다루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용언의 활용만을 검토할 것이다.

3. 1. 2. 용언의 활용

- 1) 종지법(종결어미)
- 2) 자격법(전성어미)
- 3) 접속법(연결어미)

3. 2. 박용후(1960)

3. 2. 1. 이 책 역시 ‘자료편, 고찰편’으로 되어 있다.

3. 2. 2. 고찰편에서 다룬 용언의 활용은 대단히 체계적으로 정리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최현배의 우리말본을 전적으로 추종했다는 점에서는 비판받을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무엇보다도 50~60년대 당시는 규범문법의 시대였음을 감안해야 하며, 더구나 “당시의 중등학교에는 최현배의 문법이 여전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영근 2000)¹⁾”는 사실 또한 고려해야 한다.

3. 3. 이송녕(1957)과 박용후(1960)라는 일종의 규범문법적 총론이 있었기에 그 후에 개별적인 논의들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제주도 방언 형태론 각론에 대한 연구의 본격화 - 현평효

현평효(1974)²⁾는, “기술문법 정신에 따라 충실하게 연구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행태소의 분석과 분포기술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김지홍 1992:34)”는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아직까지는 제주도 방언을 연구하려고 할 때에 넘어야 할 가장 높은 봉우리임에 틀림없다.

현평효(1974)가 다시 실린 현평효(1985)에 대한 서평만 해도 김완진(1985) 및 강정희(1990b)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책이 중요한 업적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사실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4. 1. 종지법에 의한 문법 범주의 정리

4. 2. 비종결어미(일부)에 의한 문법 범주의 체계화

1) 본고에서의 인용은 www.korean.go.kr/nkview/nklife/2000_2/10_2.htm의 것이다(2014년 8월 9일 확인.)

2)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현평효(1974)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인데, 그것을 이듬해에 아세아문화사에서 공간한 것이 현평효(1975)이다. 또한 이 논문은 현평효(1985:3-133)에 다시 거두어 실렸다.

5. 현평효(1975) 이후의 형태론 연구

5. 1. 현평효(1975)를 극복하기 위한 탐색

홍종립(1976), 이남덕(1980), 강정희(1990), 고영진(1991), 김지홍(1992), 우창현(1998) 등

5. 2. 새로운 종합화의 움직임

강영봉(2007), 고재환(2013) 등

6. 맺는말

<참고문헌>

- 강영봉(2007), 제주의 민속문화① 제주어, 국립민속박물관.
강정희(1988), 제주 방언 연구, 한남대학교 출판부.
강정희(1990a), “방언 문법론”, 방언학의 자료와 이론, 지식산업사, 79~103쪽.
강정희(1990b), “서평, 현평효 『제주도 방언 연구』”, 주시경학보 5, 주시경연구소, 165~175쪽.
고영근(2000), “우리나라 학교문법의 역사”, 새국어생활 10-2, 국립국어원(이 글에 서는 www.korean.go.kr/nkview/nklife/2000_2/10_2.htm에 올라 있는 것을 이용하였다)(2014년 8월 9일 확인).
고영진(1991), “제주도 방언의 회상법의 형태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국어의 이해와 인식, 한국문화사, 1009~1024쪽.
고재환(2011), 제주어 개론(상, 하), 보고서.
곽충구(2002), “방언 연구사”, (이 글에서는 hompi.sogang.ac.kr/language/paper/kcg_연구사.hwp의 것을 이용하였다.) (2014년 7월 18일 확인).
김석득(1992), 우리말 형태론, 탑출판사.
김완진(1985), “서평 현평효 저, 제주도방언연구 논고편”, 국어국문학 94, 국어국문

- 학회, 303~305쪽.
- 김지홍(1992), “{-젯-}에 대응하는 {-(-으)크-}에 대하여”, 제주도언어민속논총, 제주문화, 33~98쪽.
- 문순덕(2009), “방언문법론의 현황과 과제”, 국어학 54, 국어학회, 455~485쪽.
- 박용후(1960), 제주 방언 연구, 동원사.
- 박용후(1988), 제주방언연구(고찰편), 과학사.
- 송상조(2011), 제주말에서 때가림소 ‘-ㅇ, -ㄴ’과 씨끝들의 호응, 한국문화사.
- 오창명(2000), “제주도 방언 연구의 동향과 과제”, 탐라문화 2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229~246쪽.
- 우창현(1998), 제주 방언의 상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 이남덕(1980), “제주방언의 동사 종결어미 변화에 나타난 시상체계에 대하여”, 논총 40,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7~54쪽.
- 이승녕(1957/1978),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동방학지 3, 연세대학교 국학 연구원, 39~193쪽.
- 정승철(1995),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태학사.
- 최현배(1955), 우리말본, 정음사.
- 허 웅(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현평효(1975), 제주도 방언의 정동사 어미 연구, 아세아문화사.
- 현평효(1985), 제주도 방언 연구 - 논고편, 이우출판사.
- 홍종립(1976), “제주도 방언의 선어말어미 ‘-암/엄-, -암시/엄시-, -안/언-, -아시/어시-’에 대하여”, 선청어문 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459~474쪽.
- 홍종립(1991), 제주방언의 양태와 상범주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小倉進平(1913a), 「濟州島方言」, 『朝鮮及滿洲』 68, 朝鮮雜誌社, 20~25頁.
- 小倉進平(1913b), 「濟州島方言」, 『朝鮮及滿洲』 69, 朝鮮雜誌社, 58~62頁.
- 小倉進平(1913c), 「濟州島方言」, 『朝鮮及滿洲』 70, 朝鮮雜誌社, 47~50頁.
- 小倉進平(1924), 「朝鮮語の歴史的 연구上より見たる濟州島方言の価値」, 『朝鮮』(오창명 역, 한국어의 역사적 연구에서 본 제주도 방언의 가치, 제주학 6, 제주학 연구소, 2010), 91~124쪽.
- 小倉進平(1931), 「濟州島方言」, 『靑丘學叢』 5, 靑丘學會, 26~70頁.
- 小倉進平(1944), 『朝鮮語方言の研究 下卷』, 岩波書店(이진호 역, 한국어 방언 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9).

제주 방언 통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김 지 홍 (경상대학교 국어교육과)

I. 들머리

언어는 인간의 일부 생각을 반영해 주고, 언어학은 그 생각 속에 들어 있는 관계를 드러내고 다루는 학문이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신생 학문으로서 언어학은 많은 학파들의 부침이 있었으나, 적어도 소쉬르의 구조주의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 기술 언어학, 그리고 기술 언어학을 비판하면서 나온 촘스키의 생성문법은 큰 작든 우리 국어학의 연구에 영향을 끼쳐 왔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국어학 전공자들이 소쉬르의 책이나 미국 기술 언어학의 책자를 읽으면서 국어 자료들을 학문적 체계를 갖춘 독자적 영역으로 발전시켜 왔고, 또한 촘스키 교수의 방법들을 배우면서 언어학 이론을 나름대로 세련되게 만들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제주 방언의 통사론 연구에서도 이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현평호(1975, 2008)에서는 기술 언어학의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는데, 웅당 국어학 연구사에서 일부를 차지해야 옳다. 또한 그 이후의 연구자들에게서는 압도적인 유행에 갇눌려서 무늬만 생성문법으로 포장하든지, 아니면 그 속에 담긴 기본 정신을 수용하여 보편성을 추구하는 생성문법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소쉬르의 구조주의나 미국 기술 언어학의 초점과 생성문법의 초점은 서로 다르다. 전자가 작은 영역에 속하는 음운론에서 형태론까지 집중하여 성과를 산출하였다면, 후자는 다소 큰 영역에 해당하는 문장을 중심으로 하여 성과를 산출하였다. 전자는 언어들 사이에서 관찰되는 차이들을 크게 부각하려고 하였던 반면에, 후자에서는 차이들보다 공통성에 더 가중치를 부여하려고 하였다.

한때 후자의 초점을 ‘코퍼니커스 전환’ 따위로¹⁾ 호들갑스럽게 포장된 적도 있다.²⁾ 그렇지만 기호학의 하위 영역으로 언어학을 상정하였던 소쉬르(F. Saussure, 1857~1913)나 피어스(C. S. Peirce, 1839~1914)의 저작들에서는 엄연히 정신 작동 내지 사고 작용을 궁극적인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촘스키(N. Chomsky, 1928~) 교수의 내재적 언어(I-language)도 결국은 사고 작용을 촉발하는 접합면(interfaces)들에 대한 정보만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같은 표적을 지닌 채 초보 단계에서 맴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촘스키 교수의 스승이었던 해리스(Z. Harris, 1909~1992)는 미시언어학과 거시언어학(또는 담화)이라는 용어를 만들면서 그 기점을 문장으로 잡았었다. 반백년이 지난 오늘날 관점으로 보건대, 촘스키 혁명은 철저히 미시언어학 내부에만 갇혀 있는 ‘찾잔 속의 태풍’일 뿐이다.

하드먼 외(Hardman and Macchi 2003) 역음에 따르면, 사고 작용은 적어도 다음과 같이 연쇄적으로 네 가지 단계를 거쳐 정신 활동이다.³⁾

‘표상 → 추론 → 판단 → 결정’

- 1) 천동설을 버리고 과감하게 지동설을 주장했던 폴란드 학자 코퍼니커스(Nicolaus Copernicus, 1473~1543)는 파천황(破天荒)의 발상 전환을 대표하는 상징이다. ‘코퍼니커스 전환’이란 말은 칸트(1781, 백종현 2006 뒤침: 182쪽) 『순수 이성 비판』(아카넷)에서, 대상이 우리 인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우리 인식이 대상을 만들어낸다는 주장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언어학에서 미시한 대상을 첫 출발점으로 삼았던 미국 기술주의 언어학 내지 행동주의 언어학으로부터 이성주의 언어학에로의 전환을 ‘코퍼니커스 전환’으로 처음 언급한 것은, 1978년 워싱턴 대학에서 쏘 사포터(Sol Saporta)가 촘스키 교수와 가졌던 면담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 케이셔(Kasher 1991) 역음 『촘스키의 전환 (The Chomskyan Turn)』(Basil Blackwell)의 서문을 읽어 보기 바란다.
- 2) syntax(통사론)을 지금도 ‘통어론’으로 잘못 번역하는 이들이 있다. ‘통어’라는 말은 “날말들을 거느린다”는 뜻이며, 철저히 구조주의 또는 기술언어학의 원자주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날말과 날말을 붙여 놓을 때에 갑자기 해당 날말에 없던 새로운 의미나 기능이 생겨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문장 단위로부터 거꾸로 작업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른바 ‘촘스키적 전환’이다. 다시 말하여, 촘스키 교수의 syntax(통사론)에서는 날말(단어)보다 더 작은 단위가 주인이 된다. 국어학에서는 우연히 날말(단어)보다 더 작은 단위를, ‘접사’ 따위에서 보듯이 사(辭)로 부르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여 통사론에서는 어휘범주와 기능범주를 다루는데, 전자는 후자에 의해서 지배된다. 기능범주가 통사의 주인인 것이다. 이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통어론’이 아니라, 반드시 ‘통사론’이라고 불러야 옳다.
- 3) 하드먼 · 마키(2003) 역음 『사고 작용: 추론 · 판단 · 결정 내리기의 심리학적 관점 (Thinking: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Reasoning, Judgment, and Decision Making)』(John Wiley & Sons)에는 모두 16편이 실려 있다 우연히 네 단계의 사고 작용에 따라 논문들이 모여져 있지만, 모든 심리학자들이 이런 단계를 거쳐 사고 작용이 일어난다고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감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논의는 특히 더마지우 교수의 책들인데, 더마지우(Damasio 1994, 김린 1999 뒤침) 『데카르트의 오류』(중앙문화사)가 번역되어 있다.

여기서 표상은 의식적인 표상과 ‘무의식적’ 표상이 입력물이 되며, 비록 추론 단계에서 오직 언어화된 의식적 표상만이 입력물이 되지만, 다시 판단과 결정 과정에서는 감성 요인도 중요하게 간여하므로, 사고 작용을 다루기가 간단치가 않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발군의 언어학자인 제킨도프(Jackendoff 2012)에서는⁴⁾ ‘무의식적’ 사고 과정을 크게 강조하여 이를 ‘무의식적 의미 가정’(unconscious meaning hypothesis)으로 부르며, 이런 사고가 의식화되는 단초를 음성 형식을 지닌 ‘부호 딱지’(character tags)로 본다. 이는 전-전두엽에 있는 인간의 작업기억(working memory)에 대하여 검박하게 공간-시지각 그림판(visuospatial sketchpad) 및 음운 순환회로(phonological loop)를 상정한 배들리(Baddley 1986)의 모형을 연상시킨다. 사고 작용과 언어 사용은 많은 부분이 서로 겹치며, 무의식적인 영역과 감성적 영역을 따로 떼어 놓는다면 거의 중첩된다고 하여도 틀린 말이 아니다. 촘스키 교수의 업적을 거시적으로 평가한다면, 표상 단계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앞 단락에서 필자가 찾잔 속의 태풍이란 비유를 쓴 까닭은 표상 단계에서도 의식적인 표상, 그 중에서도 단지 미시언어학 표상, 그 중에서도 통사 구성만을 다루기 때문이다.

비록 앞으로 갈 길이 더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도처에서 ‘언어학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준 촘스키 학파의 50년이 넘는 여정은 언어 형식들을 제약해 주는 간단한 실체에 대하여 많은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다. 언어 형식은 결국 계층성을 구현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자연수의 본질을 반복 함수(recursion)로 밝혀낸 프레게(G. Frege, 1848~1925)의 발견을⁵⁾ 언어학적으로 재확인한 것에 지

4) 이미 제킨도프(1990, 고석주·양정석 1999 뒤침) 『의미 구조론』(한신문화사)과 제킨도프(2002, 김종복·박정운·이예식 2005 뒤침) 『언어의 본질: 통사·의미·인지구조를 중심으로』(박이정)가 널리 읽힌 바 있다. 최근에 제킨도프(2012) 『사고 및 의미에 대한 안내서 (A User's Guide to Thought and Meaning)』(Oxford University Press)에서는 무의식적 사고 과정이 오직 음운 표상이 실마리가 되어 의식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고 본다. 이 때에라야 비로소 스스로 의식할 수 있는 ‘감각질’(qualia)이 되며, 이를 언어 감각질(linguistic qualia)이라고 부른다. 무의식 영역과 의식 영역 사이를 매개해 주는 고리를 음성 형식을 지닌 ‘부호 딱지’(character tags)로 명명한다. 배들리(1986) 『작업기억』(Oxford University Press)이 나온 뒤에 20년 동안 많은 논의들이 축적되었으며, 이를 배들리(2007) 『작업기억·사고·행위 (Working Memory, Thought, and Action)』(Oxford University Press)으로 더욱 넓혀 보강하고 있는데, 감정(emotion)에 대한 요소와 구체적 사건 기억에 대한 임시저장고(episodic buffer)과의 관련성이 심층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5) 프레게(1884, 박준용·최원배 2003 뒤침) 『산수의 기초』(아카넷)과 프레게(1893, 김보현 2007 뒤침) 『산수의 근본 법칙 I』(울산대학 출판부)를 참고하기 바란다. 프레게(1879) “개념 표기법” 또는 “개념 문자”는 뵘하이엔오트(van Heijenoort 1967) 엮음 『프레게로부터 괴델까지: 1879년~1931년 사이의 수

나지 않는다. 촘스키의 통사 표상에다 의미를 덧입혀 주는 논리 형식(LF) 부서도 프레게가 마련한 양화 함수로 번역하는 일에 불과한데, 이는 만테규(R. Montague, 1930~1971)의 내포 의미론과 동형성을 확립시켜 준 파어티(B. Partee, 1940~) 교수의 노력에 힘입었다.

적어도 네 구비의 전환으로⁶⁾ 서술할 수 있는 촘스키 교수의 업적들은 지엽적이고 개별적인 언어 표현이 어떻게 심층의 정신 작용의 구현으로 표상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언어는 핵계층(X-bar) 구조를 투영하는 범주의 투영 결과물이다. 일원론(monism)을 충실히 반영하는 핵계층 구조는 핵어와 비핵어의 관계이다. 비핵어는 핵어로부터 유도되는 것을 논항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은 것을 부가어라고 부른다. 그런데 논항에 의미역이 배당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핵어는 어휘범주와 기능범주로 나뉜다. 어휘범주를 결정해 주는 요소는 명사 자질과 동사 자질이고, 기능범주를 결정해 주는 요소는 종결 자질과 비종결 자질이며, 비종결 자질은 다시 시제 자질과 일치 자질로 환원된다.

리논리학 논문 독본 (*From Frege to Gödel: A Source Book in Mathematical Logic, 1878~1931*) (Harvard University Press)에서 첫 논문으로 번역되어 있다. 생각 또는 사고의 기본 단위를 개념으로 상정하여 그 개념이 기호 표현을 양화사를 지닌 함수로 표상하고(함수는 반드시 논항으로 채워져야 함), 그 함수들의 전개과정을 형식화한 논문으로, 그에게 현대 학문의 ‘비조’(forefather of modern sciences)라는 명예를 안겨주었다. 프레게의 반복 함수(일본에서는 회귀 함수로 번역함)를 타스키(A. Tarski 1956, 1983 재간행) 『논리학 · 의미학 · 상위수학 (*Logic, Semantics, Meta-mathematics*)』 (Hackett Pub.)의 편집자는 서문 17쪽, 21쪽에서 한 가지 ‘생성 문법’(a generative grammar)이라고 명시적으로 부르고 있어서 주목된다.

- 6) 이는 전적으로 필자의 개인적 판단이다. 아마 1955년 박사논문과 1957년 『통사의 구조 (*Syntactic Structures*)』가 제1 구비(표준이론)에 해당하고, 해석 의미론을 주장한 제자들(이들은 뒤에 ‘인지언어학’ 흐름을 만들)과 결별하는 1970년 “명사화에 대한 논의”(Remarks on Nominalization)가 제2 구비(초기 단원체 이론)에 해당하며, 피사 강좌의 1981년 『지배와 결속에 대한 이론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이 제3 구비(보편문법 이론)에 해당하고, 유평적으로 언어에만 관련된 개념들을 모두 추방시키려는 최소주의 착상이 시작된 2001년 『최소주의 기획 (*The Minimalist Program*)』이 제4 구비(인지 접합면 이론)에 해당한다.

제4 구비를 보면서 필자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는 말을 써서 “촘스키 언어학에는 언어가 없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성실한 그의 변증법적 발전을 잘 드러내준다. 졸저(2010) 『언어의 심층과 언어 교육』 (도서출판 경진)에 있는 “내재주의 언어철학에 대하여”를 읽어 보기 바란다. 제1 구비에서는 전산학 개념들이 자주 쓰이지만, 제4 구비에서는 묵시적으로 ‘사용’을 고려하기 때문에 경제학 개념들이 도입됨이 흥미롭다. 촘스키 교수가 받아들인 정신 표상의 기본틀은 제대로 거론되지 않지만, 데이빗 마아(David Marr, 1945~1980)의 유작이다. 마아(1982) 『시각각 처리: 시각 정보의 인간적 표상 및 처리 과정에 대한 연산적 탐구 (*Vision: A computational investigation into the human representation and processing of visual information*)』 (W.H. Freeman & Company)이며, 우리말 개관으로는 정찬섭(1989) “시각 정보처리 계산 모형”, 이정모 외 『인지과학: 마음 · 언어 · 계산』 (민음사)을 읽어 보기 바란다.

광복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주 방언 연구에 대한 통사 논의들을 개관하고 평가하며, 장차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필자가 익숙히 다룰 수 있는 촌스키 교수의 업적들을 생성문법으로 부르고, 우리말의 매개변인 설정과 더불어 이런 보편 문법의 틀을 적용해 놓은 줄저(2010)에 기대어 진행해 나가기로 한다. 철저히 구조 중심의 임의 요소 이동으로 설명되는 영어와는 달리, 교착어 질서를 따르는 우리말과 이 방언에서는 생성문법의 틀로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쉽게 찾아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초점 모아 부각시켜 나가기로 한다. 또한 논의 대상을 제주 방언 통사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모든 글들을 논의하면서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⁷⁾ 대신 필자의 개인적 판단에 중요하게 거론되어야 할 논의와 주장들에다 초점을 모아 나가기로 한다.

II. 어휘범주와 기능범주

언어를 크게 어휘범주와 기능범주로 나누는 일은 생성문법에서 보편문법 이론의 단계로 발전하면서 이뤄졌다. 어휘범주는 기본적으로 명사 자질($\pm N$)과 동사 자질($\pm V$)의 배합으로 만들어지며, 네 가지 기본개념을 도출하게 되는데, 어린이들의 언어 습득에서도 관찰된다.⁸⁾ 하나는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 [$+N$, $-V$]이며, 다른 하나는 일 또는 사건을 가리키는 동사 [$-N$, $+V$]이다. 다른 하나는 상태나 속성을 가리키는 형용사 [$+N$, $+V$]이며,⁹⁾ 마지막 하나는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가리키는 전치사 [$-N$, $-V$]이다. 어휘범주는 현재 어휘 의미구조나 사건 구조 등으로 확장되면서 어휘(특히 동사와 형용사)들 사이에 변동되거나 확장되는 일들을 상위 개념상의 제약들을 통해 심도 있게 연구되고 있다.¹⁰⁾ 아직 우리말을 대상으로 하여 이런

7) 필자는 문순덕 박사가 정리하여 보내 준 ‘제주 방언 연구 목록’에 크게 도움을 입었음을 밝혀 고마움을 적어 둔다. 그 목록에서 이 글에서 다루는 통사 분야의 논문을 다수 쓴 연구자는 한글 자모 순서로 강정희, 고영진, 문숙영, 문순덕, 성낙수, 송상조, 우창현, 정승철, 현평효, 홍종립 등이다.

8) 우리말 습득과 관련하여 김영주 외 7인(1997) 『언어학 이론과 한국어 의미·통사 구조 습득 I』(민음사), 조숙환 외 7인(2000) 『인간은 언어를 어떻게 습득하는가: 언어의 의미, 통사구조, 습득에 관한 연구』(아카넷), 이현진(2003) “언어 습득과 언어 발달”, 조명한 외 『언어 심리학』(학지사)을 읽어 보기 바란다.

9) 우리말에서는 형용사 어간에 해당한다. 가령, ‘아름+답다’가 어간 및 계사류로 융합되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이례적인 제약이 많다.

10) 논의의 시작점에 해일·카이저(Hale and Keyser 2002) 『논항구조 이론 서설 (Prolegomenon to a

작업이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간단히 ‘심리동사’들로 불리는 낱말을 놓고 예시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심리동사’라는 용어는 매우 포괄적이다.¹¹⁾ 교착어로서의 우리말의 어휘를 대상으로 하면, 더 미세하게 감각동사나 감정동사의 무리를 구분할 수 있다. 우리말 감각동사는

‘덥다 → 뜨겁다 → 더워하다/뜨거워하다’ [→ 더워하게/뜨거워하게 만들다]
(내부 감각동사 → 외부대상 감각동사 → 상대방의 감각에 대한 묘사동사)

처럼 대립하면서 논항구조와 의미역 배당이 달라진다. 내부 감각동사는 경험주만 요구하는 동사이다(1항 동사임). 그러나 외부대상에 대하여 감각을 표현하려면, 여기에 다시 대상역이라는 의미역이 더 주어져야 한다(2항 동사임). ‘어 하다’ 구문은¹²⁾ 언제나 감각 내지 감정동사와 결합하는데, 감정이입을 통하여 관찰 대상이 되는 사람의 감각 상태를 전지적 시점으로 묘사해 주고 있다.¹³⁾ 이런 사건 구조는

Theory of Argument Structure)』(MIT Press)와 드보이스 외(Du Bois, Kumpf, and Ashby 2003) 엮음 『선호된 논항구조: 기능을 위한 틀로서의 문법 (*Preferred Argument Structure: Grammar as Architecture for Function*)』(John Benjamins)이 있다. 특히 최근 나온 다음 편저 두 권을 통해서 마치 프리즘처럼 이 주제가 다양하게 탐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워먼·브라운(Bowerman and Brown 2008) 엮음 『논항구조의 범-언어 관점 (*Cross-linguistic Perspectives on Argument Structure*)』(Lawrence Erlbaum, 15편의 논문이 들어 있음), 라파포트호바브 외(Rappaport-Hovav, Doron, and Sichel 2010) 엮음 『어휘의미론·통사론·사건구조 (*Lexical Structure, Syntax, and Event Structure*)』(Oxford University Press, 16편의 논문이 들어 있음).

11) 필자가 언급하는 바와 논점이 다르지만 우리말 심리동사의 연구는 김홍수(1989) 『현대국어 심리동사 구문 연구』(국어학회, 탑출판사), 이익환·이민행(2005) 『심리동사의 의미론: 영어, 한국어와 독일어의 대조연구』(역락)을 참고할 수 있다.

12) 민현식(1999, 2011 수정 4판) 『국어 정서법 연구』(태학사) 217쪽을 보면, ‘아하다’를 붙여 쓰도록 한 것은 문교부(1964) 『교정 편람』에서 ‘합성 용언’으로 규정한 일로부터 시작한 듯한데, 저자가 이를 설명하면서 “논자에 따라서는 접미사로 볼 수도 있다.”고 하여 마치 ‘아하다’를 접미사로 간주한 듯한 인상이 든다. 한편, 이은정(1993) 엮음 『어문 규정에 따라 정리한 띄어쓰기 용례 및 해설』(백산출판사)에는 문교부(1969) ‘한글 전용 편람’에서 띄어쓰기(원래 출처는 28~58쪽으로 표시됨) 규정을 옮겨 실은 대목이 있다. 특히 이 책 16쪽에 ‘어하다’와 관련하여, “형용사의 부사형 어미에 조동사 ‘하다’가 붙어서 다른 말로 전성할 경우, ‘하다’를 앞 말에 붙여 쓴다.”라는 언급을 실고 있다.

필자는 ‘어하다’를 지니는 동사의 자연부류를 감각동사 및 감정동사 등의 심리동사로 파악하므로, 파생용언이 아니라(결코 접미사가 될 수 없음) 핵어인 동사가 어휘통사적 구조를 투명하게 된다. ‘떨렁해하다, 안타까워하다, 화가 나서 답답하고 못견다하다, 자신 없어하다’에서 모두 동일한 의미자질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자연 부류의 범주가 사실이라면, ‘아하다’를 접미사로 보고서 파생용언으로 규정함은 잘못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심리동사도 또한 마음의 느낌이나 상태를 가리키므로, 상위범주가 형용사로 귀속될 수밖에 없으며, 필자의 직관보다 더 일찍이 통찰력을 적어 놓은 선업임을 밝혀 둔다.

13) 맥락에 따라서 ‘철수가 더워한다’라는 표현이 때로 짙막하게 ‘철수가 덥다’로 발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는 ‘덥다’의 사용 맥락에 따른 축약으로 설명하는 것이 온당하다.

다시 ‘-게 만들다’ 따위와 결합하면서 인과의 힘을 지닌 복합사건 구조를 표상해 줄 수도 있다(더워하게 만들다/뜨거워하게 만들다).

감정동사도 우리말에서는 낱말 파생구조가 감각동사와 비슷할 뿐더러, 또한 사건을 표상해 주는 방식에서도 일관된 틀을 따르고 있다.

‘기쁘다 → 즐겁다 → 기뻐하다/즐거워하다’ [→ 기뻐하게/즐거워하게 만들다]
(내부 감정동사 → 외부사건에 기인하는 감정동사 →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묘사동사)

낱말의 형태론적 구성에서 감각동사는 내파음 ‘ㅂ’[읍]으로, 감정동사는 외파음 ‘ㅂ’[브]으로 나뉘어 있어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경험주 의미역만 요구된다(1항 동사임). 그러나 ‘-업, -넙, -럽’ 계열의 접사를 지닌 동사는 경험주 의미역 이외에도 반드시 대상 의미역이 배당되는 논항을 하나 더 갖고 있다(2항 동사임). 이를 어휘 해체 방식으로 설명한다면, ‘기쁘다’에 대상 의미역이 더해진다면 ‘즐겁다’로 표상되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어하다’가 붙는다면, 화자가 한 사건을 관찰하고 있고, 그 사건 내용이 감각동사 내지 감정동사로 표상된다. 이때 당연히 감각 주체나 감정 주체는 관찰되는 사람이며, 그 사람에게 경험주 의미역이 배당된다. 단, 비-대격 동사 구문은¹⁴⁾ 대상역을 받는 논항이 반드시 비-대격으로 표지를 받게 되는데, 우리말에서는 주격을 받는다. 관찰자 겸 화자에 관련된 논항은 객관적 사실을 표현할 경우 언제나 잠재태 논항으로 바뀌어 표면 구조에 나타나는 일이 없다. 가령,

“영이가 기뻐하다.” (관찰자의 관찰 사건 묘사 “경험주와 내부 감정 표현”)

는 격외 괄호에 있는 내용만이 언어로 표상되어 있다(1항 동사). 즉, 경험주 ‘영이’가 현재 화자가 관찰하는 대상 사건의 주체이며, 이 표현은 영이의 내부 감정을 묘사하고 있다. 반면에,

14) 형용사 구문 등을 포함하는 이 구문의 논의는 레빈·뢰퍼포어호왓(Levin and Rappaport-Hovav 1995) 『비-대격 구문: 통사와 어휘의미론 접합면 (Unaccusativity: At the Syntax-Lexical Semantics Interface)』(MIT Press)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알렉시아두 외(Alexiadou, Anagnostopoulou, and Everaert 2004) 엮음 『비-대격 구문의 수수께끼: 통사-어휘 접합면에 대한 탐구 (The Unaccusativity Puzzle: Explorations of the Syntax-Lexicon Interface)』(Oxford University Press)에는 모두 12편의 글이 들어 있다.

“영이가 즐거워하다.” (위와 동일한 상황에 “경험주와 외부 사건에 기인한 감정 표현”)

에서는 화자가 관찰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는 영이의 특정한 감정을 일으키거나 촉발시킨 외부 사건(대상) 및 그 감정을 느끼는 주체를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2항 동사). 단, 필요할 경우에 감정을 일으킨 외부 사건은 이 구문에서 부가어(‘~ 때문에’, ‘~하여’ 등)로 도입될 수 있다. 이런 감정 표현도 또한 다시 외부 사건의 매개에 의해 인과 구조를 지닌 복합사건 연결체로 표현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우리말에서는 ‘-아게/-아하게 만들다’ 구문으로 표상된다. 감각동사는 다소 변동 폭이 제한적이어서 논항구조와 의미역 설정이 쉽게 이뤄지지만, 감정동사는 다음에서 보듯이

‘기쁜 소식/즐거운 소식, *기쁜 우리집/즐거운 우리집’
 ‘슬픈 인생/서러운 인생, 슬픈 영화/*서러운 영화’

와 같은 관형절 분포까지 고려한다면 자못 복잡하여,¹⁵⁾ 간단히 기계적인 적용만으로 문법성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짐작하건대, 추가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따위의 비-언어적 변수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¹⁶⁾ 이 방언의 연구에서 낱말에

15) 이들 대립 분포가 가지런히 다 찾아지는 것도 아니다. 내부와 외부의 대립 짝을 찾을 수 있는 감각동사는

‘덥다 : 뜨겁다, 춥다 : 차갑다, 아프다 : 괴롭다’

등이다. 그렇지만 짝을 찾을 수 없는 것들도 많은데, ‘답답하다, 시리다, (가슴이) 아리다, 가렵다, 마렵다’ 등이다. 감정동사도 내부와 외부의 대립 짝을 찾을 수 있는 경우는

‘기쁘다 : 즐겁다, 슬프다 : 서럽다, [두렵다] : 무섭다’

이다. 그러나 이런 대립을 찾을 수 없는 경우는 ‘(마음이) 가볍다/무겁다, 상쾌하다, 들뜨다, 싱숭생숭하다’ 등이다. 아마 대립 짝의 어휘는 우리가 자주 쉽게 겪는 전형적인 경험에 한정될 수 있고, 그 이외의 것들은 이런 어휘 의미의 틀을 따라 추가되는 것일 수 있다.

16) 동일한 낱말이라도 통사 구조가 서로 다른 경우들이 관찰된다. 우리말에서도 아무렇게나 주격 표지로도 나타나고, 때로 대격 표지로도 나타나는 사례들이 있으며, 이들을 놓고 여러 가지 설명이 배풀어져 왔다.

| 대나무를 휘다 | 병을 옮다 | 힘을 펴다 | 힘을 다하다 | 손목을 빼다 | 종을 치다
 | 대나무가 휘다 | 병이 옮다 | 힘이 펴다 | 힘이 다하다 | 손목이 빼다 | 종이 치다
 | 가슴을 조이다 | 손을 묶이다 | 엉덩이를 받히다 | 몸을 부딪히다 | 손목을 잡히다
 | 가슴이 조이다 | 손이 묶이다 | 엉덩이가 받히다 | 몸이 부딪히다 | 손목이 잡히다
 | 침을 튀기다 | 냄새를 풍기다 | 종을 울리다 | 막을 내리다 | 낮을 가리다
 | 침이 튀기다 | 냄새가 풍기다 | 종이 울리다 | 막이 내리다 | 낮이 가리다

초점을 모은 경우는 강정희(2005)에서 일부 찾을 수 있지만, 어휘 자체의 논의만을 독자적으로 다룬 논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듯하다.

기능범주는 통사론의 주인이며, 어휘범주처럼 두 가지 자질을 배합하여 네 가지 하위범주로 나뉜다. 종결어미 자질($\pm C$)과 시상 선어말어미 자질($\pm I$)이다. 이들이 배합되면 종결어미 [+C, -I], 연결어미 [+C, +I], 시상어미 [-C, +I], 일치어미 [-C, -I]가 나온다. 이 범주들이 모든 언어의 문법 현상을 말끔히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보편 문법을 상징할 경우에 가장 검박하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범주로 이해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매개인자를 찾아내고서 각 언어의 개별성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격은 낱말의 의미에 의해서 배당되는 경우(사격, 고유격)와 기능범주에 의해 배당되는 경우(정격, 구조격)로 나뉜다. 기능범주 핵어들은 자신이 지배하는 논항들을 이동시켜 여러 가지 문법 자질들을 배당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그런 이동들이 없으며(같은 말이지만 ‘제자리 이동’으로도 부름), 화용 조건에 따라 일정 정도 문법 요소들이 추가되어 덧붙을 수 있다. 이렇게 추가되는 특성은 구조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 특히 이 방언과 관련하여, 구조격의 경우에는 격 표지가 전혀 없이 발화되는 일이 허다하다(무표격 또는 부정격으로도 불러 왔음). 그렇다면 격 표지 실현과 관련하여 매개인자 설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생성문법의 시상어미는 시점들 사이의 대소 또는 등치 관계들을 나타내기에 안

-
- | | | | |
|------------------------|------------------------|----------------------------|-----------------|
| 차를 달리다 | 얼굴을 그을리다 | 차를 멈추다 | 마음을 상하다 |
| 차 <u>가</u> 달리다 | 얼굴 <u>이</u> 그을리다 | 차 <u>가</u> 멈추다 | 마음 <u>이</u> 상하다 |
| 울음을 그치다 | 힘을 뭉치다 | 목을 다치다 | 얼굴을 비치다 |
| 울음 <u>이</u> 그치다 | 힘 <u>이</u> 뭉치다 | 목 <u>이</u> 다치다 | 얼굴 <u>이</u> 비치다 |
| 힘/영향을 미치다 | | | |
| 바위를 움직이다 | 불빛을 깜박/반짝/번득이다 | 깃발을 펄럭이다/휘날리다/나부끼다 | |
| 바위 <u>가</u> 움직이다 | 불빛 <u>이</u> 깜박/반짝/번득이다 | 깃발 <u>이</u> 펄럭이다/휘날리다/나부끼다 | |
| 입을 빼죽거리다/실룩거리다 | 다리를 절뚝이다/절뚝거리다 | | |
| 입 <u>이</u> 빼죽거리다/실룩거리다 | 다리 <u>가</u> 절뚝이다/절뚝거리다 | | |

뢰퍼포어호뵈 · 레빈(1998) “동사 의미 수립하기 (Building Verb Meanings)”에서는 이런 현상이 인간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며, 동일한 낱말이 대격 표지로 나오는 경우에 행위나 과정을 가리키지만, 주격 표지로 나오는 경우에는 결과·상태를 표시해 준다고 본다. 레빈 · 뢰퍼포어호뵈(Levin and Rappaport-Hovav 2005) 『논항 실현 (Argument Realization)』(Cambridge University Press)의 제4장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한 설명 방식으로 적어도 네 가지 접근법들을 비교 검토하고 있어 도움이 된다. ① 초소론적 접근, ② 사건 전개 모습 접근, ③ 상 및 논항 실현 접근, ④ 사역 구조 접근이다.

성맞춤이지만, 양태(modality) 또는 양상을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영어에서는 특히 조동사 구문이 양태 또는 양상을 떠맡고 있고, 크게 이들을 인식 양태(앎 관련 양태)와 의무 양태(행위 관련 양태)로 대분해 왔다. 그러나 우리말과 이 방언에서는 양태 표현이 시간 또는 시상 표현과 뚜렷이 구별되어 표현되지도 않는다. 피상적으로만 보면, 양태 표현의 사용이 해당 사건에 대한 화자의 믿음 체계를 드러내어 줄 뿐만 아니라,¹⁷⁾ 또한 상대방이 듣게 된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수사학적 관점까지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시상으로 다뤄질 수 없다. 더욱 큰 돋보기를 들이대고 양태 표현의 동기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으며, 중요하게 매개인자로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말과 이 방언의 대우 표현은 일치 범주와 관련되어 있다. 영어가 성·수에 따라 일치(문법적 일치)를 구현한다면, 적어도 이 방언에서는 격식성·공식성(심리적 거리감) 여부에 따라서 일치(사회언어학적 일치)를 구현하고 있다. 형태론적으로도 고유하게 대우와 관련된 형태소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반말투에 화용 첨사가 덧붙여 결과적으로 대우의 효과가 생겨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측면도 응당 매개인자를 설정해 주어야 이 방언의 실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제주 방언의 통사 연구들을 개관하고 과제를 찾아내는 일에서 필자가 취한 태도는, 생성문법의 보편성을 염두에 두되, 이 방언에서 찾아지는 독특한 측면들에 대하여 명백히 매개인자들을 찾아내고 설정해 줌으로써 그 개별성을 부각해 놓고자 한다. 그리고 이 방언의 통사 형식들이 모두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생성문법의 틀 속에서 일부만을 논의하게 됨을 미리 밝혀 양해를 얻고자 한다.

17) ‘배 이야기’(Pear Story)로 불리는 자연스런 담화 연구의 표본을 실증적으로 보여 준 채이프(Chafe) 교수의 연구진에서는 양태에서도 서구 언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증거태’를 주장한 바 있다. 곧, 언어로 표현하는 사건이 ① 직접 화자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인지, ②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인지, 아니면 ③ 스스로 추론을 하는 것인지를 구별해 주는 일이다. 채이프·니콜즈(Chafe and Nichols 1986) 엮음 『증거태: 인식론의 언어적 부호화 (Evidentiality: The Linguistic Coding of Epistemology)』 (Alex Pub.)를 보기 바란다. 우리말에서 양태 표현 방식이 선어말어미뿐만 아니라 종결어미나 이들의 복합체로 나타난다는 논의는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국어학회, 태학사)를 보기 바란다.

Ⅲ. 명사 부류와 관련된 기능범주

이 방언의 격 조사들이 두 가지 시각에서 각각 연구되었는데, 기술 언어학 시각에서 처음 다룬 글은 일련의 강근보(1977a, 1977b, 1978)일 것이다.¹⁸⁾ 이어서 생성 문법의 시각으로는 격 조사들을 강정희(1984)에서 포괄적으로 다뤘다.¹⁹⁾ 이는 다시 강정희(1988)에서 제2장으로 수록되어 있다. 특히 강정희(1988)에는 당시에 논의되던 국어학 업적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보편이론 위에 매개인자를 찾아내고자 하는 의식이 명시적으로 적혀 있다. 매개인자들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그 이유를 탐색하고 있다. 기술 문법과 생성 문법의 근거한 두 흐름의 연구는 삼십 년이 지난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더라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동사를 중심으로 하여 관찰되는 격 조사는 크게 구조격(정격)과 고유격(사격, 어휘격)으로 나뉜다. 명사를 중심으로 하여 관찰되는 격조사도 또한 둘로 나뉜다. 하

18) 현평효 교수는 1982년 『제주도지』에 기고한 “제주도 방언 개관”의 ‘형태’ 부분에서 격 조사들을 간략히 다룬 바 있는데, 주격, 대격, 소유격, 절대격, 공동격, 열거격, 비교격, 처소격, 향진격이다(9개). 이는 현평효(1985) 제4 부에 재수록되어 있다. 현평효 교수의 글들은 단행본으로 모아져 있어서, 이 방언은 물론 우리말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그렇지만 이 방언의 실상을 잘 드러내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단행본으로 출간되지 않아 잘 거론되지 않는 듯한 업적들이 강근보(1972a, 1972b, 1975, 1977a, 1977b, 1978) 및 김홍식(1976, 1977, 1979, 1982, 1983, 1984)이다. 후학들에게指南(指南)이 될 수 있도록 속히 단행본으로 출간되기를 고대한다.

19) 이 방언의 자료를 다루는 측면도, 비록 스스로 이 방언의 모어 화자이더라도,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가급적 이미 입말 기록 자료집들로부터 다수 인용해 놓고 있다. 이런 신중한 자료 수집 태도는 대표적으로 일련의 고영진(2007, 2008)에서 찾을 수 있다. 아마 생성문법에서 인용되는 예문들의 비문법성 판정 여부에 대한 시비를 상당 부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길(?교육지책)로 판단된다.

임의의 예문에 대한 문법성 판정은 문법 제약 서술에 중요한 몫을 떠맡는다. 필자가 검토한 이 방언의 통사론 논문들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연구자들 간에 서로 직관 또는 통찰력의 차이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예문에 대한 문법성 판정 시비가 다수 생겨날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이다.

일부에서는 이런 문법성 판정 시비를 ‘수용 정도성’의 문제로 바꾸어 버리기도 한다. 필자는 이를 논점을 흐려 놓거나 얼버무리는 잘못된 접근으로 판단한다. 있고 없음의 문제와 많고 적음의 문제는 서로 별개의 것이다. 정도성의 문제는 언어 표현 방식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며, 직접 표현으로부터 간접 표현에까지 이르는 긴 띠를 이룬다. 정도성을 부각시키는 일은 언어의 본질과 언어의 사용을 뒤섞어 버리는 오류로 부를 수 있다(본질과 사용의 혼호 오류임).

벤담의 공리주의 표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말을 응용하여(패러디하여) 이 점을 쉽게 보여줄 수 있다. 고전 문헌으로부터 내려오는 언어 본질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모든 사람의 충분한 납득’이 필요한 옳고 그름에 관한 일이다. 그러나 한 개인의 언어 사용에 대한 논의는 전형적인 표현의 경우에 ‘최대 다수의 최대 이용’으로 말할 수 있다. 다만, 창조적인 작가들의 경우에 ‘절대 소수의 최대 율령’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본질의 문제는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모든 사람(인간의 이성)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지만 사용의 문제는 정도에 관한 문제이므로, 최대 다수이든지 절대 소수이든지 통계적 접근으로 설명 가능한 문제가 된다.

나는 어휘범주의 핵어 명사가 투영하는 구조에서 격이 표시되는 경우(관형격)이고, 다른 하나는 기능범주의 접속사가 핵어(&)로서 구조를 투영하여 표시되는 격(접속격)이다. 구조격은 주격과 대격을 가리키며, 각각 동사 핵어와 시상 형태소 핵어의 지배되는 구조 위에서 배당된다. 고유격은 구조격 이외의 격으로, 동사의 개별 의미 특징에 의해 그 동사가 요구하는 논항에 배당된다. 명사구가 확장되어 관형격이 배당되는 경우에도 문장으로부터 변형되어 나오는 경우와 고유하게 격을 갖고 있는 경우로 나뉘는데,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합성어(조어법)과도 경계가 겹쳐져 있다. 이들을 차례대로 다루어 나가기로 한다.

3-1. 구조격

흔히 주격과 대격을 싸안는 개념으로서의 구조격은, 전형적으로 문장에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치부되며, 핵어의 지배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격이 배당된다고 가정된다. 그렇지만 격의 구현에 있어서 이 방언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매개인자로 상정되어야 할 만큼 특이하다. 첫째, 격 표시 없이 발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기서는 이를 ‘무표지 현상’으로 부르기로 한다. 이를 강근보(1978: 56쪽)와 강정희(1988: 41쪽)에서 각각 ‘생략형’과 ‘생략이 활발하다’로 기술하였다. 이는 복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기본 표상이 구조적 지배에 의해 통사적으로 ‘무표지’가 실현된다고 본다면²⁰⁾ 전혀 다른 설명이 가능하다. 즉, 화용 또는 담화 층위의 동기에 의해 무표지와 대립되는 격 표시가 실현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방언의 무표지 현상과 대립되어, 격 표시가 붙어 나온 경우를, 강근보(1978: 59쪽 이하)에서는

“느간 헛 굽다.”(내가 조금 더 굽다)

와 같은 상태 표현에서 기능적 대립을 부각시키거나 또는

“웬당이 촌에서 왔수다.”(친척[眷党]이 시골에서 왔어요)

20) 화용적으로 청자와 화자 사이에서 명사구들이 쉽게 지각되거나 상대방 청자 또는 화자 자신과 같이 화용 맥락에서 충분히 알려져 정보가 잉여적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명사구조차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는 화용적으로 사건의 전개 단계나 사건의 속성 나열이 초점으로 부각되었을 경우에 그러하며, 서술어만 일부 담화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에서 강조를 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를 ‘유일하고 특별한 대상’으로 개념화하였다. 강정희(1988: 41쪽 이하)에서는 강조로 보고, 임의 구절이 문 앞으로의 이동할 수 있으며, 이것이 주격 표지와 대격 표지를²¹⁾ 부착시켜 놓는다고 보았다.

여기서 ‘강조’라는 개념은 다소 막연해 보인다. 필자는 좀더 가시적으로 붙들 수 있는 터전이 화용 또는 담화상으로 다음처럼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담화에서 화자와 청자가 서로 문답을 진행한다고 하였을 경우에, 화자 쪽에서 가정하기를 ‘의문사’(wh-word)로 표상되는 임의의 요소에 초점을 모음으로써 청자가 주의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하거나 배려한다고 서술될 수 있다.²²⁾ 화자 쪽에서 가정하는 의문사의 답변 낱말에 주격이나 대격 표지가 부착되면, 그 표지들의 존재 때문에 청자가 주의를 환기하여(감정이입의 형태로) 그 낱말에 초점을 모으는 것이다. 하나의 담화가 일관되게 하나의 주제를 놓고 전개될 적에, 하나의 문장에서도 초점이 하나 또는 둘 이상도 표현될 수 있다. 만일, 이를 통사 구조로 서술한다면, ① 임의 구조에다 새로 부가어 구조를 만들고서, ② 초점 요소를 새로 생긴 자리에 상향 이동시킨 뒤, ③ 이동이 일어났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가시적으로 ‘이/가’나 ‘를’이 덧붙여 놓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가령, 기본 표상은

[느 훔쉴 곱다]_{CP}

이지만, 이 구조에서 맨위의 범주를 그대로 복사하여 부가어를 만들고서 새로 빈 자리가 생겨나면

[[]_{Adjunct} [느 훔쉴 곱다]_{CP}]_{CP}

그곳으로 청자의 주의력을 붙들여 둘 요소를 옮기면서 동시에 화용 첨사(또는 보조사) ‘이/가’를 이동의 증거로 붙여 놓는 것이다.²³⁾

21) 자동사 구문에서 관찰되는 대격 표지도 ‘강조’로 설명하였는데, 임흥빈(1972)에서 상정한 ‘바대조적 대립’의 개념을 상정하였다. 필자는 이 개념 또한 청자에게 주의력을 모으는 기능에서 주격에서의 강조 기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해한다.

22) 가령, 앞 단락의 자료를 써서 이를 풀어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누가 훔쉴 고운가?”(누가 조금 고운가?)라고 청자가 묻는다고 가정하고서, 화자가 청자에게 “느가 훔쉴 곱다!”(네가 조금 곱구나)고 말하는 것이다. 즉, “훔쉴 고운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너이다!”(조금 고운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너이다)로 풀어쓸 수 있다. 똑같은 방식으로 “누가 시골에서 왔는지 알아요? 바로 권당(眷堂) 구성원 한 사람이에요.”로 풀어쓸 수 있다.

23) 임흥빈(1979)에서 용언의 ‘어근 분리 현상’으로 기술된 사례도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을 듯하다. ① 청자의 주의력을 붙들기 위하여 임의 구조에다 새로 부가어 구조를 만들고서, ② 초점 요소를 그곳으로

[[느]가 [t_i ㅎ쫄 곱다]_{CP}]_{CP}

강근보(1978: 65쪽)과 강정희(1988: 38쪽 이하)에서는 모두 이 방언에서 관찰되는 독특한 주격 조사 ‘레’²⁴⁾ 또는 ‘라’를 다루고 있다. 아마 ‘라’에서 개구도가 작은 ‘레’로 진행되었을 듯하다. 이 방언을 모어로 하는 50대 후반의 필자가 아직 직접 들어보지 못한 옛 모습의 격 표지이다. 특히 강정희 교수는 입말 기록물로부터 자료를 옮겨 놓고, 평안 방언 · 안동 방언 · 중세 국어 등에서 유관한 자료들을 같이 거론하면서, 홍윤표(1975)에 기대어 계사의 활용 모습 ‘이라’로부터 기원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사람이 누게랑/누게랑으네/누게라 우리 집의 오라시코?/오라실꼬?”

(그 사람이 누구이길래/누구이라서 우리 집에 왔을 것인가?)

만일 ‘-이길래, -이라서’로 대응되는 구문이 참이라면, 이는 부가어 구문이며, 계사의 연결 어미 모습을 ‘누구이라’처럼 단일 어절로만 파악하여 주격으로 지정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그렇지만 이런 구문을 해당 사례들에 모두 복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사로부터 이 격 표지를 유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방언에서 ‘라’ 또는 ‘레’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을 이들 선업에 기대어 더 세밀히 조사하고 찾아낼 필요가 있다.

이동한 뒤에, ③ 그 요소가 이동되었음을 표시해 주기 위하여 가시적으로 화용 첨사(또는 보조사)인 ‘를’을 붙이는 것이다(단, t는 이동된 뒤 남은 흔적 trace이고, ‘i’는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지표 index 임).

[공부하다] → [[공부]를 [t_i하다]]

24) 강근보(1978: 65쪽)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예문을 들었다. 형태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필자가 표기를 조금 고쳐 놓았는데, 이하에 있는 인용 사례들은 모두 형태를 밝히어 적기로 한다.

- ㉠ 손지레 서울 간덴 ㅎ여라(손자_가 서울에 간다고 하더라)
- ㉡ 아시레 이 집의 살았저(아우_가 이 집에 살고 있다)
- ㉢ 송아지레 석을 그치다(송아지_가 고삐를 끊다)

강정희(1988: 38쪽)에서 인용한 여러 사례들 중에서 몇 개만 보이면 다음과 같다.

- ① 알동네 각시관 애길 배여신게(아랫동네 새색시_가 아기를 배어 있구나)
- ② 물에는 출내라 나고, 팔내라 나고... (물에는 꼴/풀 냄새_가 나고, 갯벌 냄새_가 나고,...)
- ③ 접시 두 개라 옷구나(접시 두 개_가 없구나)
- ④ 물 막은 섬이라 갈 수라 싯느냐?(바닷물로 막힌 섬이라서 갈 수_가 있겠느냐?)
- ⑤ 누게라 되느냐? 새로 온 금상이 됩니다(누구_가 되느냐? 새로 온 현 임금[수]이 됩니다)

둘째, 동일한 격들이 복사되어 계속 나올 수 있다(격 중출 현상). 격 중출뿐만 아니라 복수 접미사 ‘들’도 임의의 발화 안에서 계속 복사되어 나올 수 있는데, 동일한 범주의 언어 형식만이 아니라 종결어미 뒤에까지 복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너희들 다들 오너라들!). 비록 논리형식에서 부정 표현이나 수량 표현이 양화사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으므로, 격 중출과는 구조적 특성이 다르겠지만, 계속 복사하여 부착한다는 점은 청자로 하여금 복수의 대상에 의한 복수의 사건임에 계속 주목하도록 하는 화용적 효과를 노린 것이다. 격 중출 구문의 기본 표상은 강정희(1988)에서는 속격 관계나 수량사 구문, 그리고 대소 또는 포함 관계로부터 몇 가지 제약 조건이 만족될 경우에 나온다고 보았는데, 1980년대 초반까지 국내 언어학자들이 논의한 내용들을 충실히 검토한 바탕 위에서 나온 결론으로 평가되며, 이에 대해서는 여기서 따로 다루지 않는다.

3-2. 고유격

고유격은 해당 명사구가 핵어(동사나 형용사)의 고유한 의미자질에 따라 투영되어 나온다는 뜻으로 붙여졌다. 동사의 의미자질에 따라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므로 사격이라고도 불린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격을 설정하는 숫자가 서로 다르다. 먼저 두 극점을 설정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구별 가능한 고유격을 충실히 기술하기 위하여 ① 소재나 움직임과 관련하여 처소격·여격·출발격(탈격)·목표격·방향격·연격(경과격), ② 대상이나 일의 기원 또는 일의 수행 방식과 관련하여 자격격·원인격(이유격)·도구격, ③ 둘 이상의 대상 또는 사건과 관련하여 비교격·공동격(여동격) 따위를 각각 따로 설정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몇 가지 기본 개념들로부터 동사 의미가 추가되어 다양하게 여러 가지 고유격들이 생성되어 나온다고 보고서, 앞의 세 가지 부류의 격들의 추상적인 자질을 범주로 만들고 최소한의 고유격만 상정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이들 두 태도 사이에서 중간 지점의 관점을 취하기도 하는데, 가장 세밀하게 나누어 놓는 고유격들 중에서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일 형태와 둘 이상의 형태가 결합된 경우들을 구분하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강근보(1977b)에서는 고유격 조사 ‘드레’를 놓고서 세 가지 조건을 기술하였다.

① 사람과 관련된 명사구에 붙으면 여격으로, ② 수사나 사물 대명사 뒤에 붙으면 처격으로, ③ 그밖의 경우는 움직임의 방향을 가리키는 향격으로 구현된다는 것이다. ‘드레’는 기원적으로 곳(장소)을 가리키는 ‘ㄷ/디’와²⁵⁾ 방향을 가리키는 접사 ‘-레’가 결합되었다고 보았으며,²⁶⁾ 또한 이 격조사는 다시 복합 형태의 격조사를 만들어낸다. 즉,

‘안트레’ (안쪽으로)

‘신드레’ (있는 곳으로)

로 결합하여 여격으로 쓰인다고 논의하였다. 강근보(1978)에서 처격·여격·공동격을 다루면서 ‘에, 의/이,²⁷⁾ 에서/의서/서, 드레’ 등의 형태를 논의하였는데, ‘드레’만 제외하면

“이와 같은 처격의 용법에서 방언적 특색을 찾기 어렵다.”(강근보 1978: 81쪽)

25) 국어사에서는 조어의 재구성 형태를 별표 ‘*’로 표시하는 관행이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생성문법에서 관용적으로 쓰는 비문을 가리키는 약속으로만 쓰기로 한다. 따라서 이와 혼동을 피해서 대신 단검(dagger) ‘†’ 기호로 바꿔 쓴다. 별표 ‘*’는 타자기를 쓰던 시절에 ‘+’와 ‘x’를 합쳐 쉽게 만들 수 있었던 기호였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애호되었던 듯하다.

‘ㄷ’라는 재구성 형태는 현대 국어(이주행 1986 “의존명사의 의미 분석”, 『임동권 박사 송수기념 논문집』)와 중세 국어(정호완 1987 『후기 중세어 의존명사 연구』, 학문사)에서 찾아지는 유관 형태들과의 관련성 때문에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비슷하게 가정된 바 있다. 이 방언과 관련하여 강정희 교수가 문법화 과정과 관련시켜 두 편의 논문(1980, 2000)을 발표한 바 있고, 모두 강정희(2005)에 재수록되어 있다.

26) 고(故) 강근보 교수는 이 형태들이 6세기 신라노래에서는 각각 ‘矣’(디·이)와 ‘良’(라)에 대응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방언의 ‘드레/디레’에 대응하는 복합격 ‘†矣良’이며, 더 나아가 이 방언의 ‘안트레’와 ‘신드레’에 대응하는 ‘†內矣良’과 ‘†在矣良/†存矣良’을 상정할 수 있다(모두 필자의 재구성 형식임). 이런 복합격들이 모두 뒤에 나오는 핵어 동사가 반드시 최소한 ‘움직임’과 ‘방향성’이라는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런 접근법을 충실히 좀더 확대한다면, 아마 신라노래에 대한 새 연구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문장을 투영하는 핵어 중심 또는 의미자질 중심 해독법이라고 부를 법하다. 그런데 이런 복합격을 과연 현재 남아 있는 신라노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은규·노은주(1991) “항가 용자레 연구”, 효성여대 『한국 전통문화 연구』 제7집을 보면, 신라노래에서矣는 17회(균여전에는 1회), 良은 23회(균여전에는 21회) 나온다. 그렇지만 ‘†矣良’의 복합격은 찾아지지 않는다.

27) 2014년 공포된 제웃어 표기법에서는 한자어를 제외하고서 이 방언의 발음으로 이중모음 ‘의’를 인정하지 않고, 다만 단모음 ‘이’를 쓰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는 표면 발음 모습만을 따라 적을 수는 없다. 심층에서 문법 형태소를 구별하여 다뤄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중모음 ‘의’를 상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의/이’처럼 병기하도록 하겠다. 가령 ‘드레/디레’로 표기된 것도 기본 형태를 ‘디레’로 잡고, 이 방언의 표면형에서 단모음으로 나오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옳은 방식으로 판단한다. ‘남의’(타인의)라는 발화도 이 방언의 표면형에서는 ‘ㄴ므/ㄴ미 집’(남의 집)로 나오므로, 기본 형태를 ‘놈의’로 잡아야 함을 쉽게 알 수 있다.

고 보았다. 아마 ‘에’와 ‘의/이’가 수의적으로 교체되는 듯이 보았던 듯하다. 그렇지만 필자의 직관으로는 ‘에’와 ‘의/이’는 전형적인 쓰임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부류들에는 오직 ‘에’만 결합하고, 결코 ‘의/이’가 결합된 모습이 관찰되지 않는다.

- ㉠ 시간 표현: 식겻날에(제삿날에)/*식겻날의, 혼날 혼시에(한날 한시에)/*혼날 혼시의
- ㉡ 물건 담는 용기: 구덕에/*구덕의, 항아리에/*항아리의, 차롱에(채롱에)/*차롱의
- ㉢ 신체 부위: 입땡이에(이마에)/*입땡이의, 손콍에(손톱에)/*손콍의, 팔에(팔에)/*팔의
- ㉣ 경계가 닫힌 대상: 밥상에/*밥상의, 안거리에(안채에)/*안거리의, 고팡[庫房]에/*고팡의
- ㉤ 외연이 확정된 일부 명사: 느 때문에(너 때문에)/*따문의, 그 값에(그 값에)/*값의

이와는 반대의 경우가 있다. ‘의/이’가 결합된 모습이 제주 방언처럼 들리고, 이를 수의적으로 ‘에’로 바꾼 경우에 서울말처럼 들리는 경우인데, 편의상 ‘의’로만 써 둔다.

- 첫째, ‘밤, 낮’과 같은 시간 표현: 밤의 나뎡기지 말라!(밤에 나다니지 말렴!)
- 둘째, ‘집, 바당(바다), 낭ㄱ(나무)’와 같은 빈출 명사: 집의 글라!(집에 가자!)
- 셋째, ‘앞, 뒤, 안, 밖, 위, 아래, 옆, 곁’처럼 방향을 가리키는 명사: 앞의 보라!(앞에 보렴), 옆의 놓라!(옆에 놓으렴), 머리 우트 낫저(머리 위에 났다), 밖의 싯저(밖에 있다)

한편 ‘의/이’는 지시 대명사와 곳(장소)을 나타내는 명사 ‘ㄸ’(데)에 결합하여 ‘이되/이디(여기), 저되/저디(저기), 그되/그디(거기)’로 쓰일 뿐만 아니라, ‘밧되’(밭에)나 ‘숯되’(술에)에서는 처소격으로 쓰인다. 앞의 ‘의/이’가 빈출하는 환경 및 이런 결합들을 고려하면서 제약 조건들이 찾아져야 할 듯하다.

강정희(1988)에서는 고유격으로서 처격·기구격을 다루었다. 처격은 A류(되, 레, 되레, 이, 예, 에, 이서, 으로)와 B류(안되, 앞의, 신되)로 나누었는데, B류는 유정물

에 붙는다고 보았다.²⁸⁾ 그렇다면 처격을 여격과 함께 취급한 셈이다. 그렇지만, 그녀는 여격이란 범주를 인정하지 않고, 대신 ‘유정물 처격’으로 재범주화한다(77쪽~78쪽). 강정희(1988: 67쪽)에서는 ‘의/이’가 붙을 수 없는 사례로서

‘꿈에/*꿈의’(꿈에), ‘신에/*신의’(신발에)

를 제시하였으나, 왜 그런지에 대한 탐색이나 논의는 없이 현상만 기술하였다. 장차 좀더 정밀한 관찰을 통하여 ‘에’의 ‘의’의 분포 차이를 확정한 뒤에,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²⁹⁾

28) 조상신이나 귀신 등에도 이런 격이 붙을 수 있다. “초상[祖上]신되/할망당앞의 빌다.” 그렇지만 이들은 살아 있는 존재가 아니다. 유정물과 무정물의 구분은 생명체인지 여부에 따라 나뉘는데(대략 생물과 무생물에 해당함), 그렇다면 이들을 ‘무정물 처격’이라고 불러야 할까? 아니다. 오히려 여격이라고 서술하여, 여격이 전형적으로 사람을 목표로 삼아 쓰인다고 본다면, 여격이 쓰이는 ‘사람’ 속성이 확장 또는 유추되어 귀신까지 포함할 수 있을 듯하다.

29) 이 일이 간단치 않음을 쉽게 다음 사례로 짐작할 수 있다. 이 방언에서는 언제나 무표지로 나오는 ‘나 책, 나 옷, 나 밧’에 대해서 그 짝이 되는 낱말 ‘늬’(남)에서는 언제나 ‘늬의 책, 늬의 옷, 늬의 밧, 늬의 집’과 같이 반드시 ‘의’를 요구한다(²⁹⁾늬 책, ²⁹⁾늬 옷, *늬 밧, *늬 집). ‘사름’(사람)의 경우에는 ‘의’의 실현 여부로써, 다른 구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사름의 주·석’(사람의 자식)은 동격 구성이다. 마치 ‘성웅 이순신, 성군 세종대왕, 대도 조세형’ 따위처럼

“사름의 주석이 그럴 수 있느냐?”(사람의 자식이/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느냐?)

라는 말은,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느냐는 반문이나 욕설이다. 그렇지만 ‘그 사름 주석’(그 사람 자식)에서는 무표지로 나온다.

일전에 필자는 우리말 수량사 구문을 다루면서 기본 표상이 ‘명사구 + 수량사 표현’으로 보았고, 언급하는 숫자가 완벽히 정해져서 전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량사 표현’이 앞으로 이동하여 ‘의’를 지닐 수 있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김지홍 2010 『국어 통사·의미론의 몇 측면: 논항구조 접근』 도서출판 경진 제2부). ‘사과 둘’이란 표현은 대상이 적어도 둘 이상 있다는 속뜻이 깔려 있지만, ‘두 개의 사과’는 대상이 언제나 둘밖에 없는 경우에만 쓰인다. 만일 이를 응용한다면, 전체 대상의 수량을 표현하는 구조가 이어지는 명사구와 동격 구성을 이룬다고 상정할 만하다. 외연의미만을 따질 경우에 전체 숫자 해석이 그대로 유지되는 길은 오직 동격 구성일 뿐이기 때문이다(동격 구성에서는 각 형태의 내포의미만이 차이가 난다). ‘의’가 붙어 있다면, 비로소 통사적으로 더 앞으로 이동해 나갈 수 있으며

[엄청난 [그의 실수] → 그의 [엄청난 [그 실수]]

그 결과 마치 ‘의’ 뒤에 꾸밈말을 허용하는 듯이 보일 수 있다(그의 엄청난 실수). ‘의’가 붙어 나오므로 이 뒤에 나오는 명사를 찾을 때까지 통일된 하나의 해석 구조체로 관념하는 셈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변별적인 통사 구성을 만들어 내려면, 아마도 동격 구성이 등위 또는 병렬 접속을 이루는 핵어처럼 기본 표상에서 ‘의...의...의...’와 같은 모습을 지니되, 맨 마지막 ‘의’는 의무적으로 삭제되어야 한다는 유평적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을 듯하다. 이렇게 취급하는 까닭은, 필자가 주장하려는 낱말보다 좀 더 큰 ‘어절’ 단위에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으로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3-3. 명사구에 관련된 격

동사에 의해서 유도되지 않고, 오히려 명사에 의해서 유도되거나 또는 발화를 개시하기 위해 주목하도록 요구하기 위하여 쓰이는 형태들이 있다. 이른바 접속격·호격·관형격·속격들인데, 명사와 인접해 있다는 점 이외에는 같은 계열로 묶이지 않는다. 호격은 문장 층위가 아니라, 발화 층위에서 도입된다. 상대방에게 주목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관형격과 접속격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언어 형식을 이어나가는 일이다. 비유하자면, 전자가 탑을 쌓아 나가듯이 계속 상하(점층·점강) 의미 관계인 속격 또는 몸통에 날개를 달아 놓는 관계인 관형격이다. 그렇지만 후자는 나열이나 병렬을 가리키므로, 계속 좌우 또는 앞뒤로 지평을 넓혀 나가는 관계이다. 또한 일부에서 관형격과 속격을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기도 하지만, 의미상 엄격히 따져보면 서로 다르다.³⁰⁾ 그렇지만 임의의 문장이 명사구로 표현되는 경우³¹⁾

‘철수가 영이를 사랑한다’ → ‘철수의 영이 사랑’ → ‘철수의 사랑’

이들에서 찾아지는 ‘의’에는 더 이상 소속이나 소유란 의미가 전혀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소속과 소유의 관계를 찾을 수 없는 것들을 포괄하기 위하여 관형격이란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하여, 의미상의 관계를 찾을 수 없는 표현을 포괄하기 위하여 문법상의 관계를 개념화해 놓을 필요가 있다. 접속격은 적어도 세 가지 계열로부터 유도된다고 알려져 있다. ‘싸우다, 다투다’와 같은 동사가 그 의미자질 때문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동일한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만들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김완진 1970에서는 처음으로 ‘문접속’이라고 불렀음), 동사와 관련 없이 명사구들을 접속하기 위한 경우가 있다(김완진 1970에서는 ‘구접속’으로 부름). 맨 뒤의 경우의 핵어는 접속사(&)이므로, 비록 표면상 동일한 격 표시

30) 속격은 소속되어 있음을 뜻하므로 소속과 소유(또는 ‘보유’로도 부름)를 포괄한다. 일부에서는 소유를 양도(alienation) 가능성 여부로써 더욱 잘게 나누기도 한다. 가령, 사람의 팔뚝과 같은 것은 결코 양도하거나 팔 수 없는 대상이다.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책은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 대상이다.

31) 임의의 명제는 언제나 문장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명사구로 나올 수 있다. 어떤 모습으로 실현되느냐에 따라 표현의 가치가 달라진다. 이는 비판적 담화 분석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이다. 자세한 논의는 페어클롭(Fairclough 2003, 김지홍 뒤집 2012) 『담화 분석 방법』(도서출판 경진)의 제8 장 ‘사회적 사건의 표상’을 읽어 보기 바란다. 문장으로 표현되면 듣는 이들이 즉시 그 참값 여부를 따질 수 있지만, 명사구로 표현되면 이미 참값이 주어져 있고 대상으로 확립되어 있어서 누구에게나 확정적인 듯이 관념되기 일쑤이다.

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저 표상에서는 전혀 다르게 설정된다.

이 방언의 현상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매개변인으로 확정되어야 할 사안은, 필자가 판단하기에 우선 ‘무표지’ 현상이 있으며, 다음으로 속격으로 잘못 다뤄져 온 격 표지 ‘네’ 및 ‘ㅅ’의 문제가 올바르게 고쳐질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접속격과 관련된 논의는 유보하기로 한다. 무표지 현상은 이 방언의 발화에서 무엇을 기본 단위로 파악해야 할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언어 현상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2013년 이 방언의 표기법을 정하는 모임에 참석하여, 띄어쓰기의 문제를 다룰 적에, 맞춤법의 기본 단위인 ‘낱말’(단어)는 잘못 설정된 것이고(1930년대 당시의 언어학계 수준을 반영함), 이보다 조금 더 큰 단위인 ‘어절’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비록 너무 이례적인 발상처럼 취급되어 받아들여지지지는 않았지만, 이는 생성문법에서 통사론의 기본 단위를 낱말이 아니라 오히려 문장으로 취급한다는 자명한 사실로부터도 쉽게 연역될 수 있다.³²⁾ 가령, 다음과 같이 말을 축약할 경우에 두 가지 가능한 방식이 있다.

① 이 아이 → 이 애 → 애

② 이 아이 → 아이

①은 공통어에서 관찰될 수 있는 자연스런 준말 생성 과정인데, 송철의(1993: 21 쪽)에서 ‘이 아이’가 ‘이 애’를 거쳐 ‘애’로 줄어든다고, 결코 ‘*야이’로 줄어들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렇지만 공통어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② 형식이 이 방언에서는 완벽히 가능하고, 오히려 자연스럽다. 공통어에서는

‘저 아이 → 저 애 → 재’

‘그 아이 → 그 애 → 개’

32) 생성문법에서는 1980년대에 이르러 임의 구절 ‘XP’의 형식을 확정된 바 있다. 문장은 기능범주의 구절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어휘범주의 투영을 논항으로 갖게 된다. 어휘범주의 투영도 또한 임의 구절을 만들어 놓는다. 임의 구절 ‘XP’란 말의 뜻은, 결국 핵어의 투영에서 뭔가를 더 덧붙여 놓은 형식이 ‘자족적 단위’가 됨을 의미한다. 필자는 최소한의 자족 단위가 낱말(단어)가 아니라 이보다 조금 더 큰 어절로 봐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만일 이 주장이 옳다면, 우리글 띄어쓰기도 결국 어절 단위로 이뤄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국어학 전문가들조차 어렵게 여기는 띄어쓰기·붙여쓰기의 착종(특히 이익섭 1992 『국어 표기법 연구』 서울대출판부, 395쪽의 저자 각주 35를 보기 바람)은 결국 기본 단위를 잘못 잡은 데에서 말미암는 필연적 귀결에 지나지 않는다. 이 방언에서의 명사구에서 찾아지는 현상(특히 준말 현상)은 자연스럽게 우리말의 기본 단위를 ‘어절’로 잡도록 실증해 주고 있다.

에서도 동일한 축약이 일어나고, ‘*자이/*자이’나 ‘*가이/*가이’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방언에서는

‘저 아이 → 자이, 그 아이 → 가이, 이 아이 → 야이’

가 모두 완벽히 가능하고, 아주 자연스런 표면형이다.

이런 차이를 매개인자로 만들어 규칙 적용의 차이가 빚어낸 결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낱말보다 좀 더 큰 단위가 필요하다.³³⁾ ‘이 아이’는 현재 학교문법에서는 명사구라고 부르는데, ‘철수의 영이 사랑’까지도 명사구로 불린다. 그렇다면 후자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확장 가능한 ‘명사구’라는 말보다 더 작은 단위를 가리키는 말이 필요하다. 아마 ‘어절’ 정도가 그 후보가 아닐까 판단된다. 만일 어절이 성립 가능하다면, 격조사는 낱말(단어)에 붙는 것이 아니라, 낱말보다 조금 더 큰 ‘어절’에 다 붙는 것이다.

무표지 형식은, 강정희(1988: 92쪽 이하)에서 두 개 명사가 서로 관련될 수 있는 형식을 모두 5개 유형으로 기술하면서,³⁴⁾ ‘명사 ∅ 명사’를 B형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렇지만 다섯 유형이 평면적으로 병치되어 있어서, 이것이 기본값 구조임을 논의하는 데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먼저 속격이나 관형 구성으로 잘못 기술되어 온 ‘네’를 놓고서, 왜 그런 주장이 잘못된지를 명시적으로 따져 나가기로 한다. 다음에 ‘ㅅ’(‘사이시옷’ 구문으로 부를 수도 있음)이나 복합 형태인 ‘읻, 앻’을

33) 단, 여기서 제1 음절에 초성 자음이 있으면 필수적 단모음화가 진행되어, ‘가이 → 가이, 자이 → 자이’로 도출되어야 한다(‘ㅈ’은 이미 구개음화된 ‘ㅈ’이므로, 이 방언을 비롯하여 현대 국어에서는 [자]나 [가]가 서로 구분되지 않음). 공통어에서는 이미 ‘아이’와 ‘애’가 복수 어간(복수 어형)으로서 반드시 수의적 교체를 보이고 있어야만 송철의 교수의 주장이 성립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방언에서는 ‘아이’만이 단일 어형(홀 어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제주대 박물관(2005), 송상조(2007), 제주문화예술재단(2009)에서 모두 표제 항목으로서 ‘애’가 들어 있지 않음에 주목하기 바란다. 또한 지시사와 명사가 한 덩어리를 이루어 어절 단위의 명사구로서 하나의 기능(단일 지시 기능)을 맡고 있으므로, ‘이 아이’에서 음절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재음절화가 이뤄져 비로소 ‘야이’로 음절이 줄어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독특하게 공통어에서 관찰되는 ‘나의 책, 너의 책, 그 사람의 책’이라는 구 단위가, 이 방언에서는 속격 조사의 매개 없이 ‘나 책, 느 책, 그 사람 책’처럼 표상된 다음에, 급기야 한 낱말처럼 행동하여 ‘나책, 느책 그사람책’으로 발화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시사와 명사가 결합되어 명사구를 이루는 경우와 소유 주체가 소유물과 긴밀히 결합되어 명사구를 이루는 경우가 하나의 자연스런 부류의 구조로서 한 낱말처럼 행동하는 듯하며(더 정확히 말하여 낱말보다 좀 더 큰 단위로서 ‘어절’을 상정할 수 있음), 이것이 기본 표상으로 파악된다. 인칭 대명사 ‘나, 느/너(나, 너)는 서울 말처럼 ‘내, 네’로 나오는 경우는 이 방언에서 관찰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34) 강정희(1988)에서 A형은 ‘명사의 명사’, B형은 ‘명사 ∅ 명사’, C형은 ‘명사앻 명사’, D형은 ‘명사ㅅ 명사’, E형은 ‘명사네 명사’로 제시되어 있다.

놓고서 이것 또한 속격이나 관형 구성이 아님을 논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남아 있는 것이 ‘의’를 매개로 한 관형 구성이다. 이는 기본값으로 상정되는 속격 구성의 무표지 형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다뤄야 할 것인데, 엄청 복잡하고 논의 범위를 통제할 수 없는 주제이다. 그러므로 임시 이 글에서는 오직 속격 구성이 아니라 유표적인 관형 구성이라고 하여 범주를 달리 부여하는 정도에서 그치기로 한다.

‘네’를 격표지로 다룬 첫 논문은, 오로지 ‘네’만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언어학 및 국어사의 방대한 자료들을 동원하여 깊은 논의를 진행한 강근보(1977)에서이다.³⁵⁾ 필자는 이 글로부터 많은 사실들을 배웠음을 밝혀 고마움을 적어둔다. 그러나 필자는 ‘네’가 속격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증 사례들 두 가지가 너무나 명백하므로, 속격이라는 주장에 오류가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첫째, ‘네’는 한 사람의 소속을 표시해 주는 접미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 소속이라는 의미자질이 곧 ‘집단’을 함의하므로, 자연스럽게 복수의 뜻도 표시해 준다고 판단한다. 우리말의 하위 방언인 제주 방언에서도 또한 복수를 나타내는 접미사 ‘덜/들’(들)이³⁶⁾ 쓰인다. 그렇지만 ‘덜/들’(들)은 둘 이상의 개체가 있음을 가리키므로, 결과적으로 복수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네’와는 기본 의미자질이 서로 다르다. 이런 사실은 명백히 다음과 같은 통합체로 실증된다.

‘가이네덜 주장’(개네들 주장, 그 아이네들의 주장)

‘야네덜 사진’(애네들 사진, 이 아이네들의 사진)

‘자네덜 옷’(재네들 옷, 저 아이네들의 옷)

만일 ‘네’가 속격이었더라면, 속격 뒤에 다시 복수 접미사 ‘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복수 접미사는 낱말을 만드는 데에 쓰이므로, 반드시 격 조사 보다는 선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통어에서 ‘개네들의 모임’과 같이 속격 내지 관형격 ‘의’는 반드시 개별체를 하나하나 가리키는 복수 접미사 ‘들’ 뒤에 나온다는

35) 강근보(1977) “속격 {-네}의 연구: 제주도 방언의 {-네}를 중심으로”, 제주대학 『논문집』 제8집, 11쪽~27쪽인데, 기술 언어학의 부호 약속으로 모두 짧은 줄표(하이픈)를 붙여 놓고 있다. 의존 형태소임을 표시한다. 이 글에서는 조사를 낱말(단어)로 보는 입장을 따라, 조사에는 짧은 줄표를 붙이지 않고, 오직 어미와 접사들에만 붙여 놓기로 한다. 단, 선어말 어미는 앞뒤로 모두 다른 형태들이 붙어야 하므로 양 옆으로 짧은 줄표를 붙여 놓았다.

36) 형식 명사로 규정되어 띄어 쓰도록 하는 ‘들’은 글말에서만 그 효력을 찾을 수 있기에 논의에서 제외해 둔다. 만일 이들이 동음이의어가 아니라 다의어적 확장이라면 복수 개체를 하나하나 가리키는 기본 의미에서 매거하는 기능을 부각시켜 부가 의미를 도출할 소지도 있다.

사실로써, 이 점을 명백히 확정할 수 있다. 범주가 서로 다른 것이다. 오직 명사 뒤에 나온다는 사실에만 주목하여 접미사를 격조사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속 접미사 ‘네’와 둘 이상의 개별체를 가리키는 복수 접미사 ‘들’이 통합 관계를 이름에 주목하기 바란다. 이 통합 관계는 개념 형성 과정으로 보아 거꾸로 이뤄질 수는 없다. 반드시 소속이 되어야 집단이 나오고, 집단은 언제나 둘 이상의 복수 개체가 있으며, 그 복수 개체를 하나하나 가리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적으로 대립시켜 의미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야네 사진’(애네 사진)은 만일 사진 속에 피사체가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쓰일 수 있다(가령, ‘애네 집 사진’처럼). 그렇지만 ‘야네덜 사진’(애네들 사진)에서는 피사체에 찍힌 것이 바로 그 아이들로 해석된다.

둘째, 만일 ‘네’가 속격이었다면, 이 방언에서 다음과 같이 ‘낭ㄱ’(나무)와 결합된 표현이 아무런 지장도 없이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³⁷⁾

‘*그 낭네 고장’(그 나무네 꽃)

‘그 낭ㄱ 고장’(그 나무의 꽃. ‘낭ㄱ, 낭그, 낭기’라는 발음이 모두 가능함)

‘그 낭 고장’(그 나무 꽃)

그렇지만 ‘*낭네’는 결코 말해지지 않는다. ‘나무’가 사람처럼 임의 집단에 소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낭ㄱ’에 ‘의’가 붙은 ‘낭기’가 가능하며, 또한 [낭 꼬장]으로도 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사이시옷이 들어갈 수 있을 듯하다.

다음으로 ‘ㅅ’이 들어가 있는 사례들을 보기로 하겠는데, 이 형태소에는 ‘엿, 잇’도 복합격의 형태로서 같이 다뤄져 있다. 후핵성을 따르는 우리말의 질서로 보면, 복합된 형태들에서 맨 뒤에 붙어 있는 형태일수록 핵어로(지배의 주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³⁸⁾ 강근보(1978: 74쪽)에서는 ‘ㅅ’(사이시옷)뿐만 아니라 ‘ㅎ’(사이히

37) 이 방언의 ‘고장’은 꽃을 가리킨다. 접미사 ‘-앙’과 ‘-앙이’가 서로 다른 계열로 낱말을 합성할 가능성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이다. 호박 줄기에 호박고장(호박꽃)이 있고, 매화낭(매화나무)에 매화고장(매화꽃)이 핀다. 그렇지만 ‘불꽃, 눈꽃’의 대응 형태인 ^{??}불고장, ^{??}눈고장이라는 합성어는 필자의 느낌에 매우 어색하다. 왜 그런 것일까? 본디 그런 합성어가 이 방언에 없어서일까? 그 이유를 아직 필자로서는 잘 알 수 없다.

38) 이 글에서는 ‘복합격’에 대해서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우리말에서 둘 이상의 형태로 분석할 수 있는 격 형태가 있는데, 이들을 통칭하여 복합격이라고 부를 수 있다. 복합격을 논의할 경우에, 구조격에서 복합적인 격 형태와 고유격에서 복합적인 격 형태는 서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구조격에서는 덧붙는

웅)도 논의하였지만, 강정희(1988)에서는 다루지지 않았다. 필자는 전자의 기술이 더 올바르다고 판단한다. 뿐만 아니라 ‘ㄴ’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른바 ‘사이시옷, 사이히웅, 사이비읍’ 현상이 동일하게 자연부류를 이룬다.³⁹⁾ 한글 맞춤법에서는 사이시옷을 음운 현상으로만 보았었다.

그런데 임홍빈(1981)에서는 사이시옷이 관찰되는 언어 환경에 통사적의 동기가 깃들여 있음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가령, ‘부사 + 명사’(눈에 가시→눈엣가시; 아래 사람→아랫사람)나 ‘동사어간 + 명사’(건너 방→건넛방; 새 별→셋별)와 같이 비정상적임에 주목하고, 이를 통사적인 과거 환경이라고 불렀다. 사이시옷은 이런 과거를 막고 명사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결론지었다. 그렇지만 ‘명사 + 명사’(벽돌 집→벽돌집/벽돌집; 바늘 귀→바늘귀/바늘귀)의 정상적인 환경에서도 사이시옷이 관찰되기 때문에, 다시 이런 경우를 설명하기 위하여 의미 특수화 개념을 내세웠고, 사이시옷을 미리 갖고 있는 ‘사이시옷 전치 명사’(스가→길스가/길가, 내스가/넷가, 창스가/창가; 스날→이틀스날/이틀날, 잔치스날/잔칫날)를 주장한 바 있다.

우리말의 조어에서는 자주 ‘비통사적’ 합성이란 말을 쓴다. 가령, ‘늦더위, 덥밥’(늦은 더위, [오징어를] 덮은 밥)처럼 관형형 어미를 쓰지 않은 채 용언 어근과 명사를 붙여 놓거나 ‘곧바르다, 값싸다’(곧고 바르다, 값고 싸다)처럼 부사형 어미를 쓰지 않은 채 용언 어근과 용언 어근을 붙여 놓은 경우를 말한다. ‘비통사적’이란 용어가 필자의 직관에는 마치 ‘통사적’이라야 하는데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조어가 이뤄진다는 부정적인 속뜻이 깃든 듯이 느껴진다.

그렇지만 사이시옷과 같이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난 듯이 기술되는 이런 현상들은, 어느 언어에서이든지 보편적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언어가 낱말과 낱말의 결합을 통한 통사의 두 부서로 작동할 경우에, 우리의 두뇌 속에는 낱말 저장고와

형태가 격의 범주라기보다는 화용 층위의 첨사이지만, 고유격에서는 각 형태의 서로 다른 의미자질(또는 실사로부터 기원하는 의미)이 결합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9) 역사적으로는 윤희(1824)의 ‘언문지’에서 한자어 결합에서도 우리말의 사이시옷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다음처럼 기록해 놓았다. “逢을 풀이하여 ‘빋뎡’으로 말한 것은 배의 돛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舟의 풀이는 ‘비’이지, ‘빋’이 아니다. 席의 풀이는 ‘돛’이지, ‘뎡’이 아니다. 다만 두 낱말을 뜻으로 이어놓으면 저절로 사이시옷 소리가 하나 생겨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지홍(2013) “언문지의 텍스트 분석”, 『진단학보』 제118 호(229쪽~233쪽)를 보기 바란다.

통사규칙 저장고가 둘 모두 있어야 한다. 핑커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⁴⁰⁾ 현재 두뇌 활동 영상 자료들을 통해서 알려진 바가 규칙적인 언어 사용과 관련된 두뇌 부서는 테두리 뇌(변연계의 뇌)로 알려진 제2 두뇌에서 혈류의 활성화가 관측된다. 그러나 예외적이고 규칙을 따르지 않는 언어 사용과 관련된 부서는, 구체적인 사건 기억(episodic memory, 일화 기억)을 저장하는 제3의 두뇌 부서와 관련된다. 인간의 언어에서는 빈출 낱말들이 불규칙 활용을 하기 일쑤이다. 이는 쉽게 지각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각상의 현저성이라고 부른다.⁴¹⁾ 이른바 변이형태들이 어느 언어에서나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지각의 현저성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낱말은 통사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며, 낱말을 만들기 위한 규칙을 따로 고유하게 만들기보다는, 통사 규칙을 일부러 위배함으로써 쉽고 자연스럽게 낱말로 정착시켜 제3의 두뇌 속에 저장해 놓게 되는 것이다.

만일 사이시옷을 음운론적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낱말을 만들어 놓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간주한다면, 우리말의 기술과 설명이 더욱 간단해지며, 좀더 두뇌 작용과 관련한 실재 모습으로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 방언에서 자연부류로 묶일 수 있는 ‘사이시옷, 사이비읍, 사이히웁’ 현상이⁴²⁾ 모두 낱말을 만들어 놓는 절차라고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 온당할 것으로 본다. 이럴 경우에 복합적으로 서술해 놓은 ‘잇’과 ‘엿’도 동시에 합성어로서 간주하게 된다. 강정희(1988: 95쪽)에서 다루어진

‘입엿 거’(입엿 것/입엿 구슬), 깍통엿 물 ... 중통엿 물 ... 상통엿 물(통[桶] 엿 물)

‘산잇 낭ㄱ’(산엿 나무), ‘마당잇 흙’(마당엿 흙), ‘우틔 물’(위쪽엿 물), ‘밧틔 돌’(밭엿 돌)

40) 핑커(Pinker 1999, 김한영 2009 뒤침) 『단어와 규칙』 (사이언스 북스) 588쪽, 603쪽, 610쪽, 635쪽, 665쪽 등을 보기 바란다. 변이형태가 굳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은 누구에게나 들겠지만, 이에 대한 답변을 언어학자가 아닌 심리학자가 찾아내었다. 가령, 우리말 ‘하다’의 사역형이 규칙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하이다’가 아니라, 불규칙적인 낱말 ‘시키다’로 쓰고 있다. 왜 그럴까? 그런 변이형태의 모습이 규칙적인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보다 더 ‘지각상의 현저성’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41) 과거 러시아 형식주의에서는 규칙 일탈 자체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측면으로 간주한 바 있다.

42) 더 자세히 논의할 수는 없지만, 사이히웁을 쓰는 경우는 보수적인 노년층의 특징을 지니고, 사이시옷을 쓰는 경우는 표준어에 영향을 입은 젊은 사람들로 기술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언어학적 서술이 가능할 듯하다. 사이비읍은 공통어에서와 같이 흔히 곡물류들에서 찾아진다. 중세국어에서 다뤄지는 이른바 ㅎ-종성 체인은 곡용과 관련되므로, 이 방언의 합성어에서 찾아지는 사이히웁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들이 모두 합성어로서 기술될 수 있는 후보들이다. 사이시옷 뒤에 명사를 꾸며 주는 수식어를 집어넣을 경우(가령, ‘산윗 낭’에 ²⁹⁾산윗 높이 솟은 푸른 낭’)에 필자의 직관으로는 수용성이 떨어진다.⁴³⁾

이른바 사이시옷이 관찰되는 명사 연결 구조가 합성어라면, 속격이나 관형격으로 다룰 수 있는 대상은 두 가지 환경뿐이다. 전형적으로 무표지 환경이고, ‘의’를 갖고 있는 환경이다. 앞으로 이 두 가지 환경에서 어느 하나를 기본값 구조로 간주한다면, 이를 벗어나는 구조를 유표적 구조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런 논의가 가능할지에서부터 차근차근 검토될 필요가 있을 듯하다.

3-4. 보조사와 화용 첨사

보조사와 화용 첨사는 학교문법에서는 하나의 범주로 묶여 있다. 아마 기본 문장 또는 발화 구조에서 추가된 것이 필시 ‘강조’일 것이라는 막연한 특성을 고려했음 직하다. 그렇지만 이들은 결과론적으로 상정한 이런 강조의 특성보다 오히려 차별적인 속성이 더 부각될 필요가 있다. 보조사는 의미 또는 의미 자질이 추가되는 요소들을 가리키나, 화용 첨사는 반드시 청자로 하여금 화자 자신의 발화에 주목하여 반응하도록 하는 요구를 담고 있다. 이를 각각 의미 추가와 청자 반응 요구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들로부터 공통 기반을 찾아내기가 힘들다는 점이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이 방언의 격 조사 형태가 무표지로 나오는 것이 기본값이라면, 주격 조사 ‘이/가’나 대격 조사 ‘를’이 나오는 모습은 화용적으로 생성해 놓은 부가어 위치에 임의 명사구가 이동한 뒤에 이동된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붙어 있다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른바 주격 조사와 대격 조사의 주제화로 불리는 현상이다.⁴⁴⁾ 이 현상은 공통어에서와 같이 이 방언에서도 복합격을 관찰할 때에 맨 마지막 위

43) 이와는 달리, ‘높이 솟은 푸른 [산윗 낭]’은 완벽히 수용 가능하다. 이는 앞의 각주 29)에서 언급한 부가어 형성 구조에서, ‘산의, 산에’와 같은 형식이 사이시옷이 붙으면, 더 이상 부가어로의 이동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통사 구조상의 설명을 베풀 수 있다. 곧, 사이시옷이 핵어와의 합성어 결합을 유도하므로, 그 결과 이동이 저절로 저지되는 것이다.

44) 임흥빈(2007) 『한국어의 주제와 통사 분석: 주제 개념의 새로운 전개』 (서울대 출판부)의 제7장 ‘이/가 주제와 배타적 제시’ 및 제8장 ‘을/를 주제와 문제성의 제시’를 보기 바란다.

치에 ‘이/가’와 ‘를’이 나오는 특성을 고려한다면⁴⁵⁾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된다. 격표지가 보조사로 되는 이런 현상까지 고려한다면 보조사의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된다.

이 방언의 연구로서 개별 논문으로 보조사와 화용 첨사를 다룬 글은⁴⁶⁾ 강근보(1975)와 김창집(1980)과 강정희(1987, 1994)를 비롯하여, 2000년대에 나온 일련의 문순덕(2002, 2003, 2005a, 2005b)과 양창용(2009)가 있다. 보조사들은 크게 ‘은’ 계열의 주제 표시 보조사와 기본적으로 한 낱말의 의미를 일부 보존한 채 문법화되어 있는 보조사들로 나눌 수 있다.

- ㉠ 주제 보조사: 은/는, 을라그넵에/을라그네/을랑으네/을랑/으랑(을랑),
- ㉡ 다른 보조사: 도, 만, 부터, 이나, 이나마, 조차, ㄱ정(까지), 대룸(대로), 처룩(처럽), 곶이(갈이), 냥으로(양으로), 이사/이사말로(이야/이야말로), 만씩/만이(만큼), 백의(밖에), 알좌(아울러)

보조사의 목록은 아마 연구자의 태도에 따라 전체 숫자가 변동될 수 있을 듯하다. 또한 이 방언도 공통어에서와 같이 보조사들 뒤에 ‘이/가, 를’ 주제화도 가능하며, 보조사끼리의 결합도 뜻을 합성하여 놓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일어날 수 있다. 가령, ‘만씩’(만큼)을 예로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만씩이나, 만씩조차, 만씩조차도, 만씩만, 만씩ㄱ정, 만씩ㄱ정만, 만씩ㄱ정도, 만씩ㄱ정이나, 만씩ㄱ정백의, 만씩ㄱ정이사

보조사를 다룬 글들에 대해서는 필자가 굳이 따로 언급할 부분이 없지만, 화용 첨사의 경우는 제대로 바닥 다지기 작업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 연구되어 나올 경우를 위해서도, 화용 첨사의 연구에 필요한 기본 개념과 하위 범주(세 가지)를 필자 나름대로의 생각에만 의지하여 적어 두고자 한다.

화용 첨사는 단순히 뜻을 더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문장이나 발화를 대상으로 하

45) 강근보(1978)의 62쪽(주격 조사)과 72쪽(대격 조사)에서 이미 이런 현상을 지적해 놓으면서, 이들이 격조사가 아니라 후치나 또는 보조사로 보고 ‘강조’를 나타낸다고 설명해 놓았다.

46) 문순덕 박사가 보내 준 ‘제주 방언 연구 목록’에서 제목들을 보면서 뽑아 놓은 것임을 밝혀 둔다. 아마 단행본에서 부분적으로 다뤄진 것들도 분명히 있을 듯하다. 그러나 필자가 이 글을 준비하는 데에 주어진 시간이 사뭇 제한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차분히 충분히 검색하거나 검토하지 못하였다. 미리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여 전달 내용을 강조하거나 청자에게 주목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청자에게 동의나 판단을 구하거나 의견을 묻는 일을 하므로, 어느 보조사와 같이 묶일 수 없음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⁴⁷⁾ 화용 첨사는 또한 반말 투의 언어 요소에 붙어 청자에 대한 대우를 표시해 주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마썸’(대우 첨사, 공통어의 ‘말썸이에요/말썸입니다’에 대응함)과 ‘이’(평대 첨사)처럼 대답한다.

이 방언에서 화용 첨사는 아주 빈번하게 그리고 아주 풍부하게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화용 보조사들의 전체 몸체가 제대로 드러나거나 다뤄진 적이 없다. 막연히 화용 첨사는 아무렇게나 쓰이는 듯이 오해를 빚기도 하지만, 이 방언의 화용 첨사들은 매우 체계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놀라울 정도로 엄격히 화자와 청자가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논리적 측면의 구성을 정연하게 보여 준다.

먼저 화용 첨사의 상위 개념으로서, 기능상 청자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청자에게 발화에 주목하도록 강조하는 화용 첨사와 그 내용을 이내 받아들이도록 재촉하는 화용 첨사와 청자에게 확인 반응이나 동의 여부를 보여 주도록 요구하는 화용 첨사이다. 이는 다음처럼 의사소통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세 가지 단계를 그대로 반영해 준다.

‘주목하기 → 받아들이기 → 반응하기’

그렇지만 이를 다음처럼 크게 두 단계로도 나눌 수 있다.

‘주목하여 받아들이기 → 즉시 판단하고 동의 여부를 드러내기’

앞의 세 단계를 묶어 간단히 두 단계로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 동사 또는 문장 뒤에 붙는 화용 첨사는 세 단계의 구분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렇지만 명사에도 화용 첨사가 붙는다. 이 경우에는 더욱 간단히 두 단계의 구분만 가능할 뿐이다.

47) 담화 표지(discoursal markers)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미시 표지와 거시 표지로 나뉜다. 미시 표지는 군말을 비롯하여 접속사 및 발화의 유창성을 촉진해 주는 여러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다. 거시 표지는 담화 전개에서 중요한 매듭이나 전환을 가리켜 주는 표지들이다. 언어 이해를 다루는 심리학 연구에서는 거시 표지들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해 왔다. 그렇다면 담화 표지란 말은 아주 포괄적인 용어로 쓰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화자가 얼굴을 마주한 청자에게 요구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는 뜻에서 ‘화용 첨사’라는 말을 써 나가기로 한다.

어떤 부류로 나누든지 간에, 이는 다시 하위 구분이 이뤄진다. 즉, 화용 첨사가 붙은 대상이 되는 최소 단위가, 다만 발화의 일부인지, 아니면 전체 발화인지에 따라 더 나뉜다. 또한 듣는 사람을 높이든지, 아니면 평대인지(대우하지 않는지)로 더 나눌 수 있다. 발화가 일부가 대상이 되는지, 전체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독자적인 형태로 구분되지 않는다. 오직 화용 첨사가 일부 요소에 덧붙여 있는지, 아니면 발화의 맨끝에 붙어 있는지에 따라 구분될 뿐이다. 그렇지만 대우 여부를 보여 주는 화용 첨사는 형태들이 서로 다르다. 이는 직접 청자를 직접 마주 보고 있으므로, 보다 중요한 요소가 뒤쪽으로 자리 잡는 우리말(후핵성 매개인자)에서는, 상대방을 높여야 할지 여부를 언어 표현의 마지막 자리에서 결정하고, 그 결정의 결과를 언어 형식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이 이 방언에서 서로 두 가지로 대립하는

‘대우 첨사 : 평대/비-대우 첨사’

로 나누어 놓는다. 공통어에서 찾아지는 3등급 대우 표현(존대 : 평대 : 자기 낮춤) 중에서 자기 낮춤의 공손법이나 겸양 방식은 이 방언의 화용 첨사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오직 두 가지 대우 또는 평대로써만, 다시 말하여 대우 여부로써만 나뉠 뿐이다.

만일 상위 부류를 두 단계로 나눌 경우에, 첫째 청자가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놓고서 청자에게 말하면서, 지금 통보된 전체 내용에 주목하여 신속히 받아들이도록 재촉하는 부류를 ‘주목 강조’ 첨사나 ‘수용 촉구’ 첨사로 부를 수 있다. 둘째, 화자가 자신이 말한 내용을 놓고서, 청자에게 이에 대한 긍정적인 확인 반응을 보이거나, 아니면 동의 여부를 드러내도록 요구하는 부류를 ‘청자 동의’ 첨사로 부를 수 있다. 수용 촉구 첨사는 발화의 일부나 전체를 청자에게 주목하여 받아들이도록 강조한다(수용). 그러나 청자 동의 첨사는 전체 발화에 대한 청자의 판단을 화자에게 즉석에서 보여 주도록 요구하는 것이다(판단 반응). 이런 화용 첨사들은 단독으로 오직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이런 두 가지 다른 기능 때문에 화용 첨사들이 둘 이상 계속 붙어 나올 수 있다. 단, 둘 이상이 서로 결합되어 나올 경우에는, 자신이 말한 내용을 먼저 주목하여 받아들이도록 재촉한 뒤에, 그 내용에 대하여 청자의 판단을 즉각 나타내어 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설명의 편의상 화용 첨사가 추가로 덧붙여짐을 드러내기 위하

여 ‘+’로 표시해 둔다. 학교문법에서는 화용 첨사가 보조사로 쓰이므로, 띄어 쓰지 않고 언제나 앞 요소에 붙여 쓰기로 한다. 다음은 둘 이상의 화용 첨사가 나오는 경우들이다.

① 가이 그딴⁴⁸⁾ 간+마썸+양 (개가 거기에 가서+라는 말씀입니다+요)

①에서는 발화의 몸체인 ‘가이 그딴 간’이 있고, 이어 두 개의 첨사 ‘마썸’과 ‘양’이 덧붙여 있다. 앞의 몸체 ‘가이 그딴 간’(올라가는 억양↗ 또는 내려가는 억양↘)은 이 방언에서 두 가지 해석을 지닌다. 하나는 연결 어미 ‘개가 거기에 가서’로 해석되고, 이 뒤에 후행절이 음을 알려 주기 위하여 상승 억양 ‘↗’으로 끝난다. 다른 하나는 완전히 끝났음을 알려 주는 하강 억양 ‘↘’을 띠고, 종결어미가 되어 ‘개가 거기에 갔어’로 해석된다. 이 몸체 뒤에 이어진 첨사는 모두 청자를 높이는 것들이다. 대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로 바뀌어야 한다. ‘마썸’은 공통어에서 ‘말씀입니다’ 또는 ‘라는 말씀입니다’와 대응될 수 있다. 뒤의 ‘양’은 화자에 따라 마음대로 ‘예’로 바뀌거나 아니면 일부 지역에서 ‘야’로 바뀔 수 있다. 곧, ‘마썸+예’나 ‘마썸+야’로도 나올 수 있다. 이 ‘양’ 또는 ‘예, 야’는 공통어의 ‘요’와 대응된다. 이 화용 첨사들의 결합은 청자를 높이어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로 바뀌어 나온다.

그런데 마지막 자리에 나오는 화용 첨사는, 언제나 억양이 두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 하나는 올라가는 억양으로 끝나 청자에게 되묻는 확인 억양이다. “그딴 간+마썸+양?”[↘↗] 다른 하나는 처음에 의문문처럼 올라갔다가 급속히 떨어지는 설의법의 억양 ‘↗↘’이다. “그딴 간+마썸+양~!”[↗↘]

여기서 화용 첨사가 붙은 이 발화에 제일 먼저 붙은 화용 첨사 ‘마썸’은, 앞에 나온 발화 몸체의 정보에 청자가 주목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 뒤에 다시 이어진 화용 첨사 ‘양’은 만일 의문 억양 “양?”일 때에 이제 막 전달한 정보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되고, 만일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설의법 억양 “양~!”일 경우에 청자에게 화자 자신이 말한 내용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하고 있는

48) 2014년 제주도에서 고시한 ‘제주어 표기법’에 따르면 한자어를 제외하고서 중모음 ‘-i’ 표기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딴’으로 써야 옳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문법 형태소를 구분하여 주기 위하여 일부러 ‘그딴’으로 써 둔다. 선업들에서는 기원적으로 이 형태를 지시 대명사와 장소를 가리키는 명사 ‘ㄷ’와 처격 형태 ‘의’가 결합된 것으로 보았다.

것이다. 따라서 청자를 높여 주는 표현으로 “그된 간+마썸+얏”을 비롯하여

“그되 간+마썸+예, 그되 간+마썸+야, 그되 간+마썸+얏, 그되 간+마썸+예, 그
되 간+마썸+야”

가 사람에 따라 편한 대로 아무렇게나 바뀔 수 있다. 만일 청자를 높이지 않는다면 모두 평대의 화용 첨사로 나오면 다음처럼 나온다.

“가이 그되 간+이+게”

화용 첨사가 두 개 결합되는 것은 아주 흔하고, 심지어 세 개까지도 결합될 수 있다. 먼저 두 개의 화용 첨사가 결합된 용례를 보기로 한다.

② 가이 값어+은게+마썸 [→ ‘감선게마썸’으로 발음됨]⁴⁹⁾

(개가 가고 있다+은다+는 말썸입니다)

③ 가이 값인게+게+마썸

(그 아이 가고 있어+요+라는 말썸입니다)

②는 ‘그 사람 값어’(그 사람 가고 있어)라는 완벽한 종결 발화나 문장으로서, 반말투 종결어미 ‘어’가 들어 있다. ③에서는 이 종결어미가 ‘은게’(-은 거야)의 구성을 지닌 입말 투의 어미로 바뀌어 나왔다. 미세한 어감의 차이를 무시한다면, 두 어미는 동일한 기능을 지닌다. 이 종결어미 뒤에 붙은 화용 첨사는 ②에서 ‘은게’이고, ③에서 ‘게’이다. 그런데 이들은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②가 특별히 다음 ④처럼 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④ 값어+은게+게+마썸 [→ ‘감선게게마썸’으로 발음됨]

(가고 있다+은다+야+라는 말썸입니다)

49) 화용 첨사 ‘은게’에서 ‘으’는 앞 음절이 모음으로 끝날 때에 언제나 탈락하여 ‘ㄴ게’로 되며, 앞 종결어미의 받침이 된다. 이 방언에서 ‘으’ 탈락은 비단 이 경우만이 아니라, 동사 어간과의 결합에서도 일어난다. 따라서 매우 일반적인 탈락 규칙이다. ②값어+은게+마썸은 [감선게마썸]으로 소리난다. ④값어+은게+게+마썸은 [감선게게마썸]으로 소리난다. 또 ‘마썸’이란 화용 첨사는 화자에 따라 마음대로 ‘마썸’으로도 소리가 난다. 뜻 차이가 없이 아무렇게나 ‘으’와 ‘이’가 서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굳이 차이를 찾으라고 한다면 세대별 차이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마 ‘마썸’이 더 보수적인 느낌을 지니고, ‘마썸’이 젊은이들에게서 쓰일 듯하다. 이는 처격 조사의 변이에서 볼 수 있는 ‘가이싰드레, 가이싰드레’(개에게, 개 있는 쪽으로)의 대립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인데, 보수적인 느낌의 ‘으’와 더 젊은이 표현을 실어 나르는 ‘어’의 차이에서도 비슷한 듯하다.

⑤ 값어+은게+게+이 [→ ‘감선게게이’로 발음됨]

(가고 있다+은다+야+그렇잖니)

여기 ④에서는 화용 첨사가 셋씩이나 붙어 있다. 먼저 ‘은게’가 있고, 다음에 ‘게’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마씀’[라는 말씀입니다]이 있다. ⑤도 화용 첨사들의 기능이 동일하지만, 청자를 높이지 않은 평대 첨사의 모습이다. 이를 이 방언 형태들에 대응하도록 각각 공통어로 표현한다면 다음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⑥ “[가고 있단다야]라는 말씀입니다!/말씀이잖습니까?”

⑦ “[가고 있단다야] 그래!/그렇잖니?”

④와 ⑤에서 첫 번째 첨사 ‘은게’는 청자에게 발화 내용에 주목하도록 하는 강조 첨사이다. 그렇지만 두 번째 첨사 ‘게’는 청자에게 지금 말해진 발화를 받아들이도록 재촉하는 수용 촉구 첨사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온 첨사 ‘마씀, 이’는 각각 청자를 높이거나 평대를 하는 첨사이다. 이들 각각은 서로 다른 기능을 떠맡고 있는 첨사들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②의 발화에서는 ④의 두 번째 첨사 ‘게’가 나오지 않은 것이며, 오직 발화에 주목하도록 하는 강조 첨사 ‘은게’와 청자를 높여 주는 첨사 ‘마씀’이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③의 발화에서는 ④의 첫 번째 첨사 ‘은게’가 나오지 않았는데, ③의 발화는 동일한 형식 ‘은게’가 이미 종결어미로 먼저 나와 있다. 따라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은 채, 그대로 청자에게 지금 말해진 발화를 받아들이도록 재촉하는 촉구 첨사 ‘게’만 붙여 놓은 뒤에, 다시 청자를 높여 주는 첨사 ‘마씀’을 쓰고 있다.

이제 간략히 필자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이 방언의 화용 첨사들의 체계(세 가지 하위 범주)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 방언의 어떤 요소이든지 독자적으로 홀로 설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전체 문장이나 발화에 이르기까지 언제든지 마음대로 덧붙을 수 있다. 화용 첨사들은 ‘게’의 경우처럼 최대한 다음 세 가지 층위에 있는 것들이 서로 결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두 개 층위의 결합으로 나올 수도 있으며, 오직 한 층위의 첨사만이 나올 수도 있다. 단, ‘게’를 제외하고서는 같은 형태의 첨사들이 그대로 중복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또 높임 등급이 서

로 모순되어서도 안 된다.

(1) 발화의 일부 또는 전체 내용에 주목하도록 강조하는 첨사가 있다(주의력 초점 첨사). 내림 억양 ‘\’으로 발화된다. ‘은게, 게’는 평대이고 ‘마썸, 마썸’은 대우 첨사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가이 언치낙 떠났덴 헝연게(개가 엿저녁 떠났다고 한다+은다),
- 느게 흔저게 오라게(너말야 빨리말야 오너라+하는 말이다),
- 삼춘마썸 오늘마썸 이디 오라사컨게마썸(삼춘말썸이에요 오늘말썸이에요
여기 오셔야 할 것이라는 말썸입니다)

(2) 청자에게 발화 내용을 받아들이도록 재촉하는 첨사가 있다(수용 촉구 첨사). 내림 억양 ‘\’을 받는다. ‘기!, 게!’는 평대 첨사이고, ‘마썸!, 마썸!’은 대우 첨사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서답 다 몰랏주기!(빨래 다 말랏다+는 말이다),
- 비 오랏저게!(비 오고 있다+는 말이다),
- 그 일은 상관 웃곡게(그 일은 상관없고+란 말이다),
- 그 사람 막 오란마썸!(그 사람 막 왔다는 말썸입니다)

(3) 청자에게 발화 내용에 대한 판단이나 동의 여부를 보여 주도록 요구하는 첨사가 있다(판단 제시 요구 첨사). 올라갔다가 급격히 내려오는 설의법 억양 ‘/’으로 실현된다. ‘이?, 응?, 겐?’은 평대 첨사이고, ‘양?, 예?, 야?, ㅇ[받침 이응, ng]?, 마썸?, 마썸?’은 대우 첨사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느네 삼춘 아팠주이?(너희 삼춘 병이 들어 아팠지, 그렇지?),
- 느 밥 먹엇지응?(너 밥 먹었지, 그렇지?),
- 흔저 클라겐?(빨리 가자, 안 그래?),
- 그 사람도 오랏수게양?(그 사람도 왔지요, 안 그렇습니까?),
- 낭이 금방 곱수다예?(나무가 빨리 크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 어디 값수광?(어디 가고 있습니까+요?),
- 그 사람 언제 오켄 헝여마썸?(그 사람이 언제 오겠다고 했다+는 말썸입니다
까?)

이 체계에서 주의력 초점 첨사는 어느 언어에서나 찾아질 수 있는 언어 기제이다. 영어에서는 ‘it ~ that ...’ 구문으로 대표되며, that 이하의 문장에서 강조할 임의 요소가 ‘~’ 자리로 이동하게 된다. 그렇지만 둘째 및 셋째는 오직 화용 또는 화행 중심의 언어에서만 찾아지는 것으로서, 흔히 지적되는 (화용상의) 생략 현상과 더불어 우리말이나 이 방언의 독특한 매개인자라고 할 만하다.

IV. 동사 부류와 관련된 기능범주

우리말에서 화용 첨사 따위 화용 관련 요소를 제외한다면, 임의의 문장이나 발화는 통사의 상위 계층으로부터 따질 경우에, 먼저 종결어미가 있고, 그 속에 선어말어미가 나온다. 선어말어미는 다시 상위 계층 순서로 양태와 시상과 일치의 형태들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대우 일치(대우법)에 따라서 종결어미들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통사를 투영하는 기능범주들을 단계별로 가를 수 없다. 만약 그렇게 가르더라도 반드시 공기관계나 하위범주화 자질이나 선택제약 또는 이음말 형식으로 어미들 사이의 결합관계를 표시해 주어야 한다. 생성문법에서는 일원론적인 핵계층 이론을 명시적으로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말의 문법을 기술하는 방식들은 대체로 생성문법의 서술 방식과 반대의 방향을 취하였다. 이는 글말로서 문장을 앞에서 뒤로 처리해 나가는 순서를 부지불식간에 따랐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도 대우, 시상, 종결어미의 차례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로 하되, 부정문이나 긴 형식의 피·사동 표현은 편의상 논의에서 제외한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지금까지 이 방언의 연구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세 가지인 듯하다. 대우의 등급에 대한 논의, 시상에 대한 논의, 종결어미 체계에 대한 논의이다. 이 중 가장 논의가 활발하고 서로 주장들이 대립하는 것은 단연 시상에 대해서이며, 그 범위가 우리말 시상으로도 확대되어 이효상(2006)과 고영근(2004, 2007 보정판) 등에서도 이 방언의 시상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렇지만 시상에 대한 논의에서는 심지어 기본형태소에 대한 확정조차 합의되어 있지 않다. 늘 쓰이고 아주 당연시되는 발화에서 기본형태소를 확정하여 놓지 못한다는 현실은

(대우 형태소, 시상 형태소, 종결어미), 모어 방언 연구자로서 일견 자가당착인 듯이 느껴진다. 이런 느낌은 종결어미들에 대한 논의로 들어서면, 더욱 암담한 것이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다. 예를 들어, 우리말에서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반말투의 종결어미 ‘-어’조차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는 아마 이 방언의 종결어미들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여 전체적으로 가닥을 잡고 판을 짜기 힘들었던 사정에서 말미암았을 듯하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그물짜임이나 이론 틀을 마련하는 논의를 시작해 나가야 할 것이다.

4-1. 대우 체계에 대한 재론

우리말에서 대우는 특정한 어휘를 쓰는 방식과⁵⁰⁾ 용언에 붙는 어미로 대우하는 경우가 있다. 상호작용 사회학에서 거론되는 체면(face)의 문제까지 염두에 둔다면, 간접 표현 방식까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목적을 지닌다는 점에서 대우의 범주에 들어가야 하겠지만, 아직은 우리말에서 이런 사회언어학적 논의가 사뭇 낯선 편이다.⁵¹⁾ 용언에 붙는 어미는 크게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로 나뉜다. 선어말어미에서는 대격 명사구를 높이는 형태는 없다. 대신 주격 명사구를 높이는 형태 ‘으시’와 관련해서는 이 방언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사회언어학적 차이를 인정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크게 나뉘는 듯하다. 이승녕(1957, 1978 재간)과 박용후(1960)에서는 이 방언에서 ‘-으시’의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현평효(1974, 1985 재수록: 71쪽)에서는 “오늘날까지 제주도 방언에서는 주체 존대를 표시하는 방법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않다).”라고 강하게 표현하였다가, 현평효(1977, 1985 재수록: 159쪽)에서는 조금 누그러뜨려 “언중의 일부층에서 발화해지는(발화되는)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썼다. 필자는 아래 살펴볼 도표에서 격식 갖춘 대우 말투에서 찾아지는 ‘-습네다, -습네까?, -읍서!, -읍주!’라는 형태소가 이 방

50) 필자의 기억으로는 이 방언의 제주도 권역에서 ‘잡수시다/자시다’, ‘드시다’, ‘주무시다’ 정도는 어휘적 대우로 분명히 쓰였다. 대우 형태소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필자는 분명히 ‘으시’를 써 왔고, 당연히 쓴다고 보았지만, 필자의 이런 주장을 잘못되었다고 반박하는 경우도 경험하였다. 분명히 사회언어학 상으로 계층별 언어 사용의 차이일 듯하다.

51) 특히 고프먼(Goffman 1967) 『상호작용 의례: 얼굴을 마주보는 행위에 관한 논문 (Essays on Face-to-Face Behaviour)』 (Pantheon Books)에서 다뤄진 체면 보호 행위(face-saving act) 및 체면 위협 행위(face-threatening act)의 두 방향으로 작동한다. 이를 좀더 쉽게 운용할 수 있도록 클락(Clark 1996, 김지홍 2009 뒤집) 『언어사용 밑바닥에 깔린 원리』 (도서출판 경진)에서는 상대방에 관한 자율성(autonomy) 및 자존감을 높이거나 제약하는 원리로 재구성해 놓았다.

언의 입말 자료집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이 어미들과 ‘으시-’가 결합할 것으로 본다. 그런 점에서 사회언어학적 변이모습을 인정해 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다. 한편, 강정희(1988: 37쪽)에서는 대우를 표시해 주는 주격 조사 ‘께서’가 쓰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를 존대 표현법의 미-세분화(미분화) 현상으로 해석하였다.

이 방언에서 관찰되는 종결어미의 대우 체계를 이승녕(1957, 1978 재간: 80쪽 이하)에서는 서술문과 의문문을 중심으로 하여 네 단계로 나누어 놓았다. ‘평칭, 중칭, 존칭, 극존칭’이다. 그런데 토박이 연구자로서 박용후(1960: 333쪽 이하)에서도 네 단계를 나누어 놓았는데, 이를 극존칭(아주 높임), 보통 존칭(예사 높임), 보통 비칭(예사 낮춤), 극비칭(아주 낮춤)으로 불렀다. 이는 아마 최현배(1929, 1975 제5 개정판: 262쪽)에 있는 등급 밖의 반말을 제외한 대우 체계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평효(1974, 1977)에서는 ‘하대, 평대, 존대’의 세 등급을 주장하였는데,⁵²⁾ 이를 명령형 어미로 표시하여 각각 ‘하라체, 하여체, 흡서체’로 불렀다. 아마 서로 직접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우의 등급을 명백히 보여 주는 일을 명령서법으로 파악하였던 데에서 나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회언어학 관점에서 대우 표현을 구분하는 기준은 격식성 및 공식성 여부로 나눌 수 있다. 텔레비전의 9시 뉴스에서는 공식적이고 격식적인 언어 사용 환경이므로, 우리말에서 ‘습니다’ 말투를 쓰게 된다. 이와는 달리, 가령 연예인 이경규 씨가 진행하는 면담 프로그램에서는 공식적이지만 격식을 갖추지 않은 채 대우하는 말투로 ‘요’(대우의 화용 침사)를 쓸 수 있다. 후자는 흔히 반말투 종결어미(여러 서법에 두루 쓰임) ‘어’로 대표되는 형태에 비격식적인 대우를 표시해 주는 화용 침사가 쓰인다. 이런 틀을 고려하면서, 필자는 이 방언의 종결어미 대우 체계를 다음과 같은 도표로 나타낼 수 있다고 본다.

52) 전자는 박사학위 논문인데, 둘 모두 현평효(1985) 제1부에 재수록되어 있다. 또한 동일한 대우 등급이 현평효·김홍식·강근보(1974) “제주도 방언 활용어미에 대한 연구”, 제주대학 『논문집』 제6집(15쪽~48)에도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현평효(1985: 147쪽)에서 “이승녕 박사도 등급을 존칭, 중칭, 평칭으로 삼등분한 바 있다.”고 본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극존칭(필자의 도표에서는 격식 갖춘 대우 등급) 등급을 빼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승녕(1978: 80쪽, 81쪽)의 네 등급의 도표를 보기 바라며, 이는 153쪽에서 약호를 써서 ‘평(平), 중(中), 존(尊), 극(極)’으로 표시되어 있다(단 그곳의 ‘은’은 오자임).

종결어미의 대우 체계

말투 서법	마주하여 듣는 이를 대우함		평대 (대우하지 않음)	
	격식투 ‘-읍-’	비격식투 ‘-수-’	고유한 서법 형태	반말투
서술	-읍네다, -읍테다	-수다, -수게, -수웨	-다(계사; 이어)	-어 (계사; 이라)
의문	-읍네까?, -읍테까?	-수과?, -수가?, -수파?, -수까?	-가?(계사; 이가?)	
명령	-읍서!		-으라!	
청유	-읍주!		-자!	

이 도표를 보면, 한눈에 현평호(1977)에서의 삼분 체계 ‘흡서, 흐라, 흐여’가 오직 명령의 서법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로만 이뤄졌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흐라, 흐여’는 대우를 하지 않는 평대의 종결어미인데, 전자는 고유한 서법으로만 쓰이고 후자는 억양만 달리하여 두루 여러 서법에 쓰이는 반말투의 종결어미이다. 이들이 결코 평대와 하대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평대가 곧 하대와 동일한 등급일 뿐인데, 그 까닭은 곧 박용후(1960)에서 예사 낮춤(보통 비칭)과 아주 낮춤(극비칭)이 성립될 수 없음을 비판하면서 같이 논의될 것이다(후술). 또한 그런 삼분 체계는 이 방언의 서술 및 의문 서법에서 관찰되는 종결어미들을 제대로 구분해 내지도 못한다(-읍네다 : -수다, -읍네까? : -수과?).

이와는 달리, 이승녕(1978 재간)에서의 중칭(中稱)을 ‘-어’ 반말투로만 바꾼다면,⁵³⁾ 정확히 이 도표의 사분 체계와 일치한다. 평칭과 중칭은 각각 평대의 종결어미와 반말투의 종결어미이며, 그리고 존칭과 극존칭은 비격식투의 대우 ‘-수-’ 및 격식투의 대우 ‘-습-’에 정확히 대응되기 때문이다.

박용후(1960)에서는 극비칭(아주 낮춤)의 형태소를 ‘-다’로, 보통 비칭(예사 낮춤)의 형태소를 ‘-어’로 상정하여 이들 사이에 높고 낮음 관계로 보았다. 그렇지만 낮춤에 보통 낮춤과 아주 낮춤이 있다는 의견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53) 이승녕(1978: 111쪽)에서 ‘먹엄서’의 형태소 분석을 ‘먹+엄+서’로 보았었다. 그런데 만일 시상을 표시해주는 선어말어미를 필자의 주장과 같이 ‘-았-’으로 확정한다면, 당연히 ‘먹+없+어’로 분석되고, 반말투의 종결어미 ‘-어’를 찾아낼 수 있다. 이는 중칭(中稱)을 중간 등급으로 보지 않고, 어중간한 등급으로 재해석해야 하는데, 곧 최현배(1975)에서의 ‘등급 밖’의 반말로 간주하는 셈이다. 아마 당시의 지식 수준으로는 억양만을 달리하면서 모든 서법에 두루 쓰이는 반말투를 확정할 근거를 찾아낼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방언을 쓰는 토박이들 사이에서 신분 계층이 과연 평민과 천민 사이의 구분을 뚜렷이 의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현평효(1977)에서 주장한 평대와 하대의 등급도 마찬가지로 서로 구분될 수 없다.

반면에, 필자는 이것들이 동일한 등급이라고 본다. 필자의 도표에서는 동일한 등급이지만, 서법마다 고유한 종결어미를 지닌 경우와 그렇지 않고 억양만 달리하여 모든 서법에 두루 쓰이는 반말투의 종결어미로 보는 것이다. 반말투의 종결어미는 대우를 표시해 주는 화용 침사가 더 붙어서 격식 갖추지 않은 대우 말투로 바뀔 수 있다. 마치 공통어에서 ‘요’가 붙어 비격식적인 대우 말투로 바뀌는 일과 동일하다.

만일 위와 같은 도표가 확정된다면, 대우의 말투에서 구별되는 형태소들에 대하여 다룰 수 있다. 격식 갖춘 말투 ‘-습니다/-습니다’의 구성은 ‘-읍-/-습-’에 각각 경험과 관련된 양태 형태소 ‘-느-’(현재 경험 가능함)와 ‘-더-’(이미 경험한 적이 있음)가 이어져 있고, 마지막으로 종결어미 ‘이다’가 결합되어 있다(읍+느/더+이다). ‘-읍-’은 객체를 높여 주는 중세 국어의 겸양법 ‘-술-/-술-’에, ‘-느-’나 ‘-더-’는 각각 중세 국어의 시상 형태 ‘-느-’와 ‘-더-’에 대응함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종결어미 ‘이다’가 분석 가능한지, 분석될 수 있다면 ‘-이-’가 상대방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공손법 ‘-이-’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데 이 방언의 다른 어미 결합에서는 공손법과 무관한 ‘이’ 요소가 다수 찾아진다. 가령, 양태 형태소 ‘-으크-’ 뒤에 결합하는 종결어미가 ‘-이어’이며, 상 형태소 ‘-았-’과 ‘-앗-’ 뒤에 결합하는 종결어미에도 ‘-인게’(이+은게)처럼 나타난다.⁵⁴⁾ 만일 이런 부류가 계사 ‘이다’와 관련된다면 계사 어간의 생략 및 잠재된 ‘ㄷ’의 발현 모습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두 조건이 모두 만족되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혼자 엉뚱하게 상상해 보는데, 혹 공손법 ‘-이-’와 대우상 짝이 되는 요소는 아닐지(가상하여 비음성 ‘ng’이 없으며 대립적으로 [-공손]의 자질을 지닌 형식) 궁금하

54) 이런 고민을 풀기 위해 두 분의 생각을 적어 둔다. 고영진 교수는 계사일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그렇지만 이 방언에서도 계사가 어간 탈락 현상 및 잠재된 ‘ㄷ’의 발현을 보이는데, 논의 중인 ‘이’는 그런 속성을 지니지 않는 듯하다. 정승철 교수는 ‘으’가 전설모음 ‘이’로 바뀐다고 가정하는 듯하다. 필자는 약한 모음이 탈락된다는 가정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지만 약한 모음이 강한 모음으로 된 뒤에, 다시 동화될 환경이 생겨서 전설모음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또한 전설모음으로 만들어 놓는 음운론적 환경을 찾아내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 종결어미들에서 찾아지는 ‘이’의 정체성 확정 문제는 이 방언 연구자들이 함께 숙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수-’와 관련하여 현평호(1985)에서 음운론적으로 조건(모음 어간 뒤)에 따른 변이형태 ‘-우-’를 확정한 뒤에 뒷 연구자들이 그대로 따라 써 왔다. 그렇지만 정승철(1995: 155쪽 이하, 1997: 79쪽 이하)에서는 비록 두 개의 형태를 음운론적으로 조건지워진 것으로 상정하면서도, 어간이 ㄹ 받침이나 모음으로 끝날 때에는 ‘-으우-’가 나오고(‘절므우다’[줍습니다], ‘크우다’[큵니다]), 다른 환경에서는 ‘-쑤-’가 나온다고 주장하였다(‘점쑤다’[줍습니다], ‘덥쑤다’[덥습니다]). 여기서 ‘-으우-’의 설정은 다른 형태소들도 ‘으’ 모음을 지닌 것들이 있으므로 자연부류를 이룰 수 있다고 보며, 다른 사례들을 추가하여 더 뒷받침해 놓을 수 있다. 정승철 교수의 음운론적 해안에서 나온 형태소 확정으로 판단된다.

가령, ‘죽다’(작다)를 활용시켜 보면 필자의 발음은 늘 [죽수다, 죽수과?]이다. 정승철 교수가 표기한 ‘죽쑤과?’를 필자는 이전에 제주시에서 살던 함경도 출신 인사로부터 ‘-쑤과?’라는 발음을 자주 들었던 기억이 난다. ‘죽다’는 또한 정승철 교수의 지적처럼 [죽으우다, 죽으우과?]라고도 발음된다. ‘-수-’는 의문 종결어미로 ‘-과?’가 자연스럽게 들리지만, ‘-우-’는 마치 중세국어에서처럼 사잇소리가 개재되어 언제나 ‘-우과?’로 나온다(‘-스과?’로 분석될 수 있음). ‘-수과?’를 [수과?]로 발음한다면, 필시 ‘-우과?’라는 형식에 이끌리어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표준어의 ‘-까?’ 형태를 복사하면서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방언에서 ‘죽다’는 비격식 대우 표현에서 [죽수다]로 발음되거나 [죽으우다]로 발음되는데,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도출된 두 표면형은 물론 사회언어학적 차등을 둘 수 있겠지만, 언제나 수의적인 교체라고 기술해 주어야 할 듯하다.

‘중다’를 활용시켜 보면, 필자는 언제나 [조쑤다]로 발음된다. 이는 어간의 ㅎ이 내파음으로 되고 나서(ㅎ→ㄷ), 이 자질이 뒤따르는 자음을 된소리로 만들어 놓는 것이다. 따라서 형태소를 밝혀 ‘중수다’로 써야 옳을 듯하다. 그런데, 구좌 쪽에서 자란 필자의 동료는 동향 모임에서 서로 제웃말을 쓰는데, 그 분은 늘 [조으우다]라고 발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아마 지역 간의 차이일 듯하다. 이 발음은 결코 [??조우다]로 되지 않는 듯하다.⁵⁵⁾ 약한 모음 ‘으’는 모음 뒤에서 탈락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환경에서는 탈락되어 발음되면 낮설게 들린다. 그렇다면 ‘으’

탈락을 막는 자음 요소가 선행해야 하는데, 그 요소는 어간의 받침일 수밖에 없다. [조으우다]라는 발음은 ‘중으우다’로 표기해야 할 듯하며, 어간 받침이 비록 약화 되더라도 탈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비로소 선어말어미의 약모음 ‘으’ 탈락을 저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또한 분명히 정승철 교수의 ‘-으우-’ 형태의 설정을 뒷받침 해 주는 중요한 사례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쑤-’는 된소리(경음)를 지니고 있다. 만일 된소리를 인정한다면, 아마 유일 무이한 된소리 선어말어미일 것이며, 그만큼 유효적이고 이례적일 수 있다. 더욱이 필자가 스스로 정승철 교수가 ‘-쑤-’로 표시해 놓은 환경을 발음해 보면, 예 사소리(평음) ‘-수-’로 나오는 것들이다. 아마 내파음 받침에 약한 휴지가 들어가서 다음 음절로까지 재음절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발음이 보수적인 발음일 개연성이 있다. 더군다나 형태소를 확정지는 작업은 표면형의 발음에 집착하기보다는 자동 적인 음운과정의 변이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제외하므로(이른바 ‘비자동적 교체’만 을 표기에 반영함), ‘-쑤-’의 형태소 설정은 자동적 음운과정에 따른 변이를 그대로 기본형으로 설정해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몇몇 글에서는 비격식적 대우투에서 관찰되는 ‘-수-/-우-(-으우-)’ 형태소의 기원 을 다룬 바 있다. 홍종립(1995: 162쪽)에서는 ‘술/술+으이’로부터, 그리고 정승철 (1995: 156쪽)에서는 모두 ‘술/술’으로부터 ‘-쑤-/-으우-’가 나왔다고 가정하였다. 이 는 결과에 비취 과정을 추정하는 일 이외에, 음운론적 변화 과정도 자연스럽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방언의 격식 갖춘 대우와 비격식적 대우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다. 반면에, 줄고(2001: 27쪽)에서는 ‘술/술’은 격식 갖춘 대우 ‘-습네 다/-읍네다’로 이어지며, 비격식적 대우의 형태 ‘-수-/-우-’는 따로 융합된 형식으로 부터 나온다고 주장하였다. 즉, 종결어미 ‘-소/-오’에 다시 화자가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공손법 ‘-이-’가 종결어미와 같이 실현된 ‘-이다’가 융합된 것이다. 이는 텔레비전 사극에서 가끔 들을 수 있는 ‘-소이다/-오이다’를 거쳐, 무가들을 채

55) 의문 형식 ‘중+으우+파?’는 종결어미 ‘-파?’에 있는 반모음 [w] 때문에 더욱 다양하게 발음될 듯하다. [중으우파?], [조으우파?], [조으파?], [조 : 파?]가 다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발음은 어간 받 침이 약화되더라도 음절 경계(coda)로서의 역할을 여전히 맡기 때문에 약한 모음인 ‘으’ 탈락이 일어 나지 않은 결과이다. 세 번째 발음은 ‘우’가 반모음 [w]로 바뀌고, 재음절화 과정에서 두 개의 반모음 [w][w]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탈락되어야 가능한 발음이다. 마지막 발음은 ‘우’가 탈락된 뒤 계속 재음절화가 가속화되어 급기야 어간에 남아 있던 음절 경계(coda)를 허물고 ‘으’가 탈락되어 보상적으 로 조금 길게 발음되어 나온 결과이다.

록해 둔 기록들로부터 ‘-웨다, -웨다’라는 중간 형태로 발전한 뒤에 마지막으로 모음이 줄어든 모습인 ‘-수다/-우다’로 되었다고 보았다.

4-2. 시상에 관련된 여러 주장, 그리고 새로운 양태 개념

여기서 시상이란 용어는 이 방언의 형태소를 논의해 온 연구자들이 동일한 형태소를 놓고서도 두루 ‘상, 시제, 양태’의 개념들을 상정하여 써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나마 임시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쓸 수밖에 없다. 이 방언의 시상 형태들을 다룬 박사학위 논문이 이미 세 편이나 나와 있으며,⁵⁶⁾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요성만큼이나 관련 내용을 다루는 이론적인 범위와 깊이 에 따라, 도출되어 나오는 결론이 크게 달라져 버릴 것으로 보인다. 이 방언의 시상 관련 형태소가 또한 양태 표현에도 긴밀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시제·상·양태(와 서법)’들이 부분적이든 아니면 한꺼번에 무더기로든 같이 다뤄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는 누가 이 방언의 시상 형태소를 다루든지 간에, ‘시제·상·양태·서법’의 개념에 대한 명백한 정의를 마련해 놓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① 공통어 ‘-았-’의 발달 과정을 다룬 최명옥(2002), ② 한국어 시상 표현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고영근(2004, 2007 보정판), ③ 제주 방언의 상을 새롭게 정의해 놓은 고영진(2008)은 모두 이 방언 형태소의 실체를 보다 분명히 알아볼 수 있도록 소중한 전환점을 마련해 놓은 역작들이다. 필자가 많이 배울 수 있었다. 고영진(2008)에서는 이 방언의 상 체계가 다음처럼 형태소의 결합 순서를 고려하면서 삼분 대립을 보임을 주장하였다.

56) 현평효(1975) “제주도 방언의 정동사 어미 연구” (동국대), 홍종립(1991) “제주 방언의 양태와 상범주 연구” (성균관대), 우창현(1998) “제주 방언의 상 연구” (서강대)이다. 한편, 문숙영(2005) “한국어 시제 범주 연구” (서울대)를 박사논문을 쓴 뒤에, 제주 방언의 형태소를 ‘시제’로 주장하는 글을 『형태론』에 두 편 발표하였다(문숙영 2004, 문숙영 2006). 이를 반박하면서 미국 인디애나 대학 이효상 교수는 시제가 아닌 상으로 봐야 옳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필자도 이효상 교수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런데, 공통어는 이미 시제와 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고 설명된다. 따라서 만일 엄격히 시제·상·양태(그리고 서법)에 대한 명백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채 막연히 이 방언의 시상 표현을 다룬다면, 공통어의 내용과 서로 뒤섞이고 불분명해질 소지가 많고, 이 방언에서 작동하는 밑바닥의 질서를 드러내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최근에 이 방언에서 형용사에만 시제 개념을 부여하는 접근이 있다. 그렇지만 시제의 대립 형태소들을 석연히 붙들어 드러낼 수 없다(대립 체계가 제안되지 않음)는 사실은, 오히려 양태와 서법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앞으로 계속 더 깊은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느-(완전상) : -암시-(불완전상) : -아시-(완료상)’

이들의 대립은 각각 하나의 전체 사건을 드러내는 완전상, 사건의 진행 과정을 드러내는 불완전상(그렇다면, ‘不’보다 ‘非’를 써서 ‘비-완전상’이 더 나은 선택으로 보임), 사건이 다 끝나서 지금까지 그 결과 상태가 이어지는 완료상이라고 하였다. 만일 특별한 형태소가 없이도 상적인 특성을 실현하는 zero 형태소도 필요하다면(다음에 다룰 형용사의 경우에서도 또한 그러함), 다시 ‘∅’(zero)가 추가될 수 있다. 그런데 기본형 ‘-느-’가⁵⁷⁾ 서술문의 형용사와 계사 ‘이다’에 붙는 형태론적으로 조건이 지워진 변이형태로서 ‘-은-’을 갖고 있다고 기술할 수도 있지만, 의문 형식으로 될 경우에는 다시 ‘-느-’(이 신발 크느냐?)로 나오게 되므로, 변이형태에만 의지해서 말끔히 해결될 수는 없다. 고영진 교수는 현평효(1985)에서 내세운 ‘암시-’와 ‘아시-’를 기본형으로 보았는데, 여기서 변이형태로서 ‘앓-’과 ‘앗-’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연구자마다 서로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거꾸로 ‘앓-’과 ‘앗-’이 기본형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편의상 평대(대우하지 않음)로 불려온 서술 서법에서 고유하게 나오는 종결어미의 모습을 중심으로 하여 다루기로 한다(대우하지 않음 등급에는 반말투도 있음).

“철순 바당의 잘 간다” (철수는 바다에 잘 가는 습관이 있다)

57) 형용사와 계사이므로, 기술언어학에서 내세운 ‘형태론적 조건’은 형태를 광의로 해석하지 않은 한 미진한 용어이다. 품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들 품사의 속성을 거론하여 조건을 표시해 주는 것이 온당할 듯하다. 그렇지만 ‘느’가 서술문에서는 ‘은’으로 바뀌지만, 의문문에서는 그대로 ∅와 대립하여 ‘느’로 나오므로,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기가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방언의 동사가 “그 폴도 먹나”(그 폴도 먹는다)로 발화될 경우에, 여기에 ‘-느-’가 종결어미에 녹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부정적이다. 일단, ‘나’에서 종결어미 ‘아’를 분석해 내기는 쉽지 않다(뒤에 제시할 서술 종결어미 목록에서는 고유하게 독자적인 서법을 지닌 종결어미 속에 들어 있음). 이런 이유로 정성여(2013)에서는 복합 종결어미로서 ‘느다’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생각에 이는 ‘은다’에서 ‘으’가 탈락되어 나오는 것이며, ‘나’와는 계열이 다르다. ‘먹다’ 동사에서와는 달리, 형용사의 의문문 활용에서는 ‘느-’와 이에 대립하는 구문을 찾아낼 수 있다.

“이 신 느안티 크느냐?”(이 신발이 너에게 큰가? → 항상 큰지 일반 속성을 묻고 있음)

는 분명히 다음 발화와 대립적인 뜻을 지닌다.

“이 신 느안티 크냐?”(이 신발이 너에게 크니? → zero 형태가 들어 있고, 현재 상태를 묻음)

‘느’가 들어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그런 속성이나 성질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그렇지만 zero 형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상태만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이는 크랏저(Kratzer) 교수가 주장한 개체 속성 층위(individual level)의 진술과 현재 장면 층위(stage level)의 진술로 대립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느’가 명백히 양태 형태소로 지정되어야 옳다. 좀더 뒤에서 이 방언의 계사 구문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대립이 찾아짐을 다시 언급할 것이다.

“그 사름 뵤 낫안 밥 잘 먹은다” (그 사람이 뵤이 나아서 밥 잘 먹는 습관이 있다)

“그 사름 뵤 낫안 밥 잘 먹나” (앞의 발화와 동일 의미임)

여기서 찾아지는 ‘-은다’(은+다)는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으’가 탈락되어 받침 ‘ㄴ’으로 바뀌고(‘간다’),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면 그대로 실현된다(‘먹는다’). 같은 상황이 ‘먹나’로도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나’라는 형태소를 ‘ㄴ+아’로 분석할 수 있을지, 아니면 분석 불가능한 종결어미일지 여부는 좀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⁵⁸⁾ 동일한 상황이 다음처럼 반말투의 종결어미 ‘-아’로도 나올 수 있는데, ‘-ㄴ-’를 대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철순 바당의 잘 간”

“그 사름 뵤 나산 밥 잘 먹어”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발화임에 틀림 없다면, 여기서는 ‘-ㄴ-’ 형태소가 찾아지지 않더라도 무표적인 형태 ∅(zero)를 갖고서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를 ‘ㄴ+아’로 분석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든다.

필자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나 습관 등이 양태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 양태를 서구의 언어에서처럼 의무 및 인식 두 범주만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경험과 관련하여 언제 어디서나 경험하는 일과 이미 경험해 본 일과 현재 이곳에서 한 시점 상 경험하는 일이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경험 관련 양태라고 부를 수 있다. 앞의 사례들에서 이 방언의 ‘-ㄴ-’와 ‘-은-’ 형태에 관련된 것은 언제 어디에서나 경험하는 일을 가리킨다. 이와는 달리 ‘-다-’와 관련된 형태는 이미 경험해 본 일과 관련된다. 나머지는 ∅ 형태로(또는 아무런 형태가 없이) 현재 이곳에서 한 시점의 사건에 대한 경험을 가리킨다고 본다.

58) 다른 억양을 지니면 의문 서법의 종결어미로도 쓰이는데, 올림세 억양으로 “잘 먹나?(↗)”처럼 ‘예-아니오’ 질문과 내림세 억양으로 “뭘 잘 먹나?(↘)”에서처럼 의문사 의문으로 쓰일 수 있다. 이는 형용사에서 의문 서법에서만 나오는 ‘나?’와 다르며(가이 지레 크나?(↗) [개 키 크나?(↗)]), 오직 의문 서법에서만 나오는 종결어미는 고유한 서법의 어미로 봐야 할 것이다. 동사에 결합된 ‘나’는 억양에 따라 여러 서법으로 두루 쓰이므로, 형용사 구문과는 다르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형용사이든 동사이든 모두 하나의 종결어미 ‘나’라고 주장될 소지도 있다. 만일 그런 주장을 하려면, 반드시 이런 분포상의 불균형 원인이 적절히 설명되어야만 한다.

“철순 바당의 잘 간다” (철수는 바다에 잘 가는 습관이 있다)

“철순 바당의 잘 간” ([현재 한 시점상] 철수는 바다에 잘 간다)

앞의 습관 해석을 양화 표현으로 나타내면, 한 사건에 대한 전칭(for all x, there is x) 표현에 해당하고, 뒤의 한 시점 해석은 특칭 표현(for some x, there is x & x is presently unique)에 해당한다. 전자는 이른바 ‘개체 총위’의 술어가 되며, 후자는 ‘장면 총위’의 술어가 되는 것이다. 특칭 표현이 늘 현재에서 참이 된다면, 특칭 표현이 한 사건을 언급할 때마다 쓰인다면, 결과적으로 누적되어 전칭 표현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로 나타내는 한 시점에서의 경험을, 듣는 사람도 함께 경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른바 상 형태소 ‘-았-’과 ‘-앗-’이 쓰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필자의 느낌으로는 ‘-았-’이 들어 있는 표현은 청자인 상대방도 지금 현재 경험할 수 있음을 함의하고 있지만, ‘-앗-’은 반대로 그 사건을 상대방이 현재 경험할 수 없음을 함의하는 듯하다. 양태의 개념을 경험 여부에 관한 것으로 확대한다면, 다시 화자 혼자서 경험만을 가리킬 수 있고, 여기서 청자가 경험할 수 있는지 여부도 표시해 주려면 다시 상 형태소를 도입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보인 대립 사례 ‘잘 먹는다, 잘 먹나, 잘 먹어’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 ‘먹는다’는 전칭 표현을 지닌 개체 총위의 술어가 된다. 언제 어디서나 그런 일이 개체 또는 대상의 내적 속성 때문에 늘 일어나고 관찰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먹나, 먹어’는 특칭 표현을 지닌 장면 총위의 술어가 된다. 우연히 현재 한 시점에서 특정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둘 모두 대우를 하지 않는 평대 표현이지만 ‘-나’는 아마 서술 서법에만 쓰이는 고유한 어미일 듯하고, ‘어’는 억양만 달리하여 여러 서법에 두루 다 쓰이는 반말투의 종결어미로 파악된다.

그런데 현평효(1974)에서 동작상 ‘-암시-’(미완료 지속, 고영진 2008의 불완전상/비완전상)와 ‘-아시-’(완료 지속, 고영진 2008의 완료상)으로 규정된 형태소가 과연 제대로 분석된 것인지에 대하여 최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⁵⁹⁾ 기본 형태소를 각각

59) 현평효(1985)에서는 ‘-암저’라고 썼던 것을 이 방언을 예의 관찰하여 이남덕(1982)에서 ‘-암ㅸ저’로 올바르게 지적하였고, 이어 김지홍(1992)에서는 ‘-암ㅸ’로 표기하였다. 이후의 여러 연구에서 ‘-암ㅸ-’이란 형태소를 표기해 오다가, 2013년에 확정된 이 방언의 표기법과 2014년 해설(필자가 맡은 부분)에서는 ‘-았-’으로 기본 형태소를 적었다.

‘-았-’과 ‘-앗-’으로 보기도 한다. 이런 의문 제기는 ‘-암시-’나 ‘-아시-’를 기본형으로 보고, ‘-았-’과 ‘-앗-’을 변이형으로 도출하도록 하는 ‘이’ 탈락 규칙이 오직 이 형태소만을 위한 매우 유효적이고 이례적인 규칙이기 때문이다.

이 방언에서는 관형형 어미 ‘-은, -을’을 매개로 하여 종결어미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다. 서술 서법으로만 쓰이는 고유한 종결어미로서 ‘-은 생이어, -을노라, -을로다’가 있고, 여러 서법에 두루 쓰이는 반말투의 종결어미로서 ‘-은게, -은걸, -을로고나, -을테줘, -을컬/으컬, -을커라/으커라’가 있다. 이들에는 언제나 다음처럼 ‘-암시-, -아시-’로 발음되어 나온다.

[**-암신/-아신 생이어**], [**-암실노라/-아실노라**], [**-암실로다/-아실로다**], [**-암신게/-아신게**], [**-암신걸/-아신걸**], [**-암실로고나/-아실로고나**], [**-암실테줘/-아실테줘**], [**-암실컬/-아실컬**], [**-암시컬/-아시컬**], [**-암실커라/-아실커라**], [**-암시커라/-아시커라**]

접속을 맡는 연결 어미들도 화용적 맥락이 갖춰지면 종결어미로 바뀌어 쓰일 수 있으며, ‘-은디(-은데), -거든,⁶⁰⁾ -으민(-으먼), -곡(-고)’ 등이 있다. 여기에도 ‘-암시-’와 ‘-아시-’ 형태가 나온다.

[**-암신디/-아신디**], [**-암시거든/-아시거든**], [**-암시민/-아시민**], [**-암시곡/-아시곡**]

종결어미로 전성되어 쓰이는 어미들 이외에, 고유하게 서술 서법으로만 쓰이는 종결어미들 가운데 ‘-저, -네, -에, -으메(그리고 확장된 -으멘)’에도 각각 ‘-암시-’와 ‘-아시-’로 나온다. 여기까지는 ‘-암시-’와 ‘-아시-’로 형태소를 잡는 데에 무리가 없다.

[**-암시저/-아시저**], [**-암시네/-아시네**], [**-암시/-아시**], [**-암시메/-아시메**], [**-암시멘/-아시멘**]

그렇지만 이 이외의 종결어미들에서는 언제나 ‘-았-’과 ‘-앗-’이 쓰인다. 동사 ‘가다’와 ‘먹다’의 어간을 대표로 내세워, 이런 사례들을 종결어미들과 결합시켜 보이

60) 다만 ‘-거든’에는 특이하게 본디 꼴의 결합인 ‘-암시거든, -아시거든’도 관찰된다. 또한 ‘-았거든, -앗거든’도 관찰되며, 된소리로 발음된다. 이런 분포가 수의적일 수도 있겠지만, 필자의 직관에는 ‘-았-’ 꼴에 붙은 경우에는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느껴지지만, ‘-암시-’ 꼴에 붙은 경우에는 마치 종결어미처럼 느껴진다(연결 어미가 특정 맥락에서 종결어미로 바뀌는 경우).

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독자적인 서술 서법에만 나오는 종결어미들과의 결합 모습이다.

“값다/갓다, 먹었다/먹었다 값저/갓저, 먹었저/먹었저 먹었다문/먹었다문, 먹었다문/먹었다문,
값네/갓네, 먹었네/먹었네, 값테/갓테, 먹었테/먹었테 값고나/갓고나, 먹었고나/먹었고나”

뒤에 이어지는 종결어미는 받침의 시옷 때문에 모두 된소리로 발음된다. 다만, 종결어미가 유성 자음인 ㄴ으로 시작할 때에는 선어말어미 ‘았-’에서 시옷이 탈락된다. 종전에는 이 환경에서 시옷이 없이 ‘-암-’으로만 써 왔으나, 그렇게 되면 자칫 뒤에 이어진 자음이 유성음으로 발음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언제나 된소리(경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관되게 ‘-았-’을 써서 된소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여러 서법에 두루 쓰이는 반말투의 종결어미들과의 결합 모습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값어/갓어, 먹었어/먹었어, 값쥐/갓쥐, 먹었쥐/먹었쥐, 값주/갓주, 먹었주/먹었주, 값언게/갓언게, 먹었언게/먹었언게, 값어고나/갓어고나, 먹었어고나/먹었어고나, 값어네/갓어네, 먹었어네/먹었어네, 값어라/갓어라, 먹었어라/먹었어라”

만일 모음으로 시작되는 종결어미가 이어지면 겹받침으로 있던 시옷이 재음절화되어 종결어미의 초성으로 발음된다. 앞의 예에서 모음으로 시작되어 재음절화되는 예를 차례대로 쓰면 다음과 같다.

[감서], [가서], [머검서], [머거서], [감선게], [가선게], [머검선게], [머거선게],
[감서고나], [가서고나], [머검서고나], [머거서고나], [감서네], [가서네], [머검서네], [머거서네], [감서라], [가서라], [머검서라], [머거서라]

지금까지 표면형에서 시상 형태소가 미완료 지속 또는 불완전상/비완전상의 경우에 ‘-암시-’와 ‘-았-’이 관찰되고, 완료 지속 또는 완료상의 경우에 ‘-아시-’와 ‘-았-’이 관찰됨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것들은 음운론적으로 조건 지워진 변이형태도 아니고, 형태론적으로 조건 지워진 변이형태도 아니다. 만일 이들이 변이형태가

아니라면, 단일한 형태로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기본형으로 보아야 할까? ‘-암시-’와 ‘-아시-’를 기본형으로 잡았을 경우에, ‘-앓-’과 ‘-앗-’을 도출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탈락 규칙을 세워야 하는데, 이는 오직 이 형태소만을 위해 내 세워야 하는 것이므로, 다른 환경에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규칙으로서의 자격이 자못 의심된다.

결국, 반대의 방향으로 생각을 바꿔 볼 필요가 있다. ‘-앓-’과 ‘-앗-’으로부터 ‘-암시-’와 ‘-아시-’를 유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 삽입과 같이 유표적인 규칙 설정이 전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는 ‘-으크+이어’에서처럼 다른 종결어미에서도 찾아지기 때문에, ‘-앓-’과 ‘-앗-’이 ‘이’로 시작되는 종결어미에 결합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종결어미에서 관찰되는 ‘이’의 정체는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앓-’과 ‘-앗-’으로 기본형을 주장할 경우에 반드시 뒤에 결합되는 ‘이’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 놓아야만 한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며, 현재로서는 아무런 합의점도 없다. 다만 앞의 각주 54)에서 밝혔듯이, 고영진 교수는 형태론적 해결책으로 계사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고, 정승철 교수는 전설모음화라는 음운론적 해결책을 생각하는 듯하다. 필자는 두 해결책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공손법 형태소의 위치에 나온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손 자질이 전혀 없는 형태를 가상하여 보았다.

여기서 이 방언의 ‘-앗-’에 대하여 잠깐 언급하기로 한다. 이 방언에서는 여전히 흘받침을 지니지만, 서울말에서는 겹받침을 지니 ‘-앓-’으로 소리가 난다. 이 변화에 대해서는 허웅(1982: 41쪽)에서와 최명옥(2002: 153쪽 이하)에서 논의되고 있다. 전자에서는 오분석으로 설명하였고, 후자에서는 ‘있다’ 어간의 변화에 따른 단일화 요구로 설명하였다. 만일 후자 쪽에서 바라보면, 이 방언에서 ‘-앗-’을 흘받침으로 써야 하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공통어 ‘있다’는 이 방언에서 여전히 복수의 어간인 ‘이시다, 시다, 잇다, 싯다’를 관찰할 수 있고, 흘받침 시옷으로 쓰인다. 여전히 보수적인 세대에서는 ‘-앗-’을 유지할 듯하지만, 표준어 교육을 받은 세대에서는 ‘있다’라는 낱말을 쓰고 있으므로, 앞으로 차츰 이 형태를 ‘-앓-’으로 관념할 듯하다. 그런 변화가 생겨나면 ‘-앗-’은 겹받침을 지닌 ‘-앓-’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사학위 논문 이후로도 꾸준히 이 방언의 시상 형태소에 대해 일련의 논문

(2001, 2004, 2008)을 써 온 우창현 교수는⁶¹⁾ ‘-엇-’을 이미 시제 형태소로 발달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숙영 교수도 한국어의 전반적인 시제를 염두에 두면서, 제주 방언에서도 시제 형태소가 있다고 주장을 하였다. 그렇지만 다른 연구들에서 동일한 형태소를 놓고서 상이나 양태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과 서로 겹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언어는 대립 체계로 구현된다는 자명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직관적으로 어떤 형태소들이 대립되는지를 드러낸 다음에, 그 대립의 내용을 여러 이론적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 이 방언의 시제 형태소를 단정하기에는 더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방언의 형용사를 놓고서도, 문숙영(2006)과 고영진(2007)과 정성여(2013)에서 시상 형태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형용사가 지시하는 상태나 속성 그 자체와 관계되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그런 상태나 속성의 존재 여부 또는 경험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언급하는 양태 측면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예를 들어,

“이 느물은 맛이 쓰다”(이 나물이 맛이 쓰다)

“이 느물은 맛이 쑈다”(이 나물은 맛이 쑈 법이다)

와 같은 대립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⁶²⁾ 앞의 ‘쓰다’는 현재 나물에 대한 맛을 서술해 주고 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의 맛을 가리킨다. 그렇지만 뒤의 ‘쑈다’(쓰+은+다)는 그 대상에 대한 내재적 속성을 언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제나 쑈 성분이

61) 우창현(2001)에서는 ‘-엇-’과 ‘-어시-’가 변이형태가 아니라 각각 서로 시제와 상을 나타내는 다른 형태소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는 과거시제 형태소 ‘-았-’의 발달을 논의한 최명옥(2002)에서의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왜냐하면 후자의 주장에서는 부사형 어미 ‘-아’와 ‘-있다’라는 동사로부터 ‘-아 잇-’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지고(이 방언에서는 ‘-아시-’로 나옴), 중간 단계에서 이중모음으로서 ‘-엣-’과 단모음으로서 ‘-앗-’이 관찰되는데(이 방언에서는 ‘-앗-’만 관찰됨), 마지막 단계에서 ‘-앗-’만이 남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단계들에서 의미는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야만 비로소 음운 발달의 단계가 진행되는 것이다. 과거시제 발달에 대한 이런 주장은, 그대로 제주 방언에서도 관찰되고 적용된다고 필자는 믿고 있다. 단, ‘이중모음’으로서 ‘-엣-’은 이 방언의 모음체계에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오직 단일한 ‘-앗-’만이 존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박용후(1960: 341쪽)에 목록으로 올라 있고, 본격적으로 우창현(2001)에서 논의된 ‘-엣쑈주, -엣쑈지’(-고 있었다)의 복합 형태소는, 또한 ‘-엣시키어, -엣시키라’(-고 있겠다)의 경우와 같은 구조를 지닌다. ‘-엣+엇+주’의 결합에서 ‘-엇-’ 대신에 ‘-으크-’가 계열체로 나올 수 있다. 종결어미 ‘-주’ 대신에 계열체로 ‘-지’나 ‘-이어’나 또는 ‘-어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종결어미 앞에 있는 ‘-엇-, -으크-’ 계열체가 긴밀히 서법과 함께 행동하는 양태 범주일 개연성도 있으며, 반드시 ‘시제’ 범주로만 귀결되는 것은 아닐 듯하다.

62) 이런 대립 모습에 대한 논의는 홍종립(1991) “제주방언의 양태와 상범주 연구”(성균관대 박사논문)에서 처음 이뤄졌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맛이 쓸 뿐이다. 이런 특성은 문법 형태소를 빌려 구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맥락에 따라 구분될 수도 있다. 가령, 계사 ‘이다’로 예를 들어 보면,

“저 소방관은 미남이다 : 소방관은 이타적이다/이타적이다”⁶³⁾

에서 앞의 발화는 대상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서술해 주고 있다. 그렇지만 뒤의 발화는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내재된 근본적인 속성에 대하여 서술해 주고 있다. 이 방언에서는 형용사에서처럼 계사 ‘이다’에도 ‘은다’를 붙여 명확히 양태를 나타내어 주고 있다. 공통어에서는 비록 문법 형태상 다른 점이 전혀 없지만, 이런 차이점을 일찍이 크랏저(Kratzer 1988) 교수는 이를 각각 장면 층위 술어와 개체 속성 층위 술어로 따로 불러 구분하였다. 이를 고영진(2007)에서는 ‘현재 시제’로 보고 그 속성을 각각 일시성과 항상성이라고 불렀다. 정성여(2013)에서는 ‘양태’로 보아 각각 현실태와 비현실태(irrealis)로⁶⁴⁾ 불렀다.

용어의 정의와 사용 방식이 연구자들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개체 속성 층위 술어나 항상성이나 비현실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다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 속성을 찾을 수 있다. 이와 대립되는 장면 층위 술어나 일시성이나 현실태는 현재 이 자리에서 체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공통성을 가리키는 범주는 따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태 범주의 한 갈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절의 논의를 매듭짓기 전에 필자의 생각을 적어 놓기로 한다. 이 방언의 시상에 관한 논의는, 우선 양태 범주를 가리키는 경우를 따로 떼어 놓아야 문제의

63) 서울말에서 전혀 구분되지 않는 이 구문이 특이하게도 이 방언에서는 “저 소방관은 미남이다/이어 : 소방관은 이타적이다”로 발화될 수 있다. 앞의 진술은 현재 대상을 경험하는 상태에 대한 서술이지만, 뒤의 진술은 언제나 어디서나 발현되는 필연적인 속성에 대한 서술이다. 철학에서는 흔히 이를 우연적 사실 및 필연적 진실로 대립시킨다.

비록 필자의 설명 방식과는 다르더라도, 이런 현상이 이미 홍종림(1991: 43쪽, 51쪽)에서 화자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기억해 둔 추상적 인식 중에서 실제로 늘 일어나게 마련인 사건에 관한) ‘실연 판단’으로 맨 처음 다뤄졌다. 필자의 이해가 옳바르다면 ‘실연’보다는 ‘필연’ 판단으로 이름 붙여 놓았더라면 독자들이 혼동 없이 더 쉽게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설명은 전혀 없지만 고재환(2011: 188쪽 이하) 『제주어 개론, 하』 (보고사)에도 이런 자료가 들어 있다. 이 방언에서는 계사 ‘이다’에도 ‘은다’가 붙어 ‘-인다’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것이다. 이 때 ‘은’은 바로 “쓴다”(쓰+은+다)에서 찾아지는 ‘은’과 동일한 것이며, 대상의 내재적 속성(불변 속성)을 가리킨다. 즉, 언제 어디에서나 보존되고 발현되는 속성인 것이다. 이는 크랏저 교수의 ‘개체 속성 층위’를 가리킨다.

64) ‘비실현태’에 대한 그녀의 용법은 ‘화자의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aorist(무시제문)과 관련하여 쓰는 용법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초점이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많은 논의와 시험을 거쳐야 할 것이지만, 작업 가정으로서 필자는 이 방언의 자료들과 관련하여 양태 범주로서 ‘경험태’를 상정하는 것이 한 가지 길이라고 본다. 이런 양태 범주와 관련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경험 가능한 경우들을 제외한다면, 비로소 상 또는 시상 자료들이 남게 된다. 이는 개체 층위의 술어와 장면 층위 술어로 나누는 일과도 서로 겹치는 일이다. 상 또는 시상에 관한 표현은 장면 층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상에 대한 의미자질을 해석할 경우에 화자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청자에게도 초점을 맞추어서 ‘앓-’의 경우에 청자도 또한 해당 사건이나 사실을 여전히 확인할 수 있는 속뜻을 배당할 수 있고, ‘앓-’의 경우에는 그러할 수 없음을 속뜻으로 깔고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런 속뜻은 순수한 상(aspect)의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화행 또는 화용 중심의 언어에서 하나의 사건을 표현하면서 청자에게 떠맡기는 몫을 찾으려고 할 때에 비로소 부각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우리말이 교착어 또는 부착어라고 하면서도, 왜 종결어미들을 덩어리로 묶어서 제시해 놓는지에 대하여 늘 의구심이 들었다. 교착어라면 레고 블록처럼 명확히 하나씩 붙거나 떨어져야 옳다. 그러나 우리말 문법서에서는 조사들이 복합된 경우에는 분명히 하나씩 단계별로 서술해 놓지만, 어미들 쪽에서는 반대의 태도를 보여 준다. 왜 이런 모순스런 태도가 나오게 된 것일까? 현재로서는 상과 양태와 종결어미들이 서로 공모하여 ‘청자’에게도 화행 또는 화용과 관련된 사건에 참여하도록 제시하기 때문에, 종결어미들이 덩어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할 뿐이다.

4-3. 종결어미들의 그물 짜임새

이 방언의 종결어미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계속 작업해 왔으며, 단연 이승녕(1957, 1978), 박용후(1960), 현평효(1974, 1985)의 선업이 논의의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후속 논의들 중에서도 특히 홍종립(1975, 1994, 1999)에서는 의문 및 서술 서법의 종결어미들의 목록을 포괄적으로 확정하려고 노력하였다. 홍종립 교수의 상 및 양태에 대한 논의들도 모두 종결어미들의 논의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필자는 이 방언의 종결어미들이 너무나 복잡 다양하고 융합된 어미들이 많아서 아직까지 큰 그물 열개가 짜이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상위 개념을 먼저 확정하여야 전반적으로 그물 짜임새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기 위하여 두 가지 변수를 먼저 고려한다. 첫째, 대우체계에서 평대(대우하지 않음)을 대상으로 하되, 각 서법에 고유한 종결어미(이하, ‘고유 서법 어미’로도 부름)와 억양만을 달리하여 여러 서법에 두루 쓰이는 반말투 종결어미(‘반말투 어미’)를 구분한다. 특히, ‘-어’와 융합된 어미 형태들을 제대로 찾아낸다. 둘째, 종결어미들이 형태소 범주의 결합 관계를 분류하여 고유 서법 어미와 반말투 어미에서 동형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 절에서는 필자 나름대로 크게 두 가지 일을 진행한다. 하나는 반말투 어미 ‘-어’를 확정하여, 이 어미와 융합된 형식들을 놓고서 융합 자체가 어떤 상 또는 양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를 논의한다. 둘째, 기본적인 종결어미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나온 종결어미들의 형태소 범주를 분류하고서, 대우하지 않는 평대의 서술 서법과 의문 서법에 대한 종결어미 도표를 만든다. 중요한 과제이지만 현재 필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각 개별 종결어미들이 지닌 의미 자질과 통사 특징들에 대한 검토와 논의는 이 글에서 제외한다. 또한 종결어미들이 결합되어 나오는 범주들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이 또한 다른 날로 미루기로 한다.

한국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격식 갖추지 않은 발화를 끝내어 주는 반말 투의 어미 ‘-어’를 먼저 이 방언에서 찾아내기로 한다. 이 방언에서도 동일하게 이 반말투 종결어미가 쓰이는데, 특이하게도 종결어미를 끝내고 다시 종결어미가 붙는 융합된 종결 형태의 모습에서 마치 기본적인 융합 요구의 형태소인 양 허다하게 쓰인다. 이 방언에서 반말 투의 종결어미인지 여부를 찾아낼 수 있는 잣대는 화용 첨사 ‘마씀’을 붙여 보는 일이다. 이 반말 투의 어미 ‘-어’에는 화용 첨사가 쉽게 붙어서, ‘-어+마씀’의 형식이 쉽게 관찰된다. 그런데 이 어미는 독자적인 서법에서 쓰이는 종결어미 ‘-다’와 대립된다. 고유 서법의 종결어미 ‘-다’에는 결코 화용 첨사 ‘*-다+마씀’을 붙여 놓을 수 없다.

만일 계사 ‘이다’에 반말투 어미가 이어지거나 또는 추측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양태 선어말 어미 ‘-으크-’(-겠-)에 이어지면, 이 어미 ‘-어’가 각각 ‘-이라’와 ‘-으크

라’로 바뀌게 된다. 이는 변이형태들의 관계가 된다. 이 발화에 내림세 억양이 붙으면 서술문의 발화로 이해되고, 올림세 억양이 붙으면 의문문의 발화로 이해된다. 그렇지 않고 길게 빼면서 물결처럼 오르내린다면 반문하거나 감탄의 발화로 해석하게 된다.

“그 사름 왔어” (그 사람 왔어)⁶⁵⁾

“그 사름 가방이라” (그 사람 가방이야)

“그 사름 곧 오크라” (그 사람 곧 오겠어)

이 발화들을 해석하는 기준 시점은, 현재 발화 시점이다. ‘왔어’는 현재 발화 시점에서 완료상 형태소 ‘-았-’이 한 사건이 완료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그 사람이 온 사건이 완료됨). 나머지 발화에서는 모두 현재 가방이라는 대상을 지정해 주고, 현재 발화 시점에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발화들은 특이하게 한 번 더 종결어미들을 붙일 수 있다. 전문적으로 이를 ‘융합 형태소’라고 부르는데,⁶⁶⁾ 원래 발화를 구분해 놓기 위하여 꺾쇠 괄호를 쓰기로 한다.

“[그 사름 왔어]라!” (그 사람 왔더라)

“[그 사름 가방이라]라!” (그 사람 가방이더라)

“[그 사름 곧 오크라]라!” (그 사람 곧 오겠더라)

종결어미 뒤에 종결어미가 다시 덧붙여 있는 부분은 밑줄로 그어 놓았다. 밑줄

65) 이 방언에서 완료를 나타내는 시상 형태소 ‘-았-’은 서울말 형태소 겹받침 쌍시옷과는 달리 홑받침 시옷으로 쓰인다. 소리값이 없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종결어미가 이어지면 음절 재구조화가 이뤄져, [와서]처럼 소리가 난다. “오+았+어”라는 기본 표상에서 [와서]로 발음되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표면 형식을 종전에는 “오(여간)+아시(완료상)+어(종결어미)”라고 잘못 분석했었다. 이런 표상에서는 표면 형식이 [*와서]라고 발음될 터인데, 이 방언에서는 결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와서]로 도출하려면 ‘-아시-’에서 ‘이’를 탈락시키는 유일한 규칙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만 이 형태소를 ‘-았-’으로 본다면, 쉽게 “오(여간)+았(완료상)+어(종결어미)”로 표상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재음절화를 거쳐 [와서]로 나오게 된다.

66) 종결어미들의 융합 형식을 처음 밝혀낸 논문은 임흥빈(1984) “청자 대우법 상의 ‘해’ 체와 ‘해라’ 체,” 『소당 천시권 박사 화갑기념 국어학 논총』이다. 이어 안명철(1990) “국어의 융합 현상,” 『국어국문학』 제103호와 이지양(1998) 『국어의 융합 현상』 (태학사)과 김수태(2005) “‘-느-’와 종결어미의 융합” 『우리말 연구』 제16호와 허경행(2010) 『한국어 복합 종결어미』 (박문사)가 있다. 여러 방언에서 이런 융합 어미들이 많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더 이상 융합 형식들에 대한 논의는 아직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

그은 부분은 각각 “와서라, 가방이라라, 오크라라”로 음절이 조정되어(‘재음절화’로 불림) 소리가 난다. 이 또한 반말 투의 종결어미들이므로, 여기에 얹히는 억양의 모습에 따라서

서술, 의문, 반문, 명령, 청유, 감탄

등의 서법 기능을 지니게 된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융합 형태의 서술 시점이 현재 발화 시점보다 더 앞선 시점으로 이동되어 있다. 이런 일은 비록 동사에 현재 서술 서법으로 나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시 융합 형태소를 이루는 경우에 그대로 동일한 일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 먹어” (이것 먹어)

“[이거 먹어]고나” (이것 먹더구나)

“[이거 먹어]은게”→“먹언게”로 재음절화됨 (이걸 먹던걸, 먹던구나)

“이거 먹어”는 맥락에 따라서 명령이나 의문 서법으로도 쓰일 수 있고(현재 동작 표현), 먹을 수 있는 대상임을 가리키는 내부 속성 표현의 서술 서법으로도 쓰일 수도 있다(영속적인 대상의 속성을 서술해 주는 표현임).⁶⁷⁾ 이 표현이 다시 융합 표현으로 나와서 ‘먹어고나, 먹언게’로 되면, 앞에서와 같이 ‘고나’(-구나)와 ‘은게’(-은 것이다)가 가리키는 현재 발화 시점보다 한 시점을 더 앞선 사건을 가리키게 된다. 이 동사가 완료 시상 형태소 ‘-앗-’을 가질 수도 있다. 그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공통어로 모두 ‘-었더-’로 번역된다.

“이거 먹었어”→“먹어서”로 재음절화되어 발음됨(이것 먹었어)

“[이거 먹었어]고나”→“먹어서고나”로 재음절화되어 발음됨(이걸 먹었더구나)

“[이거 먹었어]은게”→“먹어선게”로 재음절화되어 발음됨(이걸 먹었던걸, 먹었더구나)

이런 규칙적인 융합 어미의 형성 방식은 매우 중요한 양태 해석을 시사해 준다. 맨 뒤의 종결어미는 화자의 현실 경험태를 가리키지만, 바로 앞선 종결어미는 사

67) 이는 크랏저(Kratzer 1988)에서 각각 장면 층위 술어와 개체 속성 층위 술어에 해당한다. 또한 비슷하게 고영진(2007)에서 지적인 일시성 대 항상성과도 일치한다. 이것이 비단 형용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동사에서도 그대로 관찰되는 것이다.

건 실현태를 가리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양태의 계층 구분이 공통어로 번역될 경우에,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지금 현재 언급하는 형태소 ‘-더-’를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 방언의 연구에서 여러 표기들이 혼재해 있는데, 이런 기본구조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소리대로 써 놓았을 뿐이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형식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응당 기본형을 내세워 적어 줄 필요가 있다.

오직 고유한 서법에만 나오게 되는 종결어미 ‘-다’(-다)도 또한 계사 ‘이다’에 이어질 적에는 변이형태로 ‘이+어’로 나온다.⁶⁸⁾ 이는 반말투 어미 ‘-어’와 철저히 상보적인 분포를 보여 준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 사람 일찍 떠났다” (그 사람은 일찍 떠났다)

“이거 그 사람 책이어” (이것은 그 사람의 책이다)

“내일 비 하영 오키어” (내일 비 많이 오겠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화용 첨사를 붙일 수 없기 때문에⁶⁹⁾ 고유한 서법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에 속한다.

이제 잠정적으로 평대 관계의 서술 종결어미의 목록 및 의문 종결어미의 목록을 두 개의 도표로 제시한다. 단, 기호 약속으로 ‘wh’는 의문사 ‘어디, 무사(왜), 누구, 언제’와 같은 낱말 부류를 가리키고, 억양은 서술문의 무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 각각 화살표를 이용하여 내림세를 ‘(↘)’으로, 올림세를 ‘(↗)’로, 길게 늘여 빼는 감탄 어조를 ‘(→)’으로 표시해 두기로 하며, ‘+’는 종결어미들이 융합되는 모습을 가리키기로 한다.⁷⁰⁾ 여기서 구분해 놓은 형태소의 서로 결합하는 범주들에 대

68) 추측이나 의도의 양태 선어말 어미 ‘-으크-’에 이어질 적에도 또한 ‘-으크+이어’로 분석되어 “-으키어”로 소리 나는데, 이것이 또한 계사인지는 잘 알 수 없다. 이 방언에서 계사는 어간이 임의로 생략되거나 (어간 생략 현상) 또는 잠재되어 있는 ‘ㄹ’ 소리가 구현되어 나오기도 한다(ㄹ 발현 현상). 그렇지만 ‘-으크-’와 결합하는 ‘이’는 이런 일을 보여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능성들을 상정한 연구자들이 많다.

69) 여기에도 원래 발화를 그대로 흉내 내면서 “[원래 발화] 마썸~?”과 같이 반문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반말 투의 융합 구조와는 속성이 전혀 다르다. 꺾쇠 괄호에 있는 원래 발화는 고립된 섬처럼 전혀 변화가 없이 그대로 파온 것일 뿐만 아니라, 이는 원래 발화보다 해당 발화를 만들어 낸 원래 의도를 겨냥하여 되묻는 일이 된다. 따라서 발화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발화의 이면에 묻혀 있는 화자의 의도에 초점이 모아져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원래 발화] 라고 말하는 저의가 대체 무엇입니까?”라고 번역할 수 있으며, 발화가 대상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의도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70) 이 도표는 오직 잠정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앞으로 계속 추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가 진척됨에

한 해석들도 깊이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평대 관계) 서술 종결어미 목록

독자적인 종결어미			반말투의 종결어미		
종결 고유 서법 어미	-다(계사와 추측 양태 뒤에 '-이어, -으키어')	화용 첨사 {마춤} 연결이 가능치 않음 (×)	반말투	-어(계사와 추측 양태 뒤에 '-이라, -으크라')	화용 첨사 {마춤} 연결이 가능함 (○)
	-저			-취, -주	
	-과라			계사 '이게' 형식	
	-고라		어미 중첩 {게} 첨사가 붙음	-어+은게	
	-노라			-어+고나	
	-나			-어+네	
	-네			-어+라	
겸용 서법	-네(↘), 감탄(→)		관형형, 의존명사 구문	-다+문, -오라(명령)+문	
	-테(↘), 감탄(→)			-은/는/던게	
	-고나(↘), 감탄(→)			-은/는/던걸	
관형형, 의존명사 구문	-은/는/던 생이어			-을로고나, -을로고	
	-을노라		접속문 전성	-을테취	
	-을로다			-을컬, -으컬	
	-으니			-을커라, -으커라	
	-느니			-안	
	-으리			-은/는/던디	
	-으리라			-거든	
	-으려			-민	
				-곡	
기 타	-이 (또는 반모음 y)		내포문 전성	-곡말곡, -다마다	
	-으메			-겐, -젠, -넌, -넌,	
	-에			-넌 -랜	
	-예			-젠	
			기 타	-나여, -다여, -라여	
				-으멘	

따라 여기 제시된 일부 융합된 어미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평대 관계) 의문 종결어미 목록

독자적인 종결어미			반말투의 종결어미		
종결 고유 서법 어미	-가?	화용 침사 {마쓰} 연결이 가능치 않음 (×)	반말투	-어?(계사와 추측 형태 뒤에 '-이라?', -으크라?')	화용 침사 {마쓰} 연결이 가능함 (○)
	-나?			-취?, -주?	
	-다?, -다?		어미 중첩 {계} 침사 가능함	-어(반말투)+은가?	
	wh-고?(ㄴ)			wh-어(반말투)+니?(ㄴ), -어+냐?	
관형형, 의존명사 구문	wh-니?(ㄴ), -냐?		관형형, 의존명사 구문	wh-어(반말투)+은디?(ㄴ), -어+은다?, -어+은다?	
	wh-디?(ㄴ), -다?, -다?			wh-은/는/던고?(ㄴ), -은/는/던가?	
	wh-이?(ㄴ), -야?, -야?			wh-은/는/던디?(ㄴ)	
	-은/는/던다?, -은/는/던다?			wh-으코?(ㄴ), -으카?	
	-으리?		접속문 전성	-을커라?, -으커라?	
	-으려?			-안?	
	-으랴?		내포문 전성	인용: -젠?, -젠?, -넌?, -넌?, -덴?, -덴?	
	-을래?			의도: -젠?	
	-을라?			-으멘?	
	wh-올디?(ㄴ), -올타?				
장년 여성	wh-올러니?(ㄴ), -올러냐?		기 타		
	wh-으커니?(ㄴ), -으커냐?				
장년 여성	-순?, -심?, -산?				

V. 내포와 접속 범주

마지막으로 내포 및 접속에 대하여 간단히 논의하기로 한다. 우리말에서 내포와 접속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불분명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 이유는 아마 핵어(head)의 개념을 확정짓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어미만을 중심으로 다룬다면 내포를 맡는 어미와 접속을 이끌어가는 어미가 서로 동일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가령, 내포절의 ‘-고’와 접속절의 ‘-고’), 내포의 개념과 접속의 개념이 동일한 것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려 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내포절은 항상 동사의 논항구조로 자리를 잡게 되므로, 그 핵어는 동사이다. 이 동사는 절/문장을 허용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남의 말 인용을 포함하여 인식이나 추정과 관련된 자질을 품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접속을 허용해 주는 핵어는 기능범주 ‘&’(접속사)이다. 내포를 허용하는 핵어와 접속을 허용하는 핵어는 범주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접속은 크게 접속이 계속 일어나는 병렬 또는 등위 접속과 오직 두 절 사

이에서만 일어나는 종속 접속으로 나뉜다. 유표적으로 수의적인 종속 접속과 부가 접속도 다뤄져야 하겠지만, 기본 형상에서 매개인자를 설정하여 변용할 수 있다.

이 방언과 관련하여 선별적으로 내포 범주에서는 이른바 ‘인용’과 관련된 인용문 구조를 검토하고, 접속 범주에서는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서 상 또는 시상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지배 관계를 다루기로 한다. 인용은 최근 입말 담화를 전산 처리하면서 자주 일상생활에서 쓰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담화 속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떠맡고 있음이 밝혀졌다.⁷¹⁾ 따라서 발화의 무대를 마련하거나 출처를 밝힌다는 의미에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만이 아니라, 아직 발화되지 않은 상대방의 마음이라고 추정하여 인용의 형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인용될 화행의 종류를 범주로 만들어서 언급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방언의 내포와 접속에 대한 논의에서 흔히 눈에 띄는 것이 내포와 접속과 양태의 뜻을 담고 있는 보조동사(비록 학교문법에서는 보조적 연결어미란 말을 쓰지만 사실은 내포문의 일종임)를 아무런 구분이 없이 뒤섞어 논의하는 일이다. 필자도 1982년 석사논문을 쓸 때에 전혀 이런 개념이 서 있지 않다 보니, 어미의 형태들만 따져 이내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러나 필자가 저질렀던 실수를 다른 연구자들이 거듭하는 경우도 자주 보인다. 가령, 인용을 맡고 있는 어미는 연구자에 따라 ‘-인’으로도 또는 ‘-엔’으로도 상정된다. 이 어미는 결코 ‘*-에네’나 ‘*-이네’로 형태가 늘어날 수 없다. 의도를 나타내는 구문 ‘-저 하다’(-려고 하다)나 ‘-으켜 하다’(-겠다 하다)도 인용의 형태인 ‘-겐 하다’와 ‘-으켄 하다’로 나올 수 있다. 이 또한 결코 ‘*-제네 하다’나 ‘*-으케네 하다’로 형태소가 늘어날 수 없다.⁷²⁾

71) 머카씨(McCarthy 1998, 김지홍 2010 뒤침) 『입말, 그리고 담화 중심의 언어교육』 (도서출판 경진)의 제8장 ‘그래서 매위가 말하더군요: 일상대화에 있는 인용’과 페어클롭(Fairclough 2003, 김지홍 2012 뒤침) 『담화 분석 방법』 (도서출판 경진)의 제3장 5절 ‘서로 얹힌 텍스트 속성’을 읽어 보기 바란다. 인용을 이용하는 일은 결국 자신의 발화에 합당성을 부여해 주려는 동기를 깔고 있다. 후자의 제5장 6절 ‘합법화’를 참고하기 바란다.

72) 정승철(1997: 99쪽)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엔’이 인용 동사(강정희 교수는 전달 동사) ‘-하다’에 붙는 연결어미 ‘-헨’으로부터 나왔다고 적어 놓았다. 그렇다면 인용절 어미를 인허해 주는 핵어 동사는 무엇일까? ‘-헨’은 접속절이므로 언제나 ‘-헨네’로 늘어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인용절의 어미가 결코 늘어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과도 합치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승철(1997: 102쪽)에서 ‘-곤, -닌, -준, -곤, -딘’에서 관찰되는 ‘-ㄴ’을 ‘-엔’에서 ‘-에’가 탈락된 것으로 기술하는 것에도 동의할 수 없다. ‘-에’를 탈락시킬 음운적 동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음운 현상으로 보는 일(음운 만능주의)에는 무리가 있을 듯하다. 아마 이들 어미가 본디 서술 서법 이외의 어미들이라는 사실에서부터 차근히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한다.

어미 형태의 이런 특성은 접속 구문에서 나오는 연결어미 ‘앙’과 ‘안’이 상과 양태의 대립을 보이는데, 각각 다음처럼 형태가 늘어날 수 있는 것과는 크게 대조가 된다. 미완료 또는 불완전상(‘바-완전상’)을 지니고 있고, 청자가 여전히 경험할 수 있다는 양태의 속뜻을 지닌 전자가 ‘-아그녕에, -아그네, -앙그네’로 수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반면에 완료상을 지니고 청자가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다는 양태의 속뜻을 지닌 후자는 오직 ‘-아네’로만 늘어난다. 필자는 이런 측면이 등위 또는 병렬 접속(다항 접속) 구문에 걸맞는 어미 형태라고 본다. 왜냐하면 접속절들이 계속 늘어나기 위해서는 절 자체의 시상/시제가 매듭지어 있는 편이 계속해서 더욱 더 나열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종속 접속을 맡고 있는 조건절은 ‘-민’(-면)으로 대표될 수 있다. 이 연결어미도 앞에서 인용절 어미와 같이 늘어날 수 없다. ‘*-미네’라는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종속 접속은 언제나 2항 접속이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도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이런 점들에 대하여 제대로 지적되지 않은 듯하다.

인용문을 다루면서 연구자들 사이에 인용절 어미의 기본형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듯하다. 대체로 고영진(1984)에서 주장한 ‘-인 하다’를 따르지만,⁷³⁾ 정승철(1997)에서는 ‘-엔’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만일 후자를 ‘-엔 하다’로 바꾼다면, 공통어의 인용 구조 ‘-이라 하다’와 대응될 수 있다. 물론 “누게네 몰곤?”(누구네 집 말인가라고?)이나 “그 사름 누게닌?”(그 사람 누구냐고?)처럼 직접 인용(누게네 몰고?, 그 사름 누게니?) 뒤에 ㄴ받침만이 인용되었음을 표시해 주고 있다. 이것이 ‘-인’ 또는 ‘-엔’과 상보적 관계인지 여부도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공통어에서 인용을 주도하는 어미는 ‘-이라고 하다’이므로 ‘-인’ 또는 ‘-엔’에는 계사 요소와 인용 형태소로 재분석될 가능성이 있다. ‘-엔’은 이 방언의 계사 활용 모습 ‘이어’(필자가 제시한 도표에서 고유한 서법의 활용임)와 관련성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고영진(1984)의 ‘-인’은 이 방언의 ‘-으키어’에서 찾아지는 ‘이’나 ‘앗-’과 ‘-앗-’에 결합하는 ‘이’와 자연부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아직 필자는 어느 선택이 더 옳을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공통어 ‘-이라고’를 염두에 둔다면 ‘-엔’이 보다 더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는 듯하다.

73) 강정희(1988: 162, 164쪽)에서는 ‘-인/-잉’으로 적어 놓았다. 접속 어미에서와 같이 상 또는 양태적인 대립을 보이지 않으며, 결코 ‘*-이네’로 늘어날 수도 없으므로 다만 표면형의 변이를 적어 둔 것으로 판단된다.

접속절의 구조에서는 후행절의 시제나 시상 요소가 어떻게 선행절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지, 그리고 그런 지배를 막을 방법을 세워 놓을지가 현안 과제이다. 이 과제를 풀기 위한 결정적 자료를 이 방언에서 제공해 줄 수 있음을 논의하기로 한다. 생성문법에서는 종결어미가 한 문장의 최고 층위의 핵어가 되며, 아래에 있는 모든 교점들을 지배할 수 있다. 시제 또는 시상 요소는 바로 종결어미 층위 아래에 자리를 잡고 있으므로, 부사령관의 역할을 맡는다. 그렇다면 접속사 ‘&’ 범주에 의해서 투영되어 나오는 접속절의 구조를 어디에다 위치시킬 것인지를 논제로 삼아야 옳다. 필자는 접속사 범주가 [+C, +I]의 자질로 이뤄지기 때문에, 후행절의 시제 또는 시상 교점에 반드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등하게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필자가 앞에서 제시해 놓은 종결어미들의 목록에서 접속절을 이끄는 어미들이 종결어미로 쓰일 수 있는 것도 이런 자질 배합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다.

필자는 이 방언에서 찾아지는 ‘-안’(완료상, 청자의 확인 추체험 불가능 양태)과 ‘-앙’(불완료상/비완료상, 청자의 확인 추체험 가능 양태)이라는 서로 다른 의미자질이 후행절로부터 시제 또는 시상 해석을 막아 주는 방법이 된다고 가정한다. 이를 통사 구조 교점에다 표시해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제 또는 시상 해석 규칙을 따로 세워서 전체 문장의 시제나 시상을 읽어 나갈 수 있다. 그렇지만 연결어미가 지닌 고유한 대립 자질들은 해석 규칙을 따로 세우는 일이 우원한 방식일 뿐이며, 바로 의미자질을 고려하면서 해당 교점에서 시제나 시상을 확정해 놓도록 중요한 단서를 주는 것으로 파악한다.

㉠ 가이 이레 왕 밥 먹어 앗 얏 얏저 (개가 여기로 와서 밥 먹고서 가고 있다)

가이_i [[t_i 이레 왕]_{&P} [pro_i 밥 먹어 얏]_{&P} [pro_i 가_Ø-얏]_{&P} -얏저]

만일 위 발화의 구조를 표시하면 세 가지 절이 접속되어 있다. 이를 &P로 표시해 놓았다. 각 절의 주어는 맨 앞의 부가어 자리를 만들어 이동한 ‘그 사름’에 의해서 같은 지표를 받아 해석이 이뤄진다. 첫째 절에는 이동의 흔적(t)이 표시되어 있고, 둘째 절과 셋째 절에는 공범주 대명사(pro)가 표시되어 있고 맨 앞의 ‘그 사름’과 동일한 지표를 부여받는다. 셋째 절의 핵어인 접속사는 의무적인 탈락으로 인해 Ø로 표시되어 있다. 여기서 문제는 종결어미와 함께 있는 시상 요소 ‘얏-’이 앞의 접속사들을 지배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결정하는 데에 이 방언

의 사례는 큰 도움을 준다.

㉠ 가이 이레 완 밥 먹어 앗안 값저

먼저 ‘값저’(가고 있다)가 실현되어 있을 때에 선행절의 시상을 모두 ‘안’(완료상, 청자의 확인 추체험 불가능 양태)을 배합시켜 문법성 여부를 보기로 한다. ㉠은 여기 온 사건과 밥 먹은 사건이 모두 끝나 버렸고(두 사건이 일련의 복합사건으로 표현됨), 이제 다른 데로 가고 있다는 정보를 화자가 직접 대면하고 있는 청자에게 전해 주고 있다. ㉠과 ㉡은 어느 것도 비문법성에 저촉되지 않는다.

㉡ *가이 이레 완 밥 먹어 앗안 가키어

㉢ 가이 이레 왕 밥 먹어 앗알 가키어

이제 ㉢을 살펴보기로 한다. 후행절에 ‘가키어’(가겠다)가 나오면, 이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추측하고 있다. 그런데 선행절에는 이미 두 사건이 끝나 있다. 필자에게는 이런 발화가 모순스럽게 느껴진다. 필자에게는 비문이다. 오직 ㉢과 같이, 선행절에 ‘-앙’이 실현되어야만, 오는 사건 먹는 사건 가는 사건이 모두 미래에 일어날 일이 되며, 이를 추측하고 있다. 세 가지 사건이 모두 일련의 복합사건을 구성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과 ㉣은 후행절에 있는 ‘-으크-’(-겠-)의 시상 해석이 선행절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해 준다. 이런 일이 구조적으로 가능해지려면 반드시 ‘-으크-’가 접속사 &보다 구조적으로 더 높이 위치해야 할 것이다. 다시 다음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 ??가이 이레 왕 밥 먹어 앗알 갓저

㉤ 가이 이레 완 밥 먹어 앗안 갓저

여기서는 마지막 후행절에 완료상(그리고 청자의 확인 추체험 불가능 양태)이 나와 있다. 만일 여기로 온 사건과 밥 먹은 사건과 떠난 사건이 일련의 연속 사건이라면, 필자의 느낌으로는 ㉤이 아무런 장애도 없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의 수용성 여부는 아마 연구자들마다 변동될 가능성이 있을 듯하다.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까닭은 어느 사건을 일련의 복합사건으로 묶을지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필자의 직관에만 충실한다면, ㉤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직 ㉤만 가능하다. 그 까닭은 화자가 이 발화를 말하려고 준비하면서 세 가지 사건을

일련의 복합사건으로 기획하였고, 그 복합사건이 이미 일어났음을 말하려고 의도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으크-’의 경우처럼, 최종 후행절의 시제 또는 시상 요소가 앞의 선행절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는 접속절의 교점이 후행절 시상 또는 시제 교점에 의해 적절히 지배를 받는 구조를 그려야 함을 시사해 준다. 아직 이 방언의 이런 특질들을 놓고 시제나 시상이 계산되는 모형이나 구조를 그려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이 방언에서만 관찰되는 이런 접속문의 매개인자가 우리말의 접속 구조를 그리는 데에도 중요한 근거로 부각될 수 있다.

VI. 마무리

없는 재주 있는 재주 다 털어서 머리를 굴려 보느라 애를 썼지만, 소득이란 게 모래를 손으로 움켜잡은 듯하다. 너무 부실한 내용으로 토론해 주시는 분과 청중들께 눈만 버리게 했을 따름이다. 날카로운 질문으로 올바르게 안내해 주시기를 고대하면서, 마감 기일을 한참 넘기고서야 가필할 여유도 갖지 못한 채 이제 무던 붓을 내려놓는다.

참고 문헌

- 강근보(1972), “제주도 방언 「잇다」 활용고”, 제주대학 『논문집』 제4집
- 강근보(1975), “제주도 방언 어휘고 (2): 곡용에서의 {-마씀}을 중심으로”, 제주대 국문과 『국문학보』 제7집
- 강근보(1977a), “속격 {-네}의 연구: 제주도 방언의 {-네}를 중심으로”, 제주대학 『논문집』 제8집
- 강근보(1977b), “제주도 방언의 접미사 연구: 특히 {-드레}를 중심으로”, 제주대학 『논문집』 제9집
- 강근보(1978), “제주도 방언의 곡용에 대하여”, 제주대학 『논문집』 제10집
- 강정희(1987), “제주 방언의 명사류 어미의 한 종류 ‘-(이)랑’에 대하여”, 『한남 어문학』 제13집
- 강정희(1988), 『제주 방언 연구』, 한남대 출판부
- 강정희(1994), “방언 분화에 의한 형태 분화: 제주 방언의 ‘이랑’과 문헌어의 ‘으란’을 중심으로”, 『이화 어문논집』 제13집
- 강정희(2005), 『제주 방언 형태 변화 연구』, 역락
- 강정희(2008), “제주방언 동명사 구문의 문법화 연구”, 『어문연구』 제57집
- 고영근(2004, 2007 보정판), 『한국어의 시제 · 서법 · 동작상』, 태학사
- 고영진(1984), “제주 방언의 인용문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 고영진(2007), “제주도 방언의 형용사에 나타나는 두 가지 ‘현재 시제’에 대하여”, 『한글』 제275호
- 고영진(2008),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상 범주의 체계화를 위하여”, 『한글』 제280호
- 고재환(2011), 『제주어 개론, 상 · 하』, 보고서
- 김수태(2005), “‘-느-’와 종결 어미의 융합”, 『우리말 연구』 제16호
- 김영주 외 7인(1997) 『언어학 이론과 한국어 의미 · 통사 구조 습득 I』, 민음사
- 김완진(1970), “문접속의 ‘와’와 구접속의 ‘와’”, 서울대 『어학 연구』 제6권 2호
- 김지홍(1982), “제주 방언의 동사구 보문 연구”, 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 김지홍(2001), “제주 방언 대우법 연구의 몇 가지 문제”, 제주대 국어교육과 『백록 어문』 제17호
- 김지홍(2010a), 『국어 통사 · 의미론의 몇 측면: 논항구조 접근』, 도서출판 경진

- 김지홍(2010b), 『언어의 심층과 언어교육』, 도서출판 경진
- 김지홍(2013), “언문지의 텍스트 분석”, 『진단학보』 제118호
- 김창집(1980), “제주 방언의 첨사 연구”, 제주대 교대원 원우회 『연구 논총』 1
- 김홍수(1989), 『현대국어 심리동사 구문 연구』, 탑출판사(국어학회)
- 문숙영(1998), “제주도 방언의 시상 형태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문숙영(2004), “제주 방언의 현재시제 형태소에 대하여”, 『형태론』 제6권 2호
- 문숙영(2005), “한국어 시제 범주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 문숙영(2006), “제주 방언의 ‘-엄시-’의 범주와 관련된 몇 문제”, 『형태론』 제8권 2호
- 문순덕(2002), “제주 방언 보조조사의 담화 기능”, 제주대 국문과 『영주 어문』 제4집
- 문순덕(2003a), 『제주 방언 문법 연구』, 도서출판 세림
- 문순덕(2003b), “제주 방언 반말체 첨사의 담화 기능”, 제주대 국문과 『영주 어문』 제5집
- 문순덕(2005a), “제주 방언의 간투 표현”, 『한글』 제269호
- 문순덕(2005b), “제주 방언 높임말 첨사의 담화 기능: ‘마썸, 양, 예’를 중심으로”, 『언어 연구』 제20호 3권
- 박용후(1960, 철필 등사본), 『제주 방언 연구』, 동원사
-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태학사
- 성낙수(1984), 『제주도 방언의 풀이씨의 이음법 연구』, 정음사
- 성낙수(1992), 『제주도 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계명문화사
- 송상조(2007), 『제주말 큰사전』, 한국문화사
- 송상조(2011), 『제주말에서 때가림소 ‘-ㅇ, -ㄴ’과 씨끝들의 호응』, 한국문화사
- 송철의(1993), “준말에 대한 형태·음운론적 고찰”, 『동양학』 제23집
- 신선경(2002), 『‘있다’의 어휘 의미와 통사』, 태학사
- 안명철(1990), “국어의 융합 현상”, 『국어국문학』 제103호
- 안병희(1978), 『15세기 국어의 활용어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 양창용(2009), “제주 방언 ‘양’에 대한 통사·담화론적 고찰”, 『한국 언어문학』 제69집
- 우창현(1998), “제주 방언의 상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 우창현(2001), “제주 방언 선어말 어미 ‘엇-’에 대하여”, 『순천향 어문논집』 제7집
- 우창현(2004), “제주 방언 ‘-아시-’의 문법화와 문법 의미”, 『한국어학』 제24호,
- 우창현(2008), “제주 방언 선어말 어미 의미 해석 문제: ‘암시-, -아시-’를 중심

- 으로”, 『민족문화 논총』 제40집
- 유현경 외 6인(2011), 『한국어 통사론의 현상과 이론』, 태학사
- 이승녕(1957, 1978 재간),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 이은규 · 노은주(1991), “향가 용자례 연구”, 효성여대 『한국 전통문화 연구』 제7집
- 이익환 · 이민행(2005), 『심리동사의 의미론: 영어, 한국어와 독일어의 대조연구』, 역락
- 이주행(1986), “의존명사의 의미 분석”, 『임동권 박사 송수기념 논문집』
- 이현진(2003), “언어 습득과 언어 발달”, 조명한 외 『언어 심리학』, 학지사
- 이지양(1998), 『국어의 융합 현상』, 태학사
- 이효상(2006), “제주 방언의 ‘-엄시-’에 대하여: 상 표지인가, 시제 표지인가?”, 『형태론』 제8권 1호
- 임홍빈(1972), “국어의 주제화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임홍빈(1979), “용언의 어근 분리 현상에 대하여”, 『언어』 제4권 2호
- 임홍빈(1981), “사이시옷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어학』 제10호
- 임홍빈(1984), “청자 대우법 상의 ‘해’ 체와 ‘해라’ 체”, 『소당 천시권 박사 화갑기념 국어학 논총』
- 임홍빈(2007), 『한국어의 주제와 통사 분석: 주제 개념의 새로운 전개』, 서울대 출판부
- 정성여(2013), “제주방언의 ‘-ㄴ다’와 관련된 어말형식들의 대립에 대하여”, 『방언학』 제17호
- 정승철(1995), 『제주도 방언의 통사 음운론』, 태학사
- 정찬섭(1989), “시각 정보처리 계산 모형”, 이정모 외 『인지과학: 마음 · 언어 · 계산』, 민음사
- 정호완(1987), 『후기 중세어 의존명사 연구』, 학문사
- 제주대 박물관(1995) 엮음, 『제주어 사전』, 제주도
- 제주문화예술회관(2009) 엮음, 『개정증보 제주어 사전』, 제주특별자치도
- 조숙환 외 7인(2000), 『인간은 언어를 어떻게 습득하는가: 언어의 의미, 통사구조, 습득에 관한 연구』, 아카넷
- 최명옥(2002), “과거시제 어미의 형성과 변화”, 『진단학보』 제94집
- 최현배(1929, 1975 제5 개정판), 『우리 말본』, 정음사

- 한영균(1984), “제주방언 동명사 어미의 통사구조”, 『국어학』 제13집
- 허경행(2010), 『한국어 복합 종결어미』, 박문사
- 허웅(1975), 『우리 옛말본: 15세기 국어 형태론』, 샘문화사
- 허웅(1982), “한국말 때때김법의 걸어온 발자취”, 『한글』 제178호
- 현평효(1974), “제주도 방언의 정동사 어미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현평효(1985) 재수록
- 현평효(1985), 『제주도 방언 연구: 논고편』 (이우출판사)
- 현평효 · 김홍식 · 강근보(1974), “제주도 방언 활용어미에 대한 연구”, 제주대학 『논문집』 제6집
- 홍종립(1991), “제주방언의 양태와 상범주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 홍종립(1994), “제주방언 평서법 어미에 대한 고찰 (1)”, 서울대 국어교육과 『선청어문』 제22집
- 홍종립(1995), “제주방언의 상대 존대 형태에 대하여: 사라진 ‘-으/으이-’의 자취를 찾아서”, 『기곡 강신항 박사 정년퇴임기념 국어국문학 논총』, 태학사
- Alexiadou, A., E. Anagnostopoulou, and M. Everaert(2004) eds. 『*The Unaccusativity Puzzle: Explorations of the Syntax-Lexicon Interface*』 (Oxford University Press)
- Baddeley, A.(1986) 『*Working Memory*』 (Oxford University Press)
- Baddeley, A.(2007) 『*Working Memory, Thought and Action*』(Oxford University Press)
- Bowerman, M. and P. Brown 2008) eds. 『*Cross-linguistic Perspectives on Argument Structure*』(Lawrence Erlbaum)
- Chafe, W. and J. Nichols(1986) eds. 『*Evidentiality: The Linguistic Coding of Epistemology*』(Alex Pub.)
- Clark, H.(1996, 김지홍 2009 뒤침) 『언어사용 밑바닥에 깔린 원리』(도서출판 경진)
- Damasio, A.(1994, 김린 1999 뒤침) 『데카르트의 오류』(중앙문화사)
- Davidson, D.(1980, 배식한 2012 뒤침) 『행위와 사건』 (한길사)
- Du Bois, J., L. Kumpf, and W. Ashby(2003) eds. 『*Preferred Argument Structure: Grammar as Architecture for Function*』(John Benjamins)

- Fairclough, N.(2003, 김지홍 2012 뒤침) 『담화 분석 방법』(도서출판 경진)
- Frege, G.(1879) “개념 표기법(개념 문자)”, van Heijenoort(1967) ed. 『*From Frege to Gödel: A Source Book in Mathematical Logic, 1878~1931*』 (Harvard University Press)
- Frege, G.(1884, 박준용 · 최원배 2003 뒤침) 『산수의 기초』(아카넷)
- Frege, G.(1893, 김보현 2007 뒤침) 『산수의 근본 법칙 I』(울산대학 출판부)
- Goffman, E.(1967) 『*Essays on Face-to-Face Behaviour*』(Pantheon Books)
- Grice, H. P.(1989) 『*Studies in the Way of Words*』 (Harvard University Press)
- Hale, K. and J. Keyser (2002) 『*Prolegomenon to a Theory of Argument Structure*』(MIT Press)
- Hardman, D. and L. Macchi (2003) eds. 『*Thinking: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Reasoning, Judgment, and Decision Making*』(John Willey & Sons)
- Jackendoff, R.(1990, 고석주 · 양정석 1999 뒤침) 『의미 구조론』(한신문화사)
- Jackendoff, R.(2002, 김종복 · 박정운 · 이예식 2005 뒤침) 『언어의 본질: 통사 · 의미 · 인지구조를 중심으로』(박이정)
- Jackendoff, R.(2012) 『*A User's Guide to Thought and Meaning*』(Oxford University Press)
- Kant, I.(1781, 백종현 2006 뒤침) 『순수 이성 비판』(아카넷)
- Kasher, A.(1991) ed. 『*The Chomskyan Turn*』(Basil Blackwell)
- Kratzer, A.(1988) “Stage-level predicates and Individual-level predicates”, Carlson and Pelletier(1995) eds. 『*The Generic Book*』 (Chicago University Press)
- Levin, B. and M. Rappaport-Hovav(1995) 『*Unaccusativity: At the Syntax-Lexical Semantics Interface*』(MIT Press)
- Levin, B. and M. Rappaport-Hovav(2005) 『*Argument Realization*』(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Carthy, M.(1998, 김지홍 2010 뒤침) 『입말, 그리고 담화 중심의 언어교육』(도서출판 경진)
- Marr, D.(1982) 『*Vision: A computational investigation into the human representation and processing of visual information*』(W.H. Freeman &

Company)

Pinker, S.(1999, 김한영 2009 뒤침) 『단어와 규칙』 (사이언스 북스)

Rappaport-Hovav, M., E. Doron, and I. Sichel(2010) eds. 『*Lexical Structure, Syntax, and Event Structure*』(Oxford University Press)

Tarski, A.(1956, 1983 재간) 『*Logic, Semantics, Meta-mathematics*』(Hackett Pub.)

제주방언의 어휘의미론

오 창 명 (언어와문자연연구소 소장)

I. 서 론

어휘의미론은 어휘론(lexicology)과 의미론(Semantics)을 아울러 뜻하는 말로도 쓰고, 어휘론의 한 분야, 또는 의미론의 한 분야인 어휘의미론(Lexical Semantics)을 뜻하는 말로도 쓰인다.

어휘론이라는 용어는 영어 lexicology의 번역어로 쓰였는데, lexicology는 1820년대에 처음 등장하였다. lexicology는 낱말을 뜻하는 그리스어 λεξικόν(렉시코스), 말을 뜻하는 λεξικόν(렉시스), 연구를 뜻하는 -λογία(로지아)의 합성어로 만든 말이다. 어휘론은 단어와 의미, 단어 간 관계, 단어군, 전체 어휘 등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의미론(意味論)이라는 용어는 서양에서 그리스어 세마이노(σημαινω/semaino: 의미하다)를 바탕으로 하여 만든 프랑스어 sémantique(영어: semantics, 독일어: Semantik)를 번역한 것이다. 처음 이 단어를 쓴 사람은 프랑스 언어학자 미셸 브레알(Michel Bréal: 1832~1915)로 알려져 있다. 그는 1877(1897)년에 『Essai de sémantique(의미론 시론)』라는 책을 냈는데, 1900년에 영국의 헨리 쿠스트(Henry Cust : 1867~1955)가 『Semantics: Studies in the Science of Meaning(의미론: 의미의 과학 연구)』으로 번역하면서 영어 semantics도 생겨났다.

한편 독일의 루돌프 카르나프(Rudolf Carnap: 1891~1970)는 1942년에 『Introduction to Semantics(의미론 서설)』을 냈다. 그는 의미론을 표현과 그것이 의미하는 대상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파악하고, 표현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인 화용론(話用論)에 대비시켰다.

단어들끼리 서로 어떠한 의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밝히는 분야를 어휘의미론

(語彙意味論, lexical semantics)이라 하고, 문장의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밝히는 분야를 문장의미론(文章意味論, sentence semantics)이라 한다. 문장의 의미는 중의성을 가지는 등 꽤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최근에는 논리적인 방법으로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기도 한다. 그래서 문법론, 어휘론, 문체론, 표현론, 방언론 등 다양한 영역에 의미론을 적용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언어 상황에 나타나는 발화 의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데, 화용론(話用論, pragmatics)이라 한다. 화용론은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말하는 상황이나에 따라서 같은 문장이라도 매우 다양하게 해석되는 의미에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언어 사용상의 의미를 잘 판단하는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 제주방언의 어휘론 또는 어휘의미론의 영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연구 자료와 연구물을 분석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연구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지, 이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연구되는 것이 제주방언을 연구하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려 한다.

II. 어휘의미론

1. 어휘의미론

(1) 기존 연구

어휘론이라 하면 단어의 총체인 어휘의 형성, 구조, 의미, 용법 따위를 연구하는 분야이고, 어휘의미론이라 하면 어휘의 의미 구조, 의미 유형, 의미 변화와 문제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그러므로 어휘론과 어휘의미론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러므로 어휘의 구조, 형성 과정, 어형의 교체, 어휘의 음운 배열 규칙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분야는 어휘형태론이라 할 수 있고, 어휘의 계열, 어휘의 기원과 변천, 어휘의 사회계층별 차이 등을 어휘(또는 어휘소)의 의미와 관련시켜 연구하는 분야는 어휘의미론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어휘형태론은 형태론 분야로 보고, 어휘의 체계, 양상, 어휘의 의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어휘의미론에 한정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어휘’의 개념에 대해서는 김광해(1993)가 참고 된다. 그는 이 책에서, 집합 개념으로서의 어휘와 단어 개념으로서의 어휘소가 있다고 했다. 어휘론에서의 어휘는 집합 개념(lexicon)으로 쓰고, 어휘를 형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요소는 어휘소(lexeme)라 한다는 것이다. 어휘소는 공시론적으로 어휘부 또는 사전에 등재될 수 있는 형태소(또는 형태소군)라 하여, 형태소와도 구별했다.

제주방언의 어휘의미론적인 연구는 고노 로쿠로[河野六郎], 강근보, 강영봉, 김홍식, 현평효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고노 로쿠로[河野六郎]는 『조선방언학시고-鉞語攷』(1945)에서, 『계림유사』에 있는 ‘剪刀曰割子蓋’의 ‘割子蓋’가 ‘가위’(鉞)의 가장 오래된 고형이며 경상도 방언의 ‘가시개[kɑ-si-gɛ]’가 그 직접적 반사형이라 했다. 이 어휘는 중세국어 단계에서 ‘ㄱ새[kʌ-ʒai]’로 실현되고, 제주방언 ‘ㄱ새[kw-sɛ]’¹⁾로 실현되었다고 보았다. 割子蓋는 [kʌ-si-gai]의 표기일 것으로 추정하고, [kʌ-si-gai]는 ‘가시개 [kasigɛ]’의 선대형일 것이라 했다. 제주방언 ‘ㄱ새[kw-sɛ]’는 [kʌ-si-gai]의 고려시대 변이형 [*kʌ-si-fai]의 전과형이라 했다.

고노(1945)의 글은 음운사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어휘의 변화를 연구한 것으로, 어휘의 기원과 관련된 것이다.

한편 김홍식(1975)도 鉞에 대응하는 제주방언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계림유사』의 割子蓋에 대해서, 고노(1945)의 해독(ㄱ시개), 이기문의 해독(*궐개[kʌzɡai]) 등과 달리, 남광우(1962)의 해독인 ‘ㄱ스개’의 표기로 보았다. ‘ㄱ스개’는 ‘→ㄱ스애→ㄱ새→ㄱ새→ㄱ위→가위’로 변했다고 보고, 제주방언 ‘ㄱ’은 ‘ㄱ스개→ㄱ스애’에서 변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남광우(1962)의 割子蓋 해독음은 고노(1945)의 의견을 좇아 ‘ㄱ시개’로 보았는데, ‘ㄱ스개’로 보았다고 한 것은 오독인 듯하다.

김홍식(1970)은 ‘가쟁이[kadʑɛŋi]’가 ‘kac+an+i’의 구성(1차 파생과 2차 파생)에서 변한 것으로 분석한 것이고, 김홍식(1980)은 ‘비바리’의 의미가 “조금 성숙하여 결혼 적령기에 달한 미혼 여자에 대한 호칭으로, 다소 하대 내지 경멸의 비칭”으로 쓰인다고 하고, 그 어원은 단정할 수가 없다고 했다. 강영봉(1993)은 ‘비바리’를 ‘비+바리’로 분석하고, ‘비’는 전복을 뜻하는 ‘빚’과 같은 말이고, ‘-바리’는 가치를 부

1) 당시 제주방언 ‘ㄱ새’는 [kw-sɛ]로 표기했는데, ‘ㅁ’은 중세국어 ‘·[ʌ]’의 변음으로, 혀의 높이와 모양이 대략 [o]와 비슷하지만, 입술의 상태가 [o]와 약간 다르다고 보았다. [o]는 입술을 안쪽으로 오므리지만, [ㅁ]은 입술을 바깥쪽으로 여는 것으로, 원순성을 가졌다고 했다.

정하는 사람에게 붙는 접미사라고 했다. 그러나 ‘비바리’를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뜻을 가진 말이라 전제한 것, ‘비’를 해산물과 관련이 깊은 어사라고 전제한 것 등은 쉬 수궁이 가지 않는다. 지금까지 확인된 제주방언 사전에서는 ‘비바리’를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처녀”라 풀이하지 않았다. 더욱이 표준어 국어사전에 기대어 ‘비-’가 해산물과 관련이 깊은 어사라고 했지만, 그에 대응되는 어휘를 확인할 수 없다.

현평효는 “제주도 방언에서의 ‘나무’(木)와 ‘나물’(菜) 語詞에 대하여”(1969)에서, ‘나무’(木)의 어형 ‘*나, 남, 낭, 나모, 나무’에서 ‘*나’가 원시어형이라 하고, ‘나물’(菜)의 어형 ‘*느, 늑, 느물, 느물, 나물’에서 ‘*느’가 원시어형이라 했다. 그리고 ‘*나’와 ‘*느’의 기원형은 동일한 어음에서 변천한 것으로 보고, 이 둘은 기원적으로 木의 뜻과 菜의 뜻을 지녔다가 후대에 어형 분화와 의미 분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 이 글은 음운사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어휘의 변화를 연구한 것으로, 어휘의 기원과 관련된 것이다.

김완진(1957), 이기문(1961, 1985), 강영봉(1990, 1992, 1999, 2000, 2004) 등은 제주방언의 차용어에 대한 연구로, 어종(語種)에 의한 분류 연구라 할 수 있다. 강영봉(1986, 1993, 1994, 1995, 2001), 오창명(1992), 김순자(2013) 등은 제주방언의 어휘 의미에 따라 어휘를 분류하고, 어휘소의 특징과 어휘소의 변이 등을 연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강영봉(1993, 1994, 1995)은 제주방언의 어휘를 형태별, 계통별, 양상별, 의미별로 제주방언의 어휘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런 연구는 어휘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체계화시킨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사전 편찬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낙수(1991)는 현평효(1961, 1985)에서 뽑은 69개 어휘를 바탕으로 한 어형과 분포를 방언지도로 나타낸 것인데, 그 결과 제주방언의 차이는 남북 간의 차이보다 동서 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오창명(2002, 2006), 김순자(2011, 2013) 등도 제주방언의 어휘소 분포와 변이, 분화가 지역별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이고, 언어 지도를 그려 보인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어형 분포 확인과 사전 편찬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장태진(1969)과 김순이(1990)는 제주도방언의 특수어 가운데 하나로 해녀집단의 어휘를 조사, 수집한 연구 또는 보고서이다.

심여택(1972, 1975), 김홍식(1985, 1986) 등은 제주지명을 조사하고 수집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 지명의 구성과 그 구성 요소 가운데 후부 요소의 특징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오창명(1998, 2002, 2007)은 제주도 마을 이름과 오름 이름 등의 본디 음성형을 찾아서 해독한 것으로, 기존 제주 지명 조사와 연구 등에 나타난 음성형의 문제, 형태 분석의 문제, 해독의 문제 등을 연구하여 제대로 밝히려고 한 것이다.

(2) 과제

제주방언의 어원을 연구하면서, 『계림유사』의 한자차용표기의 해독을 예로 드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剪刀曰割子蓋, 松曰鮐子南, 柴曰孛南木, 鰻曰必, 馬曰末 등이다. 이들 한자차용표기의 해독음은 대개 전기중세국어의 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후대에 확인되는 어형과 대비시켜 어원 연구에 활용하였다. 그런데 그 해독음이 연구자마다 다른 데다, 형태 분석도 조금씩 달라졌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한자차용표기는 어휘에 따라서 본이 음성형을 온전하게 표현한 것도 있고 불완전하게 표현한 것도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剪刀에 대응하는 割子蓋는 사람에 따라 ‘[*kʌsigai/*ㄴ시개]’(고노 로쿠로, 1945/남광우, 1962), ‘갈지개’(방종현), ‘[*kʌzgai/*궤개]’(이기문) 등으로 읽었다. 특히 이기문은 고노(1945)의 해독이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곧 12세기와 16세기 사이에 모음 사이에 [s]>[z]와 [g] 탈락이 일어났다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김홍식(1975)의 주장(제주방언 ‘ㄴ새’는 중세국어 ‘ㄴ새’보다도 앞선 시대의 것이다.)도 성립하기 어렵다.

鰻에 대응하는 必도 ‘빔>빋’의 표기라면, 전기중세국어의 ‘빋’이 현대 제주방언에서도 유지되고 있는데, 이 ‘빋’이 ‘비바리’의 합성어에 쓰였다면, ‘ㅅ’ 탈락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방언 ‘식게’는 조선시대에 벼슬아치가 규정에 의해 받던 휴가를 뜻하는 式假·式暇에서 왔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이 맞는다면 이는 중국 한자어 차용어라 할 수 있다. 式假는 중국 송나라 이전부터 시행하던 관리의 정기 휴가를 뜻하는 말이다. 이것이 제주방언에서 제사를 뜻하는 말로 전이되었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고, ‘식게 먹으레 간다’, ‘식게칩’ 등의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합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2. 자료 수집 및 사전 편찬

(1) 기존 자료와 사전

방언 자료를 수집하고 어종에 따라, 품사에 따라, 의미에 따라 어휘를 분류한 뒤에 공시적으로, 또는 통시적으로 연구하거나 사전으로 편찬하는 것도 어휘미론의 한 분야이다.

제주 방언을 수집하여 자료집으로 낸 것과 사전으로 편찬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즈미 세이이치(泉靖一)(1966), 『所在濟州島方言表』, 『濟州島』, 재단법인 東京大學出版會.

석주명(1971), 『제주도자료집』, 제주도총서 ⑥, 보진재.

제주대학교 국어국문·국어교육과, 『학술조사보고서』 시리즈의 ‘방언’ 편.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시리즈의 ‘방언’ 편.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 시리즈의 ‘방언’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 『한국방언자료집: IX 제주도 편』.

석주명(1947), 『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 출판부.

박용후(1960), 『제주방언연구』

현평효(1961), 『제주도방언연구: 제1집 자료편』, 동원사.

현평효(1985), 『제주도방언연구: 자료편』,

박용후(1988), 『제주방언연구(자료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제주도(1995), 『제주어사전』.

송상조(2007), 『제주말 큰사전』, 한국문화사.

제주특별자치도(2009),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방언 조사 자료집으로 대표적인 것은 1970년대부터 간행된,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의 『학술조사보고서』 시리즈의 ‘방언’ 편이다. 이 당시 방언 조사는 주로 특정 분야의 언어가 어떻게 말해지는가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므로 어휘를 수집하고, 그 말이 표준어 무엇에 대응하는 말인가, 대응되는 표준어가

없다면 어떤 뜻을 가진 말인가 등을 정리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1990년대에 음성과 음운, 형태에 초점을 맞춘 방언 자료집이 발간되었는데, 그것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낸 『한국방언자료집: IX 제주도 편』이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 일부 민속생활어를 채집한 『해녀, 어부, 민속주: 제주도의 민속생활어』(2009)도 방언 자료집으로서 참고가 된다.

제주방언 사전으로 대표적인 것은 석주명(1947), 박용후(1960, 1988), 현평효(1961, 1985), 제주특별자치도(1995, 2009), 송상조(2007) 등이 있다.

석주명(1947)과 석주명(1971) 등은 비전문가에 의한 조사·채집 자료인데도 이른 시기에 조사된 것이라는 데서 그 어형을 신빙하는 사람이 많은 듯하다. 그러나 이 자료집의 실상을 파악하면 되새겨봐야 할 것들이 이외로 많다. (1947: 46)에서는 표준어 ‘참새’에 대응하는 제주방언으로 ‘밥주리(생이)·줍생이·춤새·생이’ 등을 들었는데, 이 자료집의 ‘제3편 수필’에서는 ‘생이·밥주리·밥주리생이·줍생이·춤새’ 등을 들었다. (1971:61)에서는 ‘밥주리(생이)=밥주리생이=줍생이=춤새=생이’를 들었다. 이 세 부분은 비교해 보면, ‘줍생이’로 실현되었는지, ‘밥주리생이’가 실현되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후대 자료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한다.

더욱이 석주명(1947)의 ‘제2편 고찰’에서는 몽고어와 관계있는 것, 만주어와 관계있는 것을 여럿 들었는데, 이 가운데 많은 것이 이미 의심스러운 것으로 제기되었는데도 아직도 비전문가들에 의해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

박용후(1960)는 전문가(?)에 의해 이른 시기에 조사·채록된 것이라는 데서 신빙하는 사람들이 이외로 많다. 그러나 그 어형에 대해서 인용할 때는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 ‘목커리(결채), 솔덕(부뚜막), 솔검둥이(앉은검정)’ 등은 ‘모커리’와 ‘숫덕, 숫검둥이’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이다.

현평효(1961)은 전문가의 의해 조사·채록된 것으로, 음성 기호로 표기한 것을 내세운 점, 지점을 정확히 밝힌 점 등은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반의 제주방언을 연구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된다. 다만 아쉬운 것은 2천 여 어형을 선정하여 12개 지점(1차 조사), 7개 지점(2차 조사) 등을 선정하여 비교·대조하는 방법으로 채록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어형을 수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의 (1995)에서 『제주어사전』으로 변경하여 증보하거나, (2009)에서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으로 개정 증보했다. 하지만 현평효의 조사 방

법과 후학의 조사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이 많고, 후학 조사자 간의 어형 인식과 의미 인식 등에 차이가 많아서, 『제주어사전』의 어형과 의미의 신빙성에도 많은 문제를 남겼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의 『한국방언자료집: IX 제주도 편』은 1978~1979년에 만든 『한국방언조사질문지』에 따라 전국의 방언을 조사한 것으로, 음성학이나 음운론, 그리고 문법론 연구에 도움을 주는 자료집이다. 그러나 표기 과정의 오류인지, 인쇄 과정의 오류인지 다음과 같은 오류가 확인되기 때문에 인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

I.097-1. 솟뚜겅(쇠)

<방언형> 솟뚜궐, 소뚜궐이, 솟뚜궐이, 솟뚜궐이, 솟뚜궐.

<남제주> sot'uk'wE, sot'uk'æŋi# <북제주> soduk'eŋi#, sot'uk'æŋi#, sot'uk'æŋ

‘솟뚜궐’은 ‘솟뚜궐’이 아니라 ‘솟뚜궐’로 표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솟뚜궐’과 ‘소뚜궐’의 발음이 다르다면 음성 부호로 전사할 때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송상조의 『제주말 큰사전』(2007)은 제주의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주 문화를 이루는 말이면 모두 대상으로 하여 어휘로 올렸다고 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어휘 자료들이 수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발음에서 ‘의’는 쓰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문헌이나 뜻을 고려하여 ‘의’로 적은 것도 있는 것(이디/이디), ‘ㄱ’과 ‘에’의 구별이 쉽지 않다고 해서 양쪽을 다 표제어로 올린 것(드래/드레) 등은 이용자나 연구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상은 모두 제주방언 자료집이나 사전 형태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강근보(1972)는 Morris Swadesh의 219개 기초 어휘 조사 항목을 표준어로 전제한 뒤, 이조어(중세국어)와 제주어 어휘를 대응시키고 방언 어휘의 통시적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표준어 ‘아버지, 어머니’에 대응하는 제주방언이 ‘아방, 어멍’이라 한 것은 아쉬움이 있다. 왜냐하면 ‘아버지 · 아버지 · 아부지’, ‘어머니 · 어무니’도 엄연한 제주방언인데 그러한 것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승훈 · 문순덕(2013)은 기존 제주방언 사전을 바탕으로 해서, 1,430여 개의 제주방언 기초 어휘를 선정하고 활용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아방 · 아버지’, ‘어멍 · 어머니’가 올라 있으나, ‘아부지, 어무니’ 등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

박용후(1960, 1988)과 현평효(1985)에서는 제주방언 격조사와 활용어미 목록을 수집·정리하여 의미 풀이를 하고 예문을 들어 놓았다.

진성기(1960, 1975), 한글학회(1984), 오성찬(1992), 제주시(1995), 남제주군(1996), 서귀포시(1999), 북제주군(2006) 등은 제주도 지명 조사 자료집이다. 이 중에는 지명 전문가에 의해 수집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므로 이들 자료를 이용할 때는 제대로 조사된 지명인지, 제대로 풀이한 것인지 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2) 과제

지금까지도 제주방언의 어형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그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많다.

가령 표준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응하는 제주방언이 ‘아방’과 ‘어멍’이라고만 한 사전이나 자료집이 있는가 하면, ‘아방·아바지’, ‘어멍·어머니’라 한 사전이나 자료집도 있다. 또한 일부 자료집이나 사전에는 호칭어와 지칭어를 구분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 제주방언을 쓰는 사람도 혼란을 보이고 있고, 제주방언을 배우려는 사람에게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경우가 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	어머니	아버님/어머님	참고
『표준국어대사전』 (1999)	1. 자기를 낳아 준 남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2. 자녀를 둔 남자를 자식 에 대한 관계로 이르거나 부르는 말. 3. 자녀의 이름 뒤에 붙여, 자기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하략>	1. 자기를 낳아 준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2. 자녀를 둔 여자를 자식 에 대한 관계로 이르거나 부르는 말. 3. 자기를 낳아 준 여성처 럼 삼은 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하략>	높임말	
『제주도방언집』 (석주명, 1947)	아방	어멍	아바님/어머님	
『제주방언연구』 (박용후, 1960/1988)	아방	어멍	아바님/어머님	
『제주도방언연구』 (현평효, 1961)	아버지, 아방	어머니, 어멍	아바님, 아뻘/ 어머님, 어뻘	

	아버지	어머니	아버님/어머님	참고
『한국방언자료집 IX 제주도편』(199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아버지(호칭), 아방(지칭)	어머니(호칭), 어멍(지칭)		
『제주말 큰사전』 (송상조, 2007)	아방: 아버지. ‘아버지’의 예삿말. 아버지: →‘아방’의 높임말.	어멍: 어머니. ‘어머님’의 예삿말.	아바님/어머님, 어멤	

이상과 같이 어형을 제대로 표기하지도 못하고, 뜻풀이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전이 있다. 더욱이 사전마다 동일한 단어의 변이형이 다른 것도 있다. 그러므로 현재 나와 있는 사전이나 자료집 가운데는 기초적인 어휘에 대한 어형은 물론 뜻풀이도 제대로 못한 것이 많다. 이러한 것에 대한 수정, 보완, 보충 등의 노력이 있지 않는 한 제주방언 어휘론이나 어휘의미론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기를 바라는 것은 요원할 듯하다.

어휘의미론의 연구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연구 이론의 적용을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단어 또는 어휘의 원형이나 변이형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1차적인 의미나 사전적인 의미, 나아가 2차적인 의미, 3차적인 의미 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것이 제대로 파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사상누각이라 할 수 있다.

Ⅲ. 문장의미론(통사의미론)

1. 기존 연구

한 문장 안에 내재하는 의미의 속성과, 구와 구, 문장과 문장 사이에 내재하는 의미의 속성을 연구하는 분야를 문장의미론 또는 통사의미론이라 한다.

박용후(1960, 1988)을 보면, 제주방언의 격조사와 활용어미 목록을 정리하고, 표준어 대응 예를 보이고, 예문을 들어보였다. 현평효(1985)도 격조사와 활용어미 목록을 보이고, 그 뜻을 풀이하였다. 현평효·강영봉(2011)은 현평효(1985)를 거의 그대로 싣고 예문을 덧붙여 사전으로 낸 것이다. 현평효(1985)에서는 ‘-암저, -암

젠, -암젠, -암주, -암쥐’ 등으로 등재된 것이 현평효·강영봉(2011)에서는 ‘-암쩌, -암쨌, -암쨈, -암쨌’ 등으로 등재되어 있는 등 표기가 달라진 것도 있으니 주의할 일이다. 제주방언의 어미활용에 대한 것은 오구라 신평이(1944)의 “제주도 방언”, 김영돈(1956~1957) 등이 있다.

강근보(1972)는 ‘있다’ 활용에 나타나는 어간의 교체와 어미 교체 등에 대해 연구한 것이고, 강근보(1975)는 용언의 어말어미나 체언에 첨가되어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마썰’의 어형 변이와 통사의미론적인 특징을 살핀 것이다.

성낙수(1992)는 성낙수의 일련의 논문을 묶은 것으로, 제주방언 풀이씨의 종결(종결어미?)과 연결(연결어미?)과 관련된 통사적인 구성을 살피고, 그 의미도 살핀 연구이다.

문순덕(2003)은 제주방언의 통사의미를 연구한 일련의 논문 모음집으로, 보조용언의 통사·의미, 보조사와 첨사의 담화 의미, 부정 표현 ‘말다’의 의미 기능 등을 담고 있다. 제주방언의 보조용언 ‘두다, 불다, 나다, 잇다, 가다, 오다, 보다, 주다, 지다’ 등은 연결어미 ‘-아’와 공기하고, ‘말다, 프다(-고프다)’는 연결어미 ‘-고’와 공기하여, 형태나 기능면에서 중앙어와 유사하지만, ‘두다, 말다, 잇다, 생이다, 프다(-고프다), 헛다(-고정 헛다)’ 등은 형태와 기능이 다르다고 했다.

‘-고정 헛다’에서 확인되는 보조용언은 ‘바람(확실한 믿음/희망)’과 ‘의도’의 의미가 있고, ‘-고 시프다’의 축약형 ‘-고프다’는 불확실한 바람 또는 희망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부정 표현인 ‘말다, 모르다, 엇다, 아녀, 엇다’ 등의 통사·의미 기능을 논의했다. ‘말다’는 기본 의미는 ‘행위 금지’이며, ‘강조·확인’, 단수부정의 ‘아니’, ‘싫다’ 등의 부차적인 의미 기능이 있다고 했다. ‘말다’는 명령·청유문의 통사 기능 때문에 다른 문형에서는 쓰이지 못하고 ‘아니헛다, 못헛다’와 상보적 분포 관계에 놓여 있다고 했다.

‘모르다’는 ‘정보의 부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화용적인 면에서 ‘거부·거절’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했다.

‘엇다’는 의문문과 평서문에 쓰여, 질문 내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단형 부정문의 부정소 ‘아니’와 ‘못’은 후행동사의 특성에 따라 선택된다. 중앙어 ‘아니’는 다음절 상태동사에 선행할 수 없는데 제주방언 ‘아니’는 가능하다. 또한

부정소 ‘못’은 ‘타의부정’의 기본적인 의미 외에 ‘아니, 불능, 없다’의 의미로도 쓰인다고 했다.

장형부정문의 통사·의미·담화 특성을 보면, 중앙어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곧 ‘단순 부정, 타의부정’ 등의 기본 의미가 있고, 부정 서술어의 통사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특징은 보문소 ‘-게’와 부정서술어의 쓰임이 중앙어보다 보편적이라는 것, 보문소 ‘-디’의 흔적을 보인다는 것, 부정 보문소 ‘-들’이 쓰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방언이 중세국어와 중앙어 사이에 교량적인 지위에 있다고 했다.

송상조(2011)은 그가 늘 관심을 가져왔던 때가림소(때소 : 시제?) ‘-ㅇ, -ㄴ’에 대한 일련의 논문을 종합적 연구로, 때가림소 ‘-ㅇ, -ㄴ’의 의 통사 관계, 의미 관계, 호응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때가림소 ‘-ㅇ’이 붙으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을 뜻하고, ‘-ㄴ’이 붙으면 ‘이루어짐’을 뜻하고, 이 둘은 뒤에 오는 활용어미의 시상을 제약한다고 했다.

특히 때가림소 ‘-ㅇ’과 ‘-ㄴ’에 호응하는 두 개의 씨끝(어미?)이 필요하다고 했다. 움직씨(동사)에서는 ‘먹영 간다, 먹언 감저(값저?)’, 그림씨(형용사)에서는 ‘뚛당 चु나, 뚛단 चु다’ 등 서로 균형을 맞추어 쓰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방언 동사와 형용사의 쓰임이 표준어와는 다르게 쓰인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표준어의 동사와 형용사 구분 기준을 제주어에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제주방언의 어미 활용은 때가림소 ‘-ㅇ, -ㄴ’을 가지고서, ‘-ㅇ’과 호응하는 것, ‘-ㄴ’과 호응하는 것, 호응하지 못하는 것, 둘 다 호응하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2. 과제

제주방언의 문장의미론을 연구한 글을 읽어 보면, 예문이 대개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 많다. 가능하면 고로들이 뱉어낸 문장을 바탕으로 해서 통사 구조를 분석하고 의미를 가려냈으면 한다. 특히 고로들이 뱉어낸 문장을 보면, 중세국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장 구조 유형을 많이 확인할 수 있다. 고로들이 뱉어내는 문장을 바탕으로 해서, 중세국어나 근대국어, 현대국어 등과 비교해서 제주방언 문장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추출해내는 작업이 많아졌으면 한다.

근래에 국어의 통사의미론을 논할 구조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이루어졌

는데, 제주방언의 통사의미론도 이러한 이론을 적용하여 접근하는 연구도 이루어 지길 바란다.

IV. 화용론(화행의미론/발화의미론)

말과 발화 장면 사이에서 발화 사용의 원리와 의미를 연구하는 분야를 화용론이라 한다. 그러므로 화용론은 화자 의미(speaker meaning)와 맥락 의미(contextual meaning), 의사소통 방법, 상대적 거리의 표현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곧 의미론은 언어 능력(언어에 대한 지식)에 대한 것이고, 화용론은 언어 수행(언어 사용)에 대한 것으로, 엄밀하게는 구분되지만 넓게는 의미론에 포함시키고 있다.

1. 기존 연구

문순덕(2003)에는 제주방언의 보조사와 첨사의 담화 기능을 분석한 글이 들어 있다.

제주방언 보조사 ‘라근에/라근, (이)랑, ㄹ치/ㄹ찌, 처록/추록/처름/ㄹ추록, ㄱ장/ㄱ지, 알좌/아올라, 냥, 만이, 바껏/바껏, (이랑)마랑, 사’ 등은 각각 중양어 ‘은/는, 같이, 처럼, 까지, 마저, 조차, 대로, 만큼, 밖에, 커녕, 야’ 등의 중양어와 어형은 다르나 통사·의미 기능은 같다고 했다.

제주방언 반말체 첨사 ‘-게, -이, 기’의 담화 기능을 분석했다. 이들 첨사는 담화 상황에 따라 수의적으로 선택되지만 실현되는 환경 영역은 다르다고 했다. ‘-게, -이, 기’ 가운데, 첨사 ‘-게’가 보편적으로 발화되고 생산성이 많아서, 통사기능보가 담화 기능이 강하다고 했다.

2. 과제

제주방언에 대한 화용론적인 연구는 초보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V. 결 론

지금까지 제주방언의 어휘론 또는 의미론을 어휘의미론이라 살펴보고, 내일의 연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했다.

제주방언의 어휘론적인 연구와 자료 수집을 통한 사전 편찬 등은 어느 정도 진척된 듯하다.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허소(虛疏)면이 많다. 이 허소(虛疏)한 면을 충실하게 채우려면 기초적인 방언 조사 방법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좀 더 꼼꼼하게 연구되었으면 한다.

문장의미론이나 통사의미론, 화용론, 인지의미론 등은 초보적인 단계에 있어서 연구 업적이 진척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근보(1972), “제주도방언 ‘잇다’ 활용고”, 『논문집』 4, 제주대학.
- 강근보(1972), “제주도방언어휘고(1)”, 『국문학보』 4, 제주대학 국어국문학회.
- 강근보(1975), “제주도방언어휘고(2)”, 『국문학보』 7, 제주대학 국어국문학회.
- 강영봉(1986), “제주도방언의 식물이름 연구”, 『탐라문화』 5집, 제주대 탐라문화 연구소.
- 강영봉(1986), “제주도방언의 魚名 연구”, 『논문집』 23집, 제주대학교.
- 강영봉(1990), “말이름(馬名)에 대한 관견”, 『한얼』 4집, 한국방송통신대학 제주지역 국어과.
- 강영봉(1992), “제주도방언의 몽골어 차용어들(1)”, 『제주도언어민속논총(현용준박사 화갑기념)』, 제주문화.
- 강영봉(1993), “제주어 ‘비바리’ 어휘에 대하여”, 『영주어문』 5집, 영주어문학회.
- 강영봉(1993), 『제주도방언의 동물 이름 연구: 어휘론을 중심으로』, 경기대 박사학위 논문.
- 강영봉(1994), 『제주의 언어 1』, 제주문화.

- 강영봉(1995), “제주도방언의 어휘론적 연구”, 『탐라문화』 15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 강영봉(1997), 『제주의 언어 2』, 제주문화.
- 강영봉(1999), “제주어와 중세몽골어의 비교연구”, 『탐라문화』 20집, 제주대학교 탐라 문화연구소.
- 강영봉(2000), “제주어 몇 어휘에 대하여”, 『영주어문』 2. 영주어문학회.
- 강영봉(2001), “제주어의 주거 생활 어휘”, 『영주어문』 3. 영주어문학회.
- 강영봉(2003), “제주어 ‘비바리’ 어휘에 대하여”, 『영주어문』 5집, 영주어문학회.
- 강영봉(2004), “제주어 ‘양지’ 어휘에 대하여”, 『영주어문』 8집, 영주어문학회.
-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 김순이(1990), “제주도의 잠수용어에 관한 조사보고”, 『조사연구보고서』 4집,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 김순자(2009), 『해녀, 어부, 민속주: 제주도의 민속생활어』, 국립국어원 민족생활어 자료 총서 6, 글누림출판사.
- 김순자(2011), 『제주도방언의 언어지리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순자(2012), “제주도 부속 섬 방언의 어휘 비교 연구: 우도, 비양도, 가파도를 대상으로”, 『영주어문』 23집, 영주어문학회.
- 김순자(2013), “제주도방언의 어류 명칭 연구”, 『영주어문』 25집, 영주어문학회.
- 김영돈(1956~1957), “제주 방언의 어미활용(1)~(Ⅲ)”, 『한글』 119~122호, 한글학회.
- 김완진(1957), “제주도 방언의 일본어 어사 차용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8집(창립 5주년 기념 특집), 국어국문학회.
- 김종철(1995), 『오름나그네 1·2·3』, 도서출판 높은오름.
- 김종택(1992), 『국어 어휘론』, (주)탐출판사.
- 김태곤(2008), 『국어 어휘의 통시적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 김홍식(1975), “『銑』語에 대한 小考: 특히 제주도 방언과 관련해서”, 『논문집』 7, 제주대학.
- 김홍식(1979), “제주도 방언 ‘가쟁이’語考”, 『논문집』 11, 제주대학.
- 김홍식(1980), “‘비바리’ 語考”, 『연암현평효박사화갑기념논총』, 연암현평효박사화갑 기념논총간행위원회.

- 김홍식(1980), “제주도방언 ‘낭’語考”, 『논문집』 14, 제주대학교.
- 김홍식(1985), “제주도지방의 지명어휘고(Ⅰ)”, 『논문집』 21집, 제주대학교.
- 김홍식(1986), “제주도지방의 지명어휘고(Ⅱ)”, 『논문집』 22집, 제주대학교.
- 남광우(1962), 『국어학논문집』, 일우사.
- 남제주군(1996), 『남제주군 고유지명』.
- 문순덕(1999), 『제주 방언의 부정 표현 연구』, 제주대 박사학위논문.
- 문순덕(2003), 『제주방언 문법 연구』, 도서출판 세림.
- 박용후(1960), 『제주방언연구』
- 박용후(1988), 『제주방언연구(고찰편)』, 과학사.
- 박용후(1988), 『제주방언연구(자료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박용후(1992), 『제주도 옛 땅이름 연구』, 도서출판 제주문화.
- 북제주군 · 제주학연구소(2006), 『북제주군 지명 총람』.
- 서귀포시(1999), 『서귀포시 지명 유래집』.
- 석주명(1947), 『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 출판부.
- 석주명(1971), 『제주도자료집』, 제주도총서 ⑥, 보진재.
- 성낙수(1975), “제주도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국어국문학과』 68·69합병호, 국어국문학회.
- 성낙수(1983), 『제주도 방언의 풀이씨 이음법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낙수(1991), “제주도 방언지도 시안 Ⅰ”, 『한국어문교육』 2집, 한국교원대.
- 성낙수(1991), “제주도 방언지도 시안 Ⅱ”, 『국어의 이해와 인식』 우리말학회.
- 성낙수(1992), 『제주도 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계명문화사.
- 송상조(2007), 『제주말 큰사전』, 한국문화사.
- 송상조(2011), 『제주말에서 때가림소 ‘-ㅇ, -ㄴ’과 씨끝들의 호응』, 한국문화사.
- 심여택(1972), “제주도지명연구”, 『논문집』 4, 제주대학.
- 심여택(1975), “제주도지명의 구성”, 『국문학보』 7집,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회.
- 오성찬(1992), 『제주도토속지명사전』, 민음사.
- 오승훈 · 문순덕(2013), 『제주어 기초어휘 선정 및 활용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오창명(1993), “제주도방언의 감각어에 대한 고찰”, 『제주문화연구(현지김영돈박사 화갑기념)』, 제주문화.

- 오창명(1998), “‘대산이’와 ‘마농’”, 『제주학』 창간호, 제주학연구소.
- 오창명(1998), “‘하늘레기’와 ‘두루에기·두레기’”, 『제주학』 2호, 제주학연구소.
- 오창명(1998),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출판부.
- 오창명(1999), “‘뭍’과 ‘믄옴, 믄옴’, ‘뭍망’”, 『제주학』 4호, 제주학연구소.
- 오창명(1999), “‘호루살이’와 ‘눈에눈이’, ‘국다귀’”, 『제주학』 3호, 제주학연구소.
- 오창명(2002), “제주도의 언어 지도(1): 매미류”, 『탐라문화』 22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오창명(2004), 『제주도 마을 이름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오창명(2006), “북제주군의 방언 지도”, 『북제주군지(하)』.
- 오창명(2007), 『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 I·II』, 제주대학교출판부.
- 오창명(2007), 『제주도 오름 이름의 종합적 연구』, 제주대학교출판부.
- 오창명(2010), “‘오름·오름’, ‘메·미·산’, 악(岳), 봉(峰)”, 『제주학』 5호, 제주학연구소.
- 오창명(2011), “ㄱ오리오름·ㄴ오리오름”, 『제주학』 6호, 제주학연구소.
- 오창명(2013), “하르부지·할아바지·하르방, 할무니·할망, 아버지·아부지·아방, 어무니·어멍”, 『제주학』 7호, 제주학연구소.
- 오창명(2014), “접미사 ‘-방(房)’과 ‘-집[家]’”, 『제주학』 8호, 제주학연구소.
- 윤평현(2008), 『국어의미론』, 도서출판 역락.
- 이광호(2004), 『국어 어휘 의미론』, 도서출판 월인.
- 이광호(2008), 『어휘와 의미』, 제이앤씨.
- 이기문(1961, 1991), “중세국어 몽고어 차용어”, 『국어 어휘사 연구』, 두산동아.
- 이기문(1968), “계림유사의 재검토: 주로 음운사의 관점으로”, 『동아문화』 8.
- 이기문(1972), 『국어음운사연구』, 국어학회.
- 이기문(1974), 『국어사개설』, 민중서관.
- 이기문(1985), “‘緣大’와 ‘加達’에 대하여”, 『국어학』 14, 국어학회.
- 이기문(1985), “몽고어 차용어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21-1호.
- 이기문(1991), 『국어 어휘사 연구』, 동아출판사.
- 임지룡(1992), 『국어 의미론』, ㈜탐출판사.
- 장태진(1969), “제주도 해녀집단의 특수어에 대하여”, 『김재원박사회갑기념논문집』, 을유문화사.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 시리즈의 ‘방언’ 편.

제주대학교 국어국문 · 국어교육과, 『학술조사보고서』 시리즈의 ‘방언’ 편.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시리즈의 ‘방언’ 편.

제주도(1995), 『제주어사전』.

제주시 · 제주문화원(1996), 『제주시 옛 지명』.

제주특별자치도(2009),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진성기(1960, 1975), 『제주도 지명의 유래』(『남국의 지명 유래』), 제주민속연구소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 『한국방언자료집: IX 제주도 편』.

한글학회(1984), 『한국지명총람』 16(전남편Ⅳ · 제주편).

현평효(1961), 『제주도방언연구: 제1집 자료편』, 동원사.

현평효(1969), “제주도 방언에서의 ‘나무’(木)와 ‘나물’(菜) 語詞에 대하여”, 『국어
국문학논문집』 7·8집, 동국대학교.

현평효(1985), 『제주도방언연구: 논고편』, 이우출판사.

현평효(1985), 『제주도방언연구: 자료편』, 태학사.

현평효 · 강영봉(2011), 『제주어 조사 · 어미 사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어
센터 총서 1, 도서출판 각.

고노 로쿠로[河野六郎](1945), 『朝鮮方言學試攷-欽語攷』, 東都書籍.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1944), 『朝鮮語方言の研究』, 東京: 岩波書店.

이즈미 세이이치(泉靖一)(1966), 『所在濟州島方言表』, 『濟州島』, 재단법인 東京大學
出版會.

제주방언 화용론 연구의 현황과 과제

문 순 덕 (제주학연구센터장)

1. 머리말

화용론(pragmatics)은 실제 언어생활에서 발화된 말소리의 의미를 화자나 청자를 포함하는 주변의 상황까지를 고려하여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다시 말하면 화용론은 언어를 사용자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분야이다. 또한 화용론은 화맥과 관련하여 문장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입장의 의미론이다.

담화(discourse)란 언어를 산출하는 과정을 가리키며, 텍스트(Text)란 이 산출된 대상을 해석해 가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김지홍 뒤침, 2012:16). 그러나 텍스트와 담화는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효상(1993 : 5~6)에 따르면 1970년대에 등장한 담화·화용론적 언어학은 여러 언어에 두루 나타나는 현상들의 보편원리를 담화·화용론적 용어(발화, 의사소통, 화자의 의도 및 관심사, 주제, 지시대상, 지시성, 한정성 등)로 설명하고 언어구조가 어떻게 현재의 구조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를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담화·화용론적 언어 연구는 문법요소 및 문법현상의 의사소통기능 및 담화기능과 이를 지배하는 화용론적 원리를 찾아내고 의사소통의 필수요건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전략들이 문법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 이론은 담화분석 또는 대화분석을 기본 전제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1980년대부터 화용론과 담화론 연구가 부각되었는데, 이 분야를 논의한 방언 연구물은 드문 편이다. 강희숙(2011), 박지윤(2011), 이기갑(2009, 2011) 등이 방언을 대상으로 담화표지를 다루었다.

제주방언을 화용론적 관점에서 연구한 결과물은 적은 편인데 특히, 화행과 담화기능을 다룬 연구는 9편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제주방언 담화·화용론 분야는

향후 다각도의 연구가 가능한 분야이다.

2. 제주방언 화용론의 연구 현황

1) 화행 연구

화행이론(speech act)은 언어가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관심을 두는 이론이며, Austin의 화행론이 Searle로 이어졌다. 즉 화행이론은 발화를 통해 수행되는 의사소통 행위에 초점이 있다. 다음 2편의 연구는 영어의 시각으로 제주방언 화행을 다루었다.

양용준은 “제주방언에서 화행과 함축의 특성”(2003)에서 화행과 함축 이론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제주방언에 적용해 본 연구이다. 이 이론으로 접근하여 제주방언 화자들은 함축적인 표현을 잘 받아들이는 언어공동체임을 보여주었다. 다만 화행과 함축의 관점에서 다양한 분석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

양용준은 “제주방언의 상과 화행에 대한 고찰”(2004)를 통해 영어와 한국어의 상 체계를 비교하면서 제주방언의 상 체계와 화행을 다루었다. 제주방언은 영어와 달리 통사론적인 상적 표현보다는 의미론적인 상적 표현이 잘 드러나는 언어라는 관점이다. 또한 제주방언은 담화 중심의 언어이며, 직접 화행보다는 간접 화행이 빈번하게 발화된다고 보았다.

2) 담화 의미 연구

여기서 다룬 담화 의미는 주로 대화 상황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의도나 목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언어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제주방언 보조사, 첨사의 담화 기능을 다룬 글들로 간단히 내용을 소개하겠다.

문순덕은 “제주 방언 보조사의 담화기능”(2002)에서 제주방언 보조사 ‘라근예/라근(은/는), ㄴ치/ㄴ찌(같이, 처럼), 처록/츠록/치름/ㄴ추록(처럼, 같이), ㄴ장/ㄴ지(까

지), 알파/아올라(마저, 조차), 냥(대로), 만이(만큼), 바껏/바껏(밖에), (이랑)마랑(커녕), 사(아)’ 등을 대상으로 하여 담화 의미에 초점을 두었다.

보조사는 선행 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구의 발화 내용을 제약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조사는 단순히 선행 명사에만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된 문장 전체에 관계된다. 담화 상황에서 초점은 보조사에 놓이며, 화자의 의사 표현에 따라서 보조사가 선택된다. 화자의 의향에 따라 선택되어 쓰이는 보조사가 담화상의 의미 차이를 갖고 있고 이것이 보조사의 담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즉 화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발화하느냐에 따라서 보조사가 선택됨을 보여준다.

문순덕은 “제주방언 반말체 첨사의 담화기능”(2003)을 통해 제주방언 반말체 첨사에는 ‘-게, -이, -기’가 있는데 한 문장 내에서 종결어미 자리에 놓이기 때문에 종결어미의 통사기능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 첨사들은 화자가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문장 전체에 의미를 덧붙이는 기능이 있다.

반말체 첨사의 통사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첨사 ‘게’는 감탄사, 부사, 연결어미, 종결어미, 격조사, 보조사, 의존명사, 명사 등 한 문장 내에서 거의 통사적인 제약 없이 실현된다. 첨사 ‘이’는 첨사 ‘게’에 비하면 통사 제약이 조금 있다. 첨사 ‘이’는 감탄사의 통사기능이 있으며, 부사, 종결어미와만 통합한다. 첨사 ‘기’는 종결어미 ‘주’와만 통합해서 첨사 ‘게’나 ‘이’에 비하면 통사 제약 환경이 심한 편이다.

반말체 첨사의 담화기능을 보면 화자의 확신, 의지, 단정, 강조 등 화자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려는 의지가 강할 때 발화된다. 물론 이들 첨사는 담화 상황에 따라서 수의적으로 선택되지만 실현되는 환경 영역이 구분된다.

문순덕은 “제주방언의 간투표현”(2005a)에서 화자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 간투 표현에는 부름말과 ‘예, 아니요’ 등 응답 표시어가 해당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의에서는 화자가 발화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긍정 응답형 ‘응, 기여’와 제주방언 첨사 ‘양/예, 이, 기, 게’에 의해서 수행되는 간투적인 표현(부름말, 입말, 되물음, 확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부름말 간투 표현 ‘양/예’는 화자와 청자가 아는 사이일 때, 모르는 사이일 때 가능하다. 입버릇 간투 표현 ‘저양, 저이’는 본말을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청자의 주의를 끄는 방법으로 발화된다. 되물음 간투 표현 ‘양/예, 응, 이’는 화자의 질문에 대해서 재차 묻고, 확인할 때 발화된다. 긍정 응답 ‘게’에는 화자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며, ‘기여’는 ‘응’ 형 보다는 응답자가 화자의 질문에 찬성하려는 심리가

좀더 강하게 반영될 때 발화된다고 본다. 확인의 간투 표현 ‘기’에는 확인, 되물음, 미심쩍음, 놀람, 동조의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문순덕은 “제주방언 높임말 침사의 담화 기능”(2005b)에서 제주방언 청자높임법에는 문법 형태소 ‘-우-/-수-’와 ‘-ㅁ서’가 있으며, 침사 ‘마썸, 양, 예’가 있는데 주로 문장 종결형에 첨가되어서 청자를 높여주는 침사를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침사들은 중앙어 격식체인 ‘-습니다’나 비격식체인 ‘요/말입니다’에 해당하지만 정확한 대응은 안 된다. 높임말 침사 ‘마썸, 양, 예’는 한 문장 내에서 종결어미 자리에 놓이므로, 종결어미의 통사기능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나 화자가 담화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기 때문에 침사로 분류했다.

제주방언은 거의 반말체에 높임말 침사 ‘마썸, 양, 예’가 통합되어서 두루높임의 기능을 하는데 ‘마썸, 양, 예’가 청자높임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변별력을 지니면서 자유롭게 발화됨을 보았다.

양창용은 “제주방언 ‘양’에 대한 통사·담화론적 고찰”(2009)에서 제주방언 ‘양’이 담화침사임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사적 기능을 전제로 하였다. 제주방언 ‘양’은 문장 초, 중간, 끝에 분포되므로 통사적 제약이 거의 없음을 설명하였다. 반면 ‘양’이 담화적 기능어로 성립함을 제기하였다. 담화 초에 쓰인 ‘양’은 ‘주제말 드러내기’의 기능이 있고, 담화 끝에 쓰이는 ‘양’을 보면 서술형 뒤에서는 청자의 확신 구하기, 의문형 뒤에서는 화자의 주장에 대한 동의 요청, 청유문 뒤에서는 청자의 긍정적 확인 요청 등의 담화 의미가 있다는 관점이다.

이 논문은 ‘말하기 대회’ 대본을 분석 자료로 삼고 있는데, 이 대본은 자연 발화라기보다는 인위적(대회 성격에 맞게 교정된 문장)인 발화이므로, ‘양’의 통사적·담화적 기능을 정확하게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또한 ‘양’과 통사·담화적 기능이 유사한 ‘예’에 대한 논의가 보이지 않는다.

문순덕·김원보는 “제주방언 담화표지 ‘계메’ 연구”(2012)에서 공통어 ‘글썸’과 유사한 담화기능을 지닌 제주방언 ‘계메’가 담화표지로 쓰임을 다루고 있다. ‘계메’는 주로 화자의 부탁, 명령, 제안 등 응답자의 의사를 요청하는 발화에서 쓰이며, 화자의 어떠한 발화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의지-정보부재, 불확실, 회피, 감정 숨김, 동의, 동의거부 등-를 우회적으로 표현할 때 가능한 담화표지이다. ‘계메’는 주로 문두에서 화자의 확고한 의지를 숨기려는 의도로도 쓰인다. 제주방언 ‘계메’의 전제문으로는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등 모든 문형이 성립한다. 이는 문장

종류에 따라 ‘의지, 회피, 불확실, 의심, 동의, 사실 확인’ 등 응답자의 입장이 전달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순덕·김원보는 “제주방언 ‘처레’와 ‘생’의 담화 의미”(2013)에서 제주방언 ‘처레’에 ‘순서, 차례’를 뜻하는 명사의 주 기능이 있으며, 공통어 ‘줄, 것’에 대응되는 의존명사로도 쓰이고, 접미사 ‘빨’의 문법기능도 있어서 명사와 의존명사 외에 접사로 문법화됨을 통해 공통어 ‘차례’보다 문법기능이 확대됨을 보여 준다.

제주방언 ‘처레’는 공통어 ‘차례’와 같이 명사로 쓰일 때는 ‘순서, 차례’의 의미가 있는데,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추측, 가정, 확신, 확인, 단정, 인정의 담화 의미가 있다. 특히 제주방언 ‘처레’는 인지동사 ‘모르다, 알다’와 공기하면서 ‘추측, 가정, 단정, 불확실’의 담화 의미로 쓰인다.

제주방언 ‘생’은 언제나 ‘이다’와 통합하여 보조형용사로 쓰이며, 이때 ‘추측, 짐작, 가정’의 담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았다.

양창용·김원보는 “제주어 ‘게’의 담화적 기능에 대한 고찰”(2013)에서 제주방언 ‘게’가 청유형 종결어미 ‘게’와 침사 ‘게’로 논의되는 관점에서 하나의 통사적 구조로 보고 있다. 이런 전제하에 ‘게’의 담화 기능을 도출하였다. 먼저 ‘게’는 ‘담화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상대방과의 거리 유지 및 체면 유지를 위한 공손의 언어 표현’이라는 기본 의미를 상징하였다. 여기에 담화 의미로는 ‘발화 행위지지, 담화 이어가기, 공감 표시’ 등이 있다고 보았다. 앞으로 ‘게’의 통사적 기능을 좀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

3. 제주방언 화용론 연구의 미래

제주방언 화용론 연구 현황에서 보듯이 이 분야는 아직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제주방언은 담화언어라는 관점이 있는데, 형태론과 통사론 영역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화용론 영역으로 넘어온다면 제주방언 연구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특히 제주방언 상과 양태는 화용론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향후 화용론적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한 주제는 조사(격조사, 보조사), 어미(연결어미, 종결어미), 보조용언, 시제, 상, 양태, 대우법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 강희숙(2011), “전남방언 담화 표지 고찰-종결 담화 표지를 중심으로”, pp.43-66.
- 김지홍 뒤침(2012), 노먼 페어클럽 저, 『담화분석방법-사회조사 연구를 위한 텍스트 분석』, 도서출판 경진.
- 김창집(1980), “제주도 방언의 첨사연구”, 『연구논총』 창간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우회, pp.27-38.
- 문순덕(2002), “제주 방언 보조조사의 담화 기능”, 『영주어문』 4, 영주어문학회, pp.71-84.
- 문순덕(2003), “제주방언 반말체 첨사의 담화기능”, 『영주어문』 5, 영주어문학회, pp.71-86.
- 문순덕(2005a), “제주방언의 간투표현”, 『한글』 269, 한글학회, pp.161-188.
- 문순덕(2005b), “제주방언 높임말 첨사의 담화 기능-마춤, 양/예를 중심으로”, 『언어연구』 20-3, 한국현대언어학회, pp.71-87.
- 문순덕·김원보(2012), “제주방언 담화표지 ‘계메’ 연구”, 『언어학연구』 17-1, 한국언어연구학회, pp.
- 문순덕·김원보(2013), “제주방언 ‘처레’와 ‘쟁’의 담화 의미”, 『언어학연구』 18-1, 한국언어연구학회, pp.75-88.
- 박지윤(2011), “경북방언 ‘인자’의 담화표지 실현 양상-중부방언 ‘인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화법연구』 18, pp.215-250.
- 양용준(2003), “제주방언에서 화행과 함축의 특성”, 『언어과학연구』 25, pp.155-178.
- 양용준(2004), “제주방언의 상과 화행에 대한 고찰”, 『언어학연구』 9-1, 한국언어연구학회, pp.95-116.
- 양창용(2009), “제주방언 ‘양’에 대한 통사·담화론적 고찰”, 『한국언어문학』 69, pp.5-28.
- 양창용·김원보(2013), “제주어 ‘계’의 담화적 기능에 대한 고찰”, 『언어와 언어학』, 한국외대 언어연구소. pp.143-163.
- 이기갑(2009), “동남 방언의 담화표지 ‘고마’”, 『우리말연구』 25, pp.41-77.
- 이기갑(2011), “서남방언의 대명사 ‘그 놈’과 ‘그것’의 담화 문법”, 『담화와 인지』 18-1, pp.79-99.

이성범 옮김(1996), Jacob L. Mey 저, 『화용론』, 한신문화사.

이익환·권경원 공역(1992), Stephen C. Levinson 저, 『화용론』, 한신문화사.

이효상(1993), “담화·화용론적 언어분석과 국어연구의 새 방향”, 『주시경학보』 11, pp.3-45.

제주방언 정책 연구, 현황과 과제

문 순 덕 (제주학연구센터장)

1. 서 론

20세기 후반에 인류의 다양한 문화의 소멸을 예견하면서 그 핵심에 놓인 언어의 소멸이 부각되었고, 언어가 소멸되면 인류의 문화자원도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언어의 소멸 요인과 소멸 언어들이 부각되면서 한국어와 지역어의 보존 방안 또한 관심을 받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한국어의 해외 전파를 위해 한국문화원과 한국어학당을 통해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지역어 정책으로는 자료구축 사업을 하는 정도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해당 지역어 보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의 힘과 언어의 힘은 서로 비례하며 커지므로,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국어나 지역어를 끊임없이 사용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어 정책은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물론 지역어를 보존하고 사용해야 하는 의무는 지역어 사용자들의 의무이긴 하지만 정부도 지역어 활성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그동안 국어 정책은 다양하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어의 가치를 등외시킨 표준어 정착에 집중한 결과 제주방언을 비롯한 지역어의 가치와 위상이 약화되었다.

제주방언의 우수성이나 가치에 대한 논의는 1950년대부터 국어학계의 주목을 받아왔으나 그동안 방언 연구자들의 관심 대상으로만 남아 있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영어공용어화 논의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정체성 문제가 부각되었고, 제주도에서는 제주방언의 가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즉 제주방언이 사회적으로 집중 조명을 받은 시기는 대략 1990년대부터이고,

200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언어 권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고 본다. 즉 제주사회에서 제주방언을 사회적 관심 대상으로 부각시키고, 정체성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최소한 이 시기 이후 제주방언이 정책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언어적 환경이 형성되었다.

특히 제주도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면서 외국어 상용 지역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고, 그에 따라 제주방언이 보존 대상으로 급부상하였다. 제주도라는 특정 지역에서 영어공용어화가 가능한지 여부가 논의되면서 제주 사람들의 정체성을 언어에서 찾으려고 했으며, 제주방언의 소멸 가능성이 거론되었다.

언어는 특정 지역에 맞게 진화해 온 문화적 경험의 결합체이므로 한 언어가 소멸된다면 그 언어의 낱말과 문법에 내포된 지식도 소멸되므로 자신의 언어를 잃게 되면 정체성을 상실하는 원인이 된다. 제주방언은 한국어의 원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위상에 비해 사용자의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준 것은 2010년 12월 유네스코에서 분류한 ‘제주어 소멸위기설’이다. 이에 제주사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제주방언의 보전과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소멸위기 언어로 부각되면서 제주방언의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실행되고 있다.

특히 제주방언의 소멸은 제주와 제주인의 정체성 상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제주방언 사용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제주방언을 사용하지 않아도 생존 문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제주방언을 정책적 연구 대상으로 삼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20년간 발표된 21편의 제주방언 정책 연구물을 분석하고, 3편의 정책보고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방언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자료, 제주방언의 교육적 가치와 목적에 따라 연구된 자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의 언어정책이 국어는 물론 지역어도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어의 위기 상황을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연구자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방언의 보전, 활용, 전승 측면을 다룬 연구물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 제주방언 정책 연구 현황

언어는 의사소통의 기능이 우선이다. 그런데 제주방언 화자들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상호교류를 위하여 제주방언을 반드시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국어가 있고 이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전파되는 등 제주방언을 대체하는 표준어가 있기 때문에 제주방언을 모르더라도 학교생활,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다. 말하자면 제주방언을 사용해야 하는 절박성이 없는 언어 환경이므로 제주방언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제주의 현실을 고려하면 제주방언 정책 연구의 주제는 대개 제주방언의 위상 강화, 보전 실태, 활성화 방안 등에 초점이 있다. 물론 발표지와 발표수행 기관의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연구자들은 전반적으로 제주방언이 학문적 논의의 대상을 벗어나서 현실에서 상용화되고, 교육에 접목해야 하며, 도내외에 전파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1) 제주방언 보전과 활용 관련 연구

여기서는 제주방언을 정책적으로 접근한 연구 자료는 가능하면 전부 다루고자 했다. 대체적으로 제주방언 보전을 위해 학문적 연구는 물론이고, 제주방언 화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제주방언을 적극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임을 알 수 있다. 연구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제주방언의 보전을 위하여 상용화 환경을 만들고, 대중적인 보급 방안을 고려하고, 제주방언 사용 구역을 정하는 등의 제안들이 보인다.

이기문은 “제주방언을 살리시다”(1992)에서 표준어 제정 이유와 학교교육을 통한 보급의 결과 방언의 위상이 약화되었다고 보았다. 특히 제주방언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제주도 교육기관에 제안하였다. 표준어 교육과 방언 교육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재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역사회 전체에 방언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교육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현평효는 “제주 방언의 보존 전승 방안”(1992a)와 “제주 방언의 보존 전승을 위하여”(1992b)에서 ‘제주방언의 문법적인 특징, 방언 자료조사, 제주방언 표기법 통

일안 제정’ 등을 소개하였다. 특히 제주방언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제주방언 화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방언을 문자로 기록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고재환은 “제일동포 제주어 보전실태”(1996)을 통해 제일교포 1세대 대상 제주방언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세대간에 방언차가 큰 점, 제주방언 사용 기회가 줄어들면서 필요성이 희박한 점을 들었고, 일부 음운은 잘 보존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사는 데는 제주방언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어(국어) 사용 기회도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어 전승 교육도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문순덕은 “제주방언의 보존과 활용 방안”(2003)에서 제주방언이 지역어로서 위상을 점검하고, 표준어에 비해 차별받는 사회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제주 사람들은 제주방언 사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주방언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을 통해 보급하는 방법, 문학작품으로 널리 알리는 방법은 물론 제주방언의 보존과 활용 방안 11가지를 제안하였다.

하웅천은 “제주방언의 위기 극복 방안”(2004)에서 방언의 위기로 6가지를 들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 방언 사용자들의 언어 모방 경향, 교통수단의 발달로 지리적 거리감이 축소됨에 따라 서로 다른 방언권 주민들의 상호 교류 증가, 젊은 세대의 도시로의 이동에 따른 지역 방언의 퇴보 경향, 방언사용 빈도가 높은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젊은 세의 방언사용 기피에 따른 노인 세대의 표준어 사용 의식 확산, 젊은 층의 방언사용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 등이 있다. 이러한 위기 환경을 극복하고 방언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활용, 문화콘텐츠화를 통한 관광 자원화, 방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탈피,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 등을 제안하였다.

문순덕은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제주어 2”(2004)와 “제주어의 국제적인 파워 3”(2006)에서 국내인 누구나 제주방언을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는 언어사용 환경을 조성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제주도 방문객들이 제주방언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주 사람들이 제주방언으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하였다.

오창명은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제주 토착어의 적극적인 활용”(2005)에서 국제화시대에 제주방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제주 문화를 정확하게 살리는 방

법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글쓰기를 통한 제주방언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고, 특히 문학작품(시, 소설 등), 광고(안내문), 현수막, 상호명 등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제주방언 표기가 곧 제주방언의 지속적인 전승으로 보았다.

부영주는 “제주방언의 보존 전승을 위한 언론의 역할”(2007)에서 제주방언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 제주사회와 제주민에게 긍정적인 힘을 부여한다고 보았다. 특히 이 글은 제주방언의 보존을 위해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최근 방송이나 드라마에서 각 지역의 방언을 희극화하고 있는 것은 방언 전승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다. 즉 제주지역 언론은 올바른 제주방언 사용을 위해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고정적인 기획 취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덧붙여 제주방언 전승을 위해 조례 제정을 제안하였다.

문순덕은 “제주방언의 자리매김”(2007a)에서 제주방언이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보존 대상으로 떠올랐음을 강조하고, 제주방언은 제주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보았다. 또한 제주방언의 연구 동향을 통해 조선시대 문헌자료에는 외지인들이 제주방언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제시하였으며, 제주방언 연구물과 자료집을 소개하고 있다.

문순덕은 “제주어의 어학적 가치와 보존방안”(2007b)에서 제주방언 활용 방안은 다른 글들과 공통적이며, 여기에 제주방언의 문법적 특징- 어휘, 문법-은 물론 표기의 중요성을 통해 그 위상과 보존 가치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문순덕은 “제주어의 문화정책 방안”(2008)을 통해 제주사회에서는 2002년 이후 제주방언 화자들이 언어 권리를 인식하고 주체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약 10년간 제주사회에서 추진되어 온 제주방언 활용 실태를 정리하였다. 향후 제주방언의 보존과 활용 방안으로 ‘제주방언 표기법 제정, 제주방언 교육과정 운영, 제주방언 활용’ 등을 들었다. 특히 지금까지 제주방언의 언어적 가치는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이를 전승할 수 있는 방안에 주력하자는 제안이 있다.

문순덕은 “제주방언의 보전 전략”(2010)에서 제주방언의 보전정책 현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언어정책, 전문가집단의 연구 현황, 제주방언의 보전 및 파급 활동’을 들고 있다. 제주방언의 보전 정책 전략으로는 방언보전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보전 정책으로는 제주방언의 위상 정립, 제주방언 활동가 양성, 방언 교육 환경 조성, 방언의 문자화(기록화) 등이 있다. 관련기관으로는 전문가 집단,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의 역할이 중

요하다고 보았다. 제주방언의 보전 및 과급 전략으로는 제주방언의 홍보와 확산 방안, 제주방언 경연 대회 활성화, 제주 문화자원의 방언 기록화 등이 있다고 보았다.

강정희는 “제주방언 연구의 생태 언어학적 가치”(2011)에서 제주방언의 보전에 생태학적으로 접근하여 제주사회와 제주방언 화자들의 역할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즉 자연과 환경 생태계 복원과 보전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데 제주방언 생태계 보전에는 무관심함을 지적하였다. 앞으로 제주방언이 지속적으로 보전되기 위하여 방언 조사와 연구자 지원, 토착 방언 화자 발굴 및 육성, 방언 교육 강화, 방언 문화 활성화, 지역 대중매체들의 방언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정희는 “소멸위기의 제주방언 보전을 위한 방언 활성화 방안”(2012)에서 소멸 위기의 제주방언 보전 방법으로 문화콘텐츠화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 제주방언이 문화콘텐츠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 작가 양성을 위한 방언 교육 실시, 지역 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문화콘텐츠화의 사례로 도로표지판에 마을의 옛 이름을 병기하고, 버스 승하차시 제주방언으로 안내하기, 마을 이름 학습용 낱말 카드 제작 등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제주방언 보전과 활용 방안을 잘 보여준다.

김순자는 “제주어의 보전과 활용 방안”(2011)에서 소멸위기의 언어(유네스코) 진단 과정, 제주지역어의 실태 조사 자료, 제주어 보전을 위한 정책, 제주어 보전 활동 현황 등을 제시하고 있다.

김세중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을 위한 제주어 육성 정책의 진단과 향후 과제”(2011)에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제주어의 육성 정책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제주어의 부활을 위하여 5가지를 제안하였다. 이는 제주어 사용자 대상 녹취와 보조교사로 활용, 제주어마을 또는 제주어박물관 건립, 학교 교육을 통해 제주어 교육 강화, 제주어능력시험 실시, 제주어를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및 보급 등이다.

문순덕은 “제주어의 활용과 보존 방안”(2011)에서 제주방언의 위상과 가치가 중요함은 지역사회의 공론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제주방언의 활용을 위해 방언 관련 자료집 목록을 제시하고 이와 같은 기록물 구축이 결국은 제주방언 보전의 한 방법임을 제안하였다.

양창용·양세정은 『소멸위기 언어보전 사례 분석을 통한 제주어(제주방언) 보전 방안』(2013)을 통해 외국의 소멸위기 언어 보존 사례를 통해 제주방언 보전 및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인디언 언어, 아이리쉬어, 카탈란어, 마오리어, 오키나와어’ 등을 분석하여 이 언어들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해당 언어 사용자들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해당 언어 사용자 수가 증가하면 세대 간 언어 전승이 진행됨을 분석하고, 특히 국제기구들이 소멸위기의 언어 보존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국제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언어 보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연구물을 보면 제주방언의 보전과 전승이 중요하다는데 연구자와 지역사회가 동의하는 것 같다. 제주방언의 지속가능한 전승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지 각 연구물마다 그 대안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행정기관, 교육기관, 지역 언론, 시민단체 등의 역할이 제안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제주방언을 모어로 인식하고 사용하려는 제주 사람들의 의지가 최우선 요소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정, 학교, 사회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제주방언을 대중적인 상품으로 만드는데 관광산업과 연계 가능성을 알 수 있다. 즉 제주방언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사회운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2) 제주방언 교육정책 관련 연구

앞에서 분석한 연구 현황을 보면 제주방언의 보전과 활용 주체로는 교육자와 학생의 역할 등 교육기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여기서는 제주방언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 현황을 보고자 하는데, 연구물이 아주 미미한 점이 아쉽다. 향후 교육 현장에서 방언 교육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교재개발, 교과과정 운영 방법, 지도지침서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오창명은 “方言과 국어교육”(2004)에서 국어 교육과 방언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제주방언 교육을 위해 소리와 문자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학교교육에서는 소리와 문자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제주방언의 모음과 자음 표기 기준을 소개하였다. 또한 제주방언이 적용된 문학작품(시, 소설, 동화)을 일부 분석하여 표기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제주방언이 창작활동에도 적용 가능함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다. 김동윤은 “현대 소설의 제주도방언 수용 양상과 그 과제”(1997)과 “제주도방언의 문학적 활용방안”(2000)에서 제주방언의 보전과 전승의 한 방법으로 문학작품에 수용되는 것을 들고 있다. 소설 창작에 제주방언을 사용한 제주 출신 작가인 최현식, 오성찬, 현기영, 현길언의 작품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제주방언을 문학에 적용하기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주방언이 여러 작가들이 쉽게 사용하려면 우선 작가들이 제주방언 사용에 자신을 가지고, 방언으로 표현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작품 창작에 적용할 수 있는 제주방언 표기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중적인 방언용례사전이 편찬되어야 한다, 방언으로 문학성을 높일 수 있는 창작이 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3) 제주방언 어문 정책과 실태조사 연구

제주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역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사례를 보면 우선 「제주어 보존 및 육성 조례」가 제정되었으며(2007. 09. 27. 제280호), 조례에는 ‘제주어 보존 계획 수립, 제주어 실태조사,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 운영, 제주어 보급과 교육’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제주어발전 기본계획」은 현재 2차 기본계획(2013~2017)이 수립·추진되고 있다.

이 조례에는 ‘제주어 주간’을 지정하여 매년 10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일주일간(탐라문화제 기간) 제주어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지원하에 제주방언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주로 1950년대부터 제주 설화를 채록하고 구술 상태로 표기를 시도했으며, 1980년대로 오면 채록과 정리자에 따라 제주방언 표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주방언 표기법’ 제정 요구가 있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구술자료의 채록·정리가 보편화되면서 제주방언 표기 문제가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제주방언은 우리들이 어린 시절부터 들어 왔거나 써 오던 말인데 표준어 교육과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사용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제주방언의 부흥을 위해 입말은 물론 글말(문자)을 대중화하기 위하여 올바른 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제주사회에서는 제주방언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제주방언을 문자로 기록화하는 표기 기준 마련이 요구되었다.

개인 연구자들은 각자의 언어학적 지식에 따라 제주방언 표기에 차이가 있으며, 이를 명시한 연구물로는 박용후(『제주방언연구(자료편)』,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8) ‘일러두기’, 송상조(『제주말큰사전』, 한국문화사, 2007) ‘일러두기’, 고재환(『제주어 개론 상』, 보고서, 2011)에 ‘제주어 표기법’ 등이 있다.

공동 연구물에도 제주방언 표기 관련 내용이 있다. 『제주설화집성(1)』(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에는 ‘제주어 표기법 시안’이 실려 있고, 이를 확장한 ‘제주어 표기법’이 『제주어사전』(제주도, 1995)에 부록으로 실려 있다.

제주학연구센터(제주발전연구원 부설 기관)에서는 2013년 『제주어 표기법』(제주특별자치도 고시-115호)을 제정 발표하였고, 2014년에는 『제주어 표기법 해설』을 발간 예정이다.

조례 제정 이외에 제주방언 정책 연구와 관련하여 실태 조사보고서가 있다.

『제주 지역어 생태지수 조사 보고서』(2008)을 보면 ‘농사 관련 어휘 86개, 제주 문화 관련 어휘 90개’를 선정하여 각각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즉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휘 목록을 제시하였다.

『제주도민의 제주어 사용 실태조사 보고서』(2010)은 제주방언 120개 항목을 선정하여 제주지역의 중·고등학생(4개교, 437명)을 대상으로 ‘제주어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특히 제주방언 교육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방언 어휘 인지도가 다르게 조사됨을 보여준다. 이 조사 결과 제주방언 보전과 활용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과제와 전망

언어는 의사소통 수단이며, 정보전달의 기능이 있고, 공기와 같아서 귀중하지만 그 가치를 망각해서 홀대하기 쉬운 대상이다. 그런 점에서 언어 보전 주체는 해당 언어 사용자이므로, 언어 사용이 지속화될 수 있도록 행정 기관과 일반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제주방언이 유네스코에서 2010년 12월 ‘소멸위기의 언어’(4단계)로 분류된 이후 제주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보전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2011년 이후 제주사회에서는 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방언 보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제주발전연구원 부설로 설립된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제주어 보전 및 관리 방안과 관련된 연구와 활용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제주어 표기법 제정, 제주어 기초어휘 선정, 제주어 대중 교재 발간’ 등 제주방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민간단체 중심으로 ‘제주어말하기 대회’ 등 제주방언의 상용화에 노력하고 있다. 언론계에서는 ‘제주방언 관련 기사, 캠페인, 퀴즈’ 등을 통해 제주방언 사용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예술인들은 제주방언을 활용하여 창작활동에 적용하고 있다.

기존 연구 성과를 통해 제주방언의 보존과 활용 방안은 일정 부분 윤곽이 드러났다. 연구물에 제안된 방법만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해도 제주방언의 부흥은 보장될 것이다. 그래도 향후 정책 연구 방향을 고려해 보면, 방언 정책이 단순히 방언만 이용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연구 분야가 협력하여 조사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제주방언의 사회운동화 방안

제주방언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시민사회교육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시민을 위한 방언 보급 정책 연구가 가능하다. 여기서 다양한 시민이란 제주 이주민, 외국인, 제주 거주자(이주와 정착 이전 단계), 국내외 방문객 등 수요자 측면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2) 행정기관의 언어정책 추진

제주방언 부흥 정책이 지속적으로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언어정책과 교육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3) IT산업과 협력체계 구축

참고문헌

- 강영봉(2013), “제주 사회 통합과 제주어”, 『탐라문화』 43,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pp.39-65.
- 강정희(2011), “제주방언 연구의 생태 언어학적 가치”, 『제주도연구』 36, 제주학회, pp.53-83.
- 강정희(2012), “소멸위기의 제주방언 보전을 위한 방언 활성화 방안”, 『영주어문』 23, 영주어문학회, pp.185-205.
- 고영진·임경화 옮김(2006), 이연숙 저, 『국어라는 사상』, 소명출판사.
- 고재환(1996), “재일동포 제주어 보전실태”, 『제주도』 100, pp.73-85.
- 국립국어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08), 『제주 지역어 생태지수 조사 보고서』.
- 김동윤(1997), “현대소설의 제주도방언 수용 양상과 그 과제”, 『탐라문화』 17집, pp.81-118.
- 김동윤(2000), “제주도방언의 문학적 활용방안”, 『탐라문화』 21, pp.209-227.
- 김세중(2011),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을 위한 제주어 육성 정책의 진단과 향후 과제”, 『제주도연구』 36, 제주학회, pp.35-52.
- 김수열(2007), “제주어 보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조례 제안”, 『제주문화예술정책 연구』, 제5집, 제주문화예술재단, pp.47-54.
- 김순자(2011), “제주어의 보전과 활용 방안” 『제주도연구』 36, 제주학회, pp.1-33.
- 문순덕(2003), “제주방언의 보존과 활용 방안”, 『영주어문』 제6집, 영주어문학회, pp.113-124.
- 문순덕(2004),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제주어 2”, 『제주도』 제108호, 제주도, pp.179-189.
- 문순덕(2006), “제주어의 국제적인 파워 3”, 『제주특별자치도』 110호, 제주특별자치도, pp.188-198.
- 문순덕(2007a), “제주방언의 자리매김”, 『제주특별자치도』 111호, 제주특별자치도, pp.266-272.
- 문순덕(2007b), “제주어의 어학적 가치와 보존방안”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제5집, 제주문화예술재단, pp.1-10.
- 문순덕(2008), “제주어의 문화정책 방안” 『제주발전연구』, 제12호, 제주발전연구원, pp.291-309.

- 문순덕(2010), “제주방언의 보전 전략”, 『영주어문』 19, 영주어문학회, pp.187-207.
- 문순덕(2011), “제주어의 활용과 보존 방안” 『제주발전포럼』 제37호(2011년 봄호), 제주발전연구원, pp.56-62.
- 문순덕(2012), 「제주어, 유네스코 절멸위기의 진단 이후 극복 방안」, 『JDI FOCUS』 149, 제주발전연구원.
- 문순덕(2014), “한국어의 세계화 정책이 제춧말 진흥 정책에 주는 시사점”, 『제주발전포럼』 제49호(2014년 봄호), 제주발전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0), 『제주도민의 제주어 사용 실태조사 보고서』.
- 부영주(2007), “제주방언의 보존 전승을 위한 언론의 역할”, 『백록논총』, 제9권 제2호 제주대학교사범대학·교육과학연구소, pp.133-141.
- 양창용·양세정(2013), 『소멸위기 언어보전 사례 분석을 통한 제주어(제주방언) 보전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오창명(2004), “方言과 국어교육”, 『백록어문』 제18·19집, 백록어문학회, pp.5-23.
- 오창명(2005),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제주 토착어의 적극적인 활용”, 『영주어문』 제10집, 영주어문학회, pp.5-27.
- 이기문(1992), “제주방언을 살립시다”, 『교육제주』, 78호, pp.23-29.
- 이연숙·고영진·조태린 옮김(2005), 미우라 노부타카·가스야 게이스케 엮음, 『언어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돌베개.
- 제주특별자치도(2012), 『제2차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
- 조태린(2010), “언어정책이란 무엇인가”, 『새국어생활』 20-2(여름호), 국립국어원, pp.117-131.
- 차윤정·장세룡(2012), “언어에 대한 시선과 로컬어 육성 전략-제주어와 브르타뉴어를 중심으로”, 『로컬리티 인문학』 8, pp.145-180.
- 하응천(2004), “제주방언의 위기 극복 방안”, 『언어학연구』 9-1, 한국언어연구학회, pp.87-94.
- 현평효(1992a), “제주 방언의 보존 전승 방안”, 『제주도』 92, pp.32-44.
- 현평효(1992b), “제주 방언의 보존 전승을 위하여”, 『북제주』 75, pp.260-268.

지 정 토 론

좌 장

- 이기석 (제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토론자

- 김원보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
- 우창현 (대구대학교 국제한국어교육과)
- 이기갑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오승훈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 양창용 (제주대학교 영어교육과)

“제주방언의 음운론 연구사 - ‘ㅇ’ 관련 업적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김 원 보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

본고는 ‘ㅇ’ 와 관련한 연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먼저 ‘ㅇ’에 관한 연구를 미시언어학적 연구와 거시언어학적 연구로 대별하였다.

그리고 미시언어학적 연구로 ‘ㅇ’ 에 대한 연구를 (1) 음성학적 연구와 (2) 음운론적 연구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음성학적 연구로는 주로 1900년대 초반에서 60년대 초반까지의 연구를 살펴본 (가) 문헌어와의 대비 속에서의 ‘ㅇ’와 60년대 중반이후 최근까지의 연구를 살펴본 (나) 독립된 제주방언 체계 속에서의 ‘ㅇ’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음운론적 연구로는 음운발달사적 관점에서 ‘ㅇ’음의 변화를 살핀 (가) 제주방언의 ‘ㅇ’와 통시음운론을 그리고 현재적 관점에서 ‘ㅇ’음의 변화를 살핀 (나) 제주방언의 ‘ㅇ’와 공시음운론 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거시언어학적 연구로는 언어 외적 요소와 내적 구조 사이의 상관성을 해명하는 데 목표를 둔 2000년대 이후의 연구로 그 수가 많지 않아서 10편 이내의 논문들을 분석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본고는 부제(‘ㅇ’ 관련 업적을 중심으로)가 달려있긴 하지만 “제주방언의 음운론 연구사”라는 제목에 걸맞게 다른 모음이나 자음 및 초분절음에 대한 분석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물론 제주방언이나 국어사에서 ‘ㅇ’음이 차지하는 지위나 비중을 고려하면 ‘ㅇ’음 하나만을 다루기에도 지면이나 시간이 부족했을 법하다.

그러나 제주방언의 주요특징 중 하나인 [e]와 대비를 이루는 [æ](배(ship)-베(rope)/메(rice)-매(thresh)/매(meal time)-때(dirt))음에 대한 연구를 다루지 않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더 나아가 이중모음 [으]와 내[wɛ](외갓집-왜놈)도 제주방언 특징 중 하나임에도 이에 대한 연구 분석 역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제주방언의 자음이나 성조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아쉽다.

물론 제주방언의 자음이나 성조에 대한 연구가 모음에 대한 연구에 비하면 매우 미흡하다.

그러나 제주방언의 음운론 연구사라는 제목에 충실하려면 자음에 대한 연구와 초분절적 요소인 성조에 대한 연구 분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형태론의 연구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편

우 창 현 (대구대학교 국제한국어교육과 교수)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주방언의 파생, 합성 등 단어 형성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여 격조사, 특수조사까지 형태론 전반에 걸친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하시면서 제주 방언 형태론에 대한 연구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를 살피시고 또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까지 제시해주셨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다양한 기존 논의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방언에 대해 연구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제주 방언에 대한 문법 체계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듯싶습니다. 즉 방언의 개별 주제에 대한 연구 전에 표준적인 방언 문법의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듯싶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연구가 연구자에 따라 사용하는 문법 용어도 다르고 또 문법 범주도 다르게 보는 경우들이 있어 왔다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향후 방언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혹은 방언 교육 등을 위한 표준적인 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후치사’나 ‘접속 접미사(연결 접미사)’ 등을 별도의 문법 범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듯싶습니다. 즉 방언 문법을 기술하거나 설명하는데 격조사나 보조사 이외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후치사’나 ‘접속 접미사’를 별도의 문법 범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외 ‘여동격, 열거격, 방위격, 지정격’ 등도 같은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각각의 문법 범주에 해당하는 다양한 형태들을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예를 들어 ‘주격조사’에 ‘에서(이서), 냥’ 등을 포함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해당 문법 범주의 문법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접미사를 구분함에 있어 그 기준을 명사형, 동사형 등 어떤 품사를 생성하느냐 하는 것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대왓, 보리왓’ 등을 ‘ㅂ’ 탈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혹은 불규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등 정밀하게 기술해야 할 부분에 대한 논의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주 방언 통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이 기 갑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 논문은 제주 방언의 조사, 대우법 체계, 종결어미, 시상 형태, 인용문 구성 등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간단히 언급하면서 필자 나름의 생각과 앞으로의 연구가 문제 삼아야 할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 방언은 한반도의 육지 방언과는 그 양상이 매우 달라, 토박이의 직관이 없다면 쉽사리 접근하기 어려운 언어이다. 따라서 제주 방언에 대한 지식과 직관이 거의 없는 본 토론자가 토박이 학자의 견해를 비판하거나 문제를 지적할 상황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몇 가지 질문을 던져 이 논문에 대한 토론의 거리로 삼고자 한다.

(1) 제주 방언의 주격 조사 ‘라’나 ‘레’를 계사 ‘이라’에서 왔을 가능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런 구문을 해당 사례들에 모두 복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사로부터 이 격표지를 유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법화(계사의 활용형에서 격표지로의 변화)는 어떤 환경에서 일어난 변화가 다른 환경으로 확대되어 고착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므로, 모든 환경에서 문법화된 형태를 문법화 이전의 형태로 완전히 복원시킬 수 있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옛말 예문에 ‘내 집이 깊고 깊혀 뉘라셔 츠글손야’(해동가요 시조)와 같이 의문사에 ‘라셔’가 붙은 ‘뉘라셔’와 같은 예가 아마도 주격 표지로의 변화가 일어난 단초가 아닐까 한다.

(2) 처격 조사 ‘에’와 ‘의/이’가 구별되는 것은 옳다고 본다. ‘의/이’는 아마도 중세의 처격 조사 ‘의/의’와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결합되는 명사의 종류에서도 상당히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이에 대한 연구자의 견해는 어떠한가?

(3) 각주 (29)에서 ‘사름의 즈석’과 ‘그 사름 즈석’에서 전자가 동격, 후자는 관형격 구성이라 하였다. 혹시 관형격 구성에서 ‘그 사름의 즈석’과 같은 예는 불가능한 것인가? 본 토론자 생각으로는 동격 구성과 관형격 구성에는 ‘그 사름’과 같은 명사의 한정성이 의미적으로 관여하는 듯하기 때문이다.

(4) ‘입엿거’, ‘우틓물’처럼 처격 조사 다음에 사이시옷이 결합하는 구성은 중세어의 화석으로 보인다. 전남방언에서도 같은 구성이 허용된다. 전남방언에서는 이 밖에도 완형보문과 보문명사의 결합, 예를 들어 ‘어디 가랏 소리여.’와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 물론 이때의 보문명사는 ‘말’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적 제약이 있기는 한데, 제주방언에서도 이러한 사이시옷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그리고 ‘입엿거’나 ‘우틓물’을 합성어로 취급한다면, 합성어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이러한 막강한 생산력을 과연 합성어에 부여해야 할까?

(5) 화용 침사를 분류하여, 주의력 초점 침사, 수용 촉구 침사, 판단 제시 요구 침사의 세 종류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예를 보면 ‘마씀’이 이 세 부류에 모두 포함되었다. 아마도 ‘마씀’에 얹히는 운율적 요소의 도움을 받아 세 가지의 기능을 각각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하나의 형태 ‘마씀’이 수행하는 세 가지 화용적 기능은 운율이 맡는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6) 종결어미의 대우 체계에서 비격식투는 격식투에 비해 명령과 청유가 없다. 왜 그런가? 그리고 표에는 비격식투에는 회상시제와 결합된 형태가 없다. 실제 없는 것인지, 단순히 표에서 빠진 것인지 궁금하다.

(7) 비격식투의 ‘-수-’와 ‘-우-’의 변이 조건은 선행음절 끝소리가 자음인지 모음인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자음 뒤에 ‘-수-’ 대신 ‘-으우-’도 가능하다. 이것은 애초에 ‘-수/우-’의 변이가 ‘-우/으우-’로 단일화해 가는 변화의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변화가 표준말의 ‘하오체’ 어미 ‘-소’와 ‘-오’에서도 확인된다. 즉 표준어에서도 자음 다음에서는 ‘-소’와 ‘-으오’가 수의적으로 변이하기 때문이다. 같은 종류의 변화가 전남방언에서도 나타나 ‘하오체’의 전남방언형 ‘하요체’에서는 ‘-소/요/으요’가 쓰인다. 연구자의 생각은?

(8) 비격식투의 ‘-수-’가 ‘-소이다 > -쉐다 > -수다’로 변한 것으로 보았다. 제주 방언의 음운론에서 ‘쉐 > 수’의 변화를 지지하는 예가 또 있는지 궁금하다.

(9) ‘그 사람 왔어’에 융합이 일어나 ‘그 사람 왔어라’가 되면 ‘왔어’가 회상시제로 바뀐다고 설명하였다. 종결어미의 융합이 일어난 다른 방언에서 과연 제주방언 처럼 애초의 어미가 시제요소로 바뀐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다. 표준어에서 회상시제의 선어말어미 ‘-더-’는 과거의 선어말어미보다 더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제주방언에서는 이것이 융합에 의해 후대에 생겨났다고 가정해야 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제주방언의 어휘의미론’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오 승 훈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1. 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

1) 어휘의미론

☐ 기존 연구 및 과제

- 제주방언에서의 어휘의미론 연구 유형
 - 개별 어휘의 국어사적 연구(공시대의 기원 규명을 위한 연구)
 - 개별 어휘의 어형 분석 연구
 - 해녀집단의 어휘, 지명 조사 연구 등(어휘의 ‘체계’를 고려한 연구)
- 어휘의미론 분야의 과제로 선행연구의 논리적 불투명성 제거, 입론 근거 보완의 필요성 등을 과제로 제시함.

<의견>

- 어휘 의미 연구는 ‘체계’를 염두에 둔 것이어야 함.
 - 단어(낱말)에 대해 어휘는 ‘체계’를 고려한 개념이라는 특징이 있음.
- 어휘들의 공존 관계, 대립 체계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봄.

☐ 자료 수집과 사전 편찬(기존 자료와 사전, 과제)

- 기존 방언 자료 수집과 사전 편찬 업적에 대해 개괄함.
- 수집된 자료와 편찬된 사전들에서 발견되는 어형의 신빙성 문제, 표기의 비밀관성, 실제 사용어휘의 누락 등 그 한계를 제시함.

2) 문장의미론

☐ 선행연구의 대상

- 격조사
- 개별 어휘에서 보이는 어간과 어미 교체의 특수성
- 종결어미와 연결어미
- 보조용언, 보조사, 첨사
- 부정 표현
- 때가림소

☐ 과제

- 고로(古老)들로부터 얻은 문장을 연구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논항 구조 개념을 도입한 문장의미론(통사의미론) 연구에 대한 기대 표명

<의견>

- 선행 연구 업적으로 제시된 연구들이 문장의미론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 극히 한정된 대상에 대한 논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연구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3) 화용론

- 보조사, 첨사에 대한 화용론적 연구 사례를 요약, 제시함.
- 화용론 분야를 아직 연구의 초보적인 단계라 평가함.

<의견>

- 과제에 대하여
 - 제주방언 화자들의 간접화행 수행 양상 연구 필요
 - 의사소통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제주방언 화자들의 담화전략 연구 필요
- 과제 제시의 의미
 - 제주방언을 부려 쓰는 사람들의 인생관, 타자를 대하는 태도, 세계관 등과 아울러 특유의 의사소통 방식을 읽어낼 수 있음.

4) 결론

- 발표자는 제주방언의 어휘론적 연구와 자료 수립을 통한 사전 편찬 등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기초적인 방언 조사 방법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연구 업적 축적이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의 활성화를 바랍.

<의견>

- 내용 전체를 관통하는 발표자의 일관된 생각은 연구 수행에 있어 ‘기본’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연구 및 방언 조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의 결핍에 대한 경계인 것으로 판단됨.

2. 질 문

- 발표문 제2장 제2절에서 제주방언 자료집과 사전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정확한 어형 정리, 온전한 의미 규정의 필요성을 언급함.
- 위와 관련하여 『제주어사전』(1995), 『개정증보 제주어사전』(2009)의 경우 선학과 후학 간 조사 방법의 차이로 어형과 의미의 신빙성에 문제를 남겼다고 기술되어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사 방법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음.

‘제주방언 화용론 연구의 현황과 과제’ 토론문

양 창 용 (제주대학교 영어교육과)

제주라는 지역적 경계에서 사용되는 제주어는 그 나름의 언어적 독자성을 갖고 있는 언어로 간주되고 있다. 이전의 많은 연구에서 제주어는 어휘적, 음성-음운, 형태-통사적으로 그 독자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제주어의 어휘의 많은 부분이 표준어와는 달라 ‘제주어 사전’으로 정리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통사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어말 어미는 제주어를 표준 한국어와 구별하는 또 하나의 특징이다.

더 나아가 언어 간 상호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제주어의 언어학적 독자성은 분명해진다. 표준 한국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의 제주어에 대한 이해 정도는 극히 낮아 원활한 대화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나름의 언어적 독자성을 갖고 있는 제주어는 구전되어 오는 언어로서 구어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구어적 특징을 지닌 제주어는 의사소통 혹은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화자와 청자 간의 긴밀한 협력(cooperation)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즉 주어진 언어 환경에서 화자와 청자가 사용하는 언어는 언어 환경을 둘러싼 맥락(context)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주어진 맥락에서 언어의 형식과 사용의 관계를 연구하는 언어 연구 분야를 화용론(pragmatics)이라고 할 때 제주어에 대한 화용적 탐구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발표자는 앞선 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 발표자가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제주어에 대한 담화, 화용적 연구는 아직 초보 단계라 할 수 있다.

발표자가 검토하고 있는 이전 연구는 ‘화행에 대한 개관’, 그리고 몇몇 ‘담화 표

시어’의 담화적 역할에 대한 개괄적 검토를 제공하고 있다. 발표자의 내용에 추가하자면, 이전의 연구는 단편적이고 텍스트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관련된 추가적 연구가 폭 넓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담화, 화용론 학자들은 언어는 화자가 의도를 전달하고, 청자가 그 의도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언어 자체의 원리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전제한다.

사람들이 의사소통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어떻게 순서가 이해되고, 어떻게 대화가 시작되고 끝나는지, 어떻게 사회적 관계가 인식되고, 그리고 어떻게 공손 정도, 친숙 정도 그리고 의미적 함의 관계가 전달되는지에 대한 언어 내적 규칙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된 언어 내적 규칙을 탐구하는 것이 담화, 화용의 기본 방향이라고 할 때 제주어의 연구 방향이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발표자가 제시한 화용론의 연구 방향에 몇 가지를 추가해 보면,

- 1) 우선 제주어가 갖고 있는 구어적 특성을 폭넓게 탐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 상호작용적 담화를 진행하기 위해 제주어에서 사용되는 독특한 언어 기제는 무엇인가?
- 3) 많은 제주어 관련 연구가 제주어의 의미적 특성을 탐구에 머물고 있다. 보존적 측면에서 사라지는 제주어의 화용적 의미 규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한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문맥 속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주방언 정책 연구, 현황과 과제” 토론문

김 원 보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

본고는 제주방언을 정책적 연구 대상으로 삼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20년간 발표된 21편의 제주방언 정책 연구물과 3편의 정책보고서를 분석하였다.

본고는 크게 (1) 제주방언 보전과 활용 관련 연구, 2) 제주방언 교육정책 관련 연구, 3) 제주방언 어문 정책과 실태조사 연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010년 12월 제주방언이 유네스코에서 ‘소멸위기의 언어’(4단계)로 분류된 이후 제주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예로 제주발전연구원 부설로 설립된 <제주학연구센터>가 설립되어 ‘제주어 표기법 제정, 제주어 기초어휘 선정, 제주어 대중 교재 발간’ 등 제주방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는 ‘제주어말하기 대회’ 등 제주방언의 상용화에 노력하고 있다. 언론계에서는 ‘제주방언 관련 기사, 캠페인, 퀴즈’ 등을 통해 제주방언 사용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예술인들은 창작활동에 제주방언을 활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본고는 제주방언의 정책연구에 대한 기존연구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음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기존연구의 한계나 문제점 및 향후 민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대안이나 제언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은 아쉽다. 그리고 최근 제주도에 육지부에서 점차적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제주어를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별성 문제에 대한 고민도 언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제주도가 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제주방언활용과 보전에 대한 성과는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제주방언 보전 노력과 관련된 최근 제주도의 최대치적이라 할 수 있는 제주학연구센터를 예로 들어보자. 제주학연구센터의 설립은 제주도가 제주방언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높이 평가되어 마땅하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센터의 규모가 제주방언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연구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과연 제주방언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제주방언(언어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유자를 몇 명이나 확보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무늬만 센터이고 하나의 부서나 다름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제주도가 제주어의 소멸위기를 직감하고 있으면 최선의 방안은 궁극적으로 제주학 연구센터를 독립기관으로 분리시켜 제주방언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제주어의 활용과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제주어뿐만 아니라 제주의 민요, 굿의 사설 등 제주어와 밀접하게 관련된 다른 분야의 연구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확대 개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가 제주어의 보존을 위해 제한된 예산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노력 자체가 일반도민들이나 제주방언 연구를 하는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못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다.

